익산문헌자료총서 1

금마지 金馬志

익산의 역사와 문화를 담다

남태보 편저
이의강 외 역

익산시

금마지

이 책은 2018년도 전라북도 익산시의 재원으로 이루어진
‘익산 금마지 고문서 역주 학술용역’의 결과물임.

일러두기

1. 이 책은 《익산문화》 제2집에 영인하여 수록한 《금마지(金馬志)》를 번역 대본으로 하였다. 대본의 오자와 탈자를 바로잡기 위해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금마지》(奎 12716)를 참고하였다.
2. 번역 대본의 원문에 대하여 표점·교감한 뒤 책의 뒤에 일괄 수록하여 번역문과 원문을 대조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번역 대본의 원본 이미지를 책의 뒤에 영인 첨부하여 후속 연구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4. 저자의 원주는 소자(小字) 2행의 간주(間註)이나 편집의 편의를 위하여 소자 1행의 간주로 번역하였으며, 번역자의 역주는 각주(脚註)로 처리하였다.
5.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6. 이 책의 번역문에서 사용한 부호는 다음과 같다.

   ( ) : 번역문과 음이 같은 한자를 묶는다.

   [ ] : 번역문과 뜻은 같으나 음이 다른 한자를 묶는다.

   “ ” : 대화 등의 인용문을 묶는다.

   ‘ ’ : “ ” 안의 재인용 또는 강조 부분을 묶는다.

   「 」 : ‘ ’ 안의 재인용 부분을 묶는다.

   《 》 : 책명 및 각주의 전거(典據)를 묶는다.

   〈 〉 : 책의 편명 및 운문·산문의 제목을 묶는다.

일러두기 | 4
해제 | 11

국역 | 원문

금마지 상권

고을 이름[邑號] 39 | 231
건치연혁(建置沿革) 39 | 231
강역(疆域) 40 | 231
거리[程途] 40 | 231
관원(官員) 41 | 232
진관(鎭管)의 겸대(兼帶) 41 | 232
파수(把守)하는 진영(鎭營) 42 | 232
성씨(姓氏) 43 | 233
풍속(風俗) 44 | 233
기후(氣候) 45 | 233
형승(形勝) 46 | 234
산천(山川) 46 | 234
아름다운 경치[佳景] 49 | 235

기이한 볼거리[奇觀] 50 | 236
지역 특산물[土産] 50 | 236
과목(果木) 51 | 236
화목(花木) 51 | 236
우물[泉井] 52 | 236
약재(藥材) 52 | 237
관장하는 면[掌面] 53 | 237
관청 건물[館舍] 54 | 237
관아의 부속 건물[各廳] 55 | 238
누정[亭榭] 56 | 238
학교(學校) 57 | 238
사묘(祠廟) 58 | 239
원우(院宇) 59 | 239
사찰(寺刹) 59 | 239
교량(橋梁) 61 | 240
고적(古蹟) 62 | 241
호구(戶口) 66 | 242
유림(儒林) 66 | 242
무반(武班) 67 | 242
고을에 딸린 비장[邑裨] 68 | 243
군역 총수[軍總] 69 | 243
모속(募屬) 74 | 244
향임(鄕任) 75 | 244
관속(官屬) 75 | 245
공천(公賤) 76 | 245

세금 부과 농지[田結] 76 | 245
조세(租稅) 76 | 245
요역(徭役) 78 | 246
면세(免稅) 79 | 246
복호(復戶) 80 | 246
관아 소유 농지[官田] 81 | 247
영둔(營屯) 82 | 247
제언(堤堰) 82 | 247
방보(防洑) 83 | 247
연못[池塘] 85 | 248
평작(坪作) 86 | 248
진상(進上) 87 | 249
분정(分定) 89 | 250
구청(求請) 90 | 250
공물(貢物) 91 | 250
창고(倉庫) 91 | 251
창고 곡식[倉穀] 92 | 251
여러 가축[雜畜] 93 | 251
장시(場市) 93 | 252
수공업자[工匠] 93 | 252
군기(軍器) 94 | 252
서적 목판[書板] 99 | 253
서적(書籍) 99 | 253
명환(名宦) 105 | 254
인물(人物) 106 | 255

문과(文科) 급제자 111 | 256
무과(武科) 급제자 114 | 257
생원·진사[生進] 합격자 118 | 258
음사(蔭仕) 123 | 260
충신(忠臣) 127 | 261
효자(孝子) 129 | 261
열녀(烈女) 135 | 263
능묘(陵墓) 138 | 265

금마지 하권

마한(馬韓)의 흥폐(廢興) 143 | 269
마한(馬韓)의 고사(古事) 151 | 272
금마(金馬)의 유사(遺事) 153 | 273
향리기언(鄕里記言) 154 | 274
제영(題詠) 181 | 286
익산회고(益山懷古) 181 | 286
기준성(箕準城) 183 | 286
기준성 작품에 차운(次韻)하다 183 | 286
객관(客館) 184 | 287
객관(客館) 작품에 차운하여 184 | 287
청심루(淸心樓) 185 | 288
청심루(淸心樓) 185 | 288
익산을 지나는 길에[益山途中] 186 | 288

익산회고(益山懷古) 186 | 289
미륵사(彌勒寺) 187 | 289
미륵사(彌勒寺) 188 | 289
미륵사를 지나며 188 | 290
미륵사의 석탑 189 | 290
미륵탑에 적다[題彌勒塔] 189 | 290
금마(金馬) 190 | 291
오금암(五金菴) 191 | 291
은선암에 놀러 가서[遊隱仙菴] 191 | 291
곶절 앞의 너럭바위에서 놀며[遊串寺前盤石] 193 | 292
판교천 가에서 놀다[遊板橋川上] 194 | 293
눈 온 뒤 왕궁탑을 바라보며[雪後望王宮塔] 196 | 294
퇴휴당(退休堂) 병서(幷序) 197 | 294
퇴휴당(退休堂) 198 | 295
퇴휴당(退休堂) 200 | 295
앞 시에 차운하여 200 | 296
쌍봉에 올라[登雙峯] 201 | 296
두제천 가에서 놀며[遊斗堤川上] 202 | 296
십 리에 핀 홍련의 장연[十里紅蓮長淵] 202 | 297
남촌서원(南村書院)에 적다 203 | 297
잡저(雜著) 203 | 297
청심루기(淸心樓記) 203 | 297
동헌중수기(東軒重修記) 204 | 298
훈지당기(壎篪堂記) 210 | 300
화산서원(華山書院) 상량문(上梁文) 214 | 302

금마지 발문 金馬志跋文 222 | 305

추가로 기록한 내용 追錄 224 | 306
금마군 객사 벽 위에 적다[題金馬郡壁上] 224 | 306
위의 시를 차운하고 서문을 붙이다[次 幷序] 225 | 306

영인본 | 307

찾아보기 | 387

해제

서산 남태보의 《금마지(金馬志)》

전 익산고등학교장 | 임홍락

1. 남태보의 생애[1]

남태보(南泰普, 1694~1773)는 의령 남씨 충간공(忠簡公) 부정공파 18세손으로, 그의 자는 숙도(叔燾)이고, 호는 서산(西山)인데 아버지 의빈도사(儀賓都事) 남근명(南近明)의 첫째 아들로 숙종 20년(1694)에 출생하였다. 의령 남씨 가문 중 그의 직계가계는 과거 합격자 및 관직 진출자가 가장 많이 나온 집안이었다. 즉, 그의 8대조 남세건(南世健)이 중종 19년(1524)에 문과에 급제하여 대사성과 육조의 참판을 역임한 이래, 7대조 남응운(南應雲)과 5대조 남이신(南以信), 고조 남두첨(南斗瞻), 증조 남훤(南翬)이 모두 문과에 급제하고 중요한 요직을 역임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 중 4명의 동생 태기(泰耆), 태계(泰堦), 태회(泰會), 태저(泰著)가 모두 문과에 급제하는 등 당시 손꼽히는 가문이었다.

그는 영조 11년(1735)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영조 24년(1748)에 음서로 군위 현감에 부임하였다. 현감으로 부임한 그는 아사(衙舍)를 중

1 남태보(南泰普)의 행적에 대해서는 행장이나 문집이 전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의령남씨족보》, 《금마지(金馬志)》, 《적라지(赤羅誌)》, 그리고 《매호유고(梅湖遺稿)》 등에 수록된 단편적인 관련 기록들을 모아서 정리하였다.

건하고, 농사를 장려하기 위해 준희루(峻喜樓)를 지었으며, 현내(縣內)에 7개의 서당을 창건하여[2] 흥학(興學)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등 선정을 베풀었다. 그리고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한 고을에 지지(地志)가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어 군위현의 선비 홍승(洪昇)이 모은 자료에 여러 가지 것들을 더하여 군위 읍지(邑誌)인 《적라지(赤羅誌)》 1, 2권을 영조 29년(1753)에 편찬하였다.[3]

이러한 남태보의 활동은 당시 영남 암행어사 이득종(李得宗)에게 알려져 임금에게 순리(循吏)[4]로 보고되었는데, 그 결과 특별히 승서(陞敍)하라는 왕명[5]에 의해 영조 30년(1754) 8월에 승진하여 익산 군수로 부임하였다.

하지만 당시 익산군은 관아가 화재로 불타 버려 전 군수인 어사적(魚史績)이 파직되어 떠나간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6] 이 같은 상황 속에 새로 부임한 그에게는 객사를 비롯한 관아의 새로운 중건과 군내의 각종 현황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였을

---

2 《적라지》 국역본, 군위문화원, 1996. 31번 항목인 유림(儒林) 조에 칠탄(七灘), 죽리(竹里), 송호(松湖), 녹동(鹿洞), 관곡(官谷), 병암(屛巖), 양정(養正) 등의 서당(書堂) 7곳이 수록되어 있는데, 칠탄과 송호, 관곡서당의 상량문을 현감인 남태보가 직접 지었다. 진사 유서오(柳敍五)가 쓴 양정숙기(養正塾記)에 "남 현감이 부임하여 고을 내에 서당을 창건한 것이 일곱 곳으로, 이 서당도 그중 하나이다."라는 내용이 있다.

3 위의 《적라지》 172쪽의 남태보가 지은 발문(跋文)을 참조하였다.

4 순리(循吏)는 공무를 중히 여기고, 법을 잘 지켜 백성들을 위하는 관리를 말한다.

5 《영조실록》 29년(1753) 4월 2일조에 "군위 현감 남태보는 수령칠사(守令七事)를 잘 거행하였고 또 양리(良吏)를 본받은 뜻이 있으니 특별히 승서(陞叙)하라."라는 왕명이 내려졌다.

6 《금마지》 하권, 향리기언(鄕里記言) 항목 중 군수 남태보의 글 참조.

것이다. 그 결과 그는 61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노력으로 객사를 비롯한 관아를 부임 1년 만에 완공하여 낙성식(落成式)을 하였다. 그리고 전임지 군위의 《적라지》를 편찬한 경험을 살려 《금마지》를 부임 2년 만인 영조 32년(1756)에 편찬하였다.[7]

이후 관아의 중건과 아울러 군(郡)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한 군수 남태보는 청렴하고, 애민(愛民)하는 수령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영조 35년(1759) 직임(職任)를 다하고 익산 고을을 떠날 때에는 고을의 백성들이 울면서 이별을 서러워했다. 이 소문을 듣고 감동한 친구인 석북(石北) 신광수(申光洙)는 〈금마별가(金馬別歌)〉 32수를 지어 남태보를 칭찬하였다.[8]

익산을 떠난 남태보는 잠시 환로(宦路)를 벗어나 고향 양근(楊根)의 전원 속에서 안분지족(安分知足)하며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9] 그러다가 이후 울산 부사로 승진 부임하여 고려 시대 진화의 시문집인 《매호유고(梅湖遺稿)》를 족보에서 분리하고, 여러 문헌 중에서 긴요하게

---

7 《금마지》 상권의 첫째 장에는 군수 남태보 찬(撰)이라 쓰여 있으며, 하권 말미에도 숭정 기원후 129년 병자년(1756)에 남태보가 편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8 이기현, 〈석북 신광수의 금마별가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17집, 1994, 125~127쪽에 의하면 석북(石北) 신광수(申光洙)와 남태보는 평상시 교분이 있었으며, 특히 영조 33년(1757)에 지은 시에서는 남태보가 익산 군수로 선정을 베푸는 광경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다. 또한 석북 신광수는 〈금마별가(金馬別歌)〉의 서문에서 '남태보의 치적이 양호(兩湖)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면서 자신이 민의(民意)를 대변하여 〈금마별가〉를 지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9 이기현, 위의 논문, 126쪽에 의하면 석북 신광수는 남태보가 고향인 양근에 정착하여 아들인 헌로(憲老)와 함께 안분지족하며 살았음을 노래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귀거래한 후 4년째 되는 해에 신광수가 남태보의 요산요수(樂山樂水)하면서 사는 모습을 그린 시(詩)가 있어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렀음을 알 수 있다.

증빙할 만한 기록들을 뽑아 보완하여 영조 48년(1772)에 《매호유고》를 발간하여 그 전후 사정을 서문에서 밝히고,[10] 다음 해인 영조 49년(1773)에 80세로 생애를 마쳤다.

2. 《금마지》의 체재 구성과 내용

1) 《금마지》의 체재

《금마지(金馬志)》는 영조 32년(1756)에 당시 익산 군수였던 남태보(南泰普)에 의해 편찬되어 필사본으로 전해 오는 책이다. 이 《금마지》는 상·하 2권으로 되어 있는데, 번역에 활용한 대본은 《익산문화》 2집에 부록으로 실은 영인본[11]과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필사본[12]으로 양자를 대조 교감하며 강독을 거친 뒤 번역하였다.[1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태보는 3년간의 차이를 두고 군위현의 읍

---

10 한국고전번역원, 《매호유고(梅湖遺稿)》, 2013, 32쪽.

11 익산고적선양회, 《익산문화》 2집이 1992년에 발간되었는데, 이 책의 부록으로 영인된 《금마지》는 개인이 소장하였던 책인데 상권 38쪽, 하권 40쪽(총 78쪽)을 세필(細筆)로 썼다. 이 영인본이 필사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책의 표지에 정묘(丁卯)년이라고 적어 놓아 확실치 않으나 1867년이나 1927년 일제강점기가 아닐까 한다.

12 남태보에 의해 쓰인 《금마지》 원본은 확인되지 않고 필사본만이 전하는데, 이 규장각본은 총 136쪽으로 상·하권 각기 68쪽이며, 일제강점기에 펜으로 필사된 것으로 보인다.

13 《금마지》 강독은 2016년 9월 8일부터 매월 두 차례씩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홍승재 교수 연구실에서 한문교육과 이의강 교수의 지도 아래 2018년 1월까지 실시하여 마친 바 있는데, 이 두 대본을 대조 교감하며 강독하였다.

지인 《적라지》와 익산군 읍지인 《금마지》를 편찬하였다. 지역은 다르지만 시기적으로 짧은 간격을 두고 동일한 수령에 의해서 편찬된 이들 두 읍지의 체제상의 특기할 만한 공통점으로는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읍지의 이름으로 당시 사용하던 고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군위현 읍지를 편찬하면서는 신라 때 사용했다고 전하는 '적라(赤羅)'라는 이름을 사용하였고,[14] 익산군 읍지를 편찬하면서는 당시 불리던 군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통일신라 때부터 사용된 고을 이름인 '금마(金馬)'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15] 둘째는 《적라지》는 1, 2권으로 편찬하고, 1권에서는 주로 지역의 현황을 다루었는데, 항목 수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금마지》 또한 상·하권으로 나누어 편찬하였고 상권에는 주로 지역의 현황을 서술하였다는 점이다. 셋째는 《적라지》 1권은 67개 항목으로, 《금마지》 상권은 71개 항목으로 각각 나누어져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두 읍지의 항목의 배열 순서가 거의 같고, 각 항목별로 내용을 기록하는 방식이 거의 유사하다는 점이다.[16] 하지만 《적라지》 2권이나 《금마지》 하권은 완전히 다른 체제

---

14 《적라지》 권제1 읍호(邑號)에 "경주가 나라의 서울일 때 벼슬하는 사람들이 이 고을에 많이 살았다. 벼슬하는 사람은 붉은 옷의 도포를 입어 백성의 옷 빛과 구별하였는데, 고을 이름을 이로써 비롯하여 '적라(赤羅)'라고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15 《삼국사기(三國史記)》 권제8 신문왕 4년조에 "'금마저(金馬渚)'로 불리었던 이 지역에서 안승의 족자인 대문이 모반하여 죽임을 당하였는데, 그 여당들이 관리를 죽이고 고을에서 웅거하므로 신문왕이 군사를 동원하여 이를 함락시키고, 그 고을 사람들을 남쪽의 주와 군으로 옮기고 그 땅을 '금마군(金馬郡)'으로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금마군(金馬郡)'이라는 이름이 통일신라 초기부터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6 《금마지》에는 기관(奇觀), 천정(泉井), 정사(亭榭), 원우(院宇), 면세(免稅), 영둔(營屯), 평작(平作) 등의 7항목이 《적라지》에 비해 다르거나 추가되었고, 《적라지》에는 폐현(廢縣), 봉수(烽燧), 누정(樓亭), 역원(驛院), 원호(員號), 사실(事實) 등의 6항목

로 편찬되어 있다.[17] 즉 《적라지》 2권은 제영(題詠), 적라요속기(赤羅謠俗記), 부월령(附月令), 기송(記頌), 발문(跋文)[18]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금마지》 하권은 마한폐흥(馬韓廢興)·마한고사(馬韓故事)·금마유사(金馬遺事)·향리기언(鄕里記言)·제영(題詠)·잡저(雜著)등의 순서로 편찬되어 기록 내용이 전혀 다르다고 하겠다. 이는 편찬자인 남태보가 두 지역의 각각의 특징을 파악하여 편찬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금마지》가 편찬될 시기인 18세기 중엽의 익산군은 10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현재의 전라북도 익산시의 금마면 일대와 삼기면, 춘포면, 왕궁면, 팔봉동 일대가 이에 해당한다.

《금마지》 상·하권은 총 77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편성되었다.[19] 그

이 《금마지》와 다르게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과거시험 합격자와 관련하여 《적라지》에서는 과명(科名) 항목으로 문·무·생진과를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 놓았으나, 《금마지》에서는 문과, 무과, 생진, 음사로 항목을 구분한 것 등의 차이가 난다.

17 《금마지》 하권은 마한폐흥(馬韓廢興) 등 여섯 항목으로 나누어 편재되었는데, 《적라지》 2권은 제영(題詠)과 적라요속기(赤羅謠俗記)와 부월령(附月令), 기송(記頌)과 발문(跋文) 등으로 구성되어 체제가 전혀 다르다 하겠다.

18 《적라지》 2권의 내용으로, 첫 번째 제영은 군위에 대한 각종 시문(詩文)을 모아 놓은 것이고, 두 번째 적라요속기는 현감인 남태보가 정리한 것으로 고을의 풍습과 민속 등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세 번째 부월령은 달마다 해야 할 농사일들을 정리한 기록이며, 네 번째 기송은 남태보가 지은 아사중건기(衙舍重建記)를 비롯한 12개의 기문(記文)과, 다섯 건물의 상량문(上樑文)을 수록하였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남태보가 지은 발문으로 구성되어 《금마지》와 내용 구성이 전혀 다르다고 하겠다.

19 양보경, 〈조선 시대 읍지의 체재와 특징〉, 《인문과학논집》 제4집, 강남대학교, 1997, 212쪽에 의하면 "읍지들은 40개 내외의 항목을 설정한 후 각 항목에 따라 그에 관련된 내용을 나열,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였는데, 《금마지》는 총 77개나 되는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는 이전의 읍지들에 없는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거나 기존의 항목을 여러 개의 항목으로 다시 세분했기 때문이다. 남태보의 읍지 편찬

중 상권은 읍호(邑號)를 비롯하여 능묘(陵墓)에 이르기까지 익산군의 모든 현황을 71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해당 내용을 세세하게 기록하였다. 이는 수령으로서 지역을 다스리는 데 행정상 필요한 내용들이다. 반면에 하권은 당시 군수로 부임한 남태보가 각종 서적이나, 고을에서 직접 본 글과 전해 들은 이야기, 고을에 대하여 읊은 시와 실제로 겪은바 등을 묶어서 마한폐흥(馬韓廢興) 등 여섯 항목과, 말미에 남태보가 지은 발문(跋文)과 추록(追錄)을 덧붙이고 있다. 이는 남태보가 파악한 익산군의 특징들이다.

2) 지방 통치 자료로서 활용

《금마지》 상권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그 사료적 가치를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금마지》 상권에 기록되어 있는 71개 항목들을 편의상 일반 행정, 자연환경, 재정·경제, 군사, 사회·문화 등의 다섯 분야로 나누었다. 그것을 제시한 것이 아래의 〈표〉이다.[20]

구분	항목
일반 행정	읍호(邑號), 건치연혁(建置沿革), 강역(疆域), 정도(程途), 관원(官員), 진관겸대(鎭管兼帶), 장면(掌面), 관사(官舍), 각청(各廳), 향임(鄕任), 관속(官屬), 공천(公賤)
자연 환경	기후(氣候), 형승(形勝), 산천(山川), 가경(佳境), 기관(奇觀), 토산(土產), 과목(果木), 화목(花木), 약재(藥材), 천정(泉井)

과정에서의 창의성을 엿볼 수 있다.

20 우인수, 〈1749년(영조25) 울산읍지《학성지》의 편찬과 의미〉,《한국사연구》 117집, 133~134쪽 표2의 항목을 참조하였다.

재정·경제	호구(戶口), 전결(田結), 조세(租稅), 요역(徭役), 면세(免稅), 복호(復戶), 관전(官田), 영둔(營屯), 제언(堤堰), 방보(防洑), 지당(池塘), 평작(平作), 진상(進上), 분정(分定), 구청(求請), 공물(貢物), 창고(倉庫), 창곡(倉穀), 잡축(雜畜), 장시(場市), 공장(工匠), 교량(橋梁)
군사	파수진영(把守鎭營), 무반(武班), 읍비(邑裨), 군총(軍摠), 모속(募屬), 군기(軍器)
사회·문화	성씨(姓氏), 풍속(風俗), 정사(亭榭), 학교(學校), 사묘(祠廟), 원우(院宇), 사찰(寺刹), 고적(古蹟), 유림(儒林), 서판(書板), 서적(書籍), 명환(名宦), 인물(人物), 문과(文科), 무과(武科), 생진(生進), 음사(蔭仕), 충신(忠臣), 효자(孝子), 열녀(烈女), 능묘(陵墓)

먼저 일반 행정과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두 번째 항목인 건치연혁에서는《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에 의거하여, 익산 지역은 본래 마한국(馬韓國)이었고, 백제 시대에는 금마저(金馬渚)라 불리다가 이후 금마군에서 익주로, 익주에서 익산군으로 불리어지게 된 과정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하지만 첫 번째 항목인 읍호(邑號)에서는 통일신라 이전의 고을 이름인 '마한국'이나 '금마저'를 수록하지 않고, '금마', '익주', '익산'의 세 이름을 순서에 의하여 기록하였다. 이같이 읍호 항목에서 '금마'라는 이름을 제일 먼저 앞세운 것이나,《금마지》발문에서 "'금마'는 익산의 다른 이름이며 오직 가장 오래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편찬자인 남태보가 '금마'라는 이름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행정과 관련된 항목인 관원(官員), 진관겸대(鎭管兼帶), 향임(鄕任) 등의 항목에 기록된 내용에 의하여 익산 군수는 당하관(堂下官)인 종4품에서부터 정3품에 이르는 문반과 남반, 무반이 교대로 임명되었고,

병마동첨절제사(兵馬同僉節制使) 겸 금위영파총(禁衛營把摠)을 겸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이에 군수를 보좌하는 향임(鄕任)들과 향리(鄕吏)를 비롯한 관속들의 명칭과 인원수를 상세하게 알 수 있다. 아울러 익산군이 관할하는 10개의 면(面)의 이름과 군 관아로부터 각 면까지의 거리를 장면(掌面)의 항목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관사(官舍)와 각청(各廳) 항목에서는 관청 건물의 칸수와 중수(重修) 시기를 기록하면서, 향청 등 각 건물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특히 객관에 대한 기록에서는 동헌과 더불어 세 번의 화재와 세 번의 중건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 익산군 관아 건물의 변천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

둘째, 자연환경과 관련된 기후(氣候) 항목에서는 여름과 겨울의 기온의 차이와, 계절마다 부는 바람의 방향과 더불어 풍토병 등을 기록하였다. 형승(形勝)에서는 익산군의 지형이 동(東)·북(北)쪽으로 산이 솟아 있고, 남(南)쪽으로는 맑은 내[川]와 넓은 들이 펼쳐져 있는 형상을 임기(林瀷)나 서거정(徐居正) 등의 시(詩)를 인용하여 표현하였다.

군내(郡內)의 산(山)과 관련된 산천(山川) 항목에서는, 건자산(乾子山, 현 금마산)은 고을의 진산(鎭山)인데, 여러 가지로 불리는 이름들에 대한 유래를 밝히고, 미륵산(彌勒山)과 오금산(五金山) 등 여러 산들에 대한 모습의 특징이나 유래 등을 밝혀 놓았다. 그리고 18세기 중엽 익산군 지역에 흐르는 내[川]들이 어디서 발원(發源)하며, 어떤 모습으로 흐르고 갈라지고 합쳐지는가를 상세하게 서술하면서, 지금은 남아 있지 않은 연못들에 대한 현황과 더불어 큰 연못인 장연(長淵)에 대해서는 그 조성 과정을 기록하였다.

가경(佳境) 항목에서는 황각동 등 군내의 특이하고 아름다운 풍광을 지닌 일곱 곳을 소개하고, 고려 말기 양촌(陽村) 권근(權近)이 유배되었을 때 쉬던 곳인 양촌대(陽村臺)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였다. 덧붙여 익산 지역에서 생산되는 토산물로 대나무와 붕어, 생강, 닥나무, 마 등이 있었다는 토산물 항목과 삼율(三栗)을 비롯한 익산의 과일나무를 소개한 과목(果木) 항목과 꽃나무를 소개한 화목(花木) 항목 등은 식물학 연구 자료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재정·경제와 관련된 전결(田結), 제언(堤堰), 방보(防洑) 등의 항목은, 조선 후기에 모내기법인 이앙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수전(水田)농업이 일반화되는 경향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전결 항목에 의하면 밭은 원장부에는 2,412결 65부 6속이나 세금을 걷을 수 없는 잡탈전이 1,330결 61부 6속으로 55.14%에 달하며, 반면에 논은 2,692결 99부 4속인데, 그중 잡탈전이 72결 74부 8속으로 2.7%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를 통해서 당시 익산 지역의 농업은 논농사 중심이었고, 대부분의 논이 수세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앙법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수리시설의 확보가 아주 중요한데, 당시 익산군에는 27개의 저수지[堤堰]와, 냇가를 막아 관개하여 만든 천방(川防)이라고 불리는 34개의 방보(防洑)가 기록되어 있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백성들이 부담해야 하는 각종 세(稅)와 관련하여 조세(租稅), 요역(徭役), 면세(免稅), 진상(進上), 공물(貢物) 등의 각 항목의 내용을 통해서 각각의 수량과 수납 방법, 수납 일정 등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들 항목 중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에서는 수철장(水鐵匠)은

2냥씩 거둔다든지, 무당은 8필을 내는데 매필은 돈으로 3냥씩 거둔다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당시에 화폐가 널리 통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작(坪作) 항목에서는, 익산군 전체의 전답을 모두 26개의 작(作)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군내면(郡內面)을 중심으로 다른 9개 면(面)이 포함되어 나눈 13개 지역에 각기 2개의 작(作)을 배치하고, 지역별로 방위에 따라 동서남북의 명칭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작(作)은 지역의 위치에 따라 동일작(東一作), 서이작(西二作) 등으로 표기되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작(作)에는 천자문 순서에 따라 전답의 일정한 단위마다 한 글자의 자(字)를 붙였는데, 군내면이 55자로 가장 적으며, 다른 12개 지역은 8곳이 70자와 4곳이 71자로 거의 비슷하게 편성되어 기록되었다. 자(字)의 전체는 천(天) 자에서부터 독(犢) 자에 이르기까지 총 899자이다. 이 같은 평작 항목은 익산군 전체의 전답 수의 파악이 가능하여 조선 후기 군현 단위의 농업경제를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또한 잡축(雜畜) 항목에는 분양된 말과 양, 돼지를 회부된 것과 현재 남아 있는 수량으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장시(場市) 항목에는 군내(郡內)와 회화장(檜花場)의 날짜가 기록되었고, 없어진 반계(磻溪) 장시가 기록되어 있다. 아울러 수공업자[工匠] 항목에는 14개 품목으로 나누어 각 분야별로 인원이 기록되어 있는데, 옹장(甕匠)과 수철장(水鐵匠)의 경우에는 지역별 호수(戶數)를, 폐양자장(蔽陽子匠)은 호수와 더불어 점포의 위치가 기록되어 있다. 이상은 조선 후기 수공업의 발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넷째, 군사와 관련된 항목들에서는, 익산 군수가 전주 진관(全州鎭管)의 병마동첨절제사(兵馬同僉節制使)와 금위영파총(禁衛營把摠)을 겸하고 있는 것을 밝혀 놓았다. 이어서 익산군을 관할하는 진영(鎭營)은 여산후영(礪山後營)으로 3부 6사(三部六司)의 편제를 갖추고 있는데, 익산군은 중부 우사의 좌·중초(哨)에 예속되어 여기에는 속오군 346명 중 252명을 두 개의 초(哨)에 예속시켰다는 등의 편성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무반(武班) 항목에는 종9품직에 해당하는 마군 별장 1명, 군사의 조련을 담당했던 기패관 4명 등 당시에 군사를 조련하고 지휘할 수 있는 장교에 해당되는 군관들을 12가지로 나누어 그 인원을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유사시에 군수를 보좌할 수 있는 읍비(邑裨)로 우두머리 군관인 행수군관(行首軍官) 1인을 비롯하여 병방군관(兵房軍官) 1인 등과 장교 중에서 재간 있는 자를 택하여 읍과 각 면에 1명씩 두어 그 지역의 순찰과 경비, 금령 등을 관찰했던 기찰장(譏察將)[21]으로 삼고 있어, 군사적인 방어뿐 아니라 치안 유지까지 관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군(郡)에 부과된 군역의 총수와 군역 부담자의 소속, 납부 방법과 시기를 군총(軍摠) 항목에 상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객사 밖에 군기고(軍器庫)를 두어 유사시에 대비하였다는 사실도 기록하였다.

다섯째, 사회·문화와 관련하여, 풍속 항목에서는 당시 익산의 풍속은 '주민들이 순박하고 노둔(老鈍)하여 교활한 풍습이 없다.'라고 한

21 김용흠 역주, 《목민고·목민대방》, 혜안, 2012, 308쪽.

소세양(蘇世讓)의 기(記)를 인용하여 전하고 있다. 또한 백성들이 사는 수혈주거지 등 주거생활의 특징적인 형태와 옷을 입거나, 귀걸이를 착용하는 등의 모습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상은 생활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된다.

그리고 정사(亭榭) 항목에는 동헌(東軒)의 동편 징벽지(澄碧池) 안에 있었던 훈지당(壎篪堂)과 소양곡이 건립했다고 전하는 태허정(太虛亭), 퇴휴당(退休堂) 등이 기록되어 있고 훼손된 청심루(淸心樓) 등이 서술되어 있다.

학교(學校) 항목을 통해서 향교(鄕校)뿐만 아니라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을 주벽으로 모시는 사액서원인 화산서원(華山書院)과 화암서원(華巖書院), 사마소(司馬所) 등이 당시 주요 교육 기관임을 알 수 있고, 향교 교생 50인, 화산서원 원생 30인, 화암서원에 원생 20인 등 합 100명의 학생들이 학업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찰(寺刹) 항목에서는, 미륵사가 마한(馬韓)의 무강왕(武康王)에 의해 창건되었고, 사자암(獅子菴)이 기준왕(箕準王)의 스승인 지명법사(知命法師)에 의해 건립되었다는 기록을 전하면서 불법(佛法)이 기준(箕準) 때에는 전래되지 않았는데 마한 때에 창건했다고 하는 것은 시기에 맞지 않으므로 허황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옛 오금사(五金寺) 터에 은선암(隱仙庵)이 자리하였음을 알려 주며, 당시에 이름만 전하는 미륵산에 있었던 죽사(竹寺), 수백암(水柏菴) 등 여러 곳을 기록하였다.

고적(古蹟) 항목에서는 기준성(箕準城, 현 미륵산성)과 왕궁평(王宮坪)이나 궁평(宮坪) 등 유적들이 마한 때에 만들어진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익산토성(益山土城)은 고구려 부흥운동을 전개한 안승(安勝)과 관련된 유적으로 당시에는 '보덕성(報德城)'이라 불리었다는 사실을 전해 주고 있다. 특히 왕궁탑(王宮塔)과 관련하여서는 이 탑이 마한 때에 세워졌다는 기록을 전하면서, 이 시기는 불법(佛法)이 전래되기 이전의 시기이므로 조성 시기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면서, 다른 문헌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도선(道詵)의 말에 의하여 왕건이 견훤을 누르기 위해 개꼬리에 해당되는 이곳에 탑을 세웠다.'라는 왕궁탑 건립과 관련된 설화를 자세히 실었다.

훌륭한 관리로서 이름을 떨친 사람들이 소개된 명환(名宦) 항목에서는 고려조 관리 1명과 조선조 관리 9명이 실려 있다. 거기에 사계 김장생이 유학의 교화를 위해 노력한 공로가 있다는 것, 송시열(宋時烈)의 동생인 송시도(宋時燾)가 익산에 있던 진영(鎭營)을 여산으로 옮긴 치적이 있다는 것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인물 항목[22]에서는 고려조 익산 이씨(益山李氏) 3명과 조선조 8명이 수록되어 있다. 앞의 8명 중 양곡 소세양을 비롯한 소씨가 6명에 달하고 있어 당시에 진주 소씨가 익산 최고의 명문(名門)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문과(文科) 항목에서는 문과 급제자 20명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

---

22 송준호, 〈1750년대 익산지방의 양반〉, 《전북사학》 제7집, 1983, 388~390쪽에 "조선시대 가문이나 지역의 품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 '인물(人物)'이란 '국가나 사회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관직자로 백성의 어버이요, 교사로서 역할을 하여 충분히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고려 시대에 3명의 인물을 낸 익산 이씨는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는 지극히 미약해졌으며, 조선 시대에 양곡 소세양을 비롯하여 6명의 인물을 낸 진주 소씨가 가장 번성하였으나 17세기 중엽에는 이미 크게 기울고 있다."라고 하였다.

에 진주 소씨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남원 양씨 3명, 파평 윤씨 2명, 양주 최씨 1명, 안동 권씨 1명, 우주 황씨 1명, 광산 김씨 1명, 청주 한씨 1명, 전주 이씨 1명, 진천 송씨 1명, 경주 김씨 1명으로 나타난다. 무과 항목에서는 총 67명의 무과 급제자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들 중에 장흥 오씨가 14명, 진주 소씨가 13명, 전주 최씨가 5명 등이었다. 소과인 생진(生進) 항목에 수록된 생원시와 진사시 합격자 중에도 역시 진주 소씨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안 이씨 8명, 남원 양씨 6명, 우주 황씨 6명, 전주 이씨 6명, 안동 권씨 4명 등이었다.

충신(忠臣) 항목에는 3명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임진왜란 때 진산 이치전투에서 순직한 연안 이씨 이보(李寶)와 진주 소씨 소행진(蘇行震) 그리고 병자호란 때 순직한 철원 최씨 최간(崔侃) 등이었다.

효자(孝子) 항목에는 여러 명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들 중에 진주 소씨 집안으로서 형제가 함께 또는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효자로 수록되어 있기도 하며, 일반 백성뿐 아니라 노비 출신도 2명이 기록되어 있어서 당시에 효(孝)의 실천이 하층민에게까지 일반화된 모습을 보여 준다.

열녀(烈女) 항목에는 11명의 행적이 수록되었는데, 절개를 지키며 평생을 수절한 경우가 3명이었고, 대다수인 7명의 경우는 남편이 죽자 뒤를 따라 순절하여 정려를 받은 경우였다. 특이한 경우로, 도씨(都氏)가 남편을 호랑이로부터 구하여 정려를 받은 사실을 들 수 있다.

3) 역사·문화 기록으로의 역할

《금마지》 하권은 마한폐흥(馬韓廢興), 마한고사(馬韓古事), 금마유사

(金馬遺事), 향리기언(鄕里記言), 제영(題詠), 잡저(雜著) 등의 6항목과 발문(跋文), 그리고 추록(追錄)으로 나누어 서술되었다.

첫째 항목인 마한폐흥과 둘째 항목인 마한고사는 조선 후기에 등장한 삼한정통론(三韓正統論)[23]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즉, 주(周) 무왕(武王)이 기자(箕子)를 조선에 봉하자 기자는 평양에 도읍하여 900여 년이 지나 기자의 41대 손인 기준이 왕으로 있었는데, 위만에게 축출당하여 바다를 건너 남쪽으로 내려와 금마군에 도읍을 옮기고 마한(馬韓)이라 칭하였다. 이 마한이 50여 개 나라를 통치하여 200여 년을 이어 오다가 백제 온조왕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은 기자조선에서 마한으로 이어지는 계통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양촌 권근과 최치원, 한백겸의 《동국지리지》의 삼한의 위치에 대한 주장을 소개하면서, 한백겸의 주장에 의거하여 "삼한 중 마한은 전라도 지역이고, 진한은 신라인 경상도 지역이며, 변한은 신라에 귀속된 나라"로 기록하여 놓았다. 또한 소세양의 〈동헌중수기〉에 나오는 '마한의 무강왕(武康王)이 익산 지역에 도읍을 정하고, 이후에 후조선 준왕이 용화산에 도읍을 정했다.'라는 기록 내용에 대하여, 이 기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면서 《고려사》의 쌍릉과 관련한 기록을 들어 '마한의 무강왕을 기준왕의 후손'으로 파악

---

23 조선 후기에 등장한 삼한정통론(三韓正統論)은 17세기 홍여하의 《동국통감제강》에서 기자조선 - 마한 - 신라로 이어지는 정통론을 처음으로 세웠다. 여기에서는 특히 기자를 강조하였다. 그 뒤 이익은 우리 역사를 단군조선 - 기자조선 - 삼한으로 계승되는 '삼한정통론'을 내세웠으며, 성호의 제자인 안정복은 《동사강목》에서 단군조선 - 기자조선 - 마한 - 무통(삼국) - 통일신라 - 고려 - 조선으로 이어지는 역사체계를 세우면서 삼한정통론을 확립하였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역사 인식은 성호 이익이 기준(箕準)이 남하했던 마한을 '선성(先聖)의 후손으로 나라를 익산(益山)에 세워 동방의 정통'으로 삼았던 주장과 그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24]

두 번째 항목인 마한(馬韓) 고사에서도, 신라와 백제가 국가로 발전한 이후 마한의 국력이 약화되었지만 이후에도 종주국의 자존심을 지킨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즉, 신라가 찾아오자 사대의 예절과 진한·변한의 조공 문제로 문책을 하고, 백제가 웅진에 성책을 세우자 땅을 떼어 준 은혜를 갚지 않는다며 문책하였더니 백제가 부끄럽게 여겨 성책을 헐었다는 기록을 통해서 마한이 기자(箕子)의 계통을 남쪽에서 이어 장기간 정통 국가로서 위엄을 지녔음을 강조하고자 하였다.[25]

세 번째 항목인 금마유사(金馬遺事)에서는 고려 충숙왕대 마한의 무강왕 능이 도굴당한 사건과 고려 말기에 전라도와 익산 지역에 왜구가 침입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그러면서 마한에서부터 고려 말에 이르기까지 전쟁이 이어졌는데, 조선조에 들어와 이 지역이 300년간 평안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네 번째 항목인 향리기언(鄕里記言)에서는 당시 군수로서 남태보가 익산의 인물이나 익산 지역에 대한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여 고려 시대 6편과 조선 시대에 대한 38편을 수록하여 놓았는데, 이는 익산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

24 문창로,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삼한 연구-연구 추이와 특징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62, 2011.6, 80쪽 재인용.

25 김경태, 〈이익과 안정복의 동국정통론 재검토〉, 《한국사학보》 70, 2018.2, 135쪽, 국문 초록 참조.

고려 시대에 해당되는 것들은 원순제(元順帝) 기황후(奇皇后)의 외가였던 익산 이씨에 대한 행적이 주를 이루었다. 즉, 이행검(李行儉)에 대한 내용을 1편, 남촌(南村) 이공수(李公遂)에 대한 행적을 목은(牧隱) 이색(李穡)이 지은 글이나 《동사(東史)》에 수록된 내용을 참조하여 5편을 각각 수록하여 놓았다. 특히 남촌 이공수의 행적은 공민왕을 복위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과 아울러 원(元) 황실에서의 올곧은 활동, 성균관 공역에 도움을 준 내용 등 청렴하면서 바른 태도로 일관하여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관직생활 등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38편에 이르는 많은 자료를 수록하였는데, 그 중 진주 소씨가의 인물들에 대한 행적이 33편으로 가장 많다. 이는 당시 익산에서 진주 소씨가 최고의 가문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특히 벼슬이 종일품(從一品)인 좌찬성(左贊成)에 이르렀던 양곡(陽谷) 소세양(蘇世讓)과 관련된 자료가 14편으로 가장 많으며, 양곡의 형인 곤암(困庵) 소세량(蘇世良)에 대한 것이 3편, 사은(四隱) 소영복(蘇永福)에 대한 것이 10편, 면와(眠窩) 소동도(蘇東道) 1편, 수재(瘦齋) 소동명(蘇東鳴) 1편, 월주(月洲) 소두산(蘇斗山) 4편 등이다.

먼저 곤암 소세량에 대한 3편의 자료 내용은 동생인 양곡 소세양이 지은 행장을 근거로, 곤암이 어려서부터 학문에 열중하였을 뿐 아니라, 관직에 진출해서는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등과 교유했고, 대간직에 있으면서 바르게 처신하였으나 용담 현령으로 좌천되었는데, 외관에 있었기에 기묘사화의 피해를 입지 않았음을 전하고 있다. 또한 곤암이 중종 2년(1507) 예문관에 있을 때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

直)의 신원(伸冤)을 주장한 바가 있음을 남태보 자신이 수집한 자료로 보충하기도 하였다.

양곡 소세양에 대한 자료에서도 그가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여 과거에 급제한 뒤 사가독서(賜暇讀書)의 특전을 누렸으며, 문종의 왕후인 현덕왕후의 복위를 청하여 이를 성사시켰다는 등의 관직생활이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시문(詩文)이 뛰어나 지방 수령보다는 중앙에서 주로 문한직(文翰職)에 종사하여 결국에는 홍문관 대제학에 이르렀으며, 그의 시문(詩文)이 명(明)나라에까지 알려져 그 문명(文名)이 높아 명 사신인 화찰(華察)과 친교가 두터웠음을 전하고 있다. 나이가 들어서는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인 익산에 '퇴휴당(退休堂)'을 짓고 살게 된 과정과 형제 등 가족들과 더불어 울타리를 이루고 즐겁게 살았던 생활 모습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사은 소영복에 대해서는 소세량의 증손으로, 젊어서 성균관에서 유학하였는데 행동이 바르고 의사가 분명하였으며, 동·서의 분당을 보고서 벼슬을 단념하고 고향에 내려와 일생 동안 학문 연구에 매진하였다고 전한다. 또한 그는 맏형을 어버이처럼 섬겼을 뿐 아니라, 어느 날 선친의 산소에 불이 나자 의복을 갖춰 입고 하늘에 절을 하니 비가 내려 불이 꺼질 정도로 효성이 지극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성리학에 조예가 깊어 사계 김장생,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등과 믿음으로 교유하였으며, 임란 이후에 책이 부족하자 서적 수천 권을 나라에 헌납하기도 하였고, 항상 베푸는 것을 소중히 생각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월주 소두산에 대해서는, 그의 풍모와 태도와 더불어 우암(尤菴),

동춘(同春)의 문하에서 수업하였으며, 언의가 투명하고 공평하여 따르는 사람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외에도 오금산(五金山)과 관련한 신비한 이야기, 소양곡(蘇陽谷)을 만나기 위해 관인(官印)을 나뭇가지에 걸어 두었기 때문에 태허정(太虛亭)을 괘인정(掛印亭)이라 부르게 된 사연, 사제면(巳梯面)을 용제면(龍梯面)으로 면(面) 이름을 바꾸어 부르게 된 내용 등을 실었다.

한편 향리기언(鄕里記言) 말미 4편의 글은 군수인 남태보(南泰普)가 직접 작성한 글인데, 《금마지(金馬志)》를 편찬할 당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글에서는 환경의 변화를 말하고 있다. 즉, 양곡(陽谷)의 문집을 통해 볼 때, 양곡이 퇴휴(退休)해서 익산(益山)에서 살 때는 내[川]와 연못가에서 자주 즐겼다고 하는데, 남태보가 군수로 있는 시기에는 미륵산이 민둥산이 되면서 토사가 밀려와 내가 얕아지고 연못이 메워져 옛날의 풍경을 볼 수가 없다는 안타까움을 기록하였다.

두 번째 글에서는, 양곡 소세양의 형제는 모두 익산에 살면서 태허정, 퇴휴당 등 여러 정자를 지었는데 그곳은 모두가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익산에서 양곡의 후손들이 오랫동안 풍요롭게 살았으나 신임사화(1721, 경종1) 이후에는 어렵게 살고 있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기록하였다.

세 번째 글에서는 당시 익산군(益山郡)은 지역의 기강이 가장 엄격하여 양반이 아주 살기에 좋은 곳이어서 전국 곳곳에서 빈한한 양반들이 다투어 모여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익산군 내의 호수가 3,768호인데 양반호가 1,500여 호나 되며, 구문천면(九文川面) 검지리 같은 경

우는 호수가 90호인데 양반호가 79호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익산 지역이 향강(鄕綱)이 강한 이유가 '양곡 소세양이 벼슬을 떠나 향리에 20년간 거주하면서 온 고을을 대상으로 기강을 엄격히 세우고 고을의 풍속을 갈고 닦아 이룬 때문'으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익산군 지역의 양반들은 생활이 빈한하고 어렵게 살지만, 익산 지역으로 사대부들이 다투어 몰려들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네 번째 글에서는 남태보가 군수로 부임하여 객사(客舍)를 중심으로 관아를 중건한 과정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익산군 관아는 갑술년(甲戌年)에만 2번(1514, 1754) 화재를 당하였는데 그 중건 과정의 어려움을 기록하였다. 특히, 영조 30년(1754) 갑술년의 화재로 인하여 벽돌대청, 동상실, 서헌 등이 불에 타 군수가 파직되어, 후임으로 남태보가 부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객사 등을 중건하고자 하니 고을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으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임 1년 만에 낙성식을 갖게 된 사실들을 자세히 전하고 있다.

다섯 번째 항목인 제영(題詠)에서는 총 28수의 시를 수록하였다. 첫 부분의 김종직(金宗直)의 시 등 3편은 기준왕(箕準王)과 관련하여 역사의 흥망성쇠를 읊은 내용이다. 그리고 미륵사와 미륵사탑과 관련하여 지어진 시로 양촌 권근을 비롯하여, 점필재 김종직 등이 지은 총 6편의 시가 실려 조선 시대에도 미륵사지가 많은 관심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곡 소세양으로 대변되는 진주 소씨 가문에서는 양곡의 시 8수와 사은 소영복의 시 4수, 수재 소동명의 시 5수로 총 17수의 시가 수록되었다. 그중 양곡 소세양이 지은 시의 내용은 암자나 냇가에서의 풍

광이나 여유로움을 즐기면서 읊었던 것들이 주를 이루었다. 사은 소영복의 시는 양곡을 예찬한다든지, 장연(長淵)에서 배를 타고 홍련(紅蓮)을 보며 지은 시 등이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고, 수재 소동명은 청심루의 풍광을 노래하고, 미륵사와 석탑, 금마의 역사성과 경관에 대해 감회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양곡 소세양이 벼슬에서 물러나서 지었다는 '퇴휴당(退休堂)'에 대해서 명나라 사신 화찰(華察)의 글과 더불어 소양곡의 시와, 시문(詩文)에 뛰어났던 양곡에 대한 흠모의 정을 그린 4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잡저(雜著)에서는, 조선 세조 때 객관(客館)의 동쪽에 세웠다는 청심루(淸心樓)와 그 중수 내용을 기록한 송을개(宋乙開)의 청심루기(淸心樓記)와 더불어 당시 군수 이인현(李仁賢)의 부탁으로 양곡 소세양이 지은 〈동헌중수기(東軒重修記)〉 등이 실려 있다. 조선 전·중기에 두 차례(1514, 1556)의 화재로 인하여 동헌을 비롯한 건물들이 다시 중수되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여 조선 중기 관아 중수 과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한편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이 그의 형인 송시묵(宋時默)과 동생인 송시도(宋時燾)가 거듭하여 현종 때에 익산 군수로 부임하여 관아를 중수하고, 징벽지(澄碧池)와 훈지당(壎篪堂)을 조성한 바를 상세히 수록한 〈훈지당기(壎篪堂記)〉가 실려 있다. 그리고 화산서원(華山書院)에는 김장생(金長生)이 주벽으로 모셔져 있는데, 이미 고인(故人)이 되어 만나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을 절절히 표현한 소두산(蘇斗山)이 지은 화산서원 상량문이 실려 있다.

마지막으로 발문(跋文)에서 남태보는《금마지》를 편찬하게 된 동기

와 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하였고, 추록(追錄)으로 저헌(樗軒) 이석형(李石亨)의 시가 익산군 동헌의 벽에 걸렸으나 없어진 내력을, 숙종 45년(1719)에 외손인 관찰사 홍석보(洪錫輔)의 차운(次韻)시와 함께 기록하였다.

3. 《금마지》의 편찬 동기와 목적

《금마지(金馬志)》는 상·하 2권으로 군수인 남태보(南泰普)가 영조 30년(1754)에 부임하여 불과 2년 만인 영조 32년(1756)에 편찬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는 익산 군수로 부임하기 직전에 관아에 불이 나 일부가 타 버려 전 군수가 파직된 어려운 상태에서 부임하였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는 객사·동헌 등 건물을 중수하여 부임 1년 만에 낙성식을 가졌으며, 다음 해에 읍지를 완성하여 《금마지》라는 이름으로 편찬하였다.

이렇게 편찬된 《금마지》의 편찬 목적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익산 지방을 통치하는 중요한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리라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남태보가 군위 현감으로 있으면서, 《금마지》가 편찬되기 3년 전인 영조 29년(1753)에 편찬한 《적라지(赤羅誌)》의 발문(跋文)에서 '《여지승람(輿地勝覽)》은 성글고, 대략 만든 병폐가 있으니, 어찌 여러 곳 산천과 백성의 풍물을 다 싣지 못하고 다만 요긴한 것만 뽑은 탓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를 통하여 《동국여지

승람(東國輿地勝覽)》이 간략하여 그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위의 두 읍지를 편찬했다고 판단된다. 또한 《금마지》 상권에서 71개에 달하는 많은 항목들을 설정하여 편찬한 데에는, 조선 전기의 세종대 지리지의 장점인 정치·경제·군사·사회적인 내용과 《동국여지승람》의 장점인 인물·예속·시문 등을 겸비한 체제로 이루어졌던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편찬 경향이 영향을 끼쳤다고 여겨진다.[26]

한편, 《적라지》 발문에서 '지지(地志)가 고을을 다스리는 데 관계있음을 믿으리라. 따라서 고을의 크고 작음 없이 한 고을의 지지가 있는 것은 마땅하다.'[27]라고 하여, 읍지가 고을을 다스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남태보가 깊이 느끼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마지》 발문에서 '일찍이 옛사람들이 지(誌)를 편찬할 때는 비록 개울물이나 개미둑과 같이 하찮은 것이라도 반드시 찾아서 기록하였다고 들었다.'라고 하면서, 지방 통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들을 충실하게 수집하고 기록하여 수령이 지방 통치에 기본 지침이 되는 농상을 진흥하고[農桑盛], 호구를 늘리고[戶口增], 학교를 일으키고[學校興], 군정을 잘하고[軍政修], 부역을 고르게 하고[賦役均], 사송을 잘 처리하고[詞訟簡], 간사하고 교활하지 않게 하는 것[姦猾息] 등 '수령칠사(守令七事)'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통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고 생각된다.

《금마지》의 편찬은 익산 지역의 풍토, 지나간 일의 득실 등을 정확

---

26 양보경, 〈조선 중기 사찬읍지에 관한 연구〉, 《국사관논총》 제81집, 1998, 61쪽.

27 군위문화원, 《적라지(赤羅誌) 국역본》, 군위문화향토사료 제3집, 1996, 172쪽 발문(跋文)에 숭정 기원후 126년(1753)에 남태보가 썼다고 되어 있다.

히 파악하여 백성들이 이롭게 여기는 것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명령이 정실에 부합되고 효유가 용이하도록 하는 데 있었다. 또한 이를 통해 지역 사정을 밝히 알아 이속(吏屬)들도 검속하고, 백성들도 실정을 토로할 수 있어 교화가 행해지고 국가가 태평을 이룰 단서로 보았을 것이다.[28]

둘째로는 역사적 전통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찬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금마지》 발문에서 '금마는 후조선 기준이 도읍한 곳이며, 그 후 안승과 대문이 연이어서 웅거한 곳이다.'라고 하였고, '익산 지역의 역사적 근원이 깊을 뿐만 아니라 성곽도 여전하며, 천년을 내려온 유풍(遺風)과 유속(遺俗)은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여, 역사적으로 전통과 뿌리가 깊은 지역임을 강조한 것에서 확인된다. 특히 하권(下卷)에 마한폐흥(馬韓廢興)조를 두어, 삼한정통론의 영향으로 후조선(後朝鮮) 기준(箕準)과 관련한 역사적인 사실을 밝히고자 한 것은 이러한 편찬 의도를 분명히 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발문에서 '금마의 사적이 아득히 멀어서 내세울 것이 없는데, 이것은 문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바로 앞 세대에 소경정(蘇景鼎)과 김즙(金湒) 등이 《익산지(益山誌)》[29]를 발간했으나

---

28 양보경, 앞의 논문, 60쪽에서 《연안읍지》의 편찬 의도를 서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편찬 의도는 《금마지》도 똑같았을 것으로 보인다.

29 소경정(蘇景鼎), 김즙(金湒)에 의해 편찬된 것으로 전하는 《익산지(益山誌)》는 현재 전하지 않아 그 편찬 시기가 확실치 않다. 하지만 소경정의 생몰년대가 인조 19년(1641)에서 숙종 30년(1704)인 것으로 보아, 30대 후반 이후에 해당되는 숙종대에 편찬된 것이 아닌가 한다.

너무나 소략하고, 모두 기록하지 않은 것이 많이 있다. 이에 옛것을 취하고, 새로운 것을 덧붙여 우리 역사책에 대략이라도 보이는 고사와 옛사람들의 시문(詩文)에 이르기까지 오래된 사실을 수록하여 《금마지》를 편찬하였다.'라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금마지》는 이전의 《동국여지승람》이 가진 대략에서 벗어나 세밀한 부분까지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여 편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향리기언(鄕里記言)'의 말미에 남태보(南泰普)는 '우리 군(郡)은 향강(鄕綱)이 가장 엄한 곳으로, 사족(士族)의 미려(尾閭, 바다 깊은 곳에 있어 물이 끊임없이 새어든다는 곳)'라 하여, 다른 지역에서 사대부들이 살기 좋은 고을로 인식하여 몰려들고 있음을 전하고 있어, 이 역시도 같은 편찬 의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처럼 상·하 2권으로 편찬하여 익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 《금마지》는 익산 지역의 읍지로서는 연대가 가장 오래되고 내용이 우수하며,[30] 조선 후기 익산 지역의 역사, 지리, 경제, 사회, 문화 등을 파악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

30 김백철, 〈금마지 해제〉,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금마지》는 익산 지역의 역사·지리·경제·문화 등 다양한 정보를 상세히 기록한 것이 특징이며, 특히 영조대 편찬된 《여지도서》에는 익산군 읍지가 남아 있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여 자료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금마지
상권

【고을 이름[邑號]】

금마(金馬)

익주(益州)

익산(益山)

【건치연혁(建置沿革)】

본래는 마한국(馬韓國)이다. 후조선(後朝鮮) 세상에서 단군(檀君)이 세운 조선을 일컬어 전조선(前朝鮮)이라 하고, 기자(箕子)가 세운 조선을 일컬어 후조선(後朝鮮)이라 한다. 왕 기준(箕準)은 기자(箕子)의 41대 후손이다. 그가 위만(衛滿)의 난리를 피해 바다에 배를 띄워 남쪽으로 내려와 한(韓) 땅에 이르러 나라를 세우고 나라 이름을 마한(馬韓)이라 하였다. 백제의 시조 온조왕(溫祚王)에 이르러 병합되었고, 이 뒤로는 금마저(金馬渚)라 불렀다. 신라 신문왕(神文王)이 금마군(金馬郡)으로 고쳤고, 고려에 이르러 전주에 소속시켰으며, 충혜왕(忠惠王)[1] 복위 5년(1344)에 원나라 순제(順帝) 황후 기씨(奇氏)의 외가 고을[2]이라는 이유로 승격시켜 익주라 하였다. 조선 태종(太宗) 13년(1413) 규례에 따라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 익산군(益山郡)이라 하였다. 《여지승람》[3]의

---

1 충혜왕(忠惠王) : 고려 제28대 왕이자 충숙왕의 맏아들로 이름은 왕정(王禎)이다. 1328년(충숙왕15) 세자 신분으로 원나라에 갔다가 우승상의 총애를 받아 1330년 충숙왕의 전위로 즉위하였다. 태보 백안의 미움을 받아 1332년 왕위에서 쫓겨났다. 1339년 복위했다가, 1344년 원나라에 끌려가 이듬해 죽었다.

2 황후……고을 : 기황후(奇皇后)의 어머니가 익산 이씨 이행검(李行儉)의 딸이었기 때문에 익산은 기황후의 외가 고을이 된다.

내용에 의거하였다.

【강역(疆域)】

동쪽으로 여산(礪山) 경계로부터 시작하여 서쪽으로 함열(咸悅) 경계에 이르고, 북쪽으로 여산 경계로부터 시작하여 남쪽으로 전주(全州) 경계에 이른다.

【거리[程途]】

동쪽으로 여산 경계에 이르기까지는 10리이고 여산부의 치소(治所)[4]와는 20리 떨어져 있다. 남쪽으로 전주 경계에 이르기까지는 25리이고 전주부 치소와는 50리 떨어져 있다. 동남쪽으로 전주 경계에 이르기까지는 15리이고, 서남쪽으로 김제(金堤) 경계에 이르기까지는 30리인데 김제군 치소와는 70리 떨어져 있다. 서쪽으로 함열 경계에 이르기까지는 20리이고 임피(臨陂) 경계에 이르기까지는 20리인데, 함열군과 임피현 치소와는 40리 떨어져 있다. 북쪽으로 여산 경계에 이르기까지는 10리이고, 서북쪽으로 용안(龍安) 경계에 이르기까지는 20리인데 용안현 치소와는 40리 떨어져 있다. 서울까지는 468리 떨어져 있다. 5일 노정으로 15식(息)[5] 18리이다.

---

3 여지승람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을 가리킨다. 중종 25년(1530) 이행(李荇) 등이 원래의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을 새로 증보하여 간행한 것이다.

4 치소(治所) : 고을의 행정 업무를 맡아 보는 기관이 있는 곳을 가리킨다.

5 식(息) : 거리를 헤아리는 데 쓰는 말로 1식은 30리에 해당한다. 조선 시대에는 거리를

【관원(官員)】

군수(郡守) 1인. ○ 당하관(堂下官)[6] 종4품으로부터 정3품에 이르는 문관, 남반(南班),[7] 무관을 교대로 임명한다. 근무 기한[8]은 60개월이다.

훈도(訓導) 1인. 지금은 폐지하였다.

【진관(鎭管)[9]의 겸대(兼帶)】

전주진관(全州鎭管)의 병마동첨절제사(兵馬同僉節制使)[10] 전주는 네 큰 고을[四長官][11]의 하나이기 때문에 본 고을은 전주의 속읍이 되었으나, 군사와 말은 후영(後營)인 여산진(礪山鎭)에 속한다. 겸(兼) 금위영파총(禁衛營把

표시하는 장승의 입표를 30리마다 세웠고 그곳에서 행인들이 쉬어 갔기 때문에 유래한 말이다.

6 당하관(堂下官) : 조선 시대 관리 중에서 문신은 정3품 통훈대부, 무신은 정3품 어모장군 이하의 품계를 가진 자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조정에서 정사를 볼 때 대청[堂]에 올라 의자에 앉을 수 없다는 데서 나왔으며, 주로 국정 실무를 수행하였다.

7 남반(南班) : 부조(父祖)의 음공(蔭功)으로 과거를 거치지 않고 벼슬에 오르거나 빼어난 학행(學行)으로 천거되어 벼슬에 오르는 것, 또는 그 벼슬아치를 가리킨다.

8 근무 기한 : 원문의 '과한(瓜限)'은 '과기(瓜期)'와 같은 말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서 "제(齊) 양공(襄公)이 연칭(連稱)·관지보(管至父)를 보내어 규구(葵丘)를 지키게 하였다. 외[瓜]가 익을 때 보내며 '내년에 외가 익을 때 교대시켜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수자리 살 1년 기한이 찼는데도 제나라 양공의 명이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9 진관(鎭管) : 조선 시대의 지방 군사조직이다. 조선 시대의 관찰사나 수령은 도나 군현의 행정 책임뿐만 아니라 각각 군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다.

10 병마동첨절제사(兵馬同僉節制使) : 종4품의 서반 외관직이다. 전라도의 경우 전주진, 나주진, 남원진, 순천진 등에 설치하였다.

11 네 큰 고을 : 각 도(道)의 으뜸 되는 고을 네 곳을 말한다. 호남은 전주(全州), 나주(羅州), 광주(光州), 남원(南原)이었다.

摠)[12] 임무를 겸직하는 것이 어느 해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다. 새로 임명된 군수가 조정을 하직하는 날 금위영(禁衛營)에서 '전령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傳令須知]'을 만들어서 보내준다. 전라 우도(全羅右道)[13]의 여러 고을 금위영 군사에 대해서는 식년(式年)[14]마다 소속 고을이 잡탈성책(雜頉成冊)[15]을 보내면, 도안(都案)[16]을 만들어 본 고을에 비치해 두고 한 번이라도 징발이 있으면 겸파총(兼把摠)이 거느리고 가서 본영에 넘긴다. 해마다 봄가을로 순행하면서 점검하는 일이 있었으나 지금은 폐지되었다. 이 원래 정해져 있는 익산 군수의 겸직 자리이다. 전주부(全州府)이다.

【파수(把守)하는 진영(鎭營)】

여산(礪山)의 후영(後營)이다. 진영은 3부(部) 6사(司)에 속해 있다. 좌부(左部)는 임피(臨陂)인데 같은 부에서 좌사(左司)는 임피이고 우사는 옥구(沃溝)이며, 우부(右部)는 금산(錦山)인데 같은 부에서 좌사

12 금위영파총(禁衛營把摠) : 금위영은 국왕의 호위와 수도 방어를 위해 중앙에 설치하였던 군영이고, 파총은 종4품의 무관직이다.

13 전라 우도(全羅右道) : 조선 시대에 전라도를 좌도와 우도로 나누어 동쪽 산악지대를 좌도, 서쪽 평야지대를 우도라 하였다. 관찰사를 따로 두지 않고 다만 병사(兵使)와 수사(水使) 등 군사상 직제만 좌·우도로 나누었다.

14 식년(式年) : 조선 시대에 과거를 보이거나 호적을 조사하는 시기로 정한 해이다. 자(子), 묘(卯), 오(午), 유(酉) 따위의 간지(干支)가 들어 있는 해로 3년마다 한 번씩 돌아왔다.

15 잡탈성책(雜頉成冊) : 공식적인 면제 사유 이외의 다양한 이유를 들어 의무에서 면제된 자들을 적은 장부이다.

16 도안(都案) : 조선 시대 병조의 도안청에서 군적의 변동 사항을 등록하여 두던 대장이다.

는 고산(高山)이고 우사는 금산(錦山)이며, 중부(中部)는 여산인데 같은 부에서 좌사는 함열(咸悅)이고 우사는 여산이다. 본부는 중부 우사의 좌·중 두 초(哨)에 예속되어 있다. 본 고을의 속오군(束伍軍) 346명 안에서 252명은 중부 우사의 좌·중 두 초에 나누어 예속시키며, 나머지 속오군 94명 안에서 55명은 고산의 우초(右哨)에 합치고 39명은 여산 전초(前哨)에 합친다. 마군(馬軍) 49명은 오른쪽 대열에 예속시킨다.

【성씨(姓氏)】

김(金)

한(韓)

송(宋)

이(李)

황(黃)

임(林)

구(仇) 이상은 모두 본 고을의 성씨이다. 《지리지》에 나온다.

이(李)

구(仇)

김(金) 이상은 모두 흑석(黑石)[17]의 성씨이다. 《지리지》에 나온다.

---

17 흑석(黑石) : 《동국여지승람》 익산군 조에 "군 남쪽 15리에 흑석부곡(黑石部曲)이 있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부곡(部曲)은 지방사회의 하부구조로서, 군현제에 예속되어 국가의 특정한 역을 부담하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고려 시대에 운영되다가 조선 시대에 들어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풍속(風俗)】

주민들이 매우 순박하다. 박초(朴礎)[18]의 시에 "주민들이 매우 순박하니 마한의 풍속이다.[生民厖朴, 馬韓風.]"라고 하였다.

풍속은 순박하고 사람들이 노둔하다. 소세양(蘇世讓)[19]의 기(記)에 "풍속은 순박하고 사람들이 노둔하여, 옛 도읍으로서의 유풍(遺風)이 있다."[20]라고 하였다. ○ 세상에서 호남의 풍속은 교묘하게 속임이 많다고 말하는데, 본읍의 풍속은 이와 반대여서 순박하고 노둔하여 교활한 풍습이 없다. 양곡(陽谷) 소세양은 이 고을에서 자라 성장하여 지역 풍속을 익숙히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거처는 움집[21]을 짓고 사는데 문이 위를 향하였다. 풍속이 비단과 모직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옥구슬을 귀중하게 여겨 그것으로 머리카락을 장식하여 귀에 드리운다. 남자는 비단 도포를 입고 짚신을 신었는데 성격이 용감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힘껏 일한다. 역사가들이 마한의 풍속을 이와 같이 기록하였다. 지금도 외부 마을에 사는 백성들은 이따

---

18 박초(朴礎) : 고려 말 조선 초기의 문신이다. 김제 출신으로 본관은 함양(咸陽), 정몽주 문하에서 학문을 익혔고 15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 정랑 등을 거쳐 조선 개국 직후에는 전라도 수군절제사를 지냈으며 이조 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김제 모덕사에 배향되었다.

19 소세양(蘇世讓) : 1486~1562.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문명이 높고 율시(律詩)에 뛰어났으며, 글씨는 송설체(松雪體)를 잘 썼다. 익산의 화암서원(華巖書院)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저서로는 《양곡집(陽谷集)》이 있다.

20 풍속은……있다 : 이 내용은 《양곡집》, 권14, 〈익산동헌중신기(益山東軒重新記)〉에 보이는 내용이다.

21 움집 : 원문의 '토우(土宇)'는 수혈식 주거를 나타내는 의미로 보아 '움집'으로 번역하였다.

금 움집을 짓고 문을 위로 내며 비가 오면 돗자리로 문을 가린다. 부녀자들은 하얀 저고리와 치마를 입는데, 어쩌다 치마를 염색하여 입는 자가 있으면 사람들이 모두 놀리면서 창녀나 기녀처럼 취급하는 등 흰색을 숭상하는 유풍이 있다. 그들이 비단과 모직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소녀들은 모두 귓바퀴를 뚫어 구멍을 내고 끈을 꿰어 놓아 귀걸이를 차려는 것처럼 한다. 남자들은 도포를 입고 짚신을 신는다. 무릇 힘쓰는 일이나 농사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두 무리 지어 외치며 용감한 사람을 최고로 친다. 부지런히 힘써 일한다고 다른 고을로부터 칭찬을 듣는다. 옛날 도읍지로서의 풍속이 천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엇비슷한 모양이 있다.

【기후(氣候)】

고을이 양호(兩湖) 호남(湖南)과 호서(湖西)이다. 의 사이에 있어서 기후가 고개 아래 노령(蘆嶺) 이남이다. 와는 완전히 다르다. 여름은 그다지 덥지 않지만 겨울은 또한 매우 춥다. 네 계절 동안 남풍이 계속 부는데, 겨울에 남풍이 많으면 다음 해 풍년이 드는 것을 징험할 수 있다. ○ 지역이 바다 어귀[海門][22]에 닿아 있으며 우묵한 데다 낮고 습하여 사는 사람들이 병에 잘 걸리는데, 학질, 곽란, 수종(水腫)[23] 등의 증세가 다수를 차지한다.

---

22 바다 어귀 : 강이 바다로 유입하는 지역을 가리키는데, 익산의 하천은 남쪽으로 춘포를 지나 만경강과 만나서 서해 바다로 흘러간다.

23 수종(水腫) : 신체의 조직 간격이나 체강 안에 림프액, 장액 등이 많이 괴어 있어 몸이 붓는 병을 말한다.

【형승(形勝)】

금화산(金華山)[24]이 북쪽에 솟아 있고, 도순산(都順山)이 동쪽에 있으며, 남쪽에는 삼천(三川) 삼례역(參禮驛) 앞의 천이다. 이 띠처럼 가로질러 뻗어 춘포(春浦) 서쪽으로 흘러 들어가 바다 항구와 맞닿는다. 중포(中鋪)는 사방 80리의 넓은 들인데, 임기(林邐)[25]의 시(詩)에서 말한 "서남쪽으로 터진 곳에 거친 들이 넓다[西南坼處荒郊闊]"가 이것이다. ○ 강은 맑고 산은 푸르다. 서거정(徐居正)의 시에서 말하였다. "남쪽 강은 매우 맑고 익산은 푸르다[南湖白白益山蒼]"[26] ○ 사신의 왕래는 두 길로 나뉘어 한 길은 여산을 경유하고 또 한 길은 함열을 경유하는데, 어떤 때에는 본 고을의 길을 나란히 지나가기도 한다.

【산천(山川)】

건자산(乾子山) 고을 북쪽 1리에 있다. 용화산(龍華山) 한 줄기가 동쪽으로 달리다 다시 꺾이어 남으로 뻗어 고을의 진산(鎭山)이 되었다. 건지산(乾支山)이라고도 한다. ○ 일명은 마이산(馬耳山)인데, 어떤 사람은 마이봉(馬耳峰)이라고도 한다. 산이 솟아 있는 곳에서 끝나면서 맺혀서 두 봉우리가 되었는데, 뾰족한 머리가 말 귀[馬耳]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 ○ 일명은 제산(濟山)인데, 산이 협곡을 지나 다시 솟은 곳이 빠져 가라앉았다가 매우 튀어

---

24 금화산(金華山) : 용화산(龍華山)을 가리킨다.

25 임기(林邐) : 본관은 나주로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광해군 3년(1611)에 전라 도사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6 남쪽……푸르다 : 서거정의 《사가시집(四佳詩集)》, 보유3(補遺三), 〈여지승람·익산(輿地勝覽·益山)〉에 보이는 내용이다.

나온 모양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얻었다.

용화산(龍華山) 문수산(文殊山) 한 줄기가 서쪽으로 달리다 다시 남쪽으로 뻗어 이 산이 되었다. 고을 북쪽 8리에 있는데, 일명은 미륵산(彌勒山)이다.

장군봉(將軍峯) 용화산 서쪽 산의 가장 높은 곳에 있다.

도순산(都順山) 문수산 한 줄기가 남쪽으로 달리다가 다시 꺾이어 서쪽으로 뻗어 이 산이 되었다. 세속에서는 시다산(施茶山)이라고 부르는데, 고을 동쪽 5리 제석면(帝石面)에 있다.

오금산(五金山) 세상에 전해지기를, 서동대왕-마파손(麻婆孫)이라고도 한다.-이 어머니를 지극히 효성스럽게 섬겼는데, 마를 캐다가 다섯 냥의 금을 얻었으므로 이것으로 산의 이름을 삼았다고 한다. 용화산 한 줄기가 꺾이어 서쪽으로 달려서 이 산이 되었다. 고을의 서쪽 3리에 있다.

당산(唐山) 오금산 한 줄기가 서쪽으로 5리를 내달려 이 산이 되었다. 고을 서쪽 8리인 두천면(豆川面)에 있다. 삼율(三栗)이 나오는데, 과일나무 조목에 상세히 보인다.

팔봉산(八峯山) 당산이 서쪽으로 5리를 굴러가 이 산이 되었는데, 산에 여덟 봉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컫는다.

도내[道川] 용화산에서 발원하여 고을을 안고 남쪽으로 흘러 부상천과 두촌면 신방교(新方橋)에서 만나 춘포면 횡탄 하류로 들어간다.

부상천(扶桑川) 고을 동쪽 5리에 있다. 용화산 동쪽 산기슭에서 발원하여 도내[道川]와 신방교에서 만나 횡탄 하류로 들어간다.

궁평천(宮坪川) 고을 남쪽 10리에 있다. 전주 북고산(北固山)에서 발원하여 횡탄 하류로 들어간다.

면천(綿川) 고을 서쪽 20리에 있다. 용화산 서북쪽 산기슭에서 발원하여 미

륵, 사제, 구문천, 율촌 네 면을 지나 지석면 연전평에서 만나 전주 신창진으로 들어간다.

두천(豆川) 고을 서쪽 10리에 있다. 용화산 서쪽 산기슭에서 발원하여 미륵, 두천, 지석 세 면을 지나 연전평에서 만난다.

상시연(上矢淵) 고을 서쪽 17리에 있다. 세속에서는 번지(藩池)라고 부른다. 위아래로 못이 있었는데 거의 메워졌다. 《여지승람》에 나온다.

횡탄(橫灘) 고을 서남 30리 춘포면 사천촌 앞 삼천의 하류에 있다. 바닷물이 이곳까지 들어와 상선(商船)이 와서 정박한다.

저자문연(猪子門淵) 고을 남쪽 20리 춘포면 불당리 앞에 있다. 물을 가두어 웅덩이를 조성하였다.

장연(長淵) 고을 서남쪽 20리 춘포면에 있다. 전주 우서보(紆西洑)에서 물이 흘러들어와 호수가 되었는데 길이가 10리이다. 호수가 모두 연꽃[芙蕖]이어서 전당지(錢塘池)[27]에 비견되고 또 마름과 가시연밥이 나온다. 겨울이면 기러기와 오리들이 날아와 모인다. ○ 사은(四隱) 소영복(蘇永福)[28]의 〈가장(家狀)〉[29]에서 말하였다. : "광해군 때 해마다 극심한 가뭄이 들어 전주 북쪽 익산 남쪽의 넓은

---

27 전당지(錢塘池) : 중국 남경(南京)에 있는 호수이다. 조선 전기 문신 강희맹(姜希孟)이 명나라에 사신을 갔다가 그곳에서 연꽃 씨를 채취해 귀국한 후 재배한 것으로 유명하게 되었다.

28 소영복(蘇永福) : 1555~1615.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중수(重綏), 호는 사은(四隱)이다. 익산 도내[道川] 출신이며 사마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입학하였다가 파당의 정쟁을 보고 귀향하였다. 도내에서 밭갈이와 낚시로 소일하며 학문을 닦고 덕을 기르는 데 힘쓰며 교유를 넓게 하여 김장생, 정경세, 조헌, 한백겸 등과 도의(道義)로 사귀었다.

29 가장(家狀) : 개인의 행적에 초점을 두어 기술한 것으로, 체제는 선대 가계, 주인공의 평생 행적, 일화 및 미담, 학문과 덕행, 자손 등을 서술한다.

들이 씻은 듯 깨끗하여 거주민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공이 40여 리나 되는 도랑을 칠 것을 건의하여 몸소 가서 공사를 감독하고 주도면밀하게 계획하였다. 3년이 지나 완성됨에 강물을 끌어 들에 관개하여, 백성들이 그 이로움을 누렸다."

【아름다운 경치[佳景]】

황각동(黃閣洞) 고을에서 북으로 7리에 있는데 물과 돌이 자못 기이하다.

석문(石門) 사자암 서쪽에 두 개의 문이 맞서고 있는데, 그 사이는 겨우 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정도이다.

양촌대(陽村臺) 고을에서 서쪽으로 15리 떨어진 몽곶리 뒤의 작은 구릉에 있다. 죽림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40리 넓은 들을 바라볼 수 있다. 양촌(陽村) 권근(權近)[30]이 본군에 유배되었을 때 이곳에 정자를 짓고 즐기면서 쉬던 곳이다. 지금은 정자가 무너져 없기 때문에 양촌대라 한다.

석굴(石窟) 사자암 앞에 있는데 작은 동불(銅佛)을 많이 모시고 있다.

상원굴(上元窟) 상원사 골짜기의 입구에 있는데 그 깊이를 헤아리기가 어렵고, 곁에 두 층의 바위 폭포가 있는데 떨어져 울리는 소리가 자못 옥이 부딪쳐 나는 소리를 내어 매우 아름다운 흥취를 느끼게 한다.

영춘대(迎春臺) 퇴휴당 동쪽에 있다.

송춘대(送春臺) 금마산 기슭에 영춘대와 짝하여 마주 보며 있는데, 영춘대와 아울러 양곡 소세양이 이름 붙인 것이다.

---

30 권근(權近) : 1352~1409. 고려 말기에 온건개혁파인 스승 이색(李穡)의 주장에 동조하였다가 익산에 유배되었다. 이때 자신의 학문을 정리하여 《입학도설(入學圖說)》을 완성하였는데, 후세 성리학의 발달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의 유배로 익산에 안동 권씨들이 세거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기이한 볼거리[奇觀]】

상대(上臺) 바로 장군봉으로 머리를 숙이면 푸른 바다와 저녁노을이 내려다 보인다.

투구바위[兜巖] 장군봉의 남쪽에 있는데, 그 모양이 투구와 같아서 이름 붙였다.

등잔암(燈盞巖) 만방암(萬方菴)의 동쪽 40보에 있는데, 바위 위에 구멍이 있어 이름 붙였다.

【지역 특산물[土產]】

대나무

붕어

생강 이상은 모두 《지리지》에 나온다. 오늘날 사람들은 생강을 재배하지 않는다.

쇠[鐵]

오지그릇[烏磁器]

닥나무

삼[麻]

옻

거위

고니

뱅어

숭어

잉어

게[蟹]

【과목(果木)】

배

밤 당산(唐山)에서 난다. 민간에 전하기를 일 년에 세 번 열매 맺는데 다른 곳에 옮겨 심으면 그렇지 않다고 한다. 한 나무에서 세 차례 꽃이 피어 차례대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삼율(三栗)'이라 하였다.

대추

능금

감

홍시[早紅]

석류

모과

호두

포도

마름 열매[菱仁]

【화목(花木)】

오동나무

탱자나무

매실나무

홍벽도(紅碧桃)

삼색도(三色桃)

모란[牧丹]

월계(月季)

사계(四季)

연꽃[荷花]

두충(杜沖)

백일홍(百日紅)

【우물[泉井]】

한정(寒井) 고을 관아의 동쪽 백 보 거리에 있는데,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여 풍토병을 치료할 수 있다.

왕궁정(王宮井) 고을에서 남쪽 5리 옛 궁터에 있었는데, 지금은 파묻혔다.

냉정(冷井) 하나는 수백암(水柏菴) 북쪽에 있는데, 이곳에서 목욕을 하면 머리 부스럼을 낫게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두촌면 창평 가에 있는데, 머리를 감으면 머리 부스럼과 눈병을 낫게 할 수 있다.

우단정(雩壇井) 세속에서는 용추(龍湫)라고 부르는데, 명적암(明寂菴)에서 동쪽으로 3리에 있다.

【약재(藥材)】

끼무릇[半夏]

맥문동(麥門冬)

모과(木瓜)

천문동(天門冬)

택사(澤瀉)

적·백작약(赤·白芍藥)

탱자[枳實]

연실(蓮實)

마름 열매[菱仁]

감국(甘菊)

백편두(白扁豆)

지골피(地骨皮)

작설(雀舌)

새삼[兎絲子]

【관장하는 면[掌面]】

춘포면(春浦面) 고을 서남쪽으로 가까이는 20리이고 멀리는 30리이다.

제석면(帝石面) 고을 동남쪽으로 가까이는 10리이고 멀리는 15리이다.

두촌면(豆村面) 고을 남쪽으로 가까이는 10리이고 멀리는 15리이다.

두천면(豆川面) 고을 서쪽으로 가까이는 5리이고 멀리는 15리이다.

지석면(支石面) 고을 서쪽으로 가까이는 10리이고 멀리는 15리이다.

율촌면(栗村面) 고을 서쪽으로 가까이는 15리이고 멀리는 20리이다.

사제면(巳梯面) 고을 서북쪽으로 가까이는 10리이고 멀리는 15리인데, 또 다르게 용제면(龍梯面)이라고도 한다.

구문천면(九文川面) 고을 서북으로 가까이는 10리이고, 멀리는 20리이다.

미륵면(彌勒面) 고을 북쪽으로 가까이는 3리이고, 멀리는 10리이다.

군내면(郡內面)

【관청 건물[館舍]】

관아 건물[衙舍] 예전에는 건지산 기슭에서 약간 서쪽으로 80걸음쯤 거리에 있었다. 현종 경술년(1670)에 군수 송시도(宋時燾)[31]가 지금 자리[32]에 이건하였다. 숙종 기묘년(1699)에 군수 정중기(鄭重基)[33]가 중수하였다. 건물은 총 47칸 반이다.

동헌(東軒) 8칸인데 덧붙여 지은 건물이 4칸이어서 모두 12칸이다. 창고 건물과 행랑채를 합하면 21칸이다.

공수(公須)[34] 고을 관아 남쪽에 자리하며 5칸의 건물이다.

객관(客舘)[35] 고을 관아의 북쪽에 있는데 북쪽을 등진 남향이다. 옛 건물은

---

31 송시도(宋時燾) : 1613~1689. 본관은 은진(恩津), 자는 성보(誠甫), 호는 세한재(歲寒齋)이다. 송시열(宋時烈)의 아우로 김장생(金長生)에게서 사사하였다. 익산 군수 재직 중 해마다 흉년이 들어 고을 주민들이 생업에 안주하지 못하자, 진구정책(賑救政策)을 시행하여 빈민을 구제하였다. 1689년(숙종15) 송시열이 제주도에 유배되었을 때 따라갔다가 그곳에서 풍토병으로 사망하였다.

32 지금 자리 : 현재의 금마 시장터이다.

33 정중기(鄭重基) : 해주 정씨로 예조 판서를 지낸 석(晳)의 장남으로 태어나 1675년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1699년 12월부터 1704년 3월까지 익산 군수로 있었다. 벼슬은 사도시첨정(司導寺僉正)에 이르렀다.

34 공수(公須) : 고려 시대에 관리들의 숙박·접대를 하던 곳이다. 여기서는 공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뜻으로 보인다.

35 객관(客館) : 객사(客舍)라고도 했는데, 지방을 여행하는 관리나 사신의 숙소로 사용했다. 조선 시대에는 이곳에 전패(殿牌, 임금의 초상을 대신해 '殿' 자를 새긴 패)를

언제 창건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정덕(正德)[36] 갑술년(1514, 중종9)에 객관의 동헌이 불타 군수 박거린(朴巨鱗)[37]이 중건했고, 가정(嘉靖)[38] 병진년(1556, 명종11)에 동헌이 또 불타자 군수 이인현(李仁賢)[39]이 중건하였다. 예전에는 서헌(西軒)이 없었는데 현종 무신년(1668)에 군수 송시도(宋時燾)가 새로 지었다. 현 임금 갑술년(1754, 영조30)에 벽돌로 된 대청과 서헌이 함께 불타고 동헌의 절반도 불에 타 버렸는데, 이듬해 을해년(1755)에 군수 남태보(南泰普)가 중건하였다.

【관아의 부속 건물[各廳]】

향청(鄕廳)[40] 고을 관아 북쪽 1리에 자리한다.

군관청(軍官廳)[41] 고을 관아 남쪽 담장 밖에 있는데, 병자년(1696, 숙종22)에 중건하였다.

군청(軍廳) 객관 서쪽 담장 밖에 있는데, 속오군 장교와 관리가 거처하는

안치하고, 초하루와 보름에 왕궁을 향해 망궐례를 행하였다.

36 정덕(正德) : 중국 명나라 무종(1506~1521) 때의 연호이다.

37 박거린(朴巨鱗) : 본관은 함양(咸陽)으로, 연산군 10년(1504) 식년시 문과에 급제하고, 익산 군수와 사헌부 장령을 역임하였다.

38 가정(嘉靖) : 중국 명나라 세종(1522~1566) 때의 연호이다.

39 이인현(李仁賢) : 본관은 진안(鎭安)이며 호는 쌍첨(雙尖)이다. 이항(李恒)의 문인으로 중종 20년(1525) 식년시 문과에 급제하여 익산 군수를 역임하고 내자시정(內資寺正)을 지냈다. 진안 영계사(靈溪祠)에 배향되었다.

40 향청(鄕廳) : 조선 시대 수령을 보좌하던 자문기관이다. 조선 초기에 설치된 유향소를 임진왜란 이후에는 향청이라 불렀다.

41 군관청(軍官廳) : 군관(軍官)이 사용하던 청사이다. 군관은 각 진(鎭)에 배치되어 진장(鎭將)을 보좌하고 군사를 감독하였다.

곳이다.

선무청(選武廳) 군관청(軍官廳)에 붙어 있다.

군사(郡司) 고을 관아 남쪽에 있다.

군기청(軍器廳) 객관 북쪽 담장 밖에 있는데, 병자년에 중수하였다.

형옥(刑獄) 고을 관아 남쪽에 있다.

작청(作廳)[42] 고을 관아 남쪽 담장 밖에 있다.

통인청(通引廳)[43] 공방 창고에 붙어 있다.

나장청(羅將廳) 삼문(三門)에 붙어 있다.

마방(馬房) 객관의 서쪽에 있는데, 병자년에 중건하였다.

【누정[亭榭]】

훈지당(壎篪堂) 동헌 동쪽의 장벽지 가에 있다.

청심루(淸心樓) 객사 동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훼손되었다.

태허정(太虛亭) 고을 관아 서쪽 2리 산기슭에 있었다. 양곡 소세양이 창건하였는데, 조망에 뛰어난 곳이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편액은 중국 사신 주지번(朱之蕃)[44]이 뒤에 쓴 것인데 소씨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다 한다.

---

42 작청(作廳) : 아전이 집무하던 청사로 길청(吉廳) 또는 연청(椽廳)이라고도 하였다.

43 통인청(通引廳) : 통인(通引)은 관아의 관장 밑에 딸리어 잔심부름하는 이속(吏屬)인데, 이들이 머무는 청사를 말한다.

44 주지번(朱之蕃) : 1606년(선조39) 중국 황제 신종의 황태손이 탄생한 경사를 알리기 위하여 조선에 온 공식 외교 사절단의 정사였다. 당시에 한림원 학사였던 그는 1595년 과거에 장원으로 합격했고 초횡(焦竑), 황휘(黃輝) 등과 함께 명나라 문단에서 문명을 떨치고 있었다.

자오정(自娛亭) 양곡 소세양이 창건하였다. 규견제 동쪽 언덕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퇴휴당(退休堂) 태허정 아래 약간 동쪽 대나무 숲속에 있다. 양곡 소세양이 은퇴하여 늙어 가면서 처음으로 이름을 붙이고 편액을 달았다. 그 뒤 외손들이 중수하였다.

【학교(學校)】

향교(鄕校) 고을 동쪽 2리의 건자산(乾子山) 동쪽 기슭 아래에 있다.

화산서원(華山書院) 사계(沙溪) 문원공(文元公) 김장생(金長生)을 주벽(主壁)으로 모시고 제사하기 위해 효종 갑오년(1654)에 창건하였다.[45] 현종 임인년(1662)에 사액(賜額)하였다. 그리고 숙종 을해년(1695)에 우암(尤菴)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을 추가로 모셔 제사하였다.

화암서원(華巖書院) 남촌(南村) 이공수(李公遂)[46]를 주벽으로 제사하기 위해 만력 임오년(1582, 선조15)에 진사 소영복(蘇永福)이 창건하였다. 곤암(困菴) 소세량(蘇世良)[47]과 양곡(陽谷) 소세양(蘇世讓), 그리고 준암(罇巖) 이약

---

45 사계(沙溪)……창건하였다 : 사계 김장생을 주벽으로 모신 것은 그가 1603~1605년까지 익산 군수를 지내며 군민들을 교화하였기 때문이다.

46 이공수(李公遂) : 1308~1366. 익산 이씨로 행검(行儉)의 손자이며, 애(崖)의 아들이다. 공민왕 때 익산부원군에 봉해졌으며, 홍건적 토벌에 공을 세웠다. 문장으로 일국에 명성을 떨쳤으며 유학 진흥에 공이 컸다.

47 소세량(蘇世良) : 1476~1528. 소세양(蘇世讓)의 형이다. 중종 2년(1507)에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대간, 시종을 거쳤다. 기묘사화 때 외직에 있어 화를 면하였으며 뒤에 홍문관 수찬을 거쳐 대사간에 이르렀다. 부모 봉양을 위하여 남원 부사로 내려왔다가 그곳에서 운명하였다.

해(李若海)[48]를 천계 계해년(1623, 인조 원년)에 추가로 모서 제사하였고, 면와(眠窩) 소동도(蘇東道)[49]를 숙종 기해년(1719)에 추가로 모셔 제사하였다.

사마소(司馬所)[50] 고을 서쪽 1리에 있었는데, 계유년 물난리에 무너졌다.

흥학당(興學堂) 고을 북쪽 8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권학재(勸學齋) 고을 북쪽 1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관선당(觀善堂) 고을 북쪽 7리에 있는데, 선비 백상형(白尙馨)이 주장하여 건립하였다.

【사묘(祠廟)】

사직단(社稷壇)[51] 고을 서쪽 2리의 저성(猪城)에 있다.

사직사(社稷祠) 객관 북쪽에 있는데, 위판(位板)을 봉안하고 있다. 을해년(1695, 숙종21)에 중수하였다.

문묘(文廟) 향교에 있다.

---

48 이약해(李若海) : 1498~1546. 본관은 광주로 1535년(중종30)에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중종 41년에 전한을 거쳐 직제학이 되었다. 명종이 즉위하자 나주 목사로 좌천되고 을사사화에 윤임 일파로 몰려 유배되어 사약을 받았다. 소세검(蘇世儉)의 사위로 익산에서 처가살이를 하였으며, 문장이 뛰어났다.

49 소동도(蘇東道) : 1592~1671. 소세공(蘇世恭)의 증손이다. 인조 13년(1635)에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사헌부 감찰, 예조와 병조 좌랑, 정주 목사, 의주 부윤을 거쳐 효종 10년에 황해도 관찰사가 되었다. 청렴결백하고 효성과 우애를 지녔다.

50 사마소(司馬所) : 조선 중기에 지방의 생원·진사들이 각 고을에 설립한 자체 협의기구이다.

51 사직단(社稷壇) : 토지신과 곡식신인 사직(社稷)에게 제사 드리는 곳으로 단을 쌓고 봉사(奉祀)했기에 붙인 이름이다. 사단(社壇)과 직단(稷壇)의 두 단이 마련되었는데, 사단은 동쪽에 있고 직단은 서쪽에 두었다.

성황사(城隍祠)[52] 사직사 옆에 있는데, 성황사 위판과 무사귀신(無祀鬼神) 위판을 함께 봉안하고 있다. 을해년에 중수하였다.

여단(厲壇)[53] 고을 북쪽 3리의 규견평(窺見坪)에 있다.

기우단(祈雨壇) 한 곳은 사자암 동쪽 절벽 정상에 있고, 또 하나는 도순산(都順山) 위에 있다.

【원우(院宇)】[54]

흑석원(黑石院) 고을 남쪽 20리의 흑석 부곡에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되었다.

사교원(蛇橋院) 고을 서쪽 19리 사제면에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되었다.

【사찰(寺刹)】

미륵사(彌勒寺) 용화산 서쪽 산기슭 아래에 있다. 세상에 전해지기를, 무강왕(武康王)이 인심을 얻은 뒤에 나라를 세웠으니 마한(馬韓)이다. 하루는 왕과 선화부인(善花夫人)이 사자사(獅子寺)에 거둥하고자 하여 산 아래 큰 못가에 이르렀는데 세 미륵(彌勒)이 못 가운데서 나타났다. 부인이 왕에게 이곳에 가람을 짓기를 원한다고 아뢰자, 왕이 허락하였다. 지명법사(知命法師)에게 나아가 연못을 메우는 방법을 묻자, 법사가 신력(神力)으로 하룻밤 사이에 산

---

52 성황사(城隍祠) : 조선 시대에 마을의 수호신인 성황신을 모셨던 당집이다.

53 여단(厲壇) : 제사를 받지 못하는 무주고혼(無主孤魂)이나 역질(疫疾)을 퍼뜨리는 여귀(厲鬼)에게 제사를 지내 주던 제단을 말한다.

54 원우(院宇) : 고려와 조선 시대, 역(驛)과 역 사이에 두어 공무를 보는 벼슬아치가 묵던 공공 여관이다.

을 옮겨 못을 메우고 불전을 지었다. 또 세 미륵상을 만들었는데, 신라 진평왕이 많은 공인을 보내어 도왔다고 한다. 삼가 살펴보건대,[55] 진평왕은 신라 말엽의 왕이므로 이때는 마한이 이미 망하였으니, 이른바 마한 무강왕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겠는가. 또 못을 메워서 절을 지었다는 이야기는 매우 상도에서 벗어나는 말이다. 하지만 이미 《지리지(地理志)》에 실려 있으므로 우선 기록을 남긴다. 《동사(東史)》[56]에 "신라 성덕왕 18년(719) 당나라 개원 7년 가을 9월 금마군 미륵사에 벼락이 쳤다."라고 하였다.

상원사(上院寺) 용화산 동쪽 기슭 아래에 있다.

남전(南殿) 상원사 동쪽 40걸음쯤에 있었는데, 지금은 무너졌다.

도순사(都順寺) 도순산에 있었는데, 지금은 무너졌다.

동산사(東山寺) 용화산 동쪽 산기슭 탄곡(炭谷) 소씨(蘇氏)의 재궁(齋宮)[57]이 소재하는 곳에 있다.

사자암(獅子菴) 용화산 절벽 위에 있다. 승려들의 전하는 말에는 기준(箕準)의 스승인 지명법사가 이 암자를 지었다고 한다. 하지만 기준 때에는 불교가 전래되지 않았으니, 이 말은 꾸며낸 이야기임을 면하기 어렵다. 좌우 암벽에 뚫고 깨뜨린 흔적이 있는데, 절을 지을 때 뚫어 생긴 것임을 알 수 있다. 시계(視界)가 끝없이 펼쳐져 명승지로 일컬어진다.

죽사(竹寺) 사자암 서쪽으로 떨어진 산등성이 100걸음에 있었는데, 지금은 무너졌다.

---

55 살펴보건대 : 주체는 《금마지(金馬志)》의 편찬자인 남태보(南泰普)로 이해된다.

56 동사(東史) : 어떤 책인지 확실히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본기(新羅本紀) 성덕왕(聖德王) 18년조에 보인다.

57 재궁(齋宮) :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무덤이나 사당 옆에 지은 집이다.

수백암(水柏菴) 죽사 북쪽 100여 걸음에 있었는데, 지금은 무너졌다.

만방암(萬房菴) 사자암 남쪽 200걸음에 있었는데, 지금은 무너졌다.

영혈사(靈穴寺) 수백암 서북 1리에 있는데 일명 곶사(串寺)[58]라고 한다.

명적암(明寂菴) 사자암에서 200걸음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천정암(天定菴) 명적암 동쪽 1리의 바위 귀퉁이 위에 있었다. 승려 설정(雪淨)이 처음 지었는데, 지금은 무너졌다.

오금사(五金寺) 보덕성 남쪽에 있었다. 세상에 전해지기를, 서동대왕(薯童大王)이 지극한 효성으로 어머니를 섬겼는데 어머니를 위하여 마를 캐다가 문득 다섯 덩어리의 금을 얻었다. 뒤에 왕이 되어 그 땅에 나아가 절을 짓고 인하여 오금사라 이름 붙였다고 한다. 지금은 없어졌다.

은선암(隱仙菴) 오금사 옛터에 암자를 지었는데, 그 규모를 작게 하였다.

【교량(橋梁)】

상한교(上漢橋) 고을 서쪽 100걸음에 있다. 도내[道川]에 놓여 있다.

하한교(下漢橋) 고을 5리 남쪽 정자에 있다.

초삼평교(草三坪橋) 고을 남쪽 10리 두촌면에 있는데, 나무를 가로놓아서 다리를 만들었다. 부상천 하류 큰길에 놓여 있다.

입석교(立石橋) 고을 남쪽 15리 춘포면 전주 대로에 있다. 궁평천에 놓여 있다.

문종교(文宗橋) 고을 남쪽 15리에 있다.

---

58 곶사(串寺) : 이 지역에서는 '꽃절'이라고 불렀다.

장연교(長淵橋) 고을 남쪽 20리에 있다. 모두 춘포면에 있다.

신방교(新坊橋) 고을 남쪽 20리 두촌면 들길에 있다. 도내 하류에 놓여 있는데, 널빤지를 사용하여 다리를 만들었다.

판교(板橋) 고을 북쪽 7리 구룡리 용안 함열 대로에 있다. 두천 상류에 놓여 있다.

반계교(磻溪橋) 고을 서쪽 10리 지석면 오상리 앞에 있다. 두천 하류에 놓여 있다.

원교(院橋) 고을 서쪽 15리 사제면 상리에 있다. 면천 상류에 함열 대로에 놓여 있다.

거교(鋸橋) 고을 서쪽 7리 지석면 안 두천리에 있다. 두천 임피 대로에 놓여 있다.

면천교(緜川橋) 고을 서쪽 20리 율촌면에 있다. 면천 임피 대로에 놓여 있다.

【고적(古蹟)】

흑석부곡(黑石部曲) 고을 남쪽 15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기준성(箕準城) 용화산 꼭대기 북쪽에 있는데, 세상에 전해지기를 기준이 축성했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 석축이 지금까지 자취가 뚜렷한데, 둘레는 3,900자, 높이는 8자이며, 성안에 우물과 시내가 있다. 수문으로 쇠막대기를 심었는데 지금까지 썩지 않고 있다. 마을 사람들이 성안에 들어가서 나무하다가 가끔 옛 물건을 줍는다.

보덕성(報德城) 고을 서쪽 1리에 있는데 옛터가 약간 남아 있다. 세상에 전해지기를 '신라 문무왕이 고구려의 외손(外孫)[59] 안승(安勝)을 봉하여 보덕왕

으로 삼고 형의 딸을 아내로 주어 금마저(金馬渚)에 살게 하였다. 뒤에 그의 조카 대문(大文)을 불러서 금마저에 머물게 하였는데, 반역을 꾀하다 죽임을 당하였다. 그곳에 남은 무리들이 관리를 죽이고 또 신라에 반역하자, 신라왕이 장수에게 명령하여 토벌하고 이들을 베어 죽이도록 하였다.'라고 한다. 고사(故事)[60]에 상세히 보인다.

궁터[宮坪] 고을 동쪽 7리 제석면 이인리에 있다. 도순산 한 줄기가 서남쪽으로 뻗어 응봉이 되고 응봉 아래 조산이 있다. 높이는 한 길인데 속칭 독산(獨山)이라 하고, 또는 종각 옛터라고도 한다. 산 아래 궁터에 있다. 세상에 마한 때 내궁이라고 전해지는데, 지금까지 섬돌들이 오히려 남아 있다. 조산 위에는 비석 받침돌이 있는데, 돌 가운데가 오목하며 크기가 집만 하다.

왕궁터[王宮坪] 고을 동남쪽 5리 제석면 용화산 남쪽 기슭이 끝나는 곳에 있다. 세상에 마한 때 조정의 궁궐 옛터라고 전해지는데, 성터가 뚜렷하다. 흙을 쌓아서 보루를 만들고 돌을 사용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밭을 갈면 기와와 구들돌이 땅에 깔린 채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남아 있다. 간혹 구들돌을 파내 보면 땅 몇 자쯤 되는 곳에 묻혀 있는데, 방 한 칸 면적에 네 개의 구들돌과 두 장의 기와가 깔려 있다. 구들돌이 서로 교차하는 곳에는 반드시 쪼고 갈아서 가장자리를 만들었다. 구들돌 아래에는 그을음이 아직도 남아 있다. 가끔 옥 노리개, 동전, 쇠못 따위를 주울 수 있다. 이곳으로부터 궁평까지는 3리 떨어져 있다.

---

59 외손(外孫) :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 10년조에는 "고구려 대신 연정토의 아들 안승[高句麗大臣淵淨土之子安勝]"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60 고사(故事) : 어떤 책에 기록된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 10년조와 신문왕 4년조에 각각 이와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왕궁탑(王宮塔) 궁터 앞에 있는데 높이가 열 길이고 돌을 쌓아 놓은 것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세속에 마한 때 이 탑을 지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불탑은 곧 불가에서 세우는 것인데 마한 때는 불교가 아직 동쪽 곧, 한반도에 전래되지 않았다. 일설에는 도선(道詵)이, 완산의 지리가 개가 웅크린 형세와 같아서 여기에 탑을 세움으로써 개꼬리를 진압하였으니, 대개 고려 태조가 견훤을 눌러 이기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탑이 이루어진 날 완산은 대낮이 사흘 동안 깜깜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매우 상도에 어긋나고 또 도선은 고려 이전 사람이다. 어쩌면 그는 고려가 통합하리라는 것을 미리 알아서 견훤을 제거하는 술책을 은밀히 도운 것이리라. 아직은 알 수 없다.

왕궁 우물[王宮井] 탑 북쪽 20걸음에 있다. 천정(泉井) 조항에 보인다.

창고 터[倉坪] 고을 남쪽 5리 두촌면 엽동리에 있다. 왕궁평에서 3리 떨어져 있다. 아마도 옛 도읍이었을 때 관청의 창고가 있던 곳인 듯하다.

석장동(石檣洞) 고을 서쪽 10리 산기슭 옛 절터에 있다. 돌로 된 돛대가 우뚝 솟아 있는데, 높이는 두 길이다. 세속에서 그 동네 이름을 석장동이라고 부른다. 앞 시대에서는 압승법(壓勝法)[61]을 활용한 것이 이와 같다.

준암(罇巖) 고을 북쪽 7리 옹기점 길가에 있는데, 세속에서 '계암(憩巖)'이라고 한다. 이약해(李若海)가 이를 가지고 호를 삼았다.

미륵사탑(彌勒寺塔) 미륵사 옛터의 남쪽에 있는데, 높이가 십여 길이다. 세속에서 동방의 탑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라고 전한다. 아래에 8개의 문이 통해 있는데,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다. 세상에서는 팔진법(八陣法)을 형상하여 생살(生殺)의 문이 있다고 말한다. 어느 해인지는 알 수 없으나 천둥과 벼락을

61 압승법(壓勝法) : 풍수지리에서 과도한 기운을 눌러 준다는 의미이다. 그 방법은 전통적으로 숲, 연못, 기둥 및 돌탑, 사찰, 지명 등이 있다.

맞아서 서쪽 일부분이 무너졌다. 그 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더 무너지지는 않았다. 《연려실기술》을 살펴보면, 신라 성덕왕 29년(730) 6월에 벼락이 쳐서 무너졌다고 한다.

부답(釜畓) 미륵사 뒤 쇠솥이 묻힌 땅에 있다. 요즘 사람들이 그 위에 벼를 심는데, 그 둘레에 한 말의 벼를 파종할 수 있다. 사람의 힘으로써 들어낼 수 있는 바가 아니라고 한다.

입석(立石) 고을 남쪽 15리 제석면 길가에 있다. 땅에 나온 것이 5자, 땅에 들어 있는 것이 7, 8자이다. 앞면은 구멍이 뚫려 있는데 중간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뚫지 않았다. 옛날 사람이 이것을 왜 만들었는지 알 수 없다. 마을 이름 입석은 이에서 비롯되었다.

지석(支石) 고을 서쪽 15리 지석면 임내리 서쪽에 있다. 돌을 쌓고서 위에 큰 돌을 엎어 두었다. 옛사람들이 어디에서 모양을 취했는지 알지 못하겠다. 면의 이름이 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유애비(遺愛碑) 군수 이후원(李厚源)[62]과 조정순(趙正純)[63]의 비가 객관 앞에 있다. 군수 김의(金嶷)[64]와 신명한(申鳴漢)[65]과 심집(沈潗),[66] 관찰사 구봉

62 이후원(李厚源) : 1598~1660. 본관은 전주(全州)로, 사계 김장생의 문인이다. 1634년(인조12)부터 1635년 가을까지 익산 군수로 재직한 후, 벼슬이 우의정에 이르렀다.

63 조정순(趙正純) : 본관은 임천(林川)이며 1725년(영조1) 5월부터 1726년 12월까지 익산 군수를 역임한 뒤, 이듬해에 증광 문과에 급제하여 예조 정랑, 지평 등을 지냈다.

64 김의(金嶷) : 본관은 경주로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의 문인이다. 1637년에서 1642년까지 익산 군수를 역임하였다.

65 신명한(申鳴漢) : 본관은 고령(高靈)으로, 무과에 급제하여 1712년(숙종38) 7월부터 1713년 9월까지 익산 군수를 역임하고, 이후 고부 군수와 부령 부사 등을 지냈다.

66 심집(沈潗) : 본관은 청송(靑松)으로, 1636년에서 1637년 봄까지 익산 군수를 역임하였다.

서(具鳳瑞)[67]와 홍석보(洪錫輔)[68]의 비는 상한교 서쪽 길가에 있다.

【호구(戶口)】

가호는 3,768이고 이 가운데 새로운 가호는 213호이다.

인구는 14,158명이다 남자는 6,785명이고, 여자는 8,319명이다.[69]

【유림(儒林)】

향교(鄕校)는 재장(齋長)이 1인

장의(掌議)가 1인

재임(齋任)이 2인

교생(校生)[70]이 50인이다.

화산서원(華山書院)은 원생(院生)이 30인이고

화암서원(華巖書院)은 원생이 20인이다.

---

67 구봉서(具鳳瑞) : 본관은 능성(綾城)으로, 1624년(인조2)에 증광시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수찬을 거쳐 1638년 전라도 관찰사를 역임하고, 후에 경상도, 평안도 관찰사를 지냈다.

68 홍석보(洪錫輔) : 본관은 풍산(豊山)으로, 1699년(숙종25) 증광시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수찬 등을 역임하고 1718년에 전라도 관찰사를 지냈으며, 후에 이조 참의, 도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69 인구는……이다 : 남녀 합계는 15,104명으로 원문에서 밝힌 인구 14,158명보다 946명이 많다. 새로 편입된 213가호의 인구를 산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70 교생(校生) : 향교에 배정된 정원으로 역(役)을 면제받을 수 있는 인원이다.

【무반(武班)】

무관(武官)은 마군(馬軍) 별장(別將)[71] 1인

초관(哨官)[72] 2인

지구관(知彀官)[73] 1인

기패관(旗牌官)[74] 4인

화포교사(火砲敎師) 1인

금위(禁衛) 지구관(知彀官) 1인

산성정초(山城精抄) 기패관 3인

순아병(巡牙兵)[75] 초관 1인

수첩(守堞)[76] 병방(兵房) 1인

---

71 별장(別將) : 조선 시대 산성(山城)·도진(渡津)·포구(浦口)·보루(堡壘)·소도(小島) 등의 수비를 맡은 종9품 무관직이다.

72 초관(哨官) : 속오군의 초(哨)를 통솔하던 종9품의 관직이다. 속오군은 대(隊)·기(旗)·초(哨)·사(司)·영(營) 등으로 상향 조직되었다. 대개 1대 11인으로 해서, 3대가 1기, 3기가 1초, 5초가 1사, 5사가 1영(2,500여 명)으로 편제되는데, 기에는 기총(旗摠), 초에는 초관(哨官)을 두었다.

73 지구관(知彀官) : 훈련도감이 설치되고 삼수병(三手兵)이 양성되면서 처음 설치된 군관직이다. 본래는 활을 사용하는 사수(射手)의 훈련을 담당한 특수 기능의 군관으로 보이나, 뒤에는 각 군영의 최상급 군관으로서 하급 군사 실무를 담당하였다.

74 기패관(旗牌官) : 조선 후기에 각 군영과 감영·병영에 속하여 주장(主將)의 명령을 하달하고, 군병의 조련 등을 담당했던 군관이다.

75 순아병(巡牙兵) : 지방에 소재하는 감영, 병영, 수영, 통영 등에 소속된 아병(牙兵)인데, 여기의 아(牙)는 대장기(大將旗)를 뜻하는 것으로 대장(大將)을 수행하는 임무를 맡았다.

76 수첩(守堞) : 수첩군(守堞軍)으로, 조선 시대 성가퀴[城堞]를 수호하는 역할 등을 맡았던 병종(兵種)으로 주로 성곽으로 둘러싸였거나 끼고 있는 고을에 배치되었다. 장(將)에 해당하는 총(摠), 군관(軍官), 군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아병(牙兵) 지구관 1인

출신(出身)[77] 6인

선무(選武) 병방이 1인이다.

【고을에 딸린 비장[邑裨]】[78]

행수군관(行首軍官)[79] 1인

병방군관(兵房軍官) 1인

관군관(官軍官) 50인 정원의 숫자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

작대초관(作隊哨官) 1인

군기감관(軍器監官)[80] 1인

도기찰장(都譏察將)[81] 1인 고을 안에 있다.

면기찰장(面譏察將) 9인 각각의 면(面)에 모두 있다.

죽전감관(竹田監官)[82] 1인이다.

---

77 출신(出身) : 과거시험에 합격하고도 아직 벼슬에 나아가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특히 무과 시험에 합격하고도 벼슬을 얻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78 비장(裨將) : 감사(監司), 유수(留守), 병사(兵使), 수사(水使) 등에 딸린 막료(幕僚)를 가리킨다. 조선 후기에는 의주, 동래, 강계, 제주의 방어사를 겸한 모든 수령들이 비장을 거느리는 것을 규례화하였다.

79 행수군관(行首軍官) : 행수(行首)는 동급의 신분을 가진 여러 사람 중에서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말로, 여기서는 군관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80 군기감관(軍器監官) : 군사들이 사용할 무기를 감독하던 관직이다. 감관(監官)은 관아의 회계나 특정 업무를 감독하였다.

81 도기찰장(都譏察將) : 군에 있는 기찰장으로, 장교 중에서 부지런하고 재간 있는 자를 기찰장으로 임명하여 정해진 지역 내의 순찰과 경비, 금령(禁令) 등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군역 총수[軍總]】[83]

충익위(忠翊衛)[84]는 33명 충훈부(忠勳府)에 속한다.

충찬위(忠贊衛)[85]는 50명

충순위(忠順衛)[86]는 6명 모두 병조(兵曹)에 속한다.

선무군관(選武軍官)[87]은 79명이다.

훈련도감(訓鍊都監)은 포수보(砲手保)[88]가 130명

군향보(軍餉保)[89]가 29명이다 매년 쌀로 여섯 말씩을 훈련도감에 납부한다.

어영청(御營廳)은 정군(正軍)이 35명

관납보(官納保)[90]가 70명 사람마다 쌀로 여섯 말을 낸다.

---

82 죽전감관(竹田監官) : 대나무밭을 감독하던 관직인데, 금전출납을 맡아 보기도 하는 등 다른 직무를 보기도 하였다.

83 군역 총수(軍役總數) : 국가 전체 또는 개별 군현에 부과된 군역의 총수를 가리키는데, 군역 부담자의 소속과 납부 방법을 적고 있다. 조선 시대의 군역은 본래 16세부터 60세의 양인 남자에게 부과되었으나, 국가가 필요한 군사의 수와 그 군사를 뒷받침할 보인의 숫자를 책정하여 군역 총수를 정하고, 그 군역 총수를 군현의 크고 작은 정도에 따라 적절히 배당했다.

84 충익위(忠翊衛) : 원종공신(原從功臣)과 그 자손을 위한 특수 병종으로, 매년 베 1필을 내면 잡역을 면해 주었다. 다른 군역에 비해 부담이 가벼워 법을 어기고 함부로 들어가 속하는 자가 많았다.

85 충찬위(忠贊衛) : 원종공신의 자손을 위한 특수 병종으로, 매년 베 1필을 내면 잡역을 면해 주었다.

86 충순위(忠順衛) : 과거(科擧) 합격자 이상의 양반 계층을 위한 특수 병종으로, 매년 베 1필을 내면 잡역을 면해 주었다.

87 선무군관(選武軍官) : 부유층 사족을 위한 특수 병종으로, 매년 베 1필을 내면 잡역을 면제해 주었다.

88 포수보(砲手保) : 병역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포수(砲手)가 복무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감당하는 보인(保人)이다.

89 군향보(軍餉保) : 군향은 군보, 향보라고 하며 군량을 내고 군역을 면제받았다.

정군자보(正軍資保)[91]가 37명이다 이 가운데 복마보(卜馬保)[92]가 두 명이다.

금위영(禁衛營)은 정군이 47명 이 가운데 복마군(卜馬軍)이 세 명이다.

관납보가 124명 사람마다 쌀로 여섯 말을 낸다.

정군자보가 50명 이 가운데 복마보가 세 명이다.

별파진(別破陣)[93]이 4명이다.

병조(兵曹)는 기병(騎兵)이 534명 7월에 상납한다.

보병(步兵)이 171명 10월에 상납한다.

개성부(開城府)와 서로 교환하는 기병이 13명이다 4월에 상납한다.

금군보(禁軍保)는 10명

보직보(袱直保)[94]는 1명

호련대보(扈輦隊保)[95]는 4명

경역보(京驛保)는 3명

내취보(內吹保)[96]는 1명이다.

---

90 관납보(官納保) : 정군(正軍)이 소속된 기관의 재정 운영을 위해 그 기관에 군포를 납부하는 관보(官保)를 가리킨다.

91 정군자보(正軍資保) : 정군이 복무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감당하는 자보(資保)를 가리킨다.

92 복마보(卜馬保) : 조선 후기 각 군영이나 감·병영에 속하여 짐 싣는 말을 부리는 군졸인 복마군(卜馬軍)에게 딸린 보인이다.

93 별파진(別破陣) : 숙종 때 만든 화포를 다루는 무관 잡직의 특수 병종이다.

94 보직보(袱直保) : 병영이나 관아 또는 서원 등에 딸리어 잡역에 종사하던 하례(下隷)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배정된 군보(軍保)이다.

95 호련대보(扈輦隊保) : 국왕이 거둥할 때 그 수레를 호위하던 군대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배정된 군보이다.

96 내취보(內吹保) : 취고수(吹鼓手)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배정된 군보이다. '내취(內

장악원(掌樂院)은 악생(樂生)이 1명

악생보(樂生保)가 8명

악공(樂工)이 1명

악공보(樂工保)가 8명이다.

성당창(聖堂倉) 조군(漕軍)[97]은 18명

좌수영(左水營) 조군은 7명이다 두 곳의 조군은 사람마다 각각 2결을 급복(給復)[98]해 주는데, 2결마다 쌀 2석으로 환산해서 대동조(大同條)로 상납하는 바, 이것을 기선미답(騎船米畓)[99]이라 한다. 포는 18명은 성당창에 바치고, 7명은 군산창에 바친다.

전설사(典設司)[100]의 제원(諸員)은 20명이다 이상은 경안(京案)[101]에 올라 있는 총수이다.

감영(監營)에 속한 제번군관(除番軍官)[102]은 17명이고 납포군관(納布軍官)이라 이른다.

吹)'는 원래는 서울의 선전관청에 속한 취고수만을 뜻하였으나, 뒤에는 다른 지방에서 선발되어 각 군문(軍門)에 대령하고 있던 취고수도 내취라 하였다.

97 조군(漕軍) : 고려와 조선 시대 조운선에서 조운 활동에 종사하던 선원을 말하며 조졸(漕卒)이라고도 한다.

98 급복(給復) : 조선 시대 충신이나 효자, 열녀 등에게 부역이나 조세 따위를 면제하는 일을 이르던 말이다.

99 기선미답(騎船米畓) : 배를 타는 군사였던 기선군(騎船軍)에게 급료로 지급하기 위해 마련한 전답으로 보인다.

100 전설사(典設司) : 조선 시대 병조에 소속된 관청으로, 식전(式典)에 사용되는 장막(帳幕)의 공급을 관장하던 기관이다.

101 경안(京案) : 중앙의 군문 및 각 관아의 군안(軍案)을 가리킨다.

102 제번군관(除番軍官) : 번(番)을 서거나 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군관으로, 일반 군역 역종을 꺼리는 평민 상층을 겨냥하여 만들어낸 군역의 역종이다.

약재(藥材)를 진상하는 배지보(陪持保)[103]는 34명

장인(匠人)은 6명 이상은 모두 베[布]를 바친다.

마군보(馬軍保)는 6명이다 그 가운데 양인(良人)이 한 명이고, 천인(賤人)이 다섯 명이다.

기수(旗手)는 3명이고

보군(步軍)은 58명이다 한 해는 훈련에 나아가고, 한 해는 쌀을 내는데 서로 말이다.

수군(水軍) 여군(餘軍)은 45명이고

위봉산성(威鳳山城)[104] 수첩군관(守堞軍官)[105]은 30명이고 겸역(兼役)[106]이다. 돌아가며 번(番)을 서거나, 번전(番錢)[107]을 바친다. 완주부(完州府)의 수성장(守城將)이 담당한다.

별파진(別破陣)은 12명이고 번전을 바친다. 산성별장(山城別將)이 담당한다.

정초군(精抄軍)[108]은 31명이다 산성(山城)을 위하여 설치하였다. 맡은 일

---

103 배지보(陪持保) : 지방 관청에서 장계(狀啓)를 가지고 서울에 가던 배지(陪持)에 딸린 보인을 말한다.

104 위봉산성(威鳳山城) :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에 있는 조선 시대의 산성. 1407년(태종7)에 축성하여 1675년(숙종1)에 중수하였는데, 태조의 영정을 봉안하기 위하여 축성하였다.

105 수첩군관(守堞軍官) : 수어청, 총리영, 총융청에 예속된 군관으로, 산성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다.

106 겸역(兼役) : 이미 군역을 부담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역종의 군역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일신양역(一身兩役)을 말한다.

107 번전(番錢) : 오위(五衛)의 군졸이 군포 대신에 바치던 돈이다.

108 정초군(精抄軍) : 조선 후기 중앙 군영인 정초청에 속하여 있던 군대이다. 본래 병조 소관 수포(收布) 대상인 기병 중에서 정실(精實)한 자를 골라 번상하여 정초군이라 하였는데, 1682년에 설치된 금위영(禁衛營)에 합속되었다.

이 없다.

병영(兵營) 신선(新選)[109]은 55명이다 베[布]를 납부한다.

속오군(束伍軍)은 마군(馬君) 49명에 보인(保人)이 98명

보군(步軍) 334명에 보인이 334명

대기수(大旗手) 7명에 보인이 7명

대포수(大砲手) 2명에 보인이 2명

군뢰(軍牢)[110] 11명에 보인이 11명

당보군(塘報軍)[111] 33명에 보인 33명

수솔(隨率)[112] 57명에 보인이 57명이다 이상은 외안(外案)[113]에 올라 있는 총수이다.

진상보(進上保)는 75명 양인(良人)과 천인(賤人)이 반반 섞여 있다.

군기보(軍器保)는 50명 양인이 9명, 천인이 41명이다.

지장보(紙匠保)는 50명 양인이 9명, 천인이 41명이다.

관장보(官匠保)가 50명이다.

서울과 지방의 군안(軍案)에 올라 있는 군인은 합하여 3,051명이다 베를 바치는 군인[納布軍]이 1,618명이고, 쌀을 바치는 군인[納米軍]이 281명이

---

109 신선(新選) : 조선 후기 병영·수영 등의 재정을 충당하는 데에 활용되었던 군인이다.

110 군뢰(軍牢) : 군영(軍營)과 관아(官衙)에 소속되어 죄인을 다스리는 일을 맡았던 군졸로, 군뢰복(軍牢服)이라고 하는 특유의 복장을 하고 주장(朱杖)이나 곤장(棍杖) 등을 들고서 죄인을 다스렸다.

111 당보군(塘報軍) : 적군의 상황이나 적지의 지형 등을 몰래 살펴 알리는 임무를 맡은 군사를 이르던 말이다.

112 수솔(隨率) : 일종의 사환 병사를 말한다.

113 외안(外案) : 지방의 군문 및 각 관아의 군안(軍案)을 가리킨다.

며, 올라가 번을 서는 군인[上番軍]이 82명이고, 번을 면제받은 군인[除番軍]이 12명이며, 역을 겸하는 군인[兼役軍]이 61명이고, 훈련에 참여하는 군인[赴操軍]이 493명이다. 보인(保人)은 444명이다.

【모속(募屬)】[114]

이노(吏奴) 작대(作隊)[115]는 126명이고

사직단(社稷壇)과 여단(厲壇)은 1인이다 양군(良軍)에게 두 곳을 겸하도록 한다.

향교(鄕校) 가속(假屬)[116]은 50명이고 양인(良人)과 천인(賤人)이 반반 섞여 있다.

화산서원(華山書院) 가속은 30명이고 양인과 천인이 반반 섞여 있다.

화암서원(花巖書院) 가속은 20명이다 양인과 천인이 반반 섞여 있다.

향청(鄕廳) 가속은 50명이고 겸역(兼役)한다.

군관청(軍官廳) 가속은 10명이고 겸역한다.

작청(作廳) 가속은 50명이다 겸역한다.

---

114 모속(募屬) : 군역 역종마다 정해진 일정한 정원을 넘어서서 군역자를 모집하여 소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115 이노(吏奴) 작대(作隊) : 이노역(吏奴役)의 처리를 위해 고용한 사람이다. 향리(鄕吏)나 관노비(官奴婢)가 져 온 이노역, 즉 공문서 수수, 사신 접대, 영송 쇄마, 관아 수리 등의 일을 일반 백성들로부터 징수한 세금으로 사람을 고용하여 처리하였다.

116 가속(假屬) : 임시로 예속하는 것을 말한다.

【향임(鄕任)】

좌수(座首)[117]는 1명이고

별감(別監)[118]은 2명이다.

풍헌(風憲)[119]은 각 면에 1명이고

약정(約正)[120]도 각 면에 1명이다.

【관속(官屬)】

향리(鄕吏)는 7명이고

가리(假吏)[121]는 23명이다.

공생(貢生)[122]은 25명이고

의생(醫生)은 1명이며

---

117 좌수(座首) : 유향소(留鄕所)·향청(鄕廳)의 우두머리로 향회에서 선출하고 수령이 임명하였다. 향청 시절 좌수는 별감 이하 향임(鄕任) 인사권과 행정 실무의 일부, 즉 군기(軍器)의 정비, 정군(正軍)의 선발, 군포전(軍布錢)의 징수, 환곡(還穀) 등 주로 대민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령을 보좌하는 기능을 하였다.

118 별감(別監) : 조선 전기에 좌수를 도와 지방 풍속의 조정과 향리(鄕吏)를 규찰하였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지방행정 관아의 일부로 편입되어 지방 관아가 맡는 각종 제수(祭需)·전곡·형옥(刑獄)·봉수(烽燧)·도로와 교량 보수 등의 임무를 담당하였다.

119 풍헌(風憲) : 조선 후기에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임명한 면 단위 행정 담당자이다. 향촌의 교육, 풍속·기강·소송·금령의 준수, 권농책의 시행, 세금의 납부와 차역, 부세(賦稅)의 분배, 범죄자·도망자의 체포 등 지방행정 실무 전반을 맡았다.

120 약정(約正) : 향약(鄕約)을 거행하는 향소(鄕所)의 임원이다.

121 가리(假吏) : 향리가 부족한 지역에서 행정 실무를 담당하던 양민이나 천민 출신 하층 아전을 가리킨다.

122 공생(貢生) : 교생(校生) 가운데 서리(書吏)에 충원되는 사람을 말한다.

나장(羅將)은 23명이다.

관노(官奴)는 23명이고

관비(官婢)는 16명이다.

【공천(公賤)】

시노비(寺奴婢)[123]는 4명이다.

【세금 부과 농지[田結]】

원장(元帳)에 부쳐진 밭이 2,412결 65부 6속이고 그 가운데 잡탈(雜頉)의 밭[124]이 1,350결 61부 6속이고, 실제 세금을 부과하는 밭이 1,062결 4부이다.

논이 2,692결 99부 4속이다 그 가운데 잡탈의 논이 72결 74부 8속이고, 실제 세금을 부과하는 논이 2,620결 24부 6속이다.

【조세(租稅)】

부세(賦稅)[125] 전부(田賦)는 하지중(下之中)[126]과 하지하(下之下)이다. 하지중

---

123 시노비(寺奴婢) : 중앙 각사 소속의 공노비(公奴婢)이다. 조선 시대의 노비는 공노비와 사노비(私奴婢)로 구분되는데, 공노비에는 내노비(內奴婢)·시노비·역노비(驛奴婢) 등이 있었다.

124 잡탈(雜頉)의 밭 : 이러저러한 사유로 농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밭을 의미한다.

125 부세(賦稅) : 농사짓는 땅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126 하지중(下之中) : 연분(年分)의 등급을 매길 때 먼저 상·중·하(上·中·下)의 세 등급으로 구분한 뒤 이를 다시 상·중·하로 나누어 상지상(上之上), 상지중(上之中), 상지하(上之下), 중지상(中之上), 중지중(中之中), 중지하(中之下), 하지상(下之上), 하지

은 조미(糙米)[127] 6말을 내고, 하지하는 조미 4말을 내어, 호조(戶曹)에 상납한다. 매년의 곡수(斛數)[128]는 당시 징수하는 전결(田結) 수의 증감에 따른다.

대동미(大同米)[129] 결마다 11말 1되 3홉 7작 9리씩을 거두어들이어 상납하는 것과 쌓아 두는 것을 구분한다. 매년 획정한 수에 의거하여 상납하는 것은 선혜청으로 운송하고, 쌓아 두는 것은 본 고을에 보관한다.

관수미(官需米)[130] 봄과 가을 두 번에 나누어 거두는데, 합하여 270석이다.

사객미(使客米)[131] 39섬 7말 5되인데, 그 안에는 기름 값, 조청 값, 종이 값이 포함된다. ○ 관수미와 합하여 309섬 7말 5되인데, 초하루마다 25섬 11말 8되 7홉 5작씩을 나누어 배정한다.

세태(稅太)[132] 234섬 5말 5되 5홉 4작인데, 지금은 중등(中等)과 하등(下等)으로 구분하여 조미의 예와 같이 거두어 호조에 납부한다.

위태(位太) 118섬 1말 5되 7홉 5작인데, 결마다 6되 7작 8리씩을 거두어 호

중(下之中), 하지하(下之下)의 총 아홉 등급으로 나누었다.

127 조미(糙米) : 매갈이라고도 한다. 벼를 매통에 갈아 왕겨만을 벗긴 쌀이다.

128 곡수(斛數) : 곡(斛)은 곡식을 세는 단위로 열다섯 말에서 스무 말에 해당한다. 보통 섬이라고 한다.

129 대동미(大同米) : 대동법의 시행에 따라 공물(貢物)을 각종 현물을 대신하여 징수하던 쌀을 가리킨다.

130 관수미(官需米) : 지방 수령의 양식으로 거두어들이는 쌀로, 각 관청의 비용과 아전들의 급료는 모두 대동미 속에 포함되어 있다.

131 사객미(使客米) : 사객(使客)의 음식을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쌀로 사객지공미(使客支供米)라고 한다. '사객'은 고을의 수령이 임금의 명을 받들고 외국으로 가는 사신을 이르는 말이다.

132 세태(稅太) : 조선 시대에 밭에 대한 전세(田稅)는 콩을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세태와 위태(位太) 두 가지 명목이 있었다. 세태란 콩을 심은 밭에 대해 그대로 콩을 징수하는 것이고, 위태란 메기장밭·차기장밭·목화밭·삼밭에 대해 콩으로 대신 징수하는 것이다.

조에 납부한다.

무쇠장이[水鐵匠[133]] 10명 사람마다 2냥씩을 거두어 10월에 병조에 납부한다.

무세(巫稅) 베 8필이다 그 가운데 상납(上納)이 5필, 작목(作木)[134]이 1필, 역가(役價)[135]가 2필이다. 한 필마다 돈 3냥을 대신 거두어 호조에 바친다.

【요역(徭役)】

삼수량(三手糧)[136] 세금을 부과하는 농지[田結] 속에서 마련한다.

결전(結錢)[137] 한 결(結)마다 돈으로 5냥씩 받아들여 균역청(均役廳)에 상납한다.

잡역미(雜役米)[138] 한 결마다 2말 7되 8홉 4작(勺) 4리(里)를 거두어, 진상첨가미(進上添價米) 57석과 빙정(氷丁),[139] 거탄(炬炭), 치계(雉鷄), 영납년분지(營納年分紙), 관용백물(官用百物)[140]을 그 가운데서 가져다 쓴다.

---

133 수철장(水鐵匠) : 무쇠로 주물 따위를 만들던 무쇠장이를 말한다.

134 작목(作木) : 쌀이나 콩 등의 물종을 무명[木]으로 바꾸어 내게 하는 것이다.

135 역가(役價) : 실역(實役)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에게 물리는 대역(代役)의 삯이다.

136 삼수량(三手糧) : 조선 후기에 일정한 급료를 받고 복무하는 직업적인 상비군인 삼수병을 훈련하는 데 쓰기 위하여 조세로 거두던 쌀을 말한다.

137 결전(結錢) : 1750년(영조26)에 균역법(均役法)을 실시하여 양포(良布)를 2필(匹)에서 1필로 줄이고 부족분을 전결(田結)의 부가세로 1결당 50전(錢)을 내게 하였는데, 이를 결전이라 한다.

138 잡역미(雜役米) : 정식으로 받는 대동미(大同米) 이외에, 각 고을의 용도에 쓰기 위해 별도로 거두던 쌀을 말한다.

139 빙정(氷丁) : 얼음 뜨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140 관용백물(官用百物) : 정약용(丁若鏞)의 《목민심서(牧民心書)》에 다음의 내용이 보인다. 정만석(鄭晩錫)이 연일 현감(延日縣監)으로 있을 때 응지상소(應旨上疏)했다. 곧 "각 고을의 민고(民庫)에서 거두어들이는 것에는 소위 시탄가(柴炭價)·빙정가(氷

땔감[柴] 4결마다 1동(同) 2속(束)씩 거둔다.

풀[草] 4결마다 3속씩 거둔다. 생풀은 말 1필을 하루에 먹일 가격으로 하루에 돈 5푼을 잡역미로 마련해 준다.

【면세(免稅)】

수진궁(壽進宮)[141]의 면세 밭 2결 32부 6속과 논 4결 72부 3속이다.

돈녕부(敦寧府)[142]의 면세 논 50결이다.

정빈방(靖嬪房)[143]의 면세 논 40결이다.

정안옹주(貞安翁主)[144]의 면세 논 1결 31부 3속이다.

丁價)·과실가(果實價)·면주가(綿紬價)·전관각가(傳關脚價)·조보가(朝報價) 등 각항(各項) 가미(價米)·첨가(添價)와 각영문복정잡물첨가(各營門卜定雜物添價) 각영문정채(各營門情債)·경상납정채(京上納情債)·각주인역가(各主人役價)·각사구청가(各司求請價)·전선개조첨가(戰船改造添價)·화세부족첨가(火稅不足添價) 등이 있으며, 그 외에 세쇄한 명목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어서 71개 고을이 각기 다르니 혹은 결(結)에 부과하기도 하고 혹은 호(戶)에 부과하기도 하며, 혹은 곡식으로 거두기도 하고 혹은 돈으로 거두기도 하며, 혹은 많이 거두기도 하고 혹은 적게 거두기도 하며, 혹은 거두기도 하고 안 거두기도 하는 등 본래 일정한 규례가 없습니다.……" 라고 했다.

141 수진궁(壽進宮) : 한성부 중부 수진방에 있던 궁으로, 세종의 아들 평원대군이 살던 곳이자 예종의 아들 제안대군이 평원대군의 제사를 봉향하던 곳이다. 그 후 어린 나이에 죽은 대군이나 공주, 자식 없는 후궁 등의 제사를 봉향하는 사당이 되었다. 한양에서 가장 무서운 귀신은 바로 '수진궁 귀신'이라고 여길 정도였다.

142 돈녕부(敦寧府) : 왕과 왕비의 친인척을 관리하던 관청이다. 1414년(태종14) 음력 1월 28일에 설치되었다.

143 정빈방(靖嬪房) : 정빈(靖嬪)은 영조의 후궁인 정빈 이씨(李氏)로 사도세자의 어머니이다.

144 정안옹주(貞安翁主) : 선조(宣祖)의 다섯째 딸로 인빈(仁嬪) 김씨(金氏)의 소생이며, 금양위(錦陽尉) 박미(朴瀰)와 결혼하였다.

어의궁(於義宮)[145]의 면세 논 90결이다.

신생옹주방(新生翁主房)[146]의 면세 논 50결이다.

관둔(官屯) 아래에 보인다.

국둔(國屯)[147] 밭 1결 15부 9속과 논 1결 57부이다. ○ 백성의 농지 면적[民結]에 의거해서 세금을 내는데 관아에서 약간의 세를 거둔다. '국(國)' 자를 왜 쓰는지 알 수 없는데, 아마도 금마가 옛 도읍지라서 남아 있는 전통인 듯하다.

【복호(復戶)】[148]

관공수위(官公須位)[149] 15결(結) 전세(田稅)는 면제해 주고 부역(賦役)은 내게 한다.

아록위(衙祿位)[150] 40결 전세는 면제해 주고 부역은 내게 한다.

교위전(校位田)[151] 논 7결

화산서원(華山書院) 위전(位田) 논 3결

---

145 어의궁(於義宮) : 인조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머물던 잠저(潛邸)이자 효종이 태어난 궁이다.

146 신생옹주방(新生翁主房) : 영조의 옹주이다.

147 국둔(國屯) : 군수(軍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군둔전과 거의 동일했으며, 조선 전기에는 국농소(國農所)로 불렸다.

148 복호(復戶) : 조선 시대 어떤 특정한 대상자에게 요역과 전세(田稅) 이외의 잡부금을 면제하던 일을 말한다.

149 관공수위(官公須位) : 조선 시대 공무로 출장하는 관리의 숙박·접대 등의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각 부·군·현에 획급(劃給)한 토지이다.

150 아록위(衙祿位) : 조선 시대 지방 관원의 녹봉(祿俸)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정에서 녹봉 대신 임지(任地)에 일정한 전지(田地)의 수조권(收租權)을 나누어 준 제도이다.

151 교위전(校位田) : 향교에서 지내는 제사 등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농지이다.

인리(人吏) 복호(復戶) 15결

효자 복호 1결 2인이 각기 50부씩을 낸다.

출정(出征)한 장사(將士) 복호 6결 12명이 각기 50부씩을 부담한다.

조운(漕運) 수군(水軍) 복호 50결 25명에게 나누어 주는데, 7명에게 받은 14결은 군산창(群山倉)에 납부하고, 18명에게 받은 36결은 성당창(聖堂倉)에 납부한다.

【관아 소유 농지[官田]】

둔전(屯田) 10결 91부 4속 이 가운데 진결(陳結)[152]은 3결 38부 1속이고, 실결(實結)[153]은 4결 37부 9속이며, 집터[垈]는 3결 15부 4속이다.

둔답(屯畓) 3결 54부 3속 이 가운데 진결은 98부이고 실결은 2결 56부 3속이다.

밤나무 밭 두천면(豆川面) 당산리(唐山里)에 있다. 이른바 삼율(三栗)이다.

대나무 밭 고을 서쪽 4리 죽림리(竹林里)에 있다. 읍(邑) 1작(作)의 '우(宇)' 자[154]인데, 둘레는 350자이다.

---

152 진결(陳結) : 현재 경작하지 않고 묵혀 두고 있는 농지이다.

153 실결(實結) :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이다.

154 우(宇) 자 : 농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천자문(千字文)》에 수록된 글자의 순서를 이용하여, 첫 번째는 '天' 자, 두 번째는 '地' 자, 세 번째는 '玄' 자, 네 번째는 '黃' 자, 다섯 번째는 '宇' 자의 방식으로 하였다.

【영둔(營屯)】[155]

후영(後營) 소유의 도망한 속오군(束伍軍)으로부터 몰수한 전답세(田畓稅) 콩 5섬 7말 9되와 벼 1섬 4말이다.

중영(中營) 소유의 도적으로부터 몰수한 전답세 콩 1섬과 벼 2섬 10말이다.

【제언(堤堰)】[156]

입석제(立石堤)

외제(外堤)

가좌동제(加佐洞堤)

내제(內堤)

지여제(支餘堤)

병동제(甁洞堤) 이상은 모두 제석면에 있다.

흑석제(黑石堤)

장연제(長淵堤) 이상은 모두 춘포면에 있다.

갈전제(葛田堤)

진산보제(津山洑堤) 이상은 모두 두촌면에 있다.

모리천제(毛里川堤) 두천면에 있다.

내두천제(內豆川堤) 지석면에 있다.

---

155 영둔(營屯) : 각 영문(營門)에 내려 주는 군량이나 경비에 쓰기 위하여 경작하는 토지인 둔전(屯田)·답(畓)을 말한다.

156 제언(堤堰) : 저수지를 가리킨다.

소라곡제(所羅谷堤) 율촌면에 있다.

고차동제(高次洞堤)

금가촌제(今可村堤)

굴방축제(岾防築堤) 이상은 모두 사제면에 있다.

죽청제(竹靑堤)

연등동제(蓮等洞堤)

사오랑제(沙吾郎堤)

저제제(猪梯堤)

금음조제(今音條堤)

용제(龍堤) 이상은 모두 구문천면에 있다.

판제제(板梯堤) 순채(蓴菜)가 생산된다.

요곶제(蓼串堤) 이상은 모두 미륵면에 있다.

동정자제(東亭子堤)

신제(新堤) 또 하나의 이름은 연제(蓮堤)이다.

규견제(窺見堤) 이상은 모두 군내면에 있다.

【방보(防洑)】[157]

부상천보(扶桑川洑)

탄곡보(炭谷洑)

---

157 방보(防洑) : 강물의 흐름을 막아 관개용수로 이용하는 시설인데, 강물의 수면이 관개 논보다 높은 경우에 설치되는 상설보(常設洑)와 강물의 수면이 관개 논보다 낮은 경우 매년 겨울, 봄에 물을 모아 두었다가 사용하는 동축춘결(冬築春決)의 보(洑), 이렇게 크게 2가지가 있었다.

동면보(東面洑)

호음교보(好音橋洑)

중보(中洑)

왕궁보(王宮洑)

탑리보(塔里洑)

마전보(麻田洑) 이상은 모두 제석면에 있다.

입석보(立石洑) 춘포면에 있다.

안천보(鴈川洑)

중보(中洑)

구제보(狗梯洑)

금길보(金吉洑)

엽동보(葉洞洑)

녹사평보(鹿沙坪洑)

하보(下洑)

창평보(倉坪洑) 이상은 모두 두촌면에 있다.

상보(上洑)

하보(下洑)

종평보(宗坪洑) 이상은 모두 두천면에 있다.

노아보(蘆芽洑)

진자곡보(蓁子谷洑)

무조보(茂助洑)

마산보(馬山洑) 이상은 모두 지석면에 있다.

동산천보(東山川洑)

하보(下洑)

성후보(城後洑)

하보(下洑) 이상은 모두 미륵면에 있다.

건지리보(乾支里洑)

창후보(倉後洑)

원두리보(元豆里洑)

옥후리보(獄後里洑)

두제보(斗堤洑)

옥천보(玉川洑) 이상은 모두 군내면에 있다.

【연못[池塘]】

징벽지(澄碧池) 훈지당(壎篪堂) 앞에 있다.

두지(斗池) 고을 남쪽 5리에 있는데, 옛날에는 불당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다. 고을 사람들이 놀며 구경하는 곳이다.

마룡지(馬龍池) 고을 서쪽 3리 오금사(五金寺) 남쪽 100여 걸음에 있는데, 서동대왕의 어머니가 집을 지었던 곳이다. ○ 이상은 모두 군내면에 있다.

장재지(藏財池) 춘포면에 있다.

학지(鶴池)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데, 물고기가 많이 모여 있다.

따번지[耒翻池]

냉수지(冷水池) 이상은 모두 두촌면에 있다.

【평작(坪作)】[158]

군내(群內)는 읍(邑) 1작(作)과 동(東) 2작 '천(天)' 자로부터 '야(夜)' 자에 이르기까지 55자이다.[159]

제석(帝石)은 동 3작과 동 4작 '광(光)' 자로부터 '솔(率)' 자에 이르기까지 70자이다.

사정(沙井)은 동 5작과 남(南) 1작 '빈(賓)' 자로부터 '염(染)' 자에 이르기까지 71자이다.

춘포(春浦)는 남 2작과 남 3작 '시(詩)' 자로부터 '난(蘭)' 자에 이르기까지 70자이다.

두촌(豆村)은 남 4작과 남 5작 '사(斯)' 자로부터 '수(隨)' 자에 이르기까지 70자이다.

남산(南山)은 남 6작과 남 7작 '외(外)' 자로부터 '작(爵)' 자에 이르기까지 70자이다.

두천(豆川)은 남 8작과 서(西) 1작 '사(舍)' 자로부터 '역(亦)' 자에 이르기까지 71자이다.

이제(梨堤)는 서 2작과 서 3작 '취(聚)' 자로부터 '광(匡)' 자에 이르기까지 70자이다.

지석(支石)은 서 4작과 서 5작 '합(合)' 자로부터 '악(岳)' 자에 이르기까지

---

158 평작(坪作) : 평(坪)은 넓고 평평한 들판을 의미하고, 작(作)은 토지 구획으로 지번 내의 순차 구분이나 자호(字號)를 매기는 등 다양하게 쓰인다. 자호는 양전(量田)할 때 매긴 천자문 순번으로 토지 측량 결수가 5결이 되면 다음 자로 넘어간다. 평작의 사용은 군현에서 그 영역 내의 총 결수를 쉽게 파악하도록 한다.

159 천(天) 자로부터……55자이다 : 순서를 매길 때 천자문(千字文)에 수록된 글자의 순서를 이용하였는데, 첫 번째는 '天' 자이고 쉰다섯 번째는 '夜' 자이다.

70자이다.

율촌(栗村)은 서 6작과 북(北) 1작 '종(宗)' 자로부터 '칙(勅)' 자에 이르기까지 71자이다.

사제(巳梯)는 북 2작과 북 3작 '영(聆)' 자로부터 '망(莽)' 자에 이르기까지 70자이다.

구문천(九文川)은 북 4작과 북 5작 '추(抽)' 자로부터 '방(紡)' 자에 이르기까지 70자이다.

미륵(彌勒)은 북 6작과 북 7작 '시(侍)' 자로부터 '독(犢)' 자에 이르기까지 71자이다.

모두 26개 작(作)으로 '천(天)' 자로부터 '독(犢)' 자에 이르기까지 899개 자이다.

【진상(進上)】 영주인(營主人)[160]이 담당하여 나라에 바치는 진상품 비용은 저치미(儲置米) 23섬, 첨가잡역미(添價雜役米) 60섬, 보전(保錢) 100량이다. 보전의 돈은 봄과 가을 두 분기로 나누어 분기마다 50냥씩이다.

설날에는 마른 꿩 2마리, 곶감 1접, 작은 상자 1부, 돗자리 1립, 밧줄 1거리(巨里)를 바친다.

○ 정월 초하루에는 마른 꿩 2마리, 조청 1되, 작은 상자 1부, 돗자리 1립, 밧줄 1거리, 백포 10자를 바친다.

○ 2월 초하루에는 마른 꿩 1마리, 조청 1되, 돗자리 1립, 밧줄 1거리

160 영주인(營主人) : 조선 시대 감영에서 각 군·현의 연락 사무를 맡아 보던 지방의 향리를 말한다.

를 바친다.

○ 3월 초하루에는 조청 1되, 중간 크기의 상자 1부, 밧줄 1거리, 돗자리 1립을 바친다.

○ 4월 초하루에는 조청 1되, 밧줄 1거리, 돗자리 1립, 중간 크기의 상자 1부를 바친다.

○ 5월 초하루에는 조청 1되, 보리 2되, 밀 2되, 돗자리 1립, 밧줄 1거리, 큰 상자 1부를 바친다.

○ 단오에는 마른 꿩 3마리, 돗자리 2립, 밧줄 1거리, 큰 상자 1부, 백첩선(白貼扇) 3자루, 칠별선(漆別扇) 10자루, 백유선(白油扇) 16자루를 바친다.

○ 6월 초하루에는 마른 꿩 1마리, 조청 1되, 백 항아리 1좌, 돗자리 1립, 밧줄 1거리를 바친다.

○ 7월 초하루에는 조청 1되, 돗자리 1립, 밧줄 1거리, 중간 크기의 상자 1부, 햅쌀 3되를 바친다.

○ 8월 초하루에는 마른 꿩 1마리, 조청 1되, 돗자리 1립, 밧줄 1거리, 작은 상자 1부를 바친다.

○ 임금님 탄신일에는 마른 꿩 1마리, 돗자리 1립, 밧줄 1거리를 바친다.

○ 9월 초하루에는 조청 1되, 배 10개, 호두 5되, 작은 상자 1부, 돗자리 1립, 밧줄 1거리, 흰 베 10자를 바친다.

○ 10월 초하루에는 마른 꿩 1마리, 곶감 2접, 조청 1되, 백 항아리 1좌, 돗자리 1립, 밧줄 1거리, 홍시 5개, 호두 2되를 바친다.

○ 11월 초하루에는 마른 꿩 1마리, 곶감 1접, 조청 1되, 홍시 5개, 솜

4냥, 백 항아리 1좌, 돗자리 1립, 밧줄 1거리, 큰 상자 1부를 바친다.

○ 동지에는 곶감 1접, 배 4개, 홍시 13개, 마른 꿩 2마리, 밧줄 1거리, 돗자리 1립을 바친다.

○ 12월 초하루에는 마른 꿩 2마리, 곶감 1접, 조청 1되, 돗자리 1립, 밧줄 1거리, 작은 상자 1부를 바친다.

○ 납일(臘日)[161]에는 산 노루 1마리, 산토끼 1마리, 밧줄 1거리를 바친다.

【분정(分定)】[162]

순영(巡營)[163]에 납부하는 물품은 계목지(啓目紙)[164] 1속(束)

예물용 돗자리 1립

가는 노끈 20줌[把]

중간 노끈 35줌

장지(壯紙)[165] 1장

---

161 납일(臘日) : 조선 시대에 동지 뒤 세 번째 미일로 정한 것이다. 납일은 대개 음력으로 연말 무렵이 된다. 납일에 나라에서는 종묘와 사직에 제사를 올렸고 민간에서도 여러 신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이른바 '납향(臘享)'이라고 한다.

162 분정(分定) : 진상품(進上品)을 나누어 배정한 것이다. 1750년(영조26)에 반포된 균역법에서, 감소된 군포(軍布)의 수입을 보충하는 방안의 하나로 이 '분정'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는 양민의 피폐를 가속시키는 결과만 가져왔다.

163 순영(巡營) : 관찰사가 직무를 보는 관아 감영(監營)을 달리 부르는 말이다.

164 계목지(啓目紙) : 임금에게 상주할 때 사용하던 종이로 1권의 무게가 11냥 이상이라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165 장지(壯紙) : 관아 사이에 주고받는 공문서인 관(關)·첩(牒) 및 공사(公私)의 서장에 사용되던 종이로, 두껍고 질기며 질이 좋았다.

참깨 1섬 6말

들깨 1섬 6말

새끼 양 털 3냥 9전 가격으로 환산하면 1냥 5전이다.

약재(藥材) 배지전(陪持錢)[166] 69냥 이상은 봄, 가을 두 차례로 납부한다.

먹 만드는 들기름 1말이다 3년에 1번씩 낸다.

○ 호조(戶曹)에 납부하는 물품은 볏짚 돗자리[草席] 5립, 새끼 양 털 6냥이다 가격으로 환산하여 돈 3냥이다. 이상은 모두 봄, 가을 두 차례 납부한다.

○ 이조(吏曹)에 납부하는 물품은 장지 2속이다 식년(式年)마다 세계(世系)의 단자(單子)를 수정하여 올릴 때 납부한다.

○ 군기시(軍器寺)에 납부하는 물품은 수리 깃털[雕羽][167]이다 칙사(勅使)의 행차가 있을 때 나누어 정한다.

【구청(求請)】[168]

동지(冬至)를 맞아 중국에 보내는 사신단의 정사(正使)에게는

장지(壯紙) 10속(束), 백지(白紙) 12속, 입모(笠帽)[169] 3건을 바치고,

---

166 배지전(陪持錢) : 지방 관아에 물품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갈 때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돈을 가리킨다.

167 수리 깃털 : 화살이 최대한 빠르고 곧게 날 수 있도록 깃털을 다는데 매의 깃털[鷹羽]을 최고로 쳤다.

168 구청(求請) : 상급 관청이나 그 관원이 사사로이 외방의 각 관과 그에 속한 백성들에게 재물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169 입모(笠帽) : 비 올 때 갓 위에 덮어쓰던 것으로 펼치면 위가 뾰족한 고깔 형태가 되고, 접으면 쥘부채 모양이 된다. 기름 먹인 갈모지에 가는 대오리로 살을 붙여

부사(副使)에게는

장지 8속, 백지 10속, 입모 2건을 바치고,

서장관(書狀官)에게는

장지 5속, 백지 7속, 입모 2건을 바친다.

○기로소(耆老所)[170]에는

돈 3냥, 장지 2속, 백지 3속을 바친다 봄, 가을 두 차례 바친다.

중추부(中樞府)에는

돈 2냥, 장지 1속, 백지 2속을 바친다 균역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멈추었다.

【공물(貢物)】

시노(寺奴)[171]는 신포(身布)[172] 4필을 바친다.

【창고(倉庫)】

사창(司倉) 고을의 서쪽에 있다.

대동고(大同庫) 사창에 딸려 있다.

성창(城倉) 위봉산성(威鳳山城) 안에 있는데, 고을에서 70리 떨어져 있다.

군기고(軍器庫) 객사(客舍)의 북쪽 담장 밖에 있다.

관청고(官廳庫) 고을 관아의 서쪽에 있다.

만든다. 갈모라고도 한다.

170 기로소(耆老所) : 70세가 넘는 정이품 이상의 문관을 예우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이다.

171 시노(寺奴) : 관청에 소속된 노비를 말한다.

172 신포(身布) : 군역(軍役)을 지지 않는 대신으로 바치는 베[布]이다.

잡역고(雜役庫) 향청(鄕廳) 앞에 있다.

【창고 곡식[倉穀]】

사창(司倉) 쌀은 998섬[石][173] 5되[升] 8홉(合)[174] 3리(里) 2분(分)이다. ○ 콩[太]은 477섬 10말[斗] 5되 8홉 1리 3분이다. ○ 정조(正租)[175]는 6,561섬 1되 5홉 8작(勺)[176] 5리 3분이다. ○ 팥[小豆]은 4섬 6말 2홉 2작 5리 7분이다. ○ 메밀[木麥]은 16섬 7말 5되이다. ○ 겉보리[皮牟]는 670섬 6말 9되 9홉 9작 3리 9분이다. ○ 참밀[眞麥]은 836섬 3말 4홉 7리 6분이다.

비변사(備邊司) 관장 군작미(軍作米) 669섬 13말 4되 2홉 2작 2리 6분이다.

대동(大同) 저치미(儲置米) 2,560섬 1말 1되 8홉 3리이다.

산성미(山城米) 1,139섬 6말 1되 2홉 7작 4리 9분 가운데 782섬 4말 5되 5홉 3작 2리 6분은 산창(山倉)에 거두어 보관하고, 357섬 1말 4되 1홉 4작 2리 3분은 읍창(邑倉)에 거두어 보관한다.

산성조(山城租)[177] 89섬 7말 3되 2홉 2작 2분 가운데 59섬 9말 8되 3홉 1작 1리 8분은 산창에 거두어 보관하고, 29섬 10말 1되 8홉 8리 4분은 읍창에 거두어 보관한다. 등의 여러 가지 곡물을 합하여 1만 4,053섬 2말 9되 3

---

173 섬 : 곡식의 양을 헤아릴 때 쓰였다. 민간에서는 대두(大斗) 10말, 또는 소두(小斗) 20말을 1섬으로 하였다.

174 홉(合) : 되[升]의 10분의 1이며, 작(勺)의 10배이다.

175 정조(正租) : 털 없는 겉벼로, 타작을 끝낸 뒤 방아를 찧지 않은 벼를 말한다.

176 작(勺) : 척관법의 한 단위로 1홉(合)의 10분의 1이며, 되[升]의 100분의 1이다.

177 산성조(山城租) : 산성에 위급한 때를 대비하기 위해 쌓아 두는 벼이다. 이곳에서의 '조(租)'는 찧지 않은 벼를 가리킨다.

홉 3작 7리 8분이다.

【여러 가축[雜畜]】

분양마(分養馬)[178] 2필

양(羊) 여섯 마리가 회부(會付)[179]되었는데, 양치기가 축내었다.[180]

염소[羔] 회부된 35마리 가운데 현재 13마리가 남아 있다.

돼지[猪] 100마리가 회부되었다.

【장시(場市)】

군내(郡內) 매월 2일, 7일, 12일, 17일, 22일, 27일에 장이 열린다.

회화(檜花)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에 장이 열린다.

반계(磻溪)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수공업자[工匠]】

대장장이[冶匠][181] 11명이다.

궁인(弓人)[182] 1명이다.

---

178 분양마(分養馬) : 사복시(司僕寺)에서 각 고을에 나누어 주어 기르게 하는 말을 가리킨다.

179 회부(會付) : 금전이나 곡물을 회계장부에 회록하고 해당 관아에 넘겨주는 일을 말한다.

180 축내었다 : 원문은 '무면(無面)'인데, 돈이나 물건이 축나는 일을 가리킨다.

181 대장장이 : 쇠를 달구어 연장 따위를 만드는 장인이다.

시인(矢人)[183] 궁인이 겸한다.

목수장이[木匠] 7명이다.

수레바퀴장이[輪匠] 3명이다.

망건장이[網巾匠] 2명이다.

붓장이[筆匠] 2명이다.

석수장이[石物匠] 2명이다.

옹기장이[瓮匠] 미륵면 가게가 13집, 제석면 가게가 11집, 율촌면 가게가 6집, 지석면 가게가 4집이다.

무쇠장이[水鐵匠][184] 남산(南山) 가게가 2집, 미륵면 가게가 2집이다.

삿갓장이[笠子匠] 2명이다.

패랭이장이[蔽陽子匠][185] 14집인데 가게는 미륵면에 있다.

무두장이[皮鞋匠][186] 2명이다.

유기장이[柳器匠][187] 15명이다.

【군기(軍器)】

흑각궁(黑角弓)[188]이 204장(張)이고

---

182 궁인(弓人) : 활 만드는 장인이다.

183 시인(矢人) : 화살 만드는 장인이다. 주로 양인 이상의 신분을 가진 자가 궁인, 시인이 되었으며, 궁장(弓匠), 시장(矢匠)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으나 다른 장인과는 구별하여 우대하는 의미에서 주로 궁인, 시인이라고 불렀다.

184 무쇠장이 : 솥·농기구 등 무쇠를 다루는 장인이다.

185 패랭이장이 : 천민이나 상제(喪制)가 쓰는 대나무로 만든 갓을 만드는 장인이다.

186 무두장이 : 모피의 털과 기름을 뽑고 가죽을 부드럽게 다루는 장인이다.

187 유기장이 : 고리버들로 고리짝이나 키 따위를 만들어 파는 장인이다.

황각궁(黃角弓)[189]이 13장이고

교자궁(交子弓)[190]이 102장이다.

활집[弓家][191]이 335통(筒)이고

예비 활줄[弓弦]이 34개이다.

긴 화살[長箭]이 228부(浮)[192] 20통이고

편전(片箭)[193]이 64부이고

통아(筒兒)[194]가 64개이고

긴 창[長槍]이 14자루이다.

거마작(拒馬作)[195]이 81좌(坐)이고

밧줄이 200사리(沙里)[196]이다 거마작(拒馬作)에 들어가는 것이다.

마름쇠[菱鐵[197]]가 3,472개이고

---

188 흑각궁(黑角弓) : 무소의 검은 뿔로 만든 활이다.

189 황각궁(黃角弓) : 황색이 나는 무소 뿔로 만든 활이다.

190 교자궁(交子弓) : 목궁(木弓)의 하나인데, 저리갈나무[沮里加乙木]로 만들어 끈을 맨 것으로 여름에 잘 휘지 않는다.

191 활집 : 성 위에서 숨어 활을 쏘는 곳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활을 집어넣어 보관하는 '활집'의 뜻으로 보인다.

192 부(浮) : 화살이나 화살대 100개를 하나치로 세는 데 쓰는 말로, '떼'라고 한다.

193 편전(片箭) : 가늘고 짧은 화살로 애기살이라 부르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화살이다.

194 통아(筒兒) : 편전을 쏘기 위한 보조기구이다.

195 거마작(拒馬作) : 적의 기병(騎兵)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설치하는 이동용 방책(防柵)을 말한다.

196 사리(沙里) : 국수, 새끼, 화승 따위를 헝클어지지 않도록 사리어 감은 덩이의 수, 또는 그 길이를 헤아리는 데 쓰는 말로, 동(同)의 하위 단위이다. 대개 30~50발[把]이 1사리이고, 50~100사리가 1동이 된다.

197 능철(菱鐵) : 마름쇠이다. 삼각주침(三角柱針)이라고 하는데, 도둑이나 적(敵)을 막

마름쇠 넣는 궤짝[蔆鐵入盛櫃子]이 2좌이다.

쇠로 만든 갑주[鐵甲冑]가 4부이다.

조총(鳥銃)이 94자루[柄]이고 또 247자루가 있다 속오군(束五軍)에게 나누어 주었다.

천보총(千步銃)이 10자루이고

유화포(鍮火砲)가 1자루이고

삼혈총(三穴銃)이 3자루이다.

납 탄환[鉛丸]이 7만 4,945개이다.

화약(火藥)이 1,316근 2량 5전 8분이고

화약 넣는 궤짝이 28좌이다.

귀약통[耳藥桶][198]이 66개이고

남날개[南飛箇][199]가 66개이다.

화승(火繩)[200]이 198사리이고

약승(藥升)이 66좌이다.

화철(火鐵)이 66개이고

원침(圓針)이 66개이다.

꽹과리[錚]가 4좌이고

나팔(羅叭)이 1쌍이고

기 위하여 뿌려 놓는 마름 모양의 무쇠덩이로 끝이 뾰족한 4개의 침이 있다.

198 귀약통 : 화승총의 귀에 재는 화약을 담아 두는 통이다.

199 남날개 : 사냥꾼이 화약이나 탄알을 넣어 가지고 다니는 그릇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200 화승(火繩) : 화약 심지의 불을 붙게 하는 데 쓰는 노끈으로, 대의 속살을 부수어서 부드럽게 만들어 꼬았다. 총열에 화약과 탄알을 재고 이 노끈에 불을 붙이어 귀약통에 대어 화약에 불을 붙여 터지게 하였다.

큰 북이 2좌이고

대를 갖춘 중간 북[具臺中鼓]이 2좌이고

대를 갖춘 작은 북[具臺小鼓]이 4좌이다.

편곤(鞭棍)이 49자루이고

기기(旗機)가 2좌이고

대단(大緞)[201]으로 만든 순수기(巡視旗)가 1쌍이고

대단으로 만든 영기(令旗)가 1쌍이다 이상은 회부(會付)된 것이다.

삼혈포(三穴砲)가 1자루이고

큰 북이 1좌이고

중간 북이 4좌이다.

사과녁[射貫革]이 2좌이고

포과녁[砲貫革]이 4좌이고

기추과녁[騎芻貫革]이 9좌이다.

누수기(漏水器)[202]가 1좌이다.

조총 철정(鐵釘)이 1자루이고

탄환을 주조하는 집거(執巨)가 1자루이다.

청·흑·홍 삼색 옷을 씌운 등(燈)이 11건이고

등철기(燈鐵機)가 12개이다.

검은 보자기[黑冪]가 6개이고

백 근 저울[稱子]이 1자루이다.

---

201 대단(大緞) : 비단의 한 종류이다.

202 누수기(漏水器) : 물시계를 말한다.

화약침(火藥砧)이 2좌이고

나무절구[木臼]가 3좌이다.

붉은색 전립(氈笠)이 1쌍이다 이상은 회부된 것이다.

긴 창이 28자루이고

흑각궁이 171장이고

교자궁이 113자루이다.

긴 화살이 114부이고

편전이 114부이다.

통아가 114개이고

활줄이 284개이고

활집이 284개이다.

조총이 40자루이고

납 탄환이 718개이다.

화약이 133근 10량 4전이고

남날개가 40개이고

귀약통이 40개이다.

화승이 40사리이고

부싯돌[火鐵][203]이 40개이고

대나무 통이 1,200개이다.

둥근 바늘이 40개이고

송곳 침이 40개이고

---

203 부싯돌 : 서로 부딪혀 불을 일으키는 쇳조각이다.

약승(藥升)이 40개이다 이상은 위봉산성(威鳳山城)에 보관된 것이다.

【서적 목판[書板]】

《춘추호씨전(春秋胡氏傳)》[204]이 있다 목판이 빠져서 사용하지 못한다.

【서적(書籍)】

《춘추호씨전(春秋胡氏傳)》 7권 결본(缺本)이다.

《서전언해(書傳諺解)》[205] 5권

언해(諺解)[206]를 갖춘 《시전(詩傳)》[207]

《시전대문(詩傳大文)》[208] 2권

언해를 갖춘 《맹자(孟子)》

《맹자대문(孟子大文)》[209] 2권

언해를 갖춘 《중용(中庸)》[210]

---

204 춘추호씨전(春秋胡氏傳) : 중국 송(宋)나라 휘종(徽宗) 때의 문신·학자인 호안국(胡安國)이 지은, 《춘추(春秋)》의 주석서이다. 원문의 《호전춘추(胡傳春秋)》는 속칭인데 본래의 책 이름으로 번역하였다.

205 서전언해(書傳諺解) : 중국 남송 채침(蔡沉)이 주석한 《서전(書傳)》에 대하여 언해(諺解)를 진행한 뒤 이를 원문과 함께 수록한 책이다.

206 언해(諺解) : 한문을 우리말로 풀이하는 것을 말한다. 사서삼경(四書三經)의 각 책에 언해문을 수록한 책을 '□□구언해(□□具諺解)'라고 표기한 듯하다.

207 시전(詩傳) : 중국 남송 주희(朱熹)가 시경(詩經)을 주석한 책으로 '시집전(詩集傳)'이라고도 한다.

208 시전대문(詩傳大文) : 《시전》의 본문 큰 글씨만을 수록한 책이다.

209 맹자대문(孟子大文) : 《맹자(孟子)》의 본문 큰 글씨만을 수록한 책이다.

언해를 갖춘 《대학(大學)》[211]

《예기(禮記)》[212] 10권

《소학(小學)》[213] 4건

《효경대의(孝經大義)》[214]

《격몽요결(擊蒙要訣)》[215] 3건

《통감(通鑑)》[216] 13권 결본이다.

《이백시집(李白詩集)》[217] 14권

《여문정선(儷文程選)》[218] 6권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219]

---

210 중용(中庸) : 주희(朱熹)가 사서(四書)에 포함시킨 유교 경전 가운데 하나이다. 원래는 《예기(禮記)》에 수록되어 있었던 한 편의 글이었다.

211 대학(大學) : 주희가 사서에 포함시킨 유교 경전 가운데 하나이다. 원래는 《예기》에 수록되었던 한 편의 글이었다.

212 예기(禮記) : 유교 오경(五經)의 하나이다. 예경(禮經)이라 하지 않고 《예기》라 한 것은 예(禮)에 대한 기록 또는 주석(註釋)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213 소학(小學) : 8세 안팎의 아동들에게 유학을 가르치기 위하여 만든 수신서(修身書)이다. 남송 주희가 엮은 것이라고 쓰여 있으나 실은 그의 제자 유자징(劉子澄)이 그의 지시에 따라 편찬한 것이다.

214 효경대의(孝經大義) : 주희가 지은 《효경간오(孝經刊誤)》에 원(元)나라 동정(董鼎)이 자세한 주석을 하여 이해를 도모하고 대의를 밝힌 책이다.

215 격몽요결(擊蒙要訣) : 1577년(선조10) 율곡(栗谷) 이이(李珥)가 일반 학도들에게 도학(道學)의 입문을 지시하기 위해서 저술한 책이다.

216 통감(通鑑) : 송나라 휘종(徽宗) 때 강지(江贄)가 사마광(司馬光)이 지은 《자치통감(自治通鑑)》의 방대함을 간추려 엮은 역사서 《통감절요(通鑑節要)》를 가리킨다.

217 이백시집(李白詩集) : 중국 당(唐)나라 대시인 이백(李白)의 시집이다.

218 여문정선(儷文程選) : 조선 중기의 문신 이식(李植)이 중국의 육조와 당·송 시대의 변려문(騈儷文)을 수집해서 펴낸 책이다. '변려문'이란 말 두 필이 나란히 달리듯이 네 글자와 여섯 글자의 구(句)를 나란히 두 줄로 써 내려가는 문체이다.

《상례비요(喪禮備要)》[220]

《천의소감(闡義昭鑑)》[221] 3권

《수교집록(受敎輯錄)》[222] 2권

《간이집(簡易集)》[223] 9권

《계고록(稽古錄)》[224] 1권 이상은 향교(鄕校)에 소장된 책이다.

○《시전(詩傳)》

《춘추(春秋)》 7권

《근사록(近思錄)》[225] 4권

《근사록석의(近思錄釋疑)》[226] 1권

---

219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 설순(偰循) 등이 왕명에 의하여 우리나라와 중국의 서적에서 군신·부자·부부의 삼강에 모범이 될 만한 충신·효자·열녀의 행실을 모아 만든 책이다.

220 상례비요(喪禮備要) : 신의경(申義慶)이 찬술한 상례(喪禮) 관계의 초보적인 지침서로, 그는 당시 김장생(金長生) 등과 같은 예학자와 동유할 정도로 이 방면에 조예가 깊었던 학자였다.

221 천의소감(闡義昭鑑) : 1755년(영조31)에 영조의 명에 따라 김재로(金在魯), 조명리(趙明履) 등이 연잉군이 경종의 왕세제로 책봉된 의의(意義)를 밝힌 책이다.

222 수교집록(受敎輯錄) : 1698년(숙종24)에 이익(李翊)·윤지완(尹趾完)·최석정(崔錫鼎) 등이 왕명을 받아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이후에 각 도 및 관청에 내려진 수교·조례(條例) 등을 모아 편찬한 법전이다.

223 간이집(簡易集) : 조선 선조 때 학자 최립(崔岦)의 시문집으로, 저자의 시문과 상소문 등을 시기별로 분류하여 간행한 책이다.

224 계고록(稽古錄) : 중국 북송 사마광(司馬光)이 《자치통감(資治通鑑)》의 보충 자료로 지은 20권의 책이다.

225 근사록(近思錄) : 중국 남송(南宋)의 철학자 주희(朱熹)와 여조겸(呂祖謙)이 공동 편찬한 성리학 해설서이다.

226 근사록석의(近思錄釋疑) : 조선 중기의 학자 정엽(鄭曄)이 찬술한 《근사록》의 주석서이다.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이륜행실(二倫行實)》[227]

《사문유취(事文類聚)》[228] 40권 결본이다.

《사계집(沙溪集)》[229] 4권

《우암집(尤菴集)》[230] 57권

《창주집(滄洲集)》[231] 7권

《천의소감(闡義昭鑑)》 3권 이상은 화산서원(華山書院)에 소장된 책이다.

○《주역(周易)》 11권

《시전(詩傳)》 10권

《춘추(春秋)》 1권

《예기(禮記)》 12권

《좌전초평(左傳抄評)》[232] 6권

《이백시집(李白詩集)》 5권

《두시언해(杜詩諺解)》[233] 18권

---

227 이륜행실(二倫行實) : 장유유서(長幼有序)와 붕우유신(朋友有信)의 이륜(二倫)을 권장하기 위해 모범이 될 만한 내용을 뽑아 그 행적을 싣고 설명한 책이다.

228 사문유취(事文類聚) : 송나라 축목(祝穆) 등이 편찬한 백과사전 성격의 유서(類書)로, 여러 책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과 고금의 사실(事實), 시문(詩文) 등을 수집하여 부문별로 분류하여 편찬한 것이다.

229 사계집(沙溪集) : 조선 중기의 학자 사계 김장생(金長生)의 문집이다.

230 우암집(尤菴集) : 우암 송시열(宋時烈)의 문집이다.

231 창주집(滄洲集) : 조선 후기 문신 창주 김익희(金益熙)의 문집인 《창주유고(滄洲遺稿)》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232 좌전초평(左傳抄評) : 명(明)나라의 목문희(穆文熙, 1528~1591)가 《춘추좌씨전》의 내용 가운데 일부를 뽑아서 평론을 덧붙인 책이다.

233 두시언해(杜詩諺解) : 조선 성종 때 당(唐)나라 시인 두보(杜甫)의 시를 우리말로

《당음(唐音)》[234] 2권

《천의소감》 3권

《오선생유사(五先生遺事)》[235] 1권

《양곡집(陽谷集)》[236] 5권 이상은 화암서원(華巖書院)에 소장된 책이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237] 2권

《향약문(鄕約文)》[238] 1권

《대명률(大明律)》[239] 3권

《경국대전(經國大典)》[240] 6권

《무원록(無冤錄)》[241] 1권

번역해 간행한 우리나라 최초의 번역 시집이다.

234 당음(唐音) : 당나라 시를 모아 놓은 책으로, 조선 시대 서당에서 한시 교재로 널리 쓰였다. 책의 본래 이름은 '당음정선(唐音精選)'이다.

235 오선생유사(五先生遺事) : 송나라 성리학자인 정호(程顥), 정이(程頤), 사마광(司馬光), 장재(張載), 주희(朱熹) 등의 다섯 선생이 남긴 사적을 모아 엮은 책으로 보인다.

236 양곡집(陽谷集) : 조선 시대 익산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던 양곡(陽谷) 소세양(蘇世讓)의 시문집으로, 그는 문명이 높고 율시(律詩)에 뛰어났으며, 글씨는 송설체(松雪體)를 잘 썼다. 익산의 화암서원(華巖書院)에 제향되었으며,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237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국가의 기본 예식인 오례, 즉 길례(吉禮)·가례(嘉禮)·빈례(賓禮)·군례(軍禮)·흉례(凶禮)에 대해 규정한 예전(禮典)으로, 신숙주(申叔舟)·정척(鄭陟) 등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책이다.

238 향약문(鄕約文) : 조선 후기의 학자 송재경(宋在慶)이 편찬한 향약에 관한 책이다.

239 대명률(大明律) : 조선 시대 현행법, 보통법으로 적용된 중국 명(明)나라의 형률서(刑律書)이다.

240 경국대전(經國大典) : 조선 건국 초의 법전이었던 《경제육전(經濟六典)》의 원전(原典)과 속전(續典), 그리고 그 뒤의 법령을 종합해 만든 법전이다.

241 무원록(無冤錄) : 중국 원(元)나라 왕여(王與)가 송(宋)나라 때의 법의학서들을 정리하여 편찬한 것으로, 조선에서는 세종 22년(1440)에 주석을 붙여 《신주무원록(新註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242] 1권

《속대전(續大典)》[243] 4권

《감란록(勘亂錄)》[244] 4권

《균역사목(均役事目)》[245] 1권

《양역실총(良役實總)》[246] 1권 이상은 성청(星廳)[247]에 소장된 책이다.

無冤錄)》으로 간행하여 검시(檢屍) 방법 및 조사 과정과 집행상의 주의할 문제들을 규정하였다.

242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 《무원록》의 내용이 모호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므로 영조(英祖) 24년(1748)에 증보하고 해석을 붙여 새로 편찬한 책으로, 정조 14년(1790)에는 한글로 토를 달고 증보한 《증수무원록언해(增修無冤錄諺解)》를 간행하였다.

243 속대전(續大典) : 1746년(영조22)에 《경국대전》 시행 이후에 공포된 법령 중에서 시행할 법령만을 추려서 편찬한 통일 법전이다.

244 감란록(勘亂錄) : 1728년에 일어났던 이인좌의 난의 전말을 각종 자료에서 뽑아 편집한 책이다. 영조가 붕당(朋黨)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하여 송인명(宋寅明) ·박사수(朴師洙) 등에 하명하여 편찬하게 하였다.

245 균역사목(均役事目) : 1752년에 균역청(均役廳)의 원사목(原事目)이 반포된 후 이듬해에 원사목을 수정 보완한 추사목(追事目)이 반포되었고 그 후에도 각 조항마다 여러 차례에 걸친 개정이 있게 되자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한 책으로 엮은 것이다.

246 양역실총(良役實總) : 조선 후기의 양역(良役)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책이다. 양역사정안(良役査定案)을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1748년 6월에 간행, 반포되었다. 내용은 각 도별로 총 호구 수(總戶口數) 내의 남구양천수(男口良賤數, 남자 가운데 양인과 천인의 수)를 밝히고, 다시 이들에게 부과될 각 관(官)·영(營)·진(鎭)의 역명(役名)과 차출된 인원수를 기록하였으며, 그 위에 각 읍별로 배정된 역명과 인원수를 수록하였다.

247 성청(星廳) : 향리의 집무 장소를 부르는 명칭이다. '작청(作廳)', '인리청(人吏廳)', '아전청(衙前廳)'과 같은 말인데, 주로 '작청'이라고 불렀다.

【명환(名宦)】[248]

〔고려〕

진의귀(陳義貴) 행정에 뛰어나다는 명성이 있었다.

〔조선〕

노귀상(盧龜祥) 송사를 판결하는 데 과단성이 있었다.

최덕지(崔德之) 몸가짐이 검소하였으며, 일 처리가 자상하고 분명하였다.

이인현(李仁賢) 가정(嘉靖) 갑인년(1554, 명종9)에 부임하여 온화하고 소탈하게 다스렸다. 병진년(1556)에 객관(客館)의 동헌(東軒)을 중수하였다.

양희(梁喜) 가정 병오년(1546)[249]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기미년(1559)에 부임하였는데 경신년(1560)[250]에 모친상을 당하여 집으로 돌아갔다. 행정 처리에 청렴하고 간결을 숭상하였다.

김장생(金長生) 만력(萬曆)[251] 계묘년(1603, 선조36)에 부임하였는데 유학(儒學)의 교화를 일으켰다. 사림(士林)이 사당(祠堂)을 세워 사액(賜額)[252]을 받았다.

이후원(李厚源) 숭정(崇禎)[253] 갑술년(1634, 인조12)에 부임하였는데 을해

---

248 명환(名宦) : 익산 군수로 부임하여 명망을 떨친 사람들을 가리킨다.

249 병오년 : 원문에는 '申午'로 되어 있으나, '丙午'를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고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250 경신년 : 원문에는 '丙申'으로 되어 있으나, '庚申'을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고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251 만력(萬曆) : 중국 명나라 신종(1573~1615) 때의 연호이다.

252 사액(賜額) : 국가의 공인을 받아 서원명의 현판(懸板)을 하사하는 것이다. 익산 지역에서는 현종 3년(1662)에 화산서원(華山書院)이 사액을 받았다.

253 숭정(崇禎) : 중국 명나라 마지막 황제 의종(1628~1644)의 연호이다.

년(1635) 문과에 급제하였다. 이임할 때 선정(善政)을 기리는 비석을 세웠다. 병자년(1636)에 벼슬이 갈렸다.

심집(沈潗) 숭정 병자년(1636)에 부임하여 정축년(1637)에 벼슬이 갈렸다. 선정을 기린 비석이 있다.

김의(金嶷) 숭정 정축년(1637)에 부임하였다가 임오년(1642)에 임기가 차서 벼슬이 갈렸다. 선정을 기린 비석이 있다.

송시도(宋時燾) 현종(顯宗) 정미년(1667, 현종8)에 부임하였다. 공적인 일로 상경하였을 적에 왕이 불러 백성들의 어려움을 물었는데, 진영(鎭營)이 설치되어 있는 고통을 말하자 여산(礪山)으로 옮기라는 특명을 내리셨으므로[254] 익산의 아전과 백성들이 편하게 되었다고 칭송하였다. 관아 건물을 다시 세웠다. 신해년(1671)에 벼슬이 갈렸다.

【인물(人物)】

〔고려(高麗)〕

이주(李湊) 고려 고종(高宗) 때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한림학사 승지에 이르렀다. 성품이 온화하고 선량하였으며 문장을 잘 짓고 글씨에 능하였다. 재산을 불리는 데에 관심을 두지 않아 집에 조금의 곡식도 쌓아 둔 적이 없었다. 본관은 익산(益山)이다.

이행검(李行儉) 이주(李湊)의 아들로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국자전주 보문각 직제학 지제고(國子典酒寶文閣直提學知製誥)에 이르렀다. 곧은 절개로 이름이 났다.

---

254 진영(鎭營)이……내리셨으므로 : 《조선왕조실록》 현종 10년 2월 6일 기사에 보인다.

이공수(李公遂) 이행검의 손자로 충렬왕 때 감찰규정(監察糾正)의 직책에 있으면서 괴과(魁科)[255]에 급제하였다. 공민왕 때 추충수의동덕찬화공신 벽상삼한삼중대광 영도첨의사 우문관대제학(推忠守義同德贊化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領都僉議事右文館大提學)에 임명되었으며, 익산부원군(益山府院君)에 봉해졌다. 시호는 문충이며, 공민왕 묘정에 배향되었다. ○ 화암서원(華巖書院)에 배향되었다.

〔조선[本朝]〕

김중서(金仲舒) 본관은 안동(安東)으로 척약재(惕若齋) 김구용(金九容)의 손자이다.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문음(門蔭)으로 출사했는데, 집의를 거쳐 호조참의에 이르렀다. 벼슬에서 물러난 뒤에는 본 고을에서 노년을 보내다가 89세에 운명하였다.

소세량(蘇世良) 자는 원우(元友)이고, 호는 곤암(困菴)으로 본관은 진주(晉州)이다. 중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대사간 지제교에 이르렀다. 성품이 효성스럽고 우애가 깊었으며 재산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 사재(思齋) 김정국(金正國), 눌재(訥齋) 박상(朴祥), 충암(冲菴) 김정(金淨) 등과 교우관계가 좋아 서로 왕래하며 학문을 닦고 도(道)를 논하였다. 권간(權奸)을 거스르다 용담 현령(龍潭縣令)으로 쫓겨났다. 기묘사화(己卯士禍) 때 외직에 있었기 때문에 홀로 사화에서 벗어났다. 화암서원(華巖書院)에 모셔졌으며 문집이 있어 간행되었다.[256]

소세양(蘇世讓) 자는 언겸(彦謙)이고, 호는 양곡(陽谷)인데 소세량(蘇世良)

---

255 괴과(魁科) : 조선 시대, 과거 합격생의 성적을 갑, 을, 병의 세 과(科)로 나누었는데 갑과를 가리켜 괴과라고 하였다.

256 간행되었다 : 《곤암선생문집(困菴先生文集)》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의 동생이다. 중종 때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숭정대부 좌찬성에 이르렀으며, 대제학을 지냈다. 문장이 풍부하고 아름다웠으며 글씨는 송설체(松雪體)[257]에 능하였다. 네 차례 중국 사신을 영접하였고 한 차례 중국 수도에 사신으로 갔는데 명성이 중국 땅에 퍼졌다. 벼슬을 그만둔 뒤 20여 년 동안 시골집에서 한가하게 지내며 77세까지 장수를 누렸다. 화암서원에 모셔졌으며 문집이 있어 간행되었다.[258]

소봉(蘇逢) 자는 숙경(叔卿)이고 호는 화강(花江)으로 소세량의 아들이다. 중종 때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부제학에 이르렀다. 벼슬에서 물러난 뒤에는 고향에서 노년을 보냈다.

소광진(蘇光震) 자는 자실(子實)이며 호는 후천(后泉)이다. 소세량의 동생이며 현감이었던 소세득(蘇世得)의 증손이다. 선조 때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교리에 이르렀는데, 46세에 요절하였다. 문학과 행실로 이름이 있어 죽음(竹陰) 조희일(趙希逸)이 지은 애도의 글에 "소군이 앉았던 자리에는 사흘 동안 향기가 남았다.[蘇君坐席三日有香]"라고 하였다. 문집이 있다.

소영복(蘇永福) 자는 중수(重綏)이고 호는 사은(四隱)인데, 소봉(蘇逢)의 손자이다. 진사시에 합격한 뒤 다시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다. 징사(徵士)[259] 김은휘(金殷輝)를 스승으로 섬겼는데, 학문과 행실로 유명하였다. 경세(經世)에

---

257 송설체(松雪體) : 중국 원나라의 서예가인 조맹부(趙孟頫, 1254~1322)의 글씨체이다. 자유롭고 분방한 송대 서풍에 대한 반작용으로 형성된 바르고 아름다운 독특한 서체로 평가받는다.

258 간행되었다 : 《양곡집(陽谷集)》이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간행한 한국문집총간 23집에 수록되어 있다.

259 징사(徵士) : 학문과 덕행이 뛰어나 왕에게 부름을 받았으나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던 선비를 일컫는 말이다.

재주가 있어 재상의 천거로 인해 희릉(禧陵) 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도내[道川]에 집을 지어 농사와 낚시로 즐겁게 지내며 덕을 숨긴 채 운명하였는데, 장례를 치르는 날 모여든 친구와 학생들이 700여 인이었다.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중봉(重峯) 조헌(趙憲), 구암(久庵) 한백겸(韓百謙) 등과 도의로 사귀었다. 문집이 있다.

소동도(蘇東道) 자는 자유(子由)이고 호는 관면와(慣眠窩)인데, 소세량의 아우 첨지 소세공(蘇世恭)의 증손이다. 인조 때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감사에 이르렀다. 집에서 지낼 때는 효성스럽고 우애가 있었으며, 관리로 근무할 때는 청렴결백하였다. 문집이 있다.[260]

소두산(蘇斗山) 자는 망여(望如)이고 호는 월주(月洲)인데, 소동도의 종질(從侄)이다. 현종 때 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였으며, 벼슬은 평안 병사에 이르렀다. 생김새가 빼어났고 도량이 크고 깊었다. 어려서부터 우암 송시열과 동춘당 송준길 두 현인의 문하에서 유학하여 《춘추(春秋)》를 배웠는데, 재주가 있고 도량이 크다는 칭송을 들었다. 문집이 있다.[261]

『타지 사람[流寓][262]』〔조선[本朝]〕

권근(權近) 자는 가원(可遠)이고, 호는 양촌(陽村)이다. 본관은 안동(安東)인데, 공민왕 때 과거에 급제하였다. 조선조에 들어와서 좌명공신(佐命功臣)

---

260 문집이 있다 : 소동도의 시문집인 《면와집(眠窩集)》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261 문집이 있다 : 《월주집(月洲集)》이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간행한 한국문집총간 127집에 수록되어 있다.

262 타지 사람 : 익산 지역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으나 유배를 당하였거나, 처가나 외가여서 익산 지역에서 거주했던 인물들을 수록하였다.

에 책록되고 길창군(吉昌君)에 봉해졌으며, 관직이 숭정대부 좌찬성에 이르렀다. 일찍이 본 고을에서 귀양살이하는 동안 《입학도설(入學圖說)》을 저술하였다.

이약해(李若海) 소세량의 아우인 소세검(蘇世儉)의 사위로 본 고을에서 처가살이를 하였다. ○ 자는 경용(景容)이고, 호는 준암(罇巖)으로, 본관은 광주(廣州)이다. 중종 때 급제하였고, 또 탁영시(擢英試)[263]에 급제하여 벼슬이 직제학에 이르렀다. 을사사화(乙巳士禍)[264] 때 유배되었다가 정미년(1547, 명종 2)에 후명(後命)[265]이 있었다. 화암서원에 배향되었다.

서익(徐益) 이약해의 외손자로 본 고을에 거주하였다. ○ 자는 군수(君受)이고, 호는 만죽(萬竹)으로, 본관은 부여(扶餘)이다. 선조 때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승지에 이르렀다. 시인으로 시조 작품이 《청구영언(靑邱永言)》[266]에 실려 있다.

한백겸(韓百謙) 소자파(蘇自坡) 외증손의 사위로 본 고을에서 처가살이를 하였다. ○ 자는 명길(鳴吉)[267]이고, 호는 구암(久菴)인데, 본관은 청주(淸州)

---

263 탁영시(擢英試) : 1538년(중종33) 9월 문무 현직 관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임시 과거로, 문과 급제자는 갑과에 예문봉교(藝文奉敎) 나세찬(羅世纘), 을과에 이조좌랑 임열(任說)과 이약해(李若海), 병과에 부사정(副司正) 윤인서(尹仁恕), 학유(學諭) 이영현(李英賢) 등 9인으로 도합 12인이었다.

264 을사사화(乙巳士禍) : 1545년(명종 즉위년) 왕실의 외척인 대윤과 소윤의 반목으로 일어나, 대윤이 소윤으로부터 받은 정치적인 탄압을 말한다.

265 후명(後命) : 귀양살이하고 있는 죄인에게 사약을 내리는 일을 이르던 말이다.

266 청구영언(靑邱永言) : 1728년(영조4) 김천택(金天澤)이 편찬한 시조집으로, 《해동가요》, 《가곡원류》와 함께 3대 시조집의 하나이다. '청구'는 본래 우리나라를 뜻하는 말이고, '영언'은 노래의 뜻이다.

267 명길(鳴吉) : 원문에는 '明吉'로 되어 있는데, '鳴吉'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이다. 학문과 행실로 벼슬에 진출하여 참의(參議)에 이르렀다.

이귀(李貴) 아버지 이정화(李廷華)가 현감 노우현(盧祐賢)의 사위이고 서산수(瑞山守) 이억만(李億萬)의 시양자(侍養子)[268]였기 때문에, 공이 본 고을을 왕래하였다. ○ 자는 옥여(玉汝)이고 호는 묵재(默齋)이며 본관은 연안(延安)이다. 선조 때 문과에 급제하였고, 정사공신(靖社功臣)에 책훈되어 연평부원군(延平府院君)에 봉해졌고 벼슬이 숭록대부 좌찬성에 이르렀다. 시호는 충정(忠定)이다. 인조 묘정(廟庭)에 배향되었다.

【문과(文科) 급제자】

최자숙(崔自淑) 홍치(弘治)[269] 을묘년(1495, 연산군1) 별시(別試)[270] 문과에서 을과(乙科)[271] 제7인으로 급제하였다. 벼슬이 군수에 이르렀다.

소세량(蘇世良) 정덕(正德) 정묘년(1507, 중종2) 식년시(式年試)[272] 문과에서 병과(丙科)의 제1인으로 급제하였다. ○ 인물 항목에 보인다.

---

268 시양자(侍養子) : 네 살 이상의 아이를 데려다 길러 삼은 양자를 말한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주해에 "남의 자식을 데려다 길러 자식으로 삼는 것을 시양이라 하고, 세 살 전에 거두어 길러 같이 사는 자식을 수양(收養)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269 홍치(弘治) : 중국 명나라 효종(1488~1505) 때의 연호이다.

270 별시(別試) : 정규 외에 임시로 시행된 과거시험으로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에 또는 인재의 등용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되었다. 1456년(세조2)에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며 문과와 무과만 열고 생원진사시(生員進士試)와 잡과(雜科)는 열지 않았다.

271 을과(乙科) : 조선 시대 과거제도에서 합격자의 성적을 갑, 을, 병의 세 과로 나눈 뒤 그 안에서 다시 제1인, 제2인의 방식으로 순위를 매겼다.

272 식년시(式年試) : 조선 시대에 3년마다 시행된 과거시험이다. 자(子)-묘(卯)-오(午)-유(酉)가 드는 해를 식년으로 하여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시험을 치렀는데 그 해 1~5월에 시행하는 것이 상례였다.

소세양(蘇世讓) 정덕 기사년(1509, 중종4) 별시 문과에서 을과 제2인으로 급제하였다. ○ 인물 항목에 보인다.

양공준(楊公俊) 정덕 경진년(1520) 별시 문과에서 병과 제8인으로 급제하였다. ○ 자는 언경(彦卿)으로 본관은 남원(南原)이다. 벼슬이 예조 좌랑에 이르렀다.

소봉(蘇逢) 가정(嘉靖) 을유년(1525) 식년시 문과에서 을과 제1인으로 급제하였다. ○ 소세량의 아들로 인물 항목에 보인다.

김세량(金世良) 가정 을미년(1535) 별시 문과에서 을과 제1인으로 급제하였다. ○ 자는 언숙(彦叔)이고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벼슬이 군수에 이르렀다. 원래 경주의 공생(貢生)[273]으로 관향(貫鄕)에서 살았는데 본 고을의 지지(地誌)에 기재된 것은 혹 그의 아들 김득지(金得地)를 따라와서 우거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음사(蔭仕)[274] 항목에 보인다.

양홍(楊洪) 가정 경자년(1540) 별시 문과에서 병과 제7인으로 급제하였다. ○ 양공준(梁公俊)의 아들로 자는 심원(深源)이며, 벼슬이 사복시 부정에 이르렀다.

황우(黃祐) 가정 병오년(1546, 명종1) 증광시 문과에서 병과 제6인으로 급제하였다. ○ 자는 경중(慶仲)으로 본관은 우주(紆州)[275]이며, 진사 황응침(黃應

273 공생(貢生) : 향교나 서원에 다니는 유생을 이르던 말인데, 나중에는 향교의 심부름꾼으로 변하였다.

274 음사(蔭仕) : 음서(蔭敍)와 같은 말로, 선조의 음덕(蔭德)에 따라 그 자손을 관리로 서용하던 제도를 말한다.

275 우주(紆州)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비봉면 일대의 옛 지명이다. 본래 백제의 우소저현(于召渚縣, 또는 于召諸)이었는데, 신라 경덕왕 때 우주로 고쳐 금마군(金馬郡, 지금의 익산시 금마면)의 영현으로 하였고, 고려 현종 때 전주에 속하게 하였다.

琛)의 손자로 벼슬이 공조 좌랑에 이르렀다.

권덕요(權德饒) 만력(萬曆) 계미년(1583, 선조16) 별시 문과에 병과 제21인으로 급제하였다. ○ 자는 요부(饒夫)이고,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소광진(蘇光震) 만력 정유년(1597) 정시 문과에서 병과 제5인으로 급제하였다. ○ 인물 항목에 보인다.

소사원(蘇泗源) 만력 을사년(1605) 증광시(增廣試)[276] 문과에서 제18인으로 급제하였다. ○ 자는 도연(道淵)이며, 첨사 소세온(蘇世溫)의 증손이다. 벼슬이 현감에 이르렀다.

김정익(金廷益) 만력 계축년(1613, 광해군5) 증광시 문과에서 제3인으로 급제하였다. ○ 자는 사겸(士謙)으로, 소세량의 조카이고 참봉 소적(蘇適)의 외손자이다. 벼슬이 군수에 이르렀다.

양시우(楊時遇) 만력 갑인년(1614) 별시 문과에서 병과 제2인으로 급제하였다. ○ 자는 언형(彦亨)으로 양홍(梁洪)의 손자이다. 벼슬이 현감에 이르렀다.

소동도(蘇東道) 숭정(崇禎) 을해년(1635, 인조13)의 증광시 문과에서 병과 제11인으로 급제하였다. ○ 인물 항목에 보인다.

윤필은(尹弼殷) 효종(孝宗) 병신년(1656, 효종7) 별시 문과에서 병과 제2인으로 급제하였다. ○ 자는 탕경(湯卿)으로 본관은 파평(坡平)이며, 벼슬이 판관에 이르렀다.

소두산(蘇斗山) 현종(顯宗) 경자년(1660, 현종1) 식년시 문과에서 직부(直赴)[277]하여 괴과(魁科)에 뽑혀 급제하였다. ○ 인물 항목에 보인다.

---

276 증광시(增廣試) : 조선 시대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식년시 이외에 실시된 임시 과거를 말한다.

277 직부(直赴) : 조선 시대 과거시험에서 초시나 복시를 면제받고 직접 복시·회시·전시

윤보은(尹輔殷) 현종 경자년(1660, 현종1) 식년시 문과에서 병과 제20인으로 급제하였다. ○ 자는 은경(殷卿)으로 윤필은(尹弼殷)의 아우이다. 벼슬이 성균관 박사에 이르렀다.

한전(韓㙫) 숙종(肅宗) 기미년(1679, 숙종5) 식년시 문과에서 병과 제3인으로 급제하였다. ○ 자는 중후(仲厚)로 본관은 청주(淸州)이다. 벼슬이 현감에서 그쳤다.

이기한(李起漢) 숙종 병인년(1686) 별시 문과에서 병과 제2인으로 급제하였다. ○ 자는 여정(汝挺)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벼슬이 사예(司藝)에 이르렀는데,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278]의 현손(玄孫)[279]이다.

송사윤(宋思胤) 숙종 기묘년(1699) 중광시 문과에서 병과 제12인으로 급제하였다. ○ 자는 석이(錫爾)이고 벼슬은 장령에 이르렀다. 본관은 진천(鎭川)이다.

【무과(武科) 급제자】

소세득(蘇世得) 소세량의 아우이다. 정덕(正德) 을해년(1515, 중종10) 출신(出身)이다. 벼슬이 현감에 그쳤다.

소련(蘇連) 소세량의 아들이다. 가정(嘉靖) 연간 출신이다. 벼슬이 군수에 그쳤다.

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을 말한다.

278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 : 조선 왕실 최초의 대원군으로 선조의 아버지 이초(李岹)이다. 반정으로 보위에 오른 중종의 서자였는데, 선조가 그를 왕으로 추존하려다 사림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279 현손(玄孫) : 손자의 손자를 말한다.

권택중(權擇中) 만력(萬曆) 연간 출신이다. 벼슬이 직장(直長)에 그쳤다.

소문진(蘇文震) 소세득의 증손이다. 만력 갑오년(1594, 선조27) 출신이다. 벼슬이 수사(水使)에 그쳤는데, 77세까지 장수하였다.

이덕방(李德芳) 정유왜란(丁酉倭亂) 때 종군하려다 군장을 갖출 수 없자 도주하였다.

최급(崔岌) 만력 연간 출신이다. 본관은 전주이다. 벼슬이 현령에 이르렀다.

소여형(蘇汝衡) 주부(主簿) 소호선(蘇好善)의 아들이다. 벼슬이 만호에 이르렀다.

소명원(蘇鳴遠) 소봉(蘇逢)의 증손이다. 만력 출신이다. 벼슬이 참봉에 이르렀다.

소혜(蘇蕙) 소명원(蘇鳴遠)의 아우이다. 오위도총부 도사(都事)였는데 나이가 많아 통정대부(通政大夫)[280]에 올랐다. 82세까지 장수하였다.

소계원(蘇啓遠) 소문진(蘇文震)의 서자(庶子)이다.

소계성(蘇啓盛) 소계원(蘇啓遠)의 아우이다. 벼슬이 주부(主簿)에 이르렀다.

조명우(趙明瑀) 호군(護軍)으로서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 호종(扈從)[281]하였다.

최경(崔警) 벼슬이 판관(判官)에 그쳤다.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 호종하였다.

최건(崔健) 본관은 철원(鐵原)이다.

최간(崔侃) 최건의 아우인데, 함께 효자 항목에 보인다.

---

280 통정대부(通政大夫) : 조선 시대 문신 정3품 상계(上階)의 품계명으로 이로부터 당상관이라 불렀다.

281 호종(扈從) : 임금의 거가(車駕)를 모시고 따라가는 것으로, 또는 따라가는 사람을 말한다.

박명호(朴明浩) 고산(高山)[282]으로 이사 갔다. 호란(胡亂) 때 군대를 따라갔는데 군대가 무너지자 도주하였다가 효수(梟首)[283]를 당하였다.

소산해(蘇山海) 소세득의 5대손이다. 인조 기축년(1649, 인조27) 출신이다. 벼슬이 영장(營將)에 이르렀다.

최상훈(崔尙勳) 효종 때 출신이다. 벼슬이 감찰(監察)에 그쳤다.

오응현(吳應賢) 효종 때 출신이다. 본관은 장흥(長興)이다. 벼슬은 수문장(守門將)이었다.

오응필(吳應弼) 오응현의 아우이다. 효종 때 출신이다.

오응철(吳應哲) 효종 때 출신이다.

유속(柳涑) 서울로 이사 갔다.

소산준(蘇山濬) 소산해(蘇山海)의 아우이다.

소성(蘇珹) 의금부 도사였다. 소계흥(蘇啓興)의 손자이다. 병진년[284] 급제자 명단에 올랐다.

오정룡(吳廷龍) 본관은 장흥이다.

오정달(吳廷達) 오정룡(吳廷龍)의 아우이다.

김기정(金起鼎) 병진년 급제자 명단에 올랐다.

이계(李棨) 진사 이은(李嶾)의 아우이고, 오응철(吳應哲)의 사위이다.

이필저(李必著)

박취홍(朴就弘) 본관은 순천이다.

---

282 고산(高山) : 현재의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을 말한다.

283 효수(梟首) : 참형(斬刑)이나 능지처참(凌遲處斬)한 뒤 그 머리를 장대에 매달아 그 죄를 경계시킨 형벌을 말한다.

284 병진년 : 소계흥의 생년이 1600년이므로 숙종 2년(1676)을 가리키는 듯하다.

박취로(朴就輅) 박취흥의 아우이다.

최정달(崔廷達)

오두흥(吳斗興) 본관은 장흥이다. 병진년 급제자 명단에 올랐다.

최일중(崔日中) 최상훈(崔尙勳)의 아들이다. 병진년 급제자 명단에 올랐다.

이도재(李道栽) 이계(李棨)의 아들이다. 숙종 때 출신이다.

양신거(楊莘擧) 본관은 남원(南原)이다. 병진년 급제자 명단에 올랐다.

최홍준(崔弘俊)

최도(崔濤)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숙종 때 출신이다.

한이도(韓以道)

이선의(李善儀)

이준(李俊)

오윤주(吳允周) 본관은 장흥(長興)이다.

이정영(李廷永)

이영진(李永進)

최세룡(崔世龍) 본관은 전주이다.

박득영(朴得永) 판관(判官)이었다.

이지복(李枝福)

최이겸(崔以謙) 본관은 강화(江華)이다.

오경홍(吳慶弘) 본관은 동복(同福)이다. 벼슬이 만호(萬戶)에 이르렀다.

진여기(陳汝起)

박창문(朴昌文)

소재술(蘇再述) 이상은 어느 해 급제했는지 알지 못한다.

김붕(金鵬)

오응뢰(吳應雷) 오응상(吳應祥)의 종형이다.

오응상(吳應祥)

오경상(吳景祥) 오응뢰의 조카이다.

오응남(吳應男) 오응상의 아우이다.

오경서(吳景瑞) 오경상의 아우이다. 본관은 장흥이다.

오세영(吳世英) 오응상의 종질(從侄)이다.

오세웅(吳世雄) 오세영(吳世英)의 아우이다.

이여적(李汝迪) 병사(兵使)였다.

소덕항(蘇德恒) 소성(蘇珹)의 아들이다.

이희원(李禧遠) 이여적의 아들이다. 병사였다.

김한익(金漢翊)

이영(李榮)

이재항(李載恒)

전기(全琦) 현 임금 을해년(1755, 영조31) 정시(庭試)에 급제하였다.

【생원·진사[生進] 합격자】

임득무(林得茂) 진사이다. 본관은 익산(益山)으로 임견미(林堅味)의 현손(玄孫)이다.

최자숙(崔自淑) 진사이다. ○ 문과(文科) 항목에 보인다.

소세량(蘇世良) 홍치(弘治) 병진년(1496, 연산군2)에 생원이 되었다. ○ 문과 항목에 보인다.

소세양(蘇世讓) 홍치 갑자년(1504)에 진사가 되었다. ○ 문과 항목에 보인다.

소세검(蘇世儉) 계유년(1513, 중종8)에 진사가 되었다. ○ 음사(蔭仕) 항목에 보인다.

양공준(楊公俊) 정덕(正德) 정묘년(1507)에 생원이 되었다. ○ 문과 항목에 보인다.

소건(蘇建) 첨지 소세공의 아들로 가정(嘉靖) 경자년(1540)에 진사가 되었다. 자는 대립(大立)이고 호는 사물재(四勿齋)이니, 좌승지에 추증되었다.

소봉(蘇逢) 정덕 기묘년(1519, 중종14)에 생원이 되었다. ○ 문과 항목에 보인다.

소순(蘇巡) 정덕 연간에 진사가 되었다. ○ 첨사 소세온(蘇世溫)의 아들로 자는 경부(警夫)이고 호는 보진당(葆眞堂)이다. 글씨를 잘 써서 일찍이 숙부 소세양을 따라 북경(北京)에 갔는데, 중국인들이 그의 필적을 구입하면서 크게 칭찬하였다.

소지(蘇遲) 소세량의 아들로 가정 신묘년(1531)에 생원이 되었다.

김득지(金得地) 소세양의 아우인 소세검의 사위로 생원이다.

노간(盧侃) 진사이다.

소봉선(蘇奉善) 소순의 아들로 생원이다.

소종선(蘇宗善) 현령 소해(蘇邂)의 아들로 진사이다.

소형진(蘇亨震) 소종선의 아들로 진사이다.

양홍(楊洪) 양공준(楊公俊)의 아들로 가정 경자년(1540)에 생원이 되었다. ○ 문과 항목에 보인다.

양사헌(楊士獻) 만력 연간에 진사가 되었다. ○ 자는 숙침(叔琛)으로 본관은 남원(南原)이다.

소엽(蘇曄) 만력 경술년(1610, 광해군2)에 생원이 되었다. ○ 자는 이회(而

晦)로 진사 소순(蘇巡)의 증손이다.

황택(黃澤) 본관은 우주(紆州)로 생원이다.

양시우(楊時遇) 만력 신축년(1601, 선조34)에 진사가 되었다.

황응침(黃應琛) 황택의 아들로 생원이다.

소정진(蘇貞震) 만력 경인년(1590)에 생원이 되었다. ○ 음사 항목에 보인다.

소사원(蘇泗源) 만력 경인년에 생원이 되었다. ○ 문과 항목에 보인다.

오언일(吳彦一) 만력 연간에 진사가 되었다.

오충갑(吳忠甲) 만력 연간에 진사가 되었다. 본관은 동복(同福)이다.

양여력(楊汝櫟) 만력 연간에 생원이 되었다. 양사헌(楊士獻)의 손자이다.

김정진(金廷晉) 김득지(金得地)의 아들로 생원이다.

김정익(金廷益) 김정진의 아우로 만력 경인년에 생원이 되었다. ○ 문과 항목에 보인다.

황명세(黃名世) 황응침(黃應琛)의 손자로 진사이다. 글씨를 잘 썼다.

소영복(蘇永福) 소봉(蘇逢)의 손자로 진사이다. ○ 인물 항목에 보인다.

소경문(蘇慶門) 소영복의 아들로 만력 을사년(1605)에 진사가 되었다.

소진문(蘇振門) 소경문의 아우로 천계(天啓)[285] 갑자년(1624, 인조2)에 생원이 되었다.

소성문(蘇聖門) 감찰 소민선(蘇敏善)의 손자로 천계 갑자년에 생원이 되었다.

신수윤(辛壽胤) 생원이다.

소계흥(蘇啓興) 소광진(蘇光震)의 아들로 진사이다. ○ 음사 항목에 보인다.

윤책(尹策) 인조 병술년(1646) 생원시에서 갑과로 합격하였다. 본관은 남원

---

285 천계(天啓) : 중국 명나라 희종(1621~1626) 때의 연호이다.

(南原)이다. ○ 음사 항목에 보인다.

여회제(呂誨齊) 인조 때의 진사이다.

이은(李檼) 진사이다.

이시담(李時聃) 이귀(李貴)의 아들로 계축년(1613, 광해군5)에 진사가 되었다. ○ 음사 항목에 보인다.

이오(李悟) 이귀의 손자로 생원이다. ○ 음사 항목에 보인다.

소동도(蘇東道) 만력 정사년(1617)에 생원이 되었다. 소건(蘇建)의 손자이다. ○ 문과 항목에 보인다.

황자후(黃自厚) 황명세(黃名世)의 아들로 계유년(1633, 인조11)에 진사가 되었다. ○ 음사 항목에 보인다.

소동명(蘇東鳴) 인조 병술년(1646)에 진사가 되었다. 소건(蘇建)의 손자이다. ○ 음사 항목에 보인다.

윤필은(尹弼殷) 무자년(1648)에 생원이 되었다. ○ 문과 항목에 보인다.

윤보은(尹輔殷) 무자년의 급제자 명단에 올랐다. ○ 문과 항목에 보인다.

이기한(李起漢) 임진년(1652, 효종3)에 진사가 되었다. ○ 문과 항목에 보인다.

소두산(蘇斗山) 효종 임진년에 진사가 되었다. 소동명(蘇東鳴)의 아들이다. ○ 인물 항목에 보인다.

이공저(李公著) 이오(李悟)의 조카이다. 정유년(1657)에 진사가 되었다.

이위한(李衛漢) 이기한(李起漢)의 아우로 정유년에 진사가 되었다.

김성철(金聲徹) 경자년(1660, 현종1)에 생원이 되었다.

노후익(盧後益) 경자년에 생원이 되었다.

이만저(李曼著) 경자년에 진사가 되었다.

소후석(蘇厚錫) 경자년에 생원이 되었다.

이광한(李光漢) 무자년(1648, 인조26)에 진사가 되었다.

이명저(李明著) 이공저의 형으로 계묘년(1663)에 진사가 되었다. ○ 음사 항목에 보인다.

백광서(白光瑞) 계묘년에 진사가 되었다. ○ 음사 항목에 보인다.

황익한(黃翼漢) 황명세(黃名世)의 손자로 기유년(1669)에 진사가 되었다.

이중영(李重榮) 기유년에 진사가 되었다. 이광한(李光漢)의 아들이다.

김오일(金五一) 임자년(1672, 현종13)에 생원이 되었다.

윤지요(尹志堯) 윤보은(尹輔殷)의 아들로 갑자년(1684, 숙종10)에 생원이 되었다.

이위(李蘶) 을묘년(1675)에 진사가 되었다.

김량(金湸) 정묘년(1687)에 생원이 되었다.

권옥형(權玉衡) 권만형(權曼衡)의 아우로 신미년(1691)에 생원이 되었다.

권만형(權曼衡) 기묘년(1699)에 생원이 되었다.

노두망(盧斗望) 기묘년에 생원이 되었다.

이윤저(李允著) 임오년(1702)에 생원이 되었다.

이재화(李載華) 승지 이동의(李東誼)의 아들로 을유년(1705)에 생원이 되었다.

이지윤(李祉胤) 정유년(1717)에 생원이 되었다.

황도복(黃道復) 황자후(黃自厚)의 손자로 신축년(1721, 경종1)에 생원이 되었다.

이발(李潑) 신축년에 생원이 되었다.

소대진(蘇大晉) 병오년(1726, 영조2)에 생원이 되었다.

이동백(李東白) 정미년(1727)에 생원이 되었다.

권경(權儆) 권옥형(權玉衡)의 아들로 기유년(1729, 영조5)에 생원이 되었다.

최가항(崔可恒) 기유년에 생원이 되었다.

이태저(李泰著) 을사년(1725)에 진사가 되었다.

임태중(任泰中) 계축년(1733)에 진사가 되었다.

이정기(李廷夔) 이동백의 아들로 을묘년(1735)에 진사가 되었다.

소현도(蘇顯道) 경신년(1740)에 생원이 되었다.

양진수(楊震燧) 갑자년(1744)에 생원이 되었다.

권정동(權挺東) 권옥형(權玉衡)의 손자로 갑술년(1754)에 생원이 되었다.

【음사(蔭仕)】[286]

김중서(金仲舒) 벼슬은 호조 참의를 지냈다. ○ 인물 항목에 보인다.

노윤필(盧允弼)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부안 현감(扶安縣監)을 지냈고,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랐다.

노윤정(盧允正) 노윤필(盧允弼)의 아우로 벼슬은 참의(參議)[287]를 지냈다. 혹은 참교(參校)[288]를 지냈다고 한다.

소자파(蘇自坡) 진사이다. 성종 때 관직에 들어가 의빈부(儀賓府) 도사(都

---

286 음사(蔭仕) : 음서(蔭敍)와 같은 말로, 선조의 음덕(蔭德)에 따라 그 자손을 관리로 서용하던 제도를 말한다.

287 참의(參議) : 육조의 정3품 관직으로, 정원은 이·호·예·병·형·공조에 각 1인씩 총 6인이다. 각 조의 차차석 관원으로 참판과 함께 판서를 보좌하는 좌이관(佐貳官)이었다. 지금의 차관보에 해당한다.

288 참교(參校) : 승문원(承文院)의 종3품 관직으로, 정원은 2인이다. 1466년(세조12) 1월 관제 경정(官制更定) 때에 지사(知事)를 개칭한 것으로 주로 문서교감(文書校勘)의 일을 담당하였는데, 2인 중 1인은 교훈(敎訓)의 일을 맡았다.

事)를 지냈다. 좌찬성(左贊成)[289]에 추증되었다.

소세온(蘇世溫) 소자파의 아들이다. 임치진(臨淄鎭)의 첨사(僉事)를 지냈다.

소세공(蘇世恭) 소세온의 아우이다. 자는 경지(敬之)이며, 호는 노포정(老圃亭)이다. 숙부인 병사(兵使) 소자파를 따라서 왜구를 무찔러 군공(軍功)을 세웠다. 벼슬은 마량진(馬梁鎭) 수군첨절제사를 지냈다. 기로(耆老)[290]로서 첨지(僉知)에 올랐다. 85세까지 장수하였다.

소세검(蘇世儉) 소세공(蘇世恭)의 아우이다. 자는 약이(約而)이며, 호는 쌍봉(雙峰)이다. 성화(成化)[291] 계유년[292]에 진사가 되어 군수를 거쳐 동중추(同中樞)[293]에 이르렀다. 91세까지 장수하였다.

노인석(盧仁錫) 노윤정(盧允正)의 아들이다. 벼슬은 현감을 지냈다.

노우현(盧祐賢) 노윤필(盧允弼) 아들이다. 벼슬은 현감을 지냈다.

소수(蘇遂) 소세양(蘇世讓)의 아들이다. 벼슬은 군수를 지냈다.

소적(蘇適) 소세검의 아들이다. 참봉(參奉)[294]을 지냈다.

소해(蘇邂) 소세득(蘇世得)의 아들이다. 능성 현령(綾城縣令)을 지냈다.

소통(蘇通) 소수의 서제(庶弟)[295]이다. 도사(都事)를 지냈다.

---

289 좌찬성(左贊成) : 의정부의 종1품 관직으로, 정원은 1인이다. 우찬성·좌참찬·우참찬과 함께 3의정을 보좌하면서 대소 국정에 참여하였다.

290 기로(耆老) : 나이가 많은 노인을 뜻한다. 70세가 넘는 정2품 이상의 문관들을 예우하기 위해 기로소(耆老所)라는 기관을 두었다.

291 성화(成化) : 중국 명나라 헌종(1465~1487) 때의 연호이다.

292 계유년 : 성화 연간에는 계유년이 없으니 착오인 듯하다.

293 동중추(同中樞) : 중추부(中樞府) 동지사(同知事)의 약칭으로 종2품 관직이다.

294 참봉(參奉) : 조선 시대 각 관서의 종9품 관직이다.

295 서제(庶弟) : 아버지는 같으나 어머니가 다른 동생으로 정실이 아닌 첩에게서 태어난 동생을 일컫는 말이다.

김득지(金得地) 소세량(蘇世良)의 아우인 소세검의 사위이다. 벼슬은 별좌(別坐)[296]를 지냈다.

소호선(蘇好善) 소연(蘇連)의 아들이다. 주부(主簿)[297]를 지냈다.

소응선(蘇膺善) 소봉(蘇逢)의 아들이다. 서윤(庶尹)[298]을 지냈다.

소민선(蘇敏善) 소봉의 아들이다. 감찰(監察)[299]을 지냈다.

소택선(蘇擇善) 소세득(蘇世得)의 손자이다. 주부를 지냈다.

소만선(蘇萬善) 소건(蘇建)의 아들이다. 찰방(察訪)[300]을 지냈다. 아들 소동도(蘇東道)가 귀하게 되었기 때문에 병조 판서에 추증되었다.

소윤원(蘇潤源) 소순(蘇巡)의 손자이다. 주부를 지냈다.

김천명(金天命) 선조 때에 관직에 들어갔는데, 벼슬이 주부에 그쳤다.

소정진(蘇貞震) 소택선의 아들이다. 참봉을 지냈다.

소영복(蘇永福) 소응선의 아들이다. 학문과 행실이 뛰어나 희릉(禧陵) 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아니하였다.

---

296 별좌(別坐) : 여러 관서의 정·종5품의 관직이다. 교서관에 2인, 상의원에 1인, 군기시에 1인, 예빈시에 3인,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에 6인, 전설사(典設司)에 2인, 전함사(典艦司)·전연사(典涓司)·내수사(內需司)·빙고(氷庫) 등에 각각 1인을 두어 모두 19인으로 되어 있다.

297 주부(主簿) : 조선 시대 관서의 문서와 부적(符籍)을 주관하던 종6품 관직이다. 돈녕부·봉상시 등에 2인, 종부시·사옹원 등에 1인, 군자감에 3인, 5부에 5인을 두었다.

298 서윤(庶尹) : 한성부(漢城府)와 평양부(平壤府)의 종4품 관직으로 정원은 1인이다. 1469년(예종1)에 한성부의 관제를 개혁하여 종래의 정4품관이던 소윤(少尹)을 없애고 종4품관으로 서윤을 두었다.

299 감찰(監察) : 조선 시대 사헌부의 정6품 관직으로, 관리들의 비위 규찰, 재정 부문의 회계 감사, 의례 행사 때의 의전 감독 등 감찰 실무를 담당하였다.

300 찰방(察訪) : 각 역참(驛站)과 관(館), 원(院) 등에 근무하며 해당 역로와 역마, 통행 등을 관리하고 해당 역참과 원 등에서 근무하는 종6품 관원을 말한다.

이시달(李時達) 지평에 추증된 이보(李寶)의 아들이다. 문과에 급제하였다. 현감 소사원(蘇泗源)의 사위이다. 인조 때 관직에 들어갔는데, 벼슬이 주부에 그쳤다.

이시담(李時聃) 충정공(忠定公) 이귀(李貴)의 아들이다. 인조 때 관직에 들어갔는데, 동지사(同知事)[301]에 이르렀으며 판서로 추증되었다.

소상겸(蘇尙謙) 소혜(蘇蕙)의 아들이다. 감찰(監察)을 지냈다.

소계흥(蘇啓興) 소광진(蘇光震)의 아들로 진사이다. 벼슬이 경력(經歷)에 이르렀다.

이박(李博) 이시달(李時達)의 아들이다. 인조 때 관직에 들어가 벼슬이 현감에 그쳤다.

이징(李憕) 이시담(李時聃)의 아들이다. 인조 때 관직에 들어가 해주 목사(海州牧使)를 지냈다.

이오(李悟) 이징(李憕)의 아우로 생원이다. 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좌승지(左承旨)[302]에 추증되었다.

소동명(蘇東鳴) 소건(蘇建)의 손자이다. 자는 문원(聞遠)이고, 호는 수재(瘦齋)이며, 진사이다. 직장(直長)을 역임하였고 동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84세까지 장수하였다. 아들 소두산(蘇斗山)이 귀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조 참판에 추증되었다.

황자후(黃自厚) 강릉(康陵) 참봉을 지냈다. ○ 생원 진사 합격자 항목에 보

---

301 동지사(同知事) : 조선 시대 지사(知事)의 보좌역을 맡았던 종2품 관직이다. 돈녕부에 1인, 의금부에 1~2인, 경연에 3인, 성균관에 2인, 춘추관에 2인, 중추부에 8인을 두었다. 돈녕부 외의 다른 관청은 모두 다른 관직자가 겸직했다.

302 좌승지(左承旨) : 승정원의 정3품 당상관직으로 왕명의 출납을 맡았다.

인다.

김익진(金翊震) 김천명(金天命)의 손자이다. 인조 때 관직에 들어갔는데, 감찰에 그쳤다. 효성과 우애로 이름이 알려졌다.

윤책(尹策) 생원시에서 장원으로 합격하였다. 효종 때 관직에 들어갔는데, 현령에 그쳤다.

이필(李怭) 이오(李悟)의 아우이다. 현감을 지냈다.

이석저(李碩著) 이박(李博)의 아들이다. 봉사(奉事)[303]를 지냈다.

소후산(蘇后山) 소동도(蘇東道)의 아들이다. 사평(司評)[304]을 지냈다.

이명저(李明著) 이징(李澄)의 아들이다. 진사이며, 현감을 지냈다.

이기한(李起漢) 봉사를 지냈다. ○ 문과 항목에 보인다.

백광서(白光瑞) 본관은 수원(水原)이다. 휴암(休菴) 백인걸(白仁傑)의 4대 손이다. 봉사를 지냈다.

백상언(白尙彦) 백광서의 손자이다. 봉사를 지냈다.

【충신(忠臣)】

이보(李寶) 본관은 연안(延安)이다. 묵재(默齋) 이귀(李貴)의 형이며, 저헌(樗軒) 이석형(李石亨)의 현손이다. 타고난 성품이 강개하였으며 뜻이 크고 기개가 높았다. 임진왜란을 당하자 의병(義兵) 400여 명을 모집해 스스로 군량과 무기를 마련하여 곧바로 금산(錦山)의 왜군 주둔지로 달려갔다. 이때 의

303 봉사(奉事) : 돈녕부(敦寧府)와 각 시(寺)·사(司)·서(署)·원(院)·감(監)·창(倉)·고(庫)·궁(宮)에 설치된 종8품의 관직이다.

304 사평(司評) : 장례원(掌隷院)의 정6품 관직으로 노예의 부적(簿籍)과 소송(訴訟)에 관한 직무를 맡아 보았다.

병장 고경명(高敬命)의 군대가 막 패배하여 왜적의 기세가 매우 높았지만 오히려 생사를 무릅쓰고 앞으로 나아갔다. 진산(珍山)의 배재[梨峴]에 이르러 왜적을 만나 교전하다가 화살이 떨어지고 힘이 다하여 전사하였다. 그의 남자 종 명기(命起)와 여자 종의 남편 괴동(塊同)이 지키며 떠나지 않고 끌어안은 채 죽었다. 일이 조정에 보고되어 지평(持平)에 추증되었다. 현 임금 갑술년(1754, 영조30)에 정려(旌閭)가 내려졌다.

소행진(蘇行震) 본관은 진주(晉州)이다. 소세득(蘇世得)의 증손으로 의기가 강개하고 충의가 가슴에 가득 차 있었다. 임진왜란 때 같은 고향 사람 이보(李寶)가 의병을 모집하자, 마침 상중(喪中)인데도 기복(起復)[305]하여 생사를 무릅쓰고 참여하였다. 진산(珍山)의 전투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싸우다가 사망하였다. 아! 재야의 신하로 국난에 순절한 절의가 이와 같이 탁월하였는데 정려(旌閭)의 은전이 유독 이 사람에게만 내려지지 않았으니, 대개 자손이 없어서 드러내지 못한 까닭일 것이다.

최간(崔侃) 형인 최건(崔健)과 함께 무과에 급제하였다. 일찍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고, 어머니를 섬기는 데 효성을 다하였다. 병자호란 때 자원해서 원수(元帥)의 진영에 들어가 평안도 중화(中和)의 전투에서 힘을 다해 싸우다 전사하였다. 뒤에 훈련원 첨정에 추증되었다.

---

305 기복(起復) : 상(喪)을 당해 휴직 중인 관리를 복상 기간 중에 직무를 보게 하던 제도이다. 나라에 전쟁이나 반란 같은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유능한 인물을 동원해 활용하기 위한 방편이었는데, 소행진은 자원에 의한 것이었다.

【효자(孝子)】

유승춘(柳承春) 본관은 문화(文化)이다. 아내 김씨와 함께 어버이를 효성으로 봉양하였는데, 어버이의 뜻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기를 극진히 하지 않음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이들의 효성을 칭찬하여 효자, 효부라 하였다. 처음에는 부안에서 살았고 만년에는 본 고을에서 살았는데, 두 고을 사람들이 그의 효행을 글로 지어 본 고을에 호소하기도 하고 감영(監營)에 올리기도 하였다. 아직까지 정려(旌閭)의 포상이 내려지는 은전을 받지 못하였다.

소동헌(蘇東獻) 본관은 진주(晉州)이다. 소건(蘇建)의 손자이다. 나이 겨우 열세 살 때 어머니가 병에 걸려 위급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두 차례나 자신의 허벅지를 베서 피를 내어 마시게 하자 이에 의지하여 다시 소생하였다. 뒤에 양친의 상(喪)을 당하자 여묘살이를 하면서 죽으로만 끼니를 이어 가며 삼년상을 마쳤다. 80세까지 장수하였다. 인조 때 일이 조정에 보고되자 정려를 내렸다.

소국민(蘇國民) 소동헌(蘇東獻)의 형이며, 소동준(蘇東俊)의 아들이다. 타고난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웠는데, 부친의 병환에 자신의 허벅지를 베서 피를 내어 구하였다. 뒤에 부모의 상을 당해서는 죽으로 끼니를 이어 가며 상을 마쳤다. 효종 때 고을 사람들이 그의 효행을 글로 적어 감영에 올리자 조정에 보고하여 정려의 명이 내려졌으나, 소국민은 살아생전에는 정려를 받을 수 없다며 굳게 사양하였다.

소상기(蘇相琦) 소동헌의 손자이다. 타고난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웠고, 게다가 학문과 행실이 있었다.

김충립(金忠立) 본 고을의 정병(正兵)[306]이었다. 부친의 병이 심해지자 김충립은 자신의 손가락을 베서 피를 내어 입에 넣어 마시게 하였는데 병이 곧 나

았다. 효종 때 일이 조정에 보고되자 정려를 내렸다.

최건(崔健)·최간(崔侃) 형제가 모두 무과에 급제하였다. 관서 지역에 가서 변경을 방어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나쁜 중에게 죽임을 당하였는데, 형이 상(喪)에 달려와 예를 극진히 하여 장례를 치르고 원수 갚기를 마음에 맹세하였다. 어느 날 원수인 중을 시장에서 만나자 칼로 목을 베어 그의 살을 씹어 먹고 아버지의 묘소에 달려가 알렸다. 그리고 관가에 글을 올려 멋대로 죽인 죄를 자수하였다. 고을 수령이 이 사실을 조정에 보고하자 조정은 그 효성을 가상하게 여겨 모두 석방하였다. 그들의 어머니가 병에 걸려 위급하자 형 최건은 어머니의 똥을 맛보아 달고 신지를 검사하고 아우 최간은 손가락을 베서 피를 먹였는데, 어머니의 병이 바로 나았다. 어머니는 천수를 다하고 죽었는데, 형제는 여묘 곁에서 여묘살이를 하면서 삼년상을 마쳤다. 인조 때 일이 조정에 보고되었으나, 병자호란을 만났기 때문에 정려를 포상하는 은전이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민장(李敏樟) 본관은 전주(全州)로 완산부원군(完山府院君) 양도공(襄悼公) 이천우(李天祐)의 후손이다. 제석면에서 거처하였는데, 눈으로는 글을 읽지 못하지만 효성과 우애가 타고난 성품에서 나왔다. 홀어머니를 봉양함에 정성을 극진히 하였다. 어머니가 80세를 넘어 전후로 병을 얻어 네 차례나 위태로운 지경에 빠졌는데, 이민장은 매번 손가락을 베어서 피를 내어 구호하여 어머니의 병이 번번이 소생하였다. 다섯 번째에도 손가락을 베었으나 어머니는 천수를 다하여 다시는 앞처럼 효험을 보지 못하였다. 일이 조정에 보고되자 복호(復戶)[307]의 명을 내렸다.

---

306 정병(正兵) : 일반 양인으로서 국역 부담을 위해 입속하던 병종(兵種)이다.

307 복호(復戶) : 호(戶)에 부과하는 요역(徭役) 부담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던 일이다.

김영석(金永錫) 남의 집 종이다. 상전을 모시는 데 하루 종일 처마와 섬돌 사이를 떠나지 않아, 상전이 부르면 곧바로 소리에 응하여 대답해서 과오를 저지르지 않았다. 또 어머니를 모시는 데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무술년[308] 봄, 어머니가 전염병에 걸려 여막 안에 있었는데, 여막 안에 불이 나자 김영석은 화염을 무릅쓰고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업고 피하려 하였으나,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여 모자가 모두 불에 타 죽었다. 경종 임인년(1722, 경종2)에 정려가 세워졌다.

김창대(金昌大) 본관은 김해(金海)이다. 신라 경순왕(敬順王)의 후손이다. 제석면에 살고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부모를 잘 모셨다. 경오년에 아버지 김치문(金致文)이 거듭 계절병에 걸려 거의 위태롭게 되자 온 집안이 속수무책으로 울기만 했는데, 당시 김창대는 겨우 14세였으나 칼로 손가락을 베어 피를 입에 넣어 주자 이로 말미암아 소생하였다. 마을의 서리가 그의 효성을 보고하자 감영에서 쌀과 고기를 지급하여 주었다.

이봉성(李鳳成) 사제면의 백성이다. 부모를 모시는 데 효성이 지극하였다. 하루는 불이 났는데 아버지가 병들어 누워 있어서 밖으로 나올 수 없었다. 이봉성은 화염을 무릅쓰고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를 부축하고 나왔는데, 부자가 모두 머리와 이마가 타 버려서 거의 죽을 뻔하다 겨우 살아났다. 아버지가 일찍이 병이 위독해지자 이봉성은 손가락에 피를 내어 마시게 하여 구하였다. 금위영(禁衛營)의 군인으로 장차 올라가 번을 서게 되었는데 차마 아버지 곁을 떠나지 못하자, 고을 군수가 가엾게 여겨 그의 군역을 면제하여 선무군관(選武軍官)[309]으로 옮겨 주었다. 일이 보고되자 순영(巡營)[310]에서 쌀과 고기를 지

308 무술년 : 정려를 내린 뒤의 내용에 의거할 때 숙종 44년(1718)으로 보인다.

급해 주었다.

오서후(吳瑞垕) 본관은 장흥(長興)으로 미륵면에 살았다. 어려서부터 어버이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었다. 어머니가 일찍이 전염병에 걸렸는데, 오서후도 매우 아팠으나 질병을 무릅쓰고 간호하였다. 어머니의 병이 이미 위독해지자 손가락을 물어뜯어 피를 내어 입에 넣어 주었고 피가 멈추면 또 다른 손가락을 물어뜯어 계속하여 피를 넣어 주어 이미 기울었던 목숨을 회생시켰다. 일이 조정에 보고되자 종신토록 복호(復戶)를 지급하였다.

박조이[朴召史][311] 사제면에 살았다. 남편 이의성(李義成)이 일찍 죽었는데 시어머니를 섬김에 효성이 지극하였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병에 걸려 눕자 대소변을 보는 출입에 박조이가 반드시 업고 다녔다. 마을 사람들이 효부라고 칭송하자, 감영에서 쌀과 고기를 지급해 주어 그의 효행을 표창하였다. 시어머니가 90세에 죽자, 박조이는 죽을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 항상 제청(祭廳)[312]에 있으면서 곡하며 울기를 그치지 않았는데, 소리를 듣는 이들도 또한 슬퍼하였다.

김조이[金召史] 김유태(金有泰)에게 시집와서 춘포(春浦)에 살았다. 나이 20살도 못 되어 과부가 되었고 아들만 하나 있었다. 경오년[313]에 시부모와 형제

---

309 선무군관(選武軍官) : 조선 후기에 부를 축적한 백성들에게 사회적 신분을 보장해 주면서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했던 제도 중 하나이다.

310 순영(巡營) : 관찰사가 직무를 보는 관아인 감영(監營)을 달리 부르는 말이다.

311 박조이 : '조이'는 양민의 아내나 과부를 이르는 호칭으로, 한자로는 '召史'라 표기하였다.

312 제청(祭廳) : 장례 때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무덤 옆에 임시로 마련한 제터나, 또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집에 마련한 대청을 말한다.

313 경오년 : 어느 해인지 자세하지 않으나, 영조 26년(1750)이 아닌가 한다.

들이 전염병에 걸려 모두 죽었는데, 김조이가 몸소 시신을 거두어 정성껏 장례를 치렀다. 시할아버지 김의종(金義宗)은 나이가 구십에 이르렀는데, 자손들이 모두 죽고 부모 잃은 손자 하나와 더불어 서로 의지하면서 목숨을 부지하였다. 이에 김조이가 그들 조손을 함께 자신의 집에 불러들여 마음을 극진히 써서 봉양하고 길렀다. 김의종의 수직(壽職)[314] 첩(帖)이 나라로부터 내려오자 김조이는 시할아버지를 안고 울면서 말하기를 "만약 저의 서방님이 살아 있어 이 경사를 보았다면 그 기쁨이 어떠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조이의 집은 겨우 다섯 마지기의 논이 있었는데, 이를 팔아서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여 수연(壽宴)을 베풀어 시할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였다. 사실이 보고되자 감영에서 쌀과 고기를 지급하였다.

이수(李琇) 본관은 광주(光州)로 제석면에 살았다. 일찍이 고아가 되어 어머니를 지극한 정성으로 모셨다. 조금 자라자 장사를 했는데, 어머니를 모시기에 힘을 쏟아 재산이 조금 불어나면 그의 아우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의지할 곳이 없는 사촌 누이를 거두어 길러 때에 맞게 혼인시켰다. 집안에 거할 때의 떳떳한 행실은 효성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었다. 고을 사람들이 그의 행실을 적어 관아에 알렸는데, 관아에서 감영에 보고하여 정려(旌閭)의 포상이 옳다고 청하였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이사원(李思遠) 본관은 연안(延安)으로 묵재(默齋) 이귀(李貴)의 현손이다. 어머니가 병이 위독하자 귀밑머리가 모두 하얗게 되도록 아침저녁으로 기도를 드려, 어머니의 수명이 수개월 연명하게 되었다. 상을 치를 때에는 아침저녁 제수 준비를 반드시 손수 하면서 노복에게 맡기지 않았다. 두 형이 홀아비가

---

314 수직(壽職) : 유교적 경로사상에 입각해 양인이나 천인을 막론하고 80세 이상이 된 노인에게 제수하던 산직(散職)을 말한다.

되어 곤궁해지자 또 따로 큰 이불 한 채를 만들어 같이 덮고 살았다. 효성과 우애의 정성이 죽을 때까지 더욱 돈독하고 지극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그 행실을 적어서 감영에 아뢰어 정려하고 포상을 청하였으나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최창하(崔昌夏) 본관은 강화(江華)이다. 부모를 섬김에 효성을 다하였다. 아버지가 부스럼을 앓다가 부스럼이 터졌는데, 최창하가 그곳을 빨아 주었다. 어머니가 풍증에 걸려 전신이 불수가 되자 최창하가 아내와 함께 정성을 다하여 간호하였는데, 마을 사람들이 효성에 감복하였다.

권옥동(權玉童)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일찍이 고아가 되어 어머니 이씨와 더불어 서로 의지하며 목숨을 이어 갔다. 병자년[315]에 이씨가 전염병에 걸려 밤에 죽어 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권옥동이 나이 겨우 14살이었는데,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어머니의 입에 떨어뜨리면서, 손가락 하나를 못 쓰게 될 정도로 피를 넣어 드리자 어머니의 병이 곧 회복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효성스런 아이라고 칭찬하였다.

소덕기(蘇德器) 후천(后泉) 소광진(蘇光震)의 현손이다.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었는데, 계모를 정성껏 모시고 아우와 누이 또한 지극정성으로 돌보아 효성과 우애로써 주변 사림(士林)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환하게 소문이 났다. 사림들이 그의 행실을 적어서 감영에 보고하여 정려 표창을 청하였으나 아직껏 시행되지 않고 있으니, 애석하다.

검동(檢同) 남의 집 노비였다. 80세의 노모가 있었는데, 일찍이 장사를 하러 멀리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얼고 굶주려 있자 아내에게 매를 쳐 쫓아냈다. 어머니가 병이 위중해지자 손가락에 피를 내어 구호하여 십여 년이나

315 병자년 : 어느 해인지 자세하지 않으나, 영조 32년(1756)이 아닌가 한다.

수명을 연장시키자, 상전이 그의 효행을 가상히 여겨 노비 신분을 해방시켜 주었다.

【열녀(烈女)】

구씨(仇氏) 15세에 조민(曺敏)에게 시집와서 군내면에 살았다. 일찍 과부가 되자 재혼하지 않은 채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기로 맹세하였다. 남편의 초상을 벽에 그리고 의복을 걸어 놓고 밤낮으로 슬프게 울었다. 아침과 저녁으로 음식을 올리고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고하였으며, 시절에 맞는 음식을 반드시 제상에 올리고 소채와 국을 먹지 않았다. 아름다운 옷을 입지 않고 흰 저고리와 흰 치마를 입으면서 일생을 마쳤다. 성화(成化) 신묘년(1471, 성종2)에 일이 보고되자 쌀을 지급하고 정려(旌閭)하였다.

오씨(吳氏) 지삼근(池三近)에게 시집왔는데, 남편이 죽자 3년 동안 여묘살이를 하고 조석으로 음식을 손수 올렸다. 곡하는 것이 매우 슬퍼 듣는 자들이 탄복하였다.

도씨(都氏) 충의위 이즙(李楫)에게 시집왔다. 어느 날 밤 사나운 호랑이가 갑자기 그들의 집에 들어와 남편을 물어 가려고 하였다. 도씨는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달려들어 몸으로 남편을 막고 손으로 호랑이를 치며 잡고 놓지 않자 호랑이가 마침내 가 버렸다. 일이 보고되자 정려(旌閭)하였다.

이조이[李召史] 하경즙(河京楫)에게 시집와 춘포에서 살았다. 남편이 죽자 장례를 곡진히 치렀다. 어머니가 수절하려는 뜻을 꺾고자 강포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허락하였다. 이조이는 비록 어머니의 지시를 굳게 거절하고자 하였으나 강포한 사람에게 몸이 더럽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자결하기로 뜻을 정하

고 두 아이들과 이별하고 강물에 투신하여 죽었다. 효종 때 일이 보고되자 정려하였다. 하늘의 도는 알 수가 없구나! 두 아들이 모두 후손이 없다니.

유씨(柳氏) 본관은 진주로 현감 유박(柳搏)의 딸이다. 남편은 연안(延安) 이사장(李思章)으로 목사 이만저(李曼著)의 아들이었다. 남편이 죽자 유씨는 죽을 것을 맹세하였지만 그래도 차마 남겨진 몸을 스스로 훼손하지 못하여 20여 일을 굶었으나 죽지 않았다. 이에 스스로 한탄하기를 "내 목숨의 질김이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라고 하였다. 초상 때부터 빈소 옆의 자그마한 마루에서 살았는데 마루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이 5년이었다. 유씨가 절조를 굳게 지킨 것은 충신에 비교해 보면 문천상(文天祥)의 연옥(燕獄)에서의 일[316]과 서로 비슷하였다. 나라에서 정려를 명하였다. 그의 여종 덕금(德今)은 상전인 유씨와 한 마루에서 같이 살면서 반드시 좌우에서 모시며 잠깐이라도 떠나지 않았다. 덕금에게는 남편과 어린 자식이 있었는데, 남편은 내보내 다른 여자와 혼인하도록 하고 자기 자식은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 그러고는 유씨와 더불어 고생을 같이 하면서 3년 동안을 하루같이 하다가 유씨보다 2년 먼저 죽었다. 일이 한 시대에 알려졌는데, 명을 내려 그의 자식에게 쌀과 베를 하사해 주었다.

이씨(李氏) 본관은 덕수(德水)이며 용재 이행(李荇)의 후손이다. 송병조(宋炳朝)에게 시집와서 군내면에서 살았는데, 남편이 죽은 날부터 물과 음식을 먹지 않다가 소상일(小祥日)[317]에 자결하였다. 현 임금 병진년(1736, 영조12)에 정려하였다.

---

316 문천상(文天祥)의 연옥(燕獄)에서의 일 : 중국 남송(南宋) 말기의 재상 문천상은 남송이 멸망한 후 원(元)나라에서 벼슬하는 것을 거절했다. 도종의 장자 익왕을 도와 남송 회복에 노력했지만 실패하고 체포되어 연옥에 유폐되었으나 절의를 지키다가 처형되었다.

317 소상일(小祥日) :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맞이하는 제삿날이다.

윤씨(尹氏) 본관이 해평(海平)으로 해숭위(海崇尉) 윤신지(尹新之)[318]의 현손이다. 소상참(蘇相參)-월주(月洲) 소두산(蘇斗山)의 아들-에게 시집와 군내면에 살았다. 남편의 상을 만나자 물 한 모금 쌀 한 톨도 입에 넣지 않았는데, 장례 절차가 겨우 끝나자 장작처럼 야위어 자진하였다. 현 임금 계해년(1743, 영조19)에 정려하였다.

이씨(李氏) 본관이 전주(全州)로 회안대군(懷安大君) 이방간(李芳幹)의 후예이다. 선비 최덕관(崔德觀)에게 시집와 시부모를 모시는 데 정성과 공경을 극진히 하였다. 남편이 죽자 염빈(斂殯)을 마친 뒤 약을 마시고 따라 죽었다. 일이 보고되자 정려하였다.

홍씨(洪氏) 사인 임졸(林茁)의 후처이다. 전부인에게서 낳은 네 자녀가 있었는데 친자식과 같이 사랑하였고, 남편이 병들자 직접 약물로 간호하면서 종들에게 맡기지 않았다. 초상이 나자 장례의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과 예를 갖추었다. 매번 자결하여 따라 죽으려고 하였는데, 집안사람들이 방비하고 지키기를 매우 긴밀히 하자 사람들의 뜻을 늦추기 위해 거처하기를 태연히 하다가 여섯 달이 지나 약을 먹고 죽었다.

김조이[金召史] 임춘욱(林春郁)에게 시집와 미륵면에 살면서 시부모를 정성을 다해 모시었다. 임춘욱은 아직 나이가 어렸으니 대개 미리 혼인한 것으로 동조지락(同調之樂)[319]을 알지 못했다. 임춘욱이 전염병에 걸려 죽으니 염습(斂襲) 등의 여러 절차를 직접 처리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시신이 있는 방에 들어가 염하는 베를 당겨 목을 매 죽었다. 일이 보고되자 정려하였다.

---

318 윤신지(尹新之) : 1582~1657. 선조와 인빈김씨(仁嬪金氏)와의 소생인 정혜옹주(貞惠翁主)와 결혼하여 해숭위(海嵩尉)에 봉하여졌다.

319 동조지락(同調之樂) : 성애(性愛)의 즐거움을 고상하게 표현한 말이다.

송씨(宋氏) 선비 소수함(蘇洙涵)에게 시집왔다. 남편이 죽자 자결하여 따라 죽으려 하였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자 곡기를 끊고 야위어 죽었다. 죽을 때에 임하여 늙은 시모와 어린 딸을 여종에게 부탁하였다. 들은 자들이 슬퍼하였다.

【능묘(陵墓)】

쌍릉(雙陵)[320] 오금사(五金寺)에서 몇백 걸음 되는 곳에 있다. 《고려사(高麗史)》에 "후조선(後朝鮮) 무강왕(武康王) 및 비(妃)의 능이다."라고 하였다. 세속에서는 말통대왕릉(末通大王陵)이라고 부른다. 한편에서는 "백제 무왕(武王)은 어려서 이름이 서동(薯童)이니, 이른바 '말통(末通)'은 곧 '서동(薯童)'의 번역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한다.

참의 김중서(金仲舒) 묘 두촌면 신동에 있다. 비석이 있는데 새긴 글자가 모두 닳았다.

증 찬성 소자파(蘇自坡) 묘 제석면 탄곡에 있다. 비석이 있는데 비문은 남곤(南袞)[321]이 지었고 유연재(悠然齋) 김희수(金希壽)[322]가 글씨를 썼으며, 뒷면 기록은 용재(容齋) 이행(李荇)[323]이 짓고 돈재(遯齋) 성세창(成世昌)[324]이

---

320 쌍릉(雙陵) : 2018년 재발굴 조사 결과 무왕의 능으로 밝혀졌다.

321 남곤(南袞) :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사화(士華), 호는 지정(止亭)·지족당(知足堂)이다. 1519년(중종14) 심정(沈貞) 등과 함께 기묘사화를 일으켜 당시 집권자이던 조광조(趙光祖) 등 신진사림파를 숙청한 뒤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이 되었다. 만년에는 죄를 자책하고, 화를 입을 것을 걱정하여 평생 써 놓았던 글을 불태웠다. 사림파의 세력이 강해지자 탄핵을 받아 1558년(명종13) 관작을 삭탈당했다.

322 김희수(金希壽) :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목사 김숙연(金叔演)의 아들로, 권벌(權橃) 등과 함께 김종직(金宗直)의 신원을 청하였으며, 동지중추부사 등을 지냈고, 해서(楷書)에 뛰어났다.

323 이행(李荇) :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택지(擇之), 호는 용재(容齋)·청학도인(靑鶴

글씨를 썼다.

대사간 소세량(蘇世良) 묘 제석면 탄곡에 있다. 비석이 있는데 동생인 양곡(陽谷) 소세양(蘇世讓)이 짓고 스스로 썼다.

찬성 소세양(蘇世讓) 묘 신도비(神道碑)[325]가 있는데 인재(認齋) 홍섬(洪暹)[326]이 짓고 아들인 소수(蘇遂)가 글씨를 썼다.

부제학 소봉(蘇逢) 묘 미륵면 내산동에 있다. 비석이 있는데 글은 현감 양시우(楊時遇)가 지었다.

교리 소광진(蘇光震) 묘 군내면 저성에 있다.

감사 소동도(蘇東道) 묘 제석면 탄곡에 있다. 비석이 있는데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이 앞면 글씨를 썼다.

道人)이다. 1495년(연산군1) 증광 문과에 급제한 뒤, 1504년 응교로 있을 때 폐비 윤씨의 복위를 반대하다가 충주에 유배되었고, 중종반정으로 풀려나와 고위 관직을 두루 역임했다.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을 펴내는 데 참여했고, 1531년 김안로(金安老)를 논박하여 좌천된 뒤 이듬해 함종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죽었다. 저서로는 《용재집(容齋集)》이 있다.

324 성세창(成世昌) :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번중(蕃仲), 호는 돈재(遯齋)이다. 김굉필(金宏弼)의 문인으로 1507년(중종2) 증광 문과에 급제하였다. 기묘사화로 화를 입은 신진사류들의 등용에 힘썼다.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중추부(中樞府)의 한직으로 좌천되었다가 황해도 장연(長淵)으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죽었다. 문장에 뛰어나 많은 외교문서를 작성했고, 글씨·그림·음률에 뛰어나 삼절(三節)로 불렸다. 저서로 《돈재집(遯齋集)》이 있다.

325 신도비(神道碑) : 조선 시대에 임금 및 종이품 이상 벼슬아치의 무덤 앞이나 근처 길목에 세워 이들의 업적을 기리는 비석을 이르던 말이다.

326 홍섬(洪暹) :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퇴지(退之), 호는 인재(忍齋)이다. 조광조의 문인으로 1531년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예문관·홍문관의 대제학을 지냈다. 1571년(선조4) 좌의정이 되어 궤장(几杖)을 하사받고 영의정에 승진되어 세 번이나 중임하였다. 문장에 능하고 경서에 밝았으며 검소하였다. 저서로 《인재집(忍齋集)》과 《인재잡록(忍齋雜錄)》이 있으며, 시호는 경헌(景憲)이다.

금마지
하권

【마한(馬韓)의 흥폐(廢興)】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기묘년(기원전 1122)에 은(殷)나라 태사(太師)인 기자(箕子)를 조선에 봉하자 평양에 도읍한 이후 서로 계승하여 900여 년을 이어 내려왔다. 40대손 기부(箕否)에 이르자 진 시황(秦始皇) 26년 경진년(기원전 221)에 해당하는데 진(秦)나라를 두려워하여 복속하였다. 기부가 죽고 아들 기준(箕準)이 즉위하였는데, 29년 뒤인 한(漢)나라 혜제(惠帝) 무신년(기원전 193)에 연(燕)나라 사람 위만(衛滿)이 망명하여 무리를 모아 공격하였다. 기준이 바다에 떠서 남쪽으로 와 금마군(金馬郡)에 이르러 도읍을 정하고 마한(馬韓)이라고 일컬었다. 50여 나라를 통일하여 사군이부(四郡二府) 한(漢) 무제(武帝) 원봉(元封) 3년(기원전 108)에 우거(右渠)를 토벌하여 조선의 옛 땅을 평정하여 낙랑·임둔·현도·진번을 사군으로 삼았다. 한 소제(昭帝) 시원(始元) 5년(기원전 82)에 조선의 옛 땅인 평방(平邦)·현도 등의 군을 평주도독부(平州都督府)로 삼고, 임둔·낙랑 등의 군을 동부도독부(東府都督府)로 삼았다. 의 시기를 지나 세대를 전하기를 또한 200년 동안 하였다. 《동국통감(東國通鑑)》[1]의 내용이다.

기준은 위만에게 공격을 받아 나라를 빼앗기게 되자, 좌우의 궁인들을 거느리고 달아나 바다로 들어와 한(韓) 땅인 금마군에 이르러 살면서

1 동국통감(東國通鑑) : 성종 15년(1484)에 강희맹(姜希孟), 서거정(徐居正) 등이 왕명으로 편찬하였는데, 신라 박혁거세(朴赫居世)로부터 고려 공양왕(恭讓王)까지의 역사를 시간 순서대로 기술하였고, 단군 조선에서 삼한까지는 외기로 분류하여 따로 다루었다.

스스로 한왕(韓王)이라고 불렀다. 이 지역 백성들은 정착하여 농사를 짓고 누에치기를 알아 면포(綿布)를 만들어 입었으며, 각각 우두머리[長帥]가 있었는데 큰 자는 신지(臣智)[2]라 스스로 이름하고 그 다음은 읍차(邑借)[3]라 하였다. 산과 바다 사이에 흩어져 살고 성곽은 없었다.

원양국(爰襄國), 모수국(牟水國), 상외국(桑外國), 소석삭국(小石索國), 대석삭국(大石索國), 우휴모탁국(優休牟涿國), 신분고국(臣濆沽國), 백제국(伯濟國), 속로불사국(速盧不斯國), 일화국(日華國), 고탄자국(古誕者國), 고리국(古離國), 노람국(怒藍國), 월지국(月支國), 자리모로국(咨離牟盧國), 소위건국(素謂乾國), 고원국(古爰國), 막로국(莫盧國), 비리국(卑離國), 점리비국(占離卑國), 신흔국(臣釁國), 지침국(支侵國), 구로국(狗盧國), 비미국(卑彌國), 감해비리국(監奚卑離國), 고포국(古蒲國), 치리국국(致利鞠國), 염로국(冉路國), 아림국(兒林國), 사로국(駟盧國), 내비리국(內卑離國), 감해국(感奚國), 만로국(萬盧國), 벽비리국(辟卑離國), 구사오조국(舊斯烏朝國), 일리국(一離國), 불리국(不離國), 우반국(友半國), 구소국(狗素國), 첩로국(捷盧國), 모로비리국(牟盧卑離國), 신소도국(臣蘇塗國), 고랍국(古臘國), 임소반국(臨素半國), 신운신국(臣雲新國), 여래비리국(如來卑離國), 초산도비리국(楚山塗卑離國), 일난국(一難國), 구해국(狗奚國), 불운국(不雲國), 불사분사국(不斯濆邪國), 원지국(爰池國), 건마국(乾馬國), 초리국(楚離國) 등 무릇 50여 나라가 있다. 큰 나라는 1만여 집, 작은

---

2 신지(臣智) : 삼한 시대에 여러 부족국가 가운데 큰 읍락(邑落)을 다스리는 군장(君長)을 이르던 말이다.

3 읍차(邑借) : 삼한 시대에 비교적 작은 규모의 소국 수장에게 붙여진 이름이다.

나라는 수천 집으로 총 10여만 가호였다.

풍속은 크게 기강이 서 있었고, 거처는 풀로 이은 지붕과 흙으로 지은 집이었는데 출입문이 위를 향해 있었다. 풍속이 금, 은, 비단, 융단을 중히 여기지 않고, 구슬[瓔珠]을 귀히 여겨 그것으로 머리카락을 꾸미고 귀에 걸었다. 남자들은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짚신을 신었는데, 성품은 용감하고 사나우며 함께 소리 지르고 힘써 일하였으며, 활과 방패[楯], 창과 큰 방패[櫓]를 잘 사용했다. 《동국통감》의 내용이다.

무진년(서기 7) 7월 신망(新莽)[4] 초시(初始) 원년 백제왕이 여러 장수들에게 말하기를 "마한(馬韓)은 점점 약해져 위아래가 마음이 떠나 형세가 오랠 수 없다. 혹시 다른 나라가 차지한다면 순망치한(脣亡齒寒)이 될 것이니, 후회해도 미칠 수 없다. 먼저 들어가 취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였다. 겨울 10월에 겉으로 사냥하러 나가는 것처럼 하면서 군대를 몰래 동원하여 습격하여 드디어 그 나라를 병합하였다. 오직 원산(圓山)과 금현(錦峴) 두 성만 굳게 지켜 항복받지 못했다. 이듬해 여름 4월에 두 성이 항복하여, 마한이 멸망하였다. 《동국통감》의 내용이다.

병자년(서기 16)에 신망 천봉(天鳳) 3년 마한의 옛 장수 주근(周勤)이 군사를 일으켜 백제 우곡성(牛谷城)을 점거하였다. 지금 그 땅을 알지 못

4 신망(新莽) : 왕망(王莽)이 세운 신(新)나라를 말한다. 서기 9년에서 25년까지 존속하였다.

한다. 왕이 군사 5천을 거느려 토벌하자 주근은 스스로 자결하였는데, 시신의 허리를 베고 처자를 모두 죽였다. 《동국통감》의 내용이다.

신라 문무왕(文武王) 8년(서기 668) 2월 당(唐)나라 고종(高宗) 총장(總章) 원년 당나라 요동도 대총관 이세적(李世勣)이 신라 병사와 함께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9월에 평양성을 함락시켜 왕 고장(高藏 보장왕)을 잡아 돌아가자 고구려가 멸망했다. 10년(서기 670) 당(唐) 함형(咸亨) 원년 여름 6월에 옛 고구려 대형 검모잠(劍牟岑)이 고장(高藏)의 외손 안승(安勝)을 왕으로 삼고, 사람을 시켜 신라에 알려 말하기를 "우리의 선왕 신(臣) 고장이 도(道)를 잃어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제 신들은 본국의 귀족 안승을 얻어서 임금으로 받들었습니다. 바라건대 신라의 울타리가 되어 영원히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멸망한 나라를 일으켜 주고 끊긴 대를 이어 주는 것이 천하의 공평한 도리라고 신들은 들었습니다. 대국에게 오직 이것만을 바라옵니다."라고 하였다. 신라왕이 금마저(金馬渚)에 살게 하였는데, 당나라가 대장군 고승(高勝)을 보내어 토벌하자 안승은 신라로 달아났다. 안승의 조카 장군 대문(大文)이 금마저를 차지하고 반란을 도모하다 죽임을 당하였다. 남은 무리들이 관리를 죽이고 보덕성(報德城)을 차지한 채 반란을 일으켰는데, 신문왕 4년 갑신년(서기 684) 당나라 중종(中宗) 사성(嗣聖) 원년 에 장병을 보내 토벌하여 죽이고, 그 사람들을 나라 남쪽 고을에 이주시킨 뒤 그 땅을 금마군으로 삼았다. 《동국통감》의 내용이다.

양촌(陽村) 권근(權近)이 말하기를,

"삼한(三韓)에 관한 설은 서로 같지 않다. 그런데 조선왕 기준(箕準)이 위만(衛滿)의 난을 피하여 바다에 떠서 남쪽으로 와서 나라를 열어 마한(馬韓)이라 불렀는데, 백제 온조(溫祚)에 이르러 드디어 병합하였다. 오늘날 익주(益州)에 오래된 성(城)이 있는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기준성(箕準城)이라고 일컫는다. 그렇다면 마한(馬韓)이 백제가 된 것은 의심할 게 없다. 진한(辰韓)은 신라 시조 박혁거세(朴赫居世)가 일어난 땅이다. 《신당서(新唐書)》에서 '변한(卞韓)은 낙랑(樂浪)의 땅에 있다.'라고 하였고, 또 '평양은 옛날 한(漢)의 낙랑군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진한은 신라가 되고 변한은 고구려가 된 것은 또한 의심할 게 없다. 고운 최치원(崔致遠)이 '마한은 고구려이고, 변한은 백제이다.'라고 한 것은 오류이다."

라고 하였다. 마한의 왕이 진한과 변한을 일컬어 속국이라 하였으니, 그렇다면 고구려가 변한이 아닌 게 분명하다. 아래 글에 상세히 보인다.

구암(久菴) 한백겸(韓百謙)이 《동국지리지(東國地理志)》에서 변증(辨證)하기를,

"사군이부(四郡二府)는 한강 북쪽에 있고 삼한(三韓)은 남쪽에 있어, 원래부터 서로 관계가 없었다. 한강 북쪽은 뒤에 고구려가 되었고, 마한은 백제가 되는데 지금의 전라도이며, 진한은 신라가 되는데 지금 경상도이다. 한강 남쪽 경기와 충청도는 신라와 백제에 나뉘어 속한다. 변한은 바로 진한에 부속된 나라이었으니, 본래 북방에서 피란한 백성들이 자기들이 북방에서 살던 옛 땅으로 인하여

'낙랑'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고구려가 일어난 땅이 아니고 여전히 신라에 속해 있었다. 후세의 사람들은 변한을 또한 '낙랑'이라 일컫는 것을 보고 문득 고구려를 변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이다.

견훤은 '옛날 마한이 먼저 일어나자 혁거세가 발흥하고 진한과 변한이 따라서 일어났다. 이리하여 백제가 금마산(金馬山)에 개국하여 600여 년이 되었다.'라고 말하였다.[5] 지금 살펴보건대, 온조가 마한을 병합한 뒤 그 땅을 일컬어 '금마저(金馬渚)'라 하였지 '금마산'이라 일컫지 않았으며, 또 금마군(金馬郡)은 일찍이 백제가 도읍한 적이 없다. 견훤의 말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

라고 하였다. 《여지승람》의 내용이다.

○ 고증해 보건대,[6] 백제가 처음에는 위례성(慰禮城)에 도읍하였고, 두 번째는 한산(漢山)으로 옮겼고, 세 번째는 북한산(北漢山)으로 옮겼고, 네 번째는 웅진(熊津)으로 옮겼고, 마지막에는 사비(泗沘)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南扶餘)라 하였으니, 일찍이 금마(金馬)를 도읍으로 한 적이 없다. 《여지승람》에서 견훤의 말은 잘못이었음을 이미 변증하였다. 그런데 사가(四佳) 서거정(徐居正)은 익산(益山)에서 시를 읊으면서 "백제 수도 옛터엔 고목만 덩그렇게 서 있다[濟國遺墟空老樹]"라고 하였는데,[7] '백제의 수도[濟國]'라는 말은 또한 어

5 견훤은……말하였다 : 《삼국사기(三國史記)》, 열전(列傳) 제10, 〈견훤(甄萱)〉 조에 보이는 내용이다.

6 고증해 보건대 : 《금마지(金馬志)》의 편저자인 남태보(南泰普)가 고증해 보는 내용이다.

7 백제……하였는데 : 서거정의 문집인 《사가집(四佳集)》의 보유(補遺) 3권에 '益山'이라

디에 근거한 것인가?

양곡(陽谷) 소세양(蘇世讓)의 〈익산동헌중수기(益山東軒重新記)〉[8]에서 이르기를,

"호남에 읍이 형성된 것이 50여 곳인데 오직 우리 군이 가장 오래되었다. 본래 마한 무강왕(武康王)이 도읍한 곳으로 궁궐 터와 왕릉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 후조선왕 기준(箕準)이 연나라 사람 위만(衛滿)에게 쫓기게 되자 바다에 떠서 남쪽으로 내려와 용화산(龍華山)[9]에 도읍을 정했다. 산에는 산성(山城)이 있는데, 석회를 바른 성가퀴가 어제 쌓은 것 같다."

라고 하였다.

진실로[10] 양곡 소세양의 말과 같다면, 마한이 개국하여 무강왕이 도읍을 세운 것은 기준의 앞 시대에 있었던 듯하다. 그런데 삼한 시대에는 80여 나라가 바둑판에 흩어져 있는 바둑돌 같았다. 비록 군장(君長)이라는 이름은 있었을지라

는 제목으로 이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녘 호수는 매우 맑고 익산은 푸르른데, 지난 일들은 아득하여 한바탕 봄꿈일세. / 백제 수도 옛터엔 고목만 덩그렇게 서 있는데, 기준의 옛 궁터엔 석양이 몇 번이나 비꼈을꼬. / 백년토록 말이 없어 금마는 가련타만, 만고에 다정한 것은 석양이 기억나누나. / 백발로 멀리 노닐다 보니 하도 강개하여, 오르는 곳곳마다 상심 안 되는 곳이 없구나.[南湖白白益山蒼, 往事微茫夢一場. 濟國遺墟空老樹, 箕君故殿幾斜陽. 百年無語憐金馬, 萬古多情記石羊. 白髮遠遊多慷慨, 登臨無處不傷神.]"

8 익산동헌중수기(益山東軒重新記) : 현전하는《양곡집(陽谷集)》14권에 해당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9 용화산(龍華山) : 지금의 미륵산을 가리킨다. 남태보가《금마지(金馬志)》를 편찬할 당시에는 미륵산을 용화산이라고 불렀다.

10 진실로 : 이하의 내용은 편저자인 남태보의 견해이다.

도 한 사람도 '왕(王)'이라고 칭한 자가 있었다고는 듣지 못하였다. 역사가들이 이른바 "마한과 황룡(黃龍) 등 나라는 달팽이 뿔 위의 만국(蠻國)이나 촉국(觸國)과 같았으니, 어찌 나라라고 할 수 있었으며 어찌 왕이라고 일컬을 수 있었겠는가?"라고 말한 것이 옳다. 그리고 시호(諡號)를 쓰는 법은 신라 중엽에야 비로소 시행했으니, '무강왕'이란 시호는 결코 마한 시대 이상의 군주가 아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여러 한(韓 마한 변한 진한)이 간혹 '왕'이란 호칭이 있는 것은 사실은 역사가들이 뒤미처 존칭한 것이다. 고을 서쪽 10리쯤에 쌍릉(雙陵)이 있는데, 《고려사》에서는 "후조선 무강왕과 왕비의 능이다."라고 하였고, 일설에는 "백제 무왕의 능이다."라고 하였다. 과연 《고려사》에 전하는 내용과 같다면 무강왕은 기준의 자손인 듯하다.

지금 보건대, 무강왕 때의 궁터가 몇 리에 걸쳐 있고 불탑이 다섯 길 높이로 서 있는데, 몇천 년이 지나도록 완연하다. 처음에 기준이 나라를 잃고 몸을 숨겨 갖은 역경을 겪은 끝에 자신을 보존하였는데, 그의 자손이 조상의 업적을 다시 넓히고 가업을 크게 일으켰으니, 이는 진실로 일세의 영웅이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라 수명이 장구하지 못한 채 멸망한 것이 이처럼 갑작스러웠던가? 《여지승람》에서 "무강왕이 절에 있는 탑을 만들 때 신라 진평왕이 장인을 보내주어 조성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삼한(三韓) 때는 불교가 아직 전래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절에 있는 탑을 조성한 것은 삼한 이후의 일인 듯하다.

또한 《동국통감》을 살펴보건대, 백제 무령왕(武寧王)은 신라 진평왕과 동시대 사람이었는데 무령왕이 교만하고 향락에 빠졌으며 토목공사를 많이 벌였다. 이곳 금마는 백제 도읍까지의 거리가 백 리에 차지 못한다. 어쩌면 무령왕이 이곳에 행궁(行宮)을 설치하고서 인하여 이곳에 묻힌 것인가? 무왕의 능이라는 설은 그럴 듯하나 또한 자세히 알 수 없다.

【마한(馬韓)의 고사(古事)】

한(漢)나라 성제(成帝) 홍가(鴻嘉) 원년(기원전 20) 봄 2월에 신라 시조 박혁거세(朴赫居世)가 마한에 호공(瓠公)을 보내어 문안드리자, 마한왕이 꾸짖어 말하기를 "진한과 변한 두 나라는 우리의 속국인데 근년에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 대국을 섬기는 예의가 이와 같은가?"라고 하니, 호공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두 성인 박혁거세와 비 알영(閼英) 이 처음 흥기하여 인사(人事)가 닦이고 천시(天時)는 화평하며 창고가 가득 차고 백성들은 공경하고 겸손하니, 진한·변한·낙랑·왜인들이 두려움을 품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왕께서 겸허히 소신을 보내어 문안토록 하셨으니, 예의를 지나치게 차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왕께서는 도리어 화를 내면서 군사로서 겁박하니 어찌 된 일입니까?"라고 하였다. 마한 왕이 더욱 화를 내면서 죽이려고 하였는데, 좌우에서 간언하며 저지하자 이에 돌아갈 것을 허락했다. 이에 앞서 중국인으로서 진(秦)나라 난리에 고통을 받아 동쪽으로 마한에 온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 진한과 더불어 섞여 살면서 이때 이르러 점점 성대해졌기 때문에 백제가 이를 시기한 것이었다.

역사가들이 "마한의 멸망에 대해 김부식(金富軾)과 권근(權近)이 모두 기씨 임금[箕君]의 자초지종을 말하지 않은 것은 어찌 된 일인가?"라고 운운하였다.[11] 삼가 생각건대,[12] 기자(箕子)의 과화존신(過化存神)[13]의 공적으로도 자

---

11 역사가들이……운운하였다 : 이 내용은 조선 숙종 때 임상덕(林象德)이 지은 고려 말까지의 한국통사 《동사회강(東史會綱)》 권1에 보이는 내용이다.

12 삼가 생각건대 : 이 부분 서술의 주체는 《금마지(金馬志)》의 편찬자인 남태보이다.

13 과화존신(過化存神) : 《맹자(孟子)》에 나오는 말로 '성인은 지나만 가도 백성들이 감

손이 쇠약해져 떠돌다가 제사까지 끊기게 되었고 8조의 선정(善政)이 소문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다. 삼한은 문헌이 부족했으니 이전의 역사가들이 자초지종을 기록하지 못한 것은 진실로 괴이하게 여길 게 없다. 이제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 한두 가지 대개나마 보이는 사적(事跡)을 가져다가 기록하여 마한고사(馬韓古事)로 삼는다.

한(韓)나라 애제(哀帝) 건평(建平) 원년(기원전 6) 8월에 백제 시조 온조(溫祚)왕이 위례성(慰禮城)으로부터 한산(漢山) 아래로 이주하고 마한에 사신을 보내어 천도(遷都)를 알렸다.

한나라 애제 원수(元壽) 2년(기원전 1) 겨울 10월에 말갈이 백제를 침범하였다. 왕이 병력을 거느리고 칠중하(七重河)[14]에서 맞이하여 싸워, 추장 소모(素牟)를 사로잡아 마한에 보내고 나머지 무리들은 구덩이에 묻었다.

한(漢) 왕망(王莽) 거섭(居攝)[15] 원년(서기 6) 가을 7월에 백제가 웅천(熊川)에 목책을 세우자, 마한왕이 사신을 보내어 꾸짖어 말하기를 "왕이 처음 강을 건너와 발 디딜 곳이 없자, 내가 동북 100리의 땅을 떼어 주어 편히 살도록 하였다. 왕을 대우함이 후하지 아니한 게 아니니, 마땅히 보답할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들이 모여들자 나와 대적할 자가 없다고 생각하여 성(城)과 못[池]을

화가 되고, 마음을 두기만 하여도 신비롭게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이다.

14 칠중하(七重河) : 임진강을 가리킨다.

15 거섭(居攝) : 한(漢)나라 왕망이 신나라를 세우기 전에 주공의 예를 들며 섭정을 하면서 복장도 황제와 똑같이 하고 섭황제라 부르고 연호도 거섭으로 바꾸었다가, 3년 후 서기 8년에 신나라를 세웠다. 이 연호는 기원후 6, 7년 두 해 동안 사용되었다.

크게 만들고 우리의 강토를 침범하니, 의리라 하겠는가?"라고 하니, 왕이 부끄러워하고 드디어 목책을 허물었다.

【금마(金馬)의 유사(遺事)】

고려 충숙왕(忠肅王) 16년(서기 1329) 원(元)나라 천력(天曆) 2년 3월 도적들이 금마군(金馬郡)에 있는 마한(馬韓)의 조상 호강왕(虎康王) 곧 무강왕(武康王)이다. 의 능을 파헤쳤다. 그들을 체포하여 전법사(典法司)에 가두어 두었는데, 도적이 달아남에 미쳐 정승(政丞) 정방길(鄭方吉)이 전법사의 관리를 탄핵하고자 하였다. 찬성 임중연(林仲沇)이 그것을 저지하며 말하기를 "도적들이 옥에 갇힌 지 2년이 되도록 장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죽은 자들이 많다."라고 하자, 정방길이 말하기를 "무덤을 도굴한 사람이 금덩어리가 많았던 사실을 본래부터 알고 있었다." 하니, 임중연이 부끄러워하면서 화를 내었다. 임중연은 필시 도적질을 해서 부유해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고려 공민왕(恭愍王) 원년(1352)에 원(元)나라 지정(至正) 12년 왜(倭)가 전라도를 노략질했다. 익주 지사 김휘(金輝) 등이 수군을 거느리고 그들을 공격했으나 이기지 못했다.

신우(辛禑)[16] 2년(1376)에 명(明)나라 홍무(洪武) 9년 왜가 임주(林州)를 노략질하였다. 전라도 병마사 유보(柳寶)와 익주 지사 김밀(金密) 등이 힘껏 싸워 그들을 물리쳤다.

---

16 신우(辛禑) : 고려 우왕(禑王) 왕우(王禑)를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 신돈(辛旽)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조선 시대에 폄하하여 부른 것이다.

신우(辛禑) 4년(1378) 9월에 왜가 익주를 노략질하였다. 11월에 또 왜가 익주를 노략질하였다. 마한으로부터 고려 말에 이르기까지 전쟁이 서로 이어졌는데, 우리 왕조 300년은 온 지역이 편안하였다. 양촌(陽村) 권근(權近)은 시에서 "칼과 화살로 천 년간 서로 맞섰는데, 뽕나무와 삼밭으로 사방 들녘이 봄빛이네."라고 읊었다.[17]

【향리기언(鄕里記言)】

국자감(國子監) 전주(典酒) 이행검(李行儉)이 일찍이 형부(刑部)의 관리가 되었을 때 정화원주(貞和院主)[18]가 백성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자 백성이 소송을 걸었다. 형부의 동료가 형세에 핍박을 받아 소송의 정당한 쪽을 패소시키려 하였으나, 공이 죽기를 각오하고 불가하다 고집하였다. 공이 마침 병이 생겨 휴가를 받았는데, 동료는 공이 없음을 다행으로 여겨 곧바로 판결하였다. 꿈에 날카로운 검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형부의 관리들을 베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모두 갑자기 병으로 죽었고 공만 홀로 탈이 없었다. 공은 관직이 국자감 전주에 이르렀다. 목은(牧隱) 이색(李穡)이 기록한 내용이다.

---

17 양촌(陽村)……읊었다 : 이 작품은 《양촌집(陽村集)》 권1의 응제시(應製詩)에 '마한(馬韓)'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18 정화원주(貞和院主) : 정신부주(貞信府主) 왕씨(王氏)이다. 충렬왕(忠烈王)의 원비인 정화원비(貞和院妃)로, 강양군(江陽君) 왕자(王滋)를 낳았다. 충렬왕이 원종(元宗) 15년(1274) 5월에 세자의 신분으로 원나라 제국공주(齊國公主)와 혼인한 뒤로 40여 년을 별궁에서 살았다.

남촌(南村) 이공수(李公遂)는 공민왕 신축년(1361, 공민왕10)에 찬성사가 되었다. 이때 사적(沙賊)[19]이 이미 물러나 개경(開京)을 새로 창건하였는데, 공은 재능을 살피고 일을 헤아려 조정에 폐정이 없었다. 성현(聖賢)과 스승을 제사하고 학생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여 내외의 학교들이 모두 넉넉해졌으며 예절 풍속을 인도하고 인재를 양육하였으니, 무예를 버리고 문예를 익히며 말을 쉬게 하고 도를 논하는 의리에 대해 깊은 깨달음이 있었다. 계묘년(1363) 원나라에서 돌아왔을 때 성균관을 짓는 공역이 한창 일어나고 있었는데, 공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즉시 황제가 하사한 황금 허리띠를 풀어 비용에 보탰다. 목은 이색이 지은 묘지명(墓誌銘)의 내용이다. ○ 유학(儒學)에 공이 있으니, 문묘에서 제사를 지내야 마땅하다.

남촌 이공수가 계묘년에 어가를 맞이하여 개경에 돌아왔다. 간신 최유(崔濡)가 원나라에서 덕흥군(德興君)[20]을 받들며 권행(權倖)[21]에게 빌붙어 현릉(玄陵 공민왕)의 폐위를 도모하였는데, 황제의 명을 받아 장차 실행하려 하였다. 공민왕이 공에게 명하여 표문(表文)을 가지고 원(元)나라에 가도록 하였는데, 서경(西京)에 이르러 태조의 원묘(原

19 사적(沙賊) : 원(元)나라 말년에 중국에서 일어난 홍건적(紅巾賊)의 수령이 사유(沙劉)였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다. 원나라의 대도(大都, 지금의 북경 지역)를 함락시키고 요동을 거쳐서 고려에 침입하여 송도까지 함락하였으나, 최후에 안우(安祐)·이방실(李芳實)·김득배(金得培) 등 세 원수에게 섬멸당하였다.

20 덕흥군(德興君) : 충선왕(忠宣王)의 셋째 아들 왕혜(王謜)로 원나라 순제(順帝)에게서 왕에 책봉되었고, 공민왕 때 최유(崔濡) 등과 함께 본국에 침입하였으나 최영(崔瑩)과 이성계(李成桂)에게 패하여 원나라로 돌아갔다.

21 권행(權倖) : 권세(權勢)가 크고 임금의 총애를 받고 있는 신하를 말한다.

廟)에 나아가 재배하고 맹세하여 말하기를 "우리 임금님이 복위되지 않으면 신 이공수는 죽어도 돌아오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윽고 대도(大都)에 이르자 황후와 황태자의 교로(郊勞)[22]가 잇따라 끊이지 않았다. 원나라 순제(順帝)의 황후 기씨(奇氏)는 곧 이씨의 외손이었다.

황태자가 황제의 명으로 공을 불러 함께 만수산(萬壽山)의 광한전(廣寒殿)에 올랐다. 태자가 건물 편액에 쓰인 '인지(仁智)'의 뜻을 묻자, 공이 말하기를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인(仁)이고, 사물을 분별하는 것이 지(智)입니다. 제왕은 이 두 글자로써 세상을 다스리면 만세 동안 태평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광한전으로 들어가 금과 옥으로 장식된 기둥을 가리키며 태자가 또 말하기를 "노인께서는 일찍이 이와 같은 보배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니, 공이 말하기를 "제가 듣기로, 제왕이 인정(仁政)을 일으켜 베풀면 사는 집이 비록 썩은 나무일지라도 견고한 금옥으로 만든 집과 같고, 그렇지 않으면 견고한 금석의 집이라도 도리어 썩은 나무 집만 못합니다."라고 하였다.

광한전을 나와 자리에 앉도록 하였다. 독로첩목아(禿魯帖木兒) 첨사(詹事)가 서서 비파를 탔는데, 태자가 그 비파를 취하여 탔지만 곡조가 연주되지 않았다. 이에 포기하며 말하기를 "오랫동안 연습하지 않아서 잊었습니다."라고 하니, 공이 즉시 꿇어앉아 말하기를 "백성을 근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거문고 곡조 한두 곡을 잊는 것이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

22 교로(郊勞) : 교외나 성 밖까지 마중을 나가서 위로하여 맞아들이는 것이다.

황제가 태액지(太液池)의 배 위에 있었는데, 태자가 공의 말을 아뢰니, 황제가 말하기를 "내가 본디 이 노인이 현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너의 외가에는 오직 이 한 사람뿐이다."라고 하였다. 목은 이색이 기록한 내용이다.

남촌 이공수가 원(原)나라에 있을 때 공민왕이 복위하니, 공이 또한 고향에 돌아가기를 청하였다. 대도(大都)의 제화문(齊化門)을 나오자 종에게 피리를 불도록 하고, 뒤따르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천하의 즐거움이 이보다 더한 것이 다시 있겠느냐?"라고 하였다. 도중에 말이 지치자 종이 화살 하나로 콩 한 다발을 사서 말에게 먹였는데, 공이 그것을 보고 말하기를 "어찌하여 가난한 백성이 먹을 것을 빼앗느냐?"라고 하고, 면포를 잘라 그 값을 채워 주었다.

여산참(閭山站)에서 사람은 없고 들에 조[粟]가 쌓여 있었는데, 종이 또 가져다 말을 먹였다. 공은 조 한 다발 값이 목면으로 몇 자인지를 물어, 그 값대로 잘라 목면의 양 끝에 사유를 적어 조가 쌓여 있는 가운데 두었다. 종이 말하기를 "말을 가진 사람이 돌아갈 때 반드시 그것을 가져갈 것이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보상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공이 말하기를 "나도 진실로 안다. 하지만 반드시 이렇게 한 뒤라야 내 마음이 편하다."라고 하였다. 목은 이색이 지은 묘지명(墓誌銘)의 내용이다.

남촌 이공수는 깨끗하고 맑으며 삼가고 신중하였는데, 과단성이 있고 강직하여 터럭 하나라도 망녕되이 주고받지 않았으므로 우뚝하여 권세가에게 군색함을 당하지 않았다. 원나라로부터 고려로 돌아오니, 충의가 천하에 소문이 났으며 왕도 그를 후대하였다.

당시에 신돈(辛旽)이 나라를 맡아 공을 매우 시기하였는데, 공도 역시 가득 차면 기우는 이치로써 스스로를 경계하였다. 덕수현(德水縣)[23] 농장에서 살면서 복건을 쓰고 명아주 지팡이를 짚고 그곳에서 시를 읊으며 지냈는데, 풍류가 한가롭고 우아하여 조촐한 산야의 흥취를 즐겼다.

공이 병을 얻자, 친척이 부인 김씨에게 말하기를 "왜 부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라고 하니, 김씨가 말하기를 "공께서는 평생 동안 부처에게 아첨하지 않았습니다. 첩이 어떻게 감히 그러한 도를 위배하여 공을 속이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동국통감(東國通鑑)》의 내용이다.

곤암(困菴) 소세량(蘇世良)은 어려서부터 학문에 힘써, 성현의 글에 잠심(潛心)하고 의리의 근원을 탐색하였다. 일찍이 시를 지어 이르기를 "거울은 티끌에 신경 쓰지 않고 물에 물결 일지 않나니, 흉중에 천지 담아 절로 중화(中和)의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이라네. 세간으로부터 생겨난 더러움을 모두 녹여내고 나서야, 종전에 헛되이 힘쓴 일이 많았음을 비로소 깨달았네."라고 하였다. 이 작품에서 학문의 조예가 깊고 심오했음을 알 수 있다. 양곡 소세양이 지은 행장(行狀)의 내용이다.

곤암 소세량이 더불어 교유한 사람들은 모두 한 시대의 명현들이었으니, 이를테면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 사재(思齋) 김정국(金正國), 눌재(訥齋) 박상(朴祥), 충암(沖菴)

23 덕수현(德水縣) : 고려 성종 14년(995)에 설치된 6개 적현(赤縣) 중 하나로 개성부(開城府)가 직접 관장하는 주요 지역이었다.

김정(金淨) 같은 이들이 모두 그의 벗이었다. 서로 왕래하며 학문을 닦고 도를 논하였다. 과거에 급제한 뒤 곧바로 예문관에 들어갔다가 승진하여 이조 낭관이 되었고, 대간(臺諫)의 직책에 오래 있으면서 올바름을 지키고 굽히지 않았다. 한때의 상소와 차자가 모두 그의 손에서 나왔는데, 좋아하지 않는 자들이 많았다. 정덕(正德) 정축년(1517, 중종12)에 권간(權奸) 윤자임(尹自任)으로부터 거스름을 받아 용담 현령(龍潭縣令)으로 내쳐졌다. 기묘사화(己卯士禍) 때 여러 선비들이 일망타진되었는데, 공은 외직에 있었기 때문에 화가 미치지 않았다. 양곡 소세양이 지은 행장 및 면와(眠窩) 소동도(蘇東道)가 지은 유사(遺事)의 내용이다.

곤암 소세량이 예문관에 있을 때, 봉교 이희증(李希曾)·김영(金瑛), 검열 권벌(權橃)·문관(文瓘)·김희수(金希壽) 등과 함께 무오사화(戊午士禍)의 일을 논박하는 계를 올려, 이극돈(李克墩)을 소급하여 죄줄 것과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의 원한을 씻어 줄 것을 청하였다.[24] 무오사화 뒤 십 년 동안 선비들의 기개가 꺾이고 공론이 막혔는

24 곤암 소세량……청하였다 : 《중종실록(中宗實錄)》 3년 기사에 이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보인다. "이극돈이 사국(史局)의 일을 누설하여 무오의 화를 일으켰고, 갑자에 이르러서는 정류(正類)가 섬멸되었으며, 백성은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거의 망할 뻔하였습니다. 다행히 성명(聖明)을 만나 대업을 다시 이루고 조정의 모든 일이 다 바른 데로 돌아갔으므로 그 자손도 그 아비의 죄로 세상에 용납되지 못할 것을 알아 죄인으로 자처하였는데, 상께서 명하여 버려두게 하시니, 신 등은 매우 민망합니다. 그 죄를 추론하여 사림의 묵은 분함을 풀어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극돈이 죽은 지 오래이므로 대신과 의논하여 그만두었으니, 추론할 수 없다." 하였다. 이희증 등이 다시 아뢰니 "그 사람이 이미 죽고 여러 번 대사(大赦)를 겪었으니, 아비 때문에 벌이 자손에게 미쳐서는 안 된다." 하였다. 《中宗實錄 卷6, 3年 6月 18日》

데, 얼마나 다행히도 정기를 부지(扶持)하고 삿된 자들을 죽이자는 논의가 사국(史局)에서 처음 제창되자 시비(是非)가 크게 정해지고 인심이 통쾌하게 여겨 역사책에 기록되었으니, 어찌 아름답지 않은가. 다만 공의 행장(行狀)과 비문 안에 이 내용을 모두 빠뜨리고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기록한다.[25]

양곡(陽谷) 소세양(蘇世讓)은 나이 겨우 7, 8세에 학문을 좋아하여 스승의 도움을 번거롭게 하지 않았다. 중종(中宗)이 문치(文治)에 확고한 뜻을 가지고 세종(世宗)의 고사(故事)[26]를 따라 한 시대의 문학에 뛰어난 인물 7인을 뽑아 오랜 기간의 사가독서(賜暇讀書)하게 하였는데, 마침내 문형(文衡)[27]을 맡았던 사람이 다섯이었으며 공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인재(認齋) 홍섬(洪暹)이 지은 《신도비(神道碑)》의 내용이다.

양곡 소세양이 홍문관에 있을 때 현덕왕후(顯德王后)[28]의 위호(位號)를 폐기한 지 거의 60년이 되었는데, 대간(臺諫)[29]의 시종신(侍從

25 곤암 소세량……기록한다 : 서술의 주체는 《금마지(金馬志)》의 편찬자인 남태보(南泰普)이다.

26 고사(故事) : 세종 8년(1426) 처음으로 집현전의 학사들 가운데 일정 인원을 선발하여 세검정의 장의사에서 사가독서하게 한 일을 말한다.

27 문형(文衡) : 홍문관과 예문관 대제학을 가리킨다. 문장을 평론하는 것이 마치 저울로 물건의 경중을 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

28 현덕왕후(顯德王后) : 조선 제5대 왕 문종(文宗)의 비인 권씨로, 단종(端宗)의 어머니이다.

29 대간(臺諫) : 관원에 대한 감찰 임무를 맡은 사헌부(司憲府)와 국왕에 대한 간쟁 임무를 맡은 사간원(司諫院)을 합해서 부르는 말이다.

臣)들이 여러 달 동안 복합(伏閤)[30]하여 소릉(昭陵)[31]을 복위할 것을 청하였으나 오래도록 윤허를 얻지 못하였다. 하루는 공이 입시하여 왕을 대면하고 폐기의 불가함을 극진히 진술하였는데, 말투가 강개하고 논리가 이치에 꼭 맞아 곧바로 윤허를 받았다. 그리하여 현릉(顯陵 문종의 능)에 이장하고 종묘(宗廟)에 배향하니, 여론이 매우 주목하였다.

양곡 소세양이 이조 참의로 있다가 어버이를 편안히 봉양하기 위해 전주 부윤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대제학 이행(李荇)이 아뢰기를 "아무개와 같은 신하는 문한직(文翰職)[32]의 직책에 있는 것이 합당하니, 낮은 관직에 오래 막혀 있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공에게 특별히 가선대부의 품계를 더해 주고, 한성부 우윤에 임명하였다.

양곡 소세양이 기재(企齋) 신광한(申光漢), 호음(湖陰) 정사룡(鄭士龍)과 동시대 사람이었는데, 용재(容齋) 이행(李荇)은 양곡을 가장 인정하여 왕 앞에서 누차 "아무개는 문장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니, 하위직에 두어서는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양곡이 어버이 봉양을 청하여 홍주 목사(洪州牧使)에 제수되자, 용재가 또 "문장을 하는 선비는 외직에 내보내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자, 왕이 소환하라고 명하였다. 그 뒤에 신광한과 정사룡 및 양곡은 모두

---

30 복합(伏閤) : 관원이나 유생이 대궐문 앞에 엎드려 상소(上訴)하던 일을 가리킨다.

31 소릉(昭陵) : 문종(文宗)의 비인 현덕왕후(顯德王后)의 능 이름이다.

32 문한직(文翰職) : 문필에 관한 일을 담당하던 관직이다. 과거 급제자만이 진출할 수 있는 문관직으로 조선 시대에는 홍문관·예문관·규장각의 직책 등이 여기에 해당되었다.

대제학이 되었다. 그런데 양곡은 일찌감치 고향으로 물러나 맑고 한가하게 지내는 복을 누린 것이 거의 이십 년 동안이었다. 근세에 시문을 짓는 사람으로서 장수와 부귀를 누린 이로는 그를 넘는 사람이 없다. 《지봉유설(芝峯類說)》[33]의 내용이다.

양곡 소세양이 중국 북경(北京)에 가서 황태자의 탄생을 축하했는데, 예부 상서(禮部尙書) 하언(夏言)이 공이 시에 능하다는 명성을 듣고 공의 작품을 구하여 보더니 훌륭하다고 칭찬하기를 그치지 않고 서책을 선물로 주었다. 조선으로 돌아오자 임금이 또한 공의 행고(行稿)[34]를 열람한 뒤 부(賦)와 시(詩) 몇 수를 지어 올리도록 명하고 하사품을 많이 내렸다. 곧이어 공조 판서에 제수하자, 대간의 신하가 '공이 중국에 들어가 중국 학사와 더불어 시로 화답했기 때문에 장차 뒤 폐단이 있을 것'이라 논하며 고집하기를 매우 힘껏 하여, 마침내 교체되었다.

양곡 소세양이 원접사(遠接使)로서 명나라 사신 화찰(華察)을 압록강 가에서 영접하고 전송하였는데, 응접하는 즈음에 주선하는 것이 예에 맞았을 뿐 아니라 수작한 시작품들이 번번이 화찰에게 칭찬을 받아 눈물을 흘리며 헤어짐에 이르렀다. 그 뒤에 조선 사신이 중국에 들어가면 화찰은 반드시 찾아와 공의 소식을 물었다.

양곡 소세양은 병이 들기도 전에 사직하고 조촐하게 지내는 것을

---

33 지봉유설(芝峯類說) : 지봉(芝峯) 이수광(李睟光)이 세 차례에 걸쳐 중국에 사신으로 다녀온 견문을 토대로 하여 지은 기사일문집(奇事逸聞集)으로, 그가 죽은 뒤 아들 이성구(李聖求)와 이민구(李敏求)가 1634년(인조12)에 간행하였다.

34 행고(行稿) : 중국에 사행을 다녀오면서 지은 기행 원고를 말한다.

편하게 여겨, 대나무 숲 아래 깨끗한 집을 지어 여생을 보낼 계획을 세우고 당호(堂號)를 '퇴휴(退休)'라 하여 자신의 뜻을 보였다. 그러나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은 늙어서도 쇠해지지 않아, 서울에서 돌아오는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옷깃을 여미고 낯빛을 고친 뒤 임금의 건강이 어떠한지 먼저 물었고, 나머지는 한마디도 조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양곡 소세양의 두 형 세공(世恭)과 세검(世儉)은 나이가 모두 80여 세였고 공의 나이도 또한 80세에 가까웠는데 지붕을 접하고 살았다. 그리고 자식과 조카들의 집도 또한 다들 이웃에 접하여 아침저녁으로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이 일상적이어서 자못 유공작(柳公綽)[35] 형제의 가풍(家風)이 있었다. 공이 여러 형들을 위하여 먼저 음식을 마련해 놓고 돌아가며 번갈아 대접하였다. 자질(子姪)의 차례가 되면 어른을 가마로 모셔, 산마루나 물가에서 시를 읊고 거닐며 노유(老幼)가 서로 부축하고 이끌어 오래도록 싫증내지 않으니, 듣는 사람들마다 부러워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양곡 소세양은 송설체(松雪體)의 필법을 터득하였다. 벼슬아치들 사이에 선조 묘소의 비문(碑文)과 지문(誌文), 유고의 서문(序文)과 발문(跋文) 및 건물의 기문(記文)을 청하거나 글씨를 구하여 병풍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대문에 끊임없이 찾아왔다. 하지만 공은 과장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 응답을 아꼈기 때문에 얻은 사람들이 드물었다.

---

35 유공작(柳公綽) : 《소학(小學)》 〈선행(善行)〉에, 당(唐)나라 유공작 집안의 가법이 엄준하였는데, 아침저녁으로 중문 밖에 자손들이 모여 문안했다는 고사가 나온다.

양곡 소세양이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관반(館伴)[36]이 되었는데, 중국 사신이 우리나라의 명승지를 묻자, 양곡이 말하기를 "천하의 승지는 우리나라만 한 곳이 없고 우리나라의 승지로는 호남만 한 곳이 없으며, 호남의 승지로는 익산만 한 곳이 없고, 익산의 승지로는 태허정(太虛亭)보다 나은 곳이 없다."라고 하였다. 중국 사신이 한번 와서 감상하고자 하였는데, 양곡은 마을에 돌림병이 있다고 말하여 막았다.

사은(四隱) 소영복(蘇永福)은 젊어서 성균관에 유학할 때 지조와 분별을 지녔고 행동이 예의를 준수하였으며 오로지 명분과 절의로 자신을 면려하니, 사람들이 숙연히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다. 이때는 동서(東西)의 당파가 막 분열되는 시기여서 신진(新進) 가운데 일 만들기를 좋아하는 자들의 논의가 대부분 격렬하였다. 유생(儒生) 안덕인(安德仁)이 상소하여 재상(宰相)을 배척하였는데,[37] 왕의 뜻이 다른 한쪽 당파의 사람에게 오로지 쏠리자, 서인(西人) 출신으로 성균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들이 연명으로 상소해 다투고자 하면서 공에게 동참을 재삼 강요한 뒤 나아가려 하였다. 이에 공은 정색하면서 말하기를 "근일에 당파가 나누어진 것은 다만 논의가 다르기 때문이니, 현명하다느니 올바르지 않다느니 이름을 결정할 수 없다. 시대를 구제하는 일은 다만

---

36 관반(館伴) : 조선 시대에 외국에서 온 사절을 접대하기 위하여 태평관(太平館)이나 동평관(東平館)에 임시로 파견하던 관리이다.

37 유생(儒生)……배척하였는데 : 《선조실록(宣祖實錄)》 24년 2월 1일 기록에 안덕인(安德仁)·윤홍(尹宏) 등이, 정철(鄭澈)이 국권을 휘두르고 있으므로 속히 축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상소를 가리킨다.

양쪽을 조정하여 의심을 푸는 데에 있다. 우리들은 성균관에 있으므로 논의를 공평하게 지녀야 할 따름이니, 구구하게 분별하고 다투는 것은 더욱 분열의 형세를 이룰 뿐으로 화합시킬 수 없다. 나는 감히 구차히 동조할 수 없다." 하고는 읍하고 물러났다. 신응구(申應榘)가 듣고 그 견해에 감복했다.

사은 소영복은 나이 오십에 인사(人事)를 물리치고 항상 산중에 거처하면서 배우러 오는 마을 사람들을 가르쳐 강의를 그치지 않았다. 사계(沙溪) 문원공(文元公) 김장생(金長生)[38]이 본군의 수령으로 부임하여 교화를 우선으로 삼고는 어린 선비를 뽑아 《소학(小學)》을 가르치려고 하면서, 공에게 훈도가 되어 줄 것을 청하였으나 공이 병을 핑계로 사양하였다. 문원공이 공무를 마친 여가에 가마를 타고 공의 집에 와서 덕의(德義)를 질의하고 정사(政事)를 자문하였다. 이어서 남쪽의 훌륭한 선비에 대해 물었는데, 공이 석계(石溪) 최명룡(崔命龍)[39]을 천거하자 그의 이름이 마침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사은 소영복의 조카 소명국(蘇鳴國)이 권세가에게 빌붙었다. 당시 어떤 한 재상이 초야의 선비를 등용하겠다는 명분에 가탁하여 장차 공을 대관(臺官)에 임명하여 권세로써 끌어들여 자기편으로 만들고자 하면서 소명국으로 하여금 편지를 써서 공의 의향을 탐지하게 하였다.

---

38 사계(沙溪) 문원공(文元公) 김장생(金長生) : 1548~1631.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희원(希元)으로, 사계는 호이고 문원공은 시호이다. 송익필(宋翼弼)과 이이(李珥)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39 석계(石溪) 최명룡(崔命龍) : 1567~1621.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여윤(汝允), 석계는 그의 호이다. 이우기(李迂棋)와 김장생(金長生)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공은 답장에서, 주자(朱子)가 오백풍(吳伯豊)의 일을 논하면서 '어찌 안회(顔回)가 환사마(桓司馬)의 가신(家臣)이 될 수 있었겠는가.'라고 했던 말을 인용하여,[40] 크게 꾸짖었다.

사은 소영복은 남을 품평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았지만 식별하는 안목이 매우 높아서 맞추지 못하는 일이 드물었다. 소명국(蘇鳴國)이 갓 태어났을 때 공은 산실(産室) 문밖에 이르러 울음소리를 듣고는 보지도 않고 돌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조상의 덕을 실추시키고 우리 집안을 무너뜨릴 자는 필시 이 아이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소명국이 성장하여 일찌감치 성균관에 입학해 현달한 자들과 교분을 맺어 명성이 매우 자자했는데, 공은 홀로 기뻐하지 않으면서 편지를 보내어 경계하고 질책하기를 마복파(馬伏波)가 엄돈(嚴敦)을 훈계한 것[41]보다 더 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소명국은 보내온 답신의 내용이 오만하여 뉘우치는 뜻이 없었는데, 마침내 간악한 무리들의 모함에 빠져 재앙을 당했다. 소명국은 태어날 때부터 겹눈동자였다. 문장이 일찍 성취되어 생원과와 진사과에 모두 합격하였다. 날래고 용맹함이 남보다 뛰어나 상원사(上院寺) 법당(法堂)에 훌쩍 뛰어 올라갔고, 담론과 풍도는 온 좌중을 압도하였다. 매번

---

40 주자(朱子)가……인용하여 : 권세가와 결탁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말이다. 주희(朱熹) 문하의 고제(高弟)였던 오백풍(吳伯豊)은 간신 한탁주(韓侂胄)가 집권할 때 벼슬에 임명되었으므로 주희가 걱정한 적이 있었다. 안회(顔回)는 공자(孔子)의 수제자이고, 환사마(桓司馬)는 춘추 시대(春秋時代) 송(宋)나라의 대부(大夫) 사마환퇴(司馬桓魋)로 공자를 해치려고 했던 인물이다.

41 마복파(馬伏波)가……것 : 마복파는 중국 후한(後漢)의 명장 마원(馬援)이다. 조카 엄돈(嚴敦)이 남을 비평하길 좋아하고 경박한 유협(遊俠)들과 사귀자, 마원이 훈계하면서 "고니를 새기다가 보면 집오리와 비슷하게라도 되겠지만, 호랑이를 잘못 그리면 거꾸로 개처럼 되기 십상이다.[刻鵠不成 尙類騖 畫虎不成 反類狗]"라고 한 바 있다.

서울에 들어갈 때면 찾아오고 따르는 자들이 매우 많았다. 서양갑(徐羊甲)의 옥사[42]에서 공초에 거론되어 고문을 받다가 죽었다.

사은 소영복의 선영(先塋)은 도내[道川] 뒤편 언덕에 있다. 어느 날 마을에 불이 났는데, 선영의 나무에까지 번져서 장차 묘역을 침범하게 되었다. 공이 예복을 갖추어 입고서 하늘에 절을 올리자, 얼마 있다가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비가 내려서 불이 꺼졌다. 마을 사람들이 공의 효성에 감응한 것이라고 전하였다.

사은 소영복은 항상 아버지를 섬기듯이 맏형을 섬겼다. 아침저녁으로 안부를 물었고, 홀아비로 사는 것을 딱하게 여겨 직접 의복과 음식을 장만하여 공급하였다. 형의 병이 위독해짐에 미쳐서는 손가락을 찔러 피를 내어 약에 타서 먹였고, 죽은 뒤 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눈물을 흘렸다.

사은 소영복은 문원(文元) 김장생(金長生),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중봉(重峯) 조헌(趙憲), 구암(久菴) 한백겸(韓百謙)과 도의(道義)로써 서로 기약하였고 함께 학문을 익혀 친구지간에 믿음이 있었다. 정경세가 일찍이 지나는 길에 도내[道川]에서 만나 한 달이 넘도록 강론한 적이 있었다. 정경세가 조정에 들어가 강관(講官)으로 있을 때 나라 안의 서적들은 전쟁으로 거의 소실된 상태였다. 선조(宣祖)가 경연(經筵)에서 남아 있는 서적을 찾았는데, 정경세가 대답하기를 "신이

42 서양갑(徐羊甲)의 옥사 : 서양갑은 서익(徐益)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재주가 있었으나 서자이기 때문에 벼슬에 등용되지 못하는 것을 불만스럽게 여겼다. 광해군(光海君) 5년(1613)에 조령(鳥嶺)에서 행상인을 죽이고 금품을 강탈한 사실이 드러나 구금되었는데, 이이첨(李爾瞻) 등 대북파(大北派)의 사주를 받아 영창대군(永昌大君)의 옹립을 계획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여 계축옥사를 일으켰다.

보니 호남의 진사(進士) 소 아무개 집에 소장된 책들이 매우 많았으니, 사람을 보내 구해 오게 하소서."라고 하자, 왕이 재상 이홍주(李弘胄)를 바라보았다. 이홍주가 교지를 받들어 왕명을 전하니, 공이 경전(經傳)과 자서(子書)와 사서(史書) 수천 권을 싸서 임금께 올렸다. 왕이 열람한 뒤 교서관에 소장하도록 명하였다. 이듬해 이홍주가 마침내 공을 천거하여 관직에 임용하려고 하였는데, 공이 이 말을 듣고 편지를 보내 준엄하게 물리치며 말하기를 "서적을 바쳐 벼슬을 구하는 것은 또한 작은 혐의가 아니다."라고 하니, 이홍주가 그만두었다.

사은 소영복은 연봉(蓮峯) 이기설(李基卨)과 매우 관계가 친밀하였다. 이기설은 여러 차례 관직에 제수되었는데 나아가지 않았다. 중년에 상처하고 재취를 얻고 나서는 병을 요양한다 핑계 대고 말을 하지 않으면서 친척과 빈객이 문안하러 가도 오직 글자를 써서 의사를 표시할 뿐이었다. 공이 정색하고 책망하여 이르기를 "첩을 멀리하는 것이 양생(養生)의 기본 원칙이니, 이런 괴이한 행동을 하여 남들을 속이지 말라."라고 하니, 이공은 흔쾌히 사과하고 이로부터 말하고 웃기를 자연스럽게 하였다. 사은 소영복이 사람들에게 중시받은 것이 대체로 이와 같았다.

사은 소영복은 의리를 귀하게 여기고 재물을 가벼이 여겨 타인에게 베풀 때에는 미치지 못할까 염려하듯이 하였다. 일찍이 말하기를 "선비가 집에 쌓아 놓은 재물이 있으면 그 덕에 누가 된다. 타인을 구휼하면서 자신의 재물이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은 의리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사은 소영복은 이교(異敎)의 불경한 설에 대해서는 일체를 물리쳤

고 불교와 도교와 패관(稗官)의 이야기[43]에 대해서는 전혀 거들떠보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고려 때의 풍속이 아직 바뀌지 않아서 시골 사람들이 절에서 기제(忌祭)를 지내고 백중날에는 성인 남자가 미리 절에 올라가 재(齋)를 지내며 승려에게 공양을 하였으니, 이런 풍습을 이룬 지 이미 오래되었다. 공은 규정을 엄격히 정하여, 집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고 백중날에는 다만 깨끗한 장소를 골라 선조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옛 풍속에 장사 지내는 날에는 으레 밤에 음악을 연주하였으나 공은 이를 금지시켰고, 무당을 내쫓아 마을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마을이 대부분 교화되었다. 이상은 모두 가장(家狀)의 내용이다.

면와(眠窩) 소동도(蘇東道)[44]는 외직으로 나가 은산 부사(銀山府使)로 있다가 정주 목사(定州牧師)에 전임되었는데, 은산과 정주의 백성들이 그간에 덕택과 은혜를 베풀었던 지방관을 헤아릴 때 반드시 '소공(蘇公)이지! 소공이지!'라고 말하였다. 이웃 고을의 수령들도 두려워하고 꺼려서 감히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였다. 그래서 염문사(廉問使)가 올린 서계(書啓)[45]에 '청북(淸北)의 어사(御史)'라고 표현한 것이 있다고 한다.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46]이 지은 신도비의 내용이다.

---

43 패관(稗官)의 이야기 : 소설 등의 재미를 위해 지어낸 이야기를 가리킨다.

44 소동도(蘇東道) : 1592~1671. 자는 자유(子由), 호는 면와(眠窩)이다. 1635년(인조 13) 증광 문과에 급제, 성균관에 보직된 뒤 46년 지평·은산 부사 등을 지내고 정주 목사로 선정을 베풀었다. 이어 청북 어사(淸北御史)를 거쳐 의주 부윤·경주 부윤·황해도 관찰사가 되었다.

45 서계(書啓) : 특별한 왕명을 받들었거나 임무를 맡은 사람이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 또는 그렇게 보고한 문서를 말한다.

수재(瘦齋) 소동명(蘇東鳴)이 벼슬에 나가기 않았을 때 향교 서쪽에 수령이 몇백 년인지 알 수 없는 오래된 반송(盤松)이 있었다. 가지와 줄기가 마치 용과 뱀처럼 서로 엉켜서 한 고을의 빼어난 경관이 되었다. 고을 경계에 도달한 사신(使臣)[47]들은 반드시 일정을 늦추고 이곳에 들러 감상하였다. 익산 군수(益山郡守) 윤조원(尹調元)이 사신 접대하는 것을 싫어하여 도끼잡이에게 명하여 베어내게 하였다. 이에 대해 수재가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천년토록 범이 웅크리고 있었는데 虎踞千年久
눈 깜짝할 사이에 용이 고꾸라졌네 龍顚一瞬中
두보(杜甫)의 초당(草堂)은 풍경이 감소하리니[48] 甫堂顔色減
환퇴(桓魋)가 나무 벤 것[49]은 고금이 똑같구나 魋伐古今同
삼경에 달이 떠도 그림자가 없겠고 影斷三更月

---

46 송시열(宋時烈) : 1607~1689. 조선 후기 주자학의 대가로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에게 가르침을 받아 이율곡(李栗谷)의 학통을 계승하여 기호학파의 주류를 이루었고 노론의 영수가 되었다. 이황(李滉)의 이원론적인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배격하고 이율곡의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을 지지했다. 동양의 주자라는 의미에서 '송자(宋子)'라고 불리웠고, 저서로 《송자대전(宋子大全)》 등이 있다. 그의 형과 동생이 현종 때 익산 군수를 지냈기에 이 글을 쓴 것이다.

47 사신(使臣) : 왕의 권한을 대행하는 신하라는 뜻이다. 안찰사·관찰사·체찰사·어사·병마절제사 등 정규 관원으로 기능하는 사신과 사건이 있을 때마다 파견되는 임시 사신이 있었다.

48 두보(杜甫)의……감소하리니 : 당나라 시인 두보가 비바람으로 정원의 녹나무가 뽑힌 것을 안타까워하며 지은 시에 "내가 새로 시 지은들 어디에서 읊으려나, 이제부터 초당에 풍경이 없겠구나.[我有新詩何處吟 草堂自此無顔色]"라고 한탄한 구절이 있다.

49 환퇴(桓魋)가……것 : 공자가 송나라를 지나면서 큰 나무 아래에서 제자들에게 습례(習禮)하게 하였는데 환퇴가 사람을 시켜 그 나무를 베게 하여 방해했던 일을 가리킨다.

십 리의 바람 불어도 소리가 시시하겠지　　聲殘十里風
대문을 나감에 바라볼 곳이 없고　　出門無所望
고개 돌림에 하늘은 휑하기만 하구나　　回首半天空

윤조원(尹調元)이 이 시를 보고 크게 성을 내고는 소동명의 종을 잡아다 볼기를 쳤다고 한다. 후일에 윤조원이 어떤 일로 체포되었는데, 소동명이 듣고는 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를 지었다.

듣자니 흉악한 사람이 패배했다 하니　　聞道凶人敗
하늘의 마음은 진실로 앎이 있구나　　天心固有知
마땅히 변방에 귀양 보내어　　端宜投有北
차라리 태평성세를 보전해야 하리　　寧保聖明時

세상에 전하기를, 서동대왕이 마를 캐다가 5금(金)을 얻었기 때문에 산의 이름을 '오금산(五金山)'이라 한다. 지금도 산의 돌 색깔과 흙 색깔이 비가 개고 해가 내리쬘 때면 항상 금빛으로 빛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눈이 부시도록 한다. 필시 이곳에서는 금이 나는데, 오직 탐욕스럽지 않은 자만이 알 수 있다고 한다.

정언(正言) 송을개(宋乙開)[50]의 시에 "완부(完府)의 판도가 이제 공북

50 송을개(宋乙開) : 생졸년 미상. 본관은 여산(礪山)으로, 증조부는 송염(宋琰), 조부는 송원미(宋元美), 부는 송유(宋瑜)이다. 1405년(태종5)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 4등으로 급제하여 정언(正言)을 지냈고, 박습(朴習)의 옥사에 연루되어 삭탈관직 당하였다.

(拱北)하게 되었으니,[51] 마한(馬韓)의 문물(文物)이 결국 사라졌네."라고 하였다. 삼가 살펴보니,[52] 마한 시기는 비록 군장(君長)의 이름이 있었지만,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풍속은 기강이 없었고 또 기왕(箕王)은 산과 바다를 어렵게 건너와 겨우 나라를 세울 수 있었을 뿐 문물(文物)과 제도(制度)는 아직 만들 겨를이 없었을 듯하다."라고 하였다. 양곡(陽谷) 소세양(蘇世讓)이 '풍속은 질박하고 사람들은 노둔하다'라고 말한 데에서[53] 질박함을 숭상한 유풍을 상상할 수 있으니, 송을개 시의 '문물(文物)'이라는 두 글자는 잘못된 표현인 듯하다.

점쟁이가 동전을 던져 점을 칠 때 반드시 조선통보(朝鮮通寶)[54]를 귀하게 여겼으니, 이는 대체로 주조 시기가 가장 오래되었기 때문으로, 물건이 오래되면 신비해진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마한은 지금 천여 년이 되다 보니 그 동전이 세상에 전해지는 게 드문데, 오직 이 지역의 옛 마을 터나 무덤 사이에서 사람들이 더러 습득하기도 한다. 점쟁이가 보배로 여길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두 옛 물건이라 여겨 또한 귀중하게 여기고 있다.

---

51 완부(完府)의……되었으니 : 조선의 건국으로 완주가 왕의 고향으로 중시되었다는 말이다. 《논어(論語)》에 "덕으로써 정치를 하는 것은 마치 북극성이 그 자리에 있는데 여러 별들이 그것을 향하는 것과 같다.[爲政以德 譬如北辰 居其所 而衆星共之]"라는 말이 나온다.

52 살펴보니 : 서술의 주체는 《금마지(金馬志)》의 편찬자인 남태보(南泰普)이다.

53 양곡(陽谷)……데에서 : 내용이 《양곡집(陽谷集)》 권14 〈익산동헌중수기(益山東軒重新記)〉에 보인다.

54 조선통보(朝鮮通寶) : 조선 전기 세종 대와 중기 인조 대에 주조하여 유통된 화폐이다.

양곡 소세양이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에서 20년을 살았는데, 지위와 명망이 높아 온 고을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하루는 군수가 관아에 앉아 있는데 아전이 아침 출근을 걸렀다. 군수가 괴이하게 여겨 묻자, 시자(侍者)가 찬성(贊成) 댁에 문안하러 갔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군수가 버럭 성을 내면서 "수령을 어디에 쓴단 말인가."라고 말하고는 마침내 인장(印匠)을 내던지고 떠나가 버렸다. 양곡이 자제들을 시켜 여산(礪山)까지 뒤쫓아 가서 만류하고 간청한 뒤에야 수령이 비로소 돌아왔다.

양곡 소세양은 항상 태허정(太虛亭)에 거처하였는데, 태허정 동쪽 모퉁이에 은행나무[55]가 있었다. 도내의 수령들 가운데 소세양을 알현하러 오는 자들은 감히 관인을 찬 채 들어가지 못하고 나무 사이에 인끈을 걸어 놓았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태허정을 '괘인정(掛印亭)'이라고도 불렀다. 오늘날 비록 이 정자가 헐리었지만 노목은 여전히 남아 있어 높은 가지가 구름에 닿을 정도이니, 바라보는 자들은 그것이 고가(故家)의 교목(喬木)임을 알게 된다.

완남(完南) 이후원(李厚源)[56]은 처음에 음직(蔭職)으로 벼슬길에 나아

---

55 은행나무 : 원문에는 '압각수(鴨脚樹)'로 되어 있는데, 은행잎의 모양이 오리발을 닮았다 하여 쓰는 표현이다.

56 이후원(李厚源) : 1598~1660.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사진(士晋)·사심(士深), 호는 우재(迂齋)이다. 광평대군(廣平大君)의 7세손으로, 어머니가 황경원(黃景源)의 조상인 황정욱(黃廷彧)의 딸이다. 김장생(金長生)의 문인이며, 김집(金集)·송준길(宋浚吉) 등과 교유하였다. 1635년(인조13)에 익산 군수로 있으면서 같은 해에 치러진 문과에 급제한 후 강화부 유수·대사간·한성부 우윤 등을 역임하였다. 1644년 심기원(沈器遠)의 역모를 수습하여 공을 세우고 효종의 북벌계획에 앞장섰으며, 한성부 판윤·대사간·이조 판서·우의정·세자좌부빈객 등을 역임하였다. 시호는 충정(忠貞)이

가 이 고을에서 수령을 지냈는데, 숭정 을해년(1635, 인조13) 증광 문과(增廣文科)에 급제하였다. 옛 관례에 따라 수령으로서 본도(本道)에서 실시하는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받아 공이 함열(咸悅)에서 실시하는 동당 초시(東堂初試)[57]를 치렀다. 같은 고을의 선비인 소동도(蘇東道)·최덕원(崔德元)과 함께 급제하여 세 사람이 사제면(巳梯面)의 촌가에 모여 회시(會試)[58] 공부를 하였는데, 공과 소동도가 모두 복시(覆試)에 합격하였다. 공이 사제면을 '용제면(龍梯面)'이라고 이름을 고쳤으니, 용이 되어 승천하는 데 사다리가 있었음을 의미한 것이었다. 지금까지도 사제면과 용제면으로 둘 다 불리고 있다. 최덕원은 호남의 거벽(巨擘)[59]으로 일컬어졌으나 일찍이 죽어서 급제하지 못했다고 한다.

월주(月洲) 소두산(蘇斗山)[60]은 용모가 장중하고 호령이 엄숙하였으며, 키는 7척이 못 되었지만 허리의 굵기는 여섯 뼘이나 되었다. 집사람들과 사내종들도 모두 두려워하여 감히 고개를 들고 쳐다보지 못하였지만, 사람을 대하거나 손님을 접대할 때에는 즐겁고 편안하게 담소

고, 봉호는 완남부원군(完南府院君)이다.

57 동당 초시(東堂初試) : 동당은 식년과(式年科)나 증광시(增廣試) 등 문과(文科)의 총칭으로, 초시(初試)·복시(複試)·중시(重試) 등이 있었다.

58 회시(會試) : 초시에 급제한 사람을 모아서 다시 치르는 2차 시험으로, 복시와 같은 말이다.

59 거벽(巨擘) : 학식이나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을 말한다.

60 소두산(蘇斗山) : 1627~1693.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망여(望如), 호는 월주이다. 소건(蘇建)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소억선(蘇億善)이고, 아버지는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소동명(蘇東鳴)이다. 송시열(宋時烈)의 문인이다.

하였고 정성과 성의를 극진히 하였다.

월주 소두산은 어려서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과 동춘(同春) 송준길(宋浚吉) 두 선생 문하에 유학하여 《춘추(春秋)》를 배웠는데, 두 선생이 모두 큰 그릇으로 인정하였다. 이때부터 해마다 가서 따르면서 공부를 익히고 묻기를 그치지 않았다. 두 선생이 항상 권면하고 장려하였는데, 공도 또한 스스로 더욱 면려하였다.

월주 소두산은 논의가 깨끗하고 공평하였으며, 풍도는 사람을 감동시킬 정도였다. 귀하고 천하고 어질고 어리석음에 관계없이 매우 폭넓게 교유하여, 성균관에 있을 때에는 동반록(同泮錄)[61]에 총 152인, 낙하종유록(洛下從遊錄)[62]에 총 205인, 그리고 호남문관록(湖南文官錄)에 총 49인이 있었는데 모두 와서 그를 따랐으나, 공이 대각(臺閣)[63]에 재직할 때에는 뜻을 달리하는 사람으로서 떠난 자들이 태반이나 되었다.

월주 소두산에게 딸 하나가 있어 사위를 고르고 있었다. 공이 서천군수(舒川郡守)로 있을 때 문예를 겨루는 시험을 베풀었는데, 어떤 한 어린아이가 종이와 붓, 글씨 쓰는 사람을 청하자, 이를 허락하였다. 즉시 대책문(對策文) 1통을 완성하자 공이 보고서 매우 기특하게 여겼으니, 이 사람이 바로 수초당(遂初堂) 권변(權忭)이었는데, 마침내 딸을 시집보낼 것을 허락하였다. 권변이 그간에 세운 업적으로 볼 때 과연

61 동반록(同泮錄) : 함께 반궁(泮宮) 곧 성균관에 있었던 사람을 기록하였다는 뜻이다.

62 낙하종유록(洛下從遊錄) : 낙하(洛下) 곧 서울에 있으면서 교유한 사람을 기록한 것이다.

63 대각(臺閣) :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을 아울러 이른 말이다.

공의 안목을 저버리지 않았다.

양곡 소세양은 문집에서, 매양 지주(地主)·향인(鄕人)과 물고기 잡는 것을 구경하면서 더위를 식혔다고 말하면서 그 모임을 반드시 도내[道川] 및 두지계(斗池溪)에서 했다고 하였는데, 이 지역은 실로 고을에서 유람하기 좋은 명승지이다. 지금은 미륵산(彌勒山) 곳곳이 민둥산이어서 무너진 모래가 흘러내려가 도내 일대는 수심이 얕아져 물이 넘실대지 않고 두지계는 평평해져서 육지가 되었다. 도내를 따라 오르내려도 물고기 한 마리 보이지 않고, 휴식할 만한 나무 그늘이 없으며, 전인들의 유적을 찾아가고 싶어도 들풀과 인가의 연기만 있을 뿐이다. 슬프다! 산천이 바뀌면 인사도 뒤따르는 법이니,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이면 누군들 상전벽해의 감회가 들지 않겠는가.

양곡 소세양은 형제가 모두 읍내에 살았다. 태허정(太虛亭)·퇴휴당(退休堂)·풍천각(風泉閣)·자오정(自娛亭)·수운헌(水雲軒)·정관재(靜觀齋)·청심당(淸心堂) 등으로 불리는 여러 정자들은 모두 양곡이 지은 것인데, 호수와 산 및 물과 대나무가 어우러진 뛰어난 경관을 지닌 곳이었다. 그의 정자들이 성대했던 점을 가지고 또한 집안의 재물이 넉넉했음을 상상할 수 있다. 지금 고을에 거주하는 70여 집이 모두 양곡의 방계 후손 및 외손인데, 이들 모두가 세업(世業) 때문에 편안히 앉아서 부귀를 누리고, 가동(歌僮)과 무녀(舞女)가 있어 명절(名節)과 절일(節日)이면 주연을 베풀고 손님을 초청하여 즐겁게 노니, 참으로 이른바 '삼공(三公)과도 안 바꾼다.'라는 것[64]이었다. 신축년(1721, 경종1)과 임인년(1722)의 변란[65]을 겪은 뒤로 집안 형편이 날로 점점 쇠

락해져서, 땅을 팔아 남아 있는 것이 없고 환곡을 빌려 먹고는 갚지 못하며, 한갓 대대로 전해 온 넓은 집만 지키고 있는데 그 안에 네 벽만 서 있을 뿐 변변한 살림살이가 없다. 그 생활 형편을 말하자면 빈한(貧寒)한 자와 다름이 없으니, 옛 역사서에서 "사물이 번성하면 쇠퇴하는 것은 당연한 변화이다."라고 하였는데, 맞는 말이다.

본군(本郡)은 마을의 기강이 가장 엄격하고 양반과 상민의 등급이 분명하여 서로 경계를 넘지 않는다. 이곳 삼한(三韓) 구족(舊族)의 자손들은 토착 양반이나 이주 양반을 막론하고 모두 가세가 기울어 빌어먹으며 살아가고 있어 일반 백성에 비해 더욱 가난하고 피폐한데도,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이들을 양반으로 대접하고 이정(里正)[66]은 한정(閑丁)[67]이라는 이유로 침탈하지 않는다. 영남의 경우에는 양반의 서출들이 모두 군역을 면제받지 못하여 향교(鄕校)나 서원(書院)의 생도로

---

64 삼공(三公)과도……것 : 유유자적하며 살아가는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한 말이다. 송(宋)나라 대복고(戴復古)가 후한(後漢)의 은사(隱士) 엄광(嚴光)의 고사를 소재로 읊은 〈조대(釣臺)〉 시에 "어떤 일에도 마음 없이 오직 하나의 낚싯대뿐, 삼공의 자리 준대도 이 강산과 안 바꾸리. 평소 유문숙을 잘못 알고 지낸 탓에, 허명만 세상 가득 야기했을 뿐[萬事無心一釣竿 三公不換此江山 平生誤識劉文叔 惹起虛名滿世間]"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65 신축년과 임인년의 변란 : 신축년부터 임인년 사이에 일어났던 옥사로, 훗날 영조인 연잉군(延礽君)을 왕세제(王世弟)로 책봉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소론이 노론 사대신(四大臣) 등을 죽인 옥사를 말한다.

66 이정(里正) : 서민 중에서 부지런하고, 일에 밝은 자 중에서 택하여 한 마을[里] 내에서 납부하는 물건을 검사하고, 역을 담당할 자를 정하며, 죄인을 쫓아가서 잡아오는 일 등을 관장하였다.

67 한정(閑丁) : 군적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병역에 복무하지 않고 놀고 있는 장정을 이른다.

들어가면 지극히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렇지만 이 지역은 여러 대에 걸친 양반의 서출들도 여전히 양반이라는 이름을 잃지 않고 있다. 생각건대, 이는 양곡 소세양이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에 거주한 20년 동안 온 고을에 마을 기강을 엄격히 세우고 풍속을 교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리라.

요즈음 각 고을은 호민(豪民)[68]으로 군교(軍校)가 된 자들이 반드시 양반을 능멸하고 업신여겨 친구처럼 여기고 있는데, 본 고을은 군교가 양반을 뵐 때 대청 위에서 절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아 뜰에 선 채 뵈어야 한다. 뵈는 데 문제가 있으면 종에게 명하여 곤장을 치게 하였는데, 또한 이에 대해 감히 유감을 품지 않았고 양반에게 더욱 공손하였으니, 마을에 기강이 있지 않다면 결코 이와 같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기와 충청도의 사대부 가운데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난한 자들은 모두 우리 지역을 살 만한 곳이라 여겨 너도나도 경내에 모여들어, 호적에 실린 4천 호 중 양반 가구가 천 5백여 호나 된다. 구문천면(九文川面) 검지리(檢池里)를 가지고 논하더라도 90호 가운데 양반 가구가 79호이고 평민 가호는 고작 11호뿐이다. 이른바 양반들은 모두 종도 없이 직접 나무하고 물을 길어 세속에서 말하는 '겸노상전(兼奴上典)'[69]인데, 그들이 거처하는 집은 울타리도 설치하지 못하고 거적때기로 만든 대문은 항상 닫혀 있어 마치 환곡(還穀)을 상환하지 못하여 도주한 집과 같다.

---

68 호민(豪民) : 재산이 많고 세력이 있는 백성이다.

69 겸노상전(傔奴上典) : 종을 거느릴 형편이 못 되어 종이 할 일까지 손수 하는 가난한 양반을 이르던 말이다.

남자는 농사와 장사를 겸하고 여자는 김매고 베 짜서 살림을 꾸려 가고는 있지만, 또한 평민처럼 근면하지 못하여 생계가 지극히 어렵다. 풍년이 들어도 바싹 야윈 모습에 누더기 옷이나 걸쳐 거지의 행색과 다를 것이 없다. 관에 납부하는 부세나 환곡도 모두 나중에 바치는데, 마을에는 평민 가운데 이정(里正)의 자리를 감당할 만한 자가 없다. 납부를 독촉할 때마다 고을의 차사(差使)를 내보내는데, 이들이 대문에 가서 독촉하면 양반은 반드시 "내실이 가깝다, 물러가라."라고 크게 소리친다. 을해년(1695, 숙종21)과 병자년(1696)의 흉년과 전염병을 거친 뒤로 온 가족이 사망한 경우가 부지기수인데도 새로 옮겨와 거주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모여들고 있다. 여기에서 사족(士族)이 성하고 쇠하는 변화를 볼 수 있는데, 나는 곧 '본 고을은 바로 사족이 끊임없이 모여드는 곳이다.[本郡乃士族之尾閭也]'라고 말한다.

본 고을의 객관(客館)은 어느 시대에 창건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동헌(東軒)과 정청(正廳)이 정덕(正德)[70] 갑술년(1514, 중종9)에 소실되어 군수인 사문(斯文) 박거린(朴巨鱗)이 중건하였다. 동헌이 가정(嘉靖)[71] 병진년(1556, 명종11)에 다시 소실되어 당시의 군수 이인현(李仁賢)이 중건하였는데, 벽대청(甓大廳)·동상실(東上室)·서헌(西軒)이 현 임금 갑술년(1754, 영조30)에 전부 소실되었다. 화재가 갑술년에 두 차례나 발생하였으니 또한 하나의 기이한 일이다.

---

70 정덕(正德) : 명나라 무종(武宗)의 연호로, 1506~1521년이다.

71 가정(嘉靖) : 명나라 세종(世宗)의 연호로, 1522~1566년이다.

군수 이인현이 다시 짓기 시작하려고 할 때 고을의 연장자들이 어렵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재목을 변산(邊山)에서 실어 와야 하는데 백성들은 멀리 가는 것을 꺼리며, 왜구들이 노략질을 하므로 장정들은 수비해야 하니, 재정이 부족할 때 큰 공사를 하는 것은 옛사람들도 경계한 바입니다. 청컨대 내년 추수 때까지 기다리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인현이 말하기를 "본 고을 안에도 사방의 산림도 있고 민가의 산림도 있으니, 나는 멀리 변산에서 구하지 않겠다."라고 하고는 중건하기로 뜻을 결정하고 몇 달이 지나 완공하니, 사람들이 그 신속함을 칭찬하였다.

두 번째 갑술년(1754, 영조30) 화재는 발생한 지 겨우 몇 달밖에 안 되었을 때 당시 군수인 어사적(魚史績)이 사건에 연루돼 파직되어 떠나가, 미처 다시 짓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대신 부임하게 되었다. 관소에 도착한 이튿날, 불이 난 곳에 가서 보고는 배회하는데 슬픔과 탄식을 이루 금할 수 없었다. 다시 지을 방법을 꾀하여 고을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모두 말하기를 "이 지역에는 변변한 재목도 없고 백성들은 기근과 돌림병의 재앙을 겪어서 지금은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풍년을 기다렸다가 천천히 논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으니, 이인현이 중건하려고 할 때 연장자들이 했던 말과 똑같았다.

또 관찰사와 의논하였더니, 관찰사도 저지하면서 말하기를 "도내의 김제(金堤)·창평(昌平)·곡성(谷城) 등의 고을에도 모두 객관이 없으니, 객관이 없다 한들 무슨 해가 있겠는가. 경제력이 좋지 않은 지역은 편의대로 해 주어야 할 따름이니 어찌 굳이 노역을 일으킨단 말인가."라고 하였다.

이에 내가 개탄하여 말하기를 "본 고을은 마한(馬韓) 이래로 세 차

례나 군웅(群雄)의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지리가 매우 뛰어나 패기(覇氣)가 간간이 일어나다 보니 전패(殿牌)[72]를 봉안하는 곳이 아니면 진압할 수 없으니, 이곳에 하루도 객관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

드디어 장인을 불러 들어갈 목재를 계산하게 하였더니, 대들보와 서까래가 거의 천여 개나 필요하였다. 그렇지만 예전의 산림과 동산은 지금 모두 민둥산이 되었고 변산의 소나무는 국법을 어기고 사사로이 벨 수 없었다. 마침내 사방 각지에서 두루 구하여, 산림이 없는 땅에서 1년 만에 완공하였다. 대개 소실된 건물이 객관의 동헌뿐만이 아니었고 또 전에 비해 목재를 구하기가 배나 더 어려웠기 때문에 완공이 이처럼 지연된 것이었다. 지금 이후로 온 고을이 경계해야 할 일로 화재 방지만 한 것이 없고, 갑술년에는 액운을 더욱 조심해야 한다.

【제영(題詠)】

익산회고(益山懷古)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

제1수

연로가 흉포하게 패수 서쪽을 삼켜 버리니[73] 燕虜凶呑浿水西

---

72 전패(殿牌) : 각 고을의 객사(客舍)에 봉안한 '전(殿)' 자를 새겨 세운 나무 패이다. 이는 임금을 상징하는 것으로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관리 전부가 모여 배례(拜禮)하고 또 지방에 출장한 관원도 이에 대하여 배례하였으며 만일 훼손, 모독하면 불경(不敬)으로 처리되어 본인은 물론 수령(守令)과 그 고을까지 처벌당하였다.

남으로의 망명[74]은 회계산(會稽山)에 깃든 것보다 참혹했다네[75]　南奔不啻會稽棲

용화산 위의 산성[76]은 거칠어졌는데　龍華山上城蕪絶

임금이 타던 준마 발자국은 아직껏 남았구나　尙帶君王駿馬蹄

제2수

오얏꽃 활짝 필 때 화려한 혼례 이뤘으니[77]　穠李花開縟禮成

우공[78]으로서 한때의 영광을 맘껏 누렸었지　寓公贏得一時榮

그러나 몸이 소종의 귀신[79]이 된 이후로　自從身作蕭琮鬼

천년 뒤에 보덕성을 찾기가 어렵구나　千載難尋報德城

---

73 연로(燕虜)가……버리니 : 위만(衛滿)이 연(燕)나라에서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을 이끌고 조선에 들어와 준왕(準王)을 축출하고 왕이 되었던 것을 가리킨다.

74 남으로의 망명 : 위만에게 축출된 준왕이 근신(近臣)과 궁인(宮人)을 이끌고 남으로 바다를 건너 익산 지역으로 내려왔다고 하는 일을 말한다.

75 회계산(會稽山)에……참혹했다네 : 중국 춘추 시대 월왕(越王) 구천(句踐)이 오왕(吳王) 부차(夫差)에게 대패하여 5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회계산에 올라가 농성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오나라의 속국이 될 것을 맹세하고 항복했던 일을 가리킨다.

76 산성 : 현재 미륵산(용화산) 정상 동북쪽에 있는 성(城)을 말하는 것으로, 이 성은 위만(衛滿)의 난리를 피해 금마(金馬)로 내려왔던 기준(箕準)이 쌓은 산성이라고 하여, 다른 이름으로 '기준산성(箕準山城)'이라고도 한다. 《금마지(金馬志)》 상권의 고적(古蹟) 항목 참고.

77 혼례 이뤘으니 : 고구려의 종실(宗室) 안승(安勝)이 신라에 귀의하자, 신라 문무왕은 안승을 금마(金馬)에 살게 하여 보덕왕(報德王)으로 삼고, 이어 조카를 그의 아내로 삼아 주었던 일을 가리킨다.

78 우공(寓公) : 나라를 잃고 남의 나라에 우거하는 임금을 가리킨 말로, 여기서는 보덕왕 안승을 가리킨다.

79 소종(蕭琮)의 귀신 : 안승의 죽음을 비유한 말이다. 소종은 후량 명제(後梁明帝)의 아들로서 명제가 죽은 뒤에 그 자리를 이었다가, 뒤에 수 문제(隋文帝)의 부름을 받고 입조(入朝)하여 거국공(莒國公)에 봉해짐으로써 후량은 끝내 망하고 말았다.

기준성(箕準城)

안재(安齋) 성임(成任)

기준왕 깃들었으나 끝내 성취 없었으니 箕郎雌伏竟無成
강자가 약자를 병탄함은 자명한 이치라서 强弱幷呑理自明
생각해 알겠노라, 당시 휘하의 군사들 想得當時麾下士
얼마나 고개 돌려 평양을 그리워했을까 幾人回首憶西京

기준성 작품에 차운(次韻)하다

사은(四隱) 소영복(蘇永福)

제1수

지난 일 아득하여 한바탕 꿈을 이루는데 往事悠悠一夢成
무너진 성 남은 성가퀴에 석양이 비치누나 廢臺殘堞夕陽明
금강 왼쪽에서 구차히 몇 년이나 안주했던가 江左偸安經幾歲
유민들만 옛 왕국 수도였다 이야기를 전해 주네 遺民傳說舊王京

제2수

기준왕은 남으로 건너와 무엇을 이뤘던가 箕王南渡有何成
청사에는 그 사실이 자상히 기록되어 있건만 靑史丁寧故事明
먼 나라 태사[80]가 해외로 건너왔는데 遙境太師來海外
그 당시에는 만국이 주나라 서울에 모였더라 當時萬國會周京

---

80 태사(太師) : 은(殷)나라의 태사였던 기자(箕子)를 가리킨다. 은나라가 망한 뒤에 주(周)나라의 신하가 되지 않았는데, 무왕(武王)이 그의 의를 높이 사서 조선에 책봉하였다고 한다.

객관(客館)

관찰사(觀察使) 이덕형(李德泂)

고국 풍경이 나그네의 심정을 괴롭히니 故國風煙惱客情
천년토록 금마는 여전히 이름이 남아 있네 千秋金馬尙留名
마한 왕 궁전 유허지[81] 곳곳에서 쟁기질하고 韓王殿廢耕犁遍
기준산성은 무너져 풀과 나무로 뒤덮였네 箕準城頹草樹平
훈업으로 고려의 이공수(李公遂)를 꼽을 만하고 勳業麗朝推李子
문장으로는 태평성세의 소세양(蘇世讓)을 이야기하네 文章昭代說蘇卿
영웅의 호화로운 자취는 새처럼 날아가 사라졌지만 英雄鳥過豪華盡
청산은 여전히 남아 석양빛에 밝기만 하구나 依舊靑山夕照明

고려의 이공수와 조선의 소세양은 모두 고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급했다.[前朝李公遂我朝蘇世讓皆邑人故云]

객관(客館) 작품에 차운하여

도사(都事) 임기(林瀱)[82]

인사는 새나 구름처럼 사라짐이 만고의 이치건만 飛鳥歸雲萬古情
산하만은 부질없이 마한이란 이름을 지니고 있구나 山谿空帶馬韓名
서남쪽으로 터진 곳엔 거칠어진 들녘 광활하고 西南坼處荒郊闊

81 궁전 유허지 : 현재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에 있는 왕궁리 유적을 가리킨다.

82 임기(林瀱) : 본관은 나주(羅州)로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에 의하면 광해군 3년에 전라도사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두성과 우성 별자리 사이엔 저물녘 성가퀴 고르구나 牛斗墟間暮堞平
천부금탕[83] 촉나라의 익주라 부르고 天府金湯稱蜀益
신령스런 땅기운이 앞뒤로 공경들을 배출하였지 地靈前後有公卿
한 통의 술을 모두 마시고 거나하여 누웠는데 一尊酒盡醺醺倒
여관의 차가운 등불 베개에 비쳐 밝기만 하네 旅館寒燈照枕明

청심루(淸心樓)

군수(郡守) 장선엄(張善淹)

금마라 천년 역사 고을에서 金馬千年郡
군수 도장 차고 있는 한 늙은이 銅章一老翁
재주가 부족함을 스스로 알았지만 自知才有限
공로도 없이 녹봉만 받아 부끄럽기만 還愧食無功
옛 대나무는 구름에 솟아 푸르고 舊竹穿煙碧
새 연꽃은 물에서 피어 붉기도 하다 新蓮出水紅
평소에 청정한 경치를 좋아했거니 平生喜淸賞
공문서 더미에서도 흥취가 일어나네 興發簿書叢

청심루(淸心樓)

수재(瘦齋) 소동명(蘇東鳴)

대숲 아래 연못가에 서 있는 누각 竹下通池池上樓

---

83 천부금탕(天府金湯) : 물산이 풍부한 나라라는 뜻의 '천부지국(天府之國)'과 방어 시설이 철통같이 튼튼한 성이라는 뜻의 '금성탕지(金城湯池)'를 합한 말이다.

누각 사면 멀리에 나무 그늘 우거졌네　遠樓四面樹陰稠
한가하면 올라와 기둥에 기대어 돌아가지 않는데　閑來倚柱不歸去
두견새 한 소리에 산은 더욱 고요하구나　杜宇一聲山更幽

익산을 지나는 길에[益山途中]

사가(四佳) 서거정(徐居正)

남녘 호수 매우 맑고 익산은 푸르른데　南湖白白益山蒼
지난 일들은 아득해라 한바탕 꿈이로다　往事微茫夢一場
백제 수도 유허지엔 덩그렇게 고목만 서 있는데　濟國遺墟空老樹
기준왕의 옛 궁터에 석양은 몇 번이나 기울었을까　箕君故殿幾斜陽
백년을 말이 없는 금마는 가련한데　百年無語憐金馬
만고토록 다정한 석양[84]은 기억하겠지　萬古多情記石羊
백발로 멀리 유람하니 하도 강개하여　白髮遠遊多慷慨
오르는 곳마다 마음이 아프기만 하구나　登臨無處不神傷

익산회고(益山懷古)

진사(進士) 송광록(宋光祿)

제1수

어진 교화가 건국 초기에는 여전히 남았더니　仁化猶存立國初
쇠약한 후손들은 어찌하여 그 처음을 잃었던가　孱孫其奈失權輿

---

84 석양(石羊) : 옛날 왕이나 귀인의 산소 앞에 세우는 돌로 만든 양을 가리킨다.

천고의 흥망에 일종의 한이 생겨나서　一般千古興亡恨
반달 모양 부소산성 옛터를 웃으며 가리킨다　笑指扶蘇半月墟

제2수

평양의 형승은 살기 좋은 집이었는데　西京形勝好家居
여관 취급하고 그 나라를 어느 해에 떠나왔던가　去國何年傳舍如
남쪽으로 건너온 영토는 만촉[85]처럼 좁더니만　南渡乾坤蠻觸小
모조리 왕씨에게 옮겨져 통일되고 말았구나　盡輸王氏混車書

미륵사(彌勒寺)[86]

양촌(陽村) 권근(權近)

창밖에 푸른 산 깎은 듯 솟아 있는데　窓外青山似削成
시름 올 때 눈 들면 더더욱 뚜렷하네　愁時擧目轉分明
가을바람 불어와 나날이 옷깃을 스치니　秋風日日吹巾杖
높은 봉우리에 올라서 서울을 바라보고자 하네　欲上高岑望玉京

---

85 만촉(蠻觸) : 달팽이의 왼쪽 뿔에 있는 촉(觸)이라는 나라와 오른쪽 뿔에 있는 만(蠻)이라는 나라가 영토 분쟁을 벌여 죽은 사람이 백만이나 되었다는 《장자(莊子)》의 우화(寓話)에 나오는 말이다.

86 미륵사(彌勒寺) : 작품 제목이 권근의 《양촌집(陽村集)》 권7에는 '書懷[회포를 적는 대]'로 되어 있다.

미륵사(彌勒寺)

사은(四隱) 소영복(蘇永福)

낡은 탑엔 천년 학이 앉아 있고 古塔千年鶴
조용한 절에는 스님 한 분 계신다 空齋一箇僧
연못 메꾼 자취는 남아 있건만[87] 塡池雖有跡
지난 일을 물어볼 곳이 없구나 往事問無憑

미륵사를 지나며

수재(瘦齋) 소동명(蘇東鳴)

옛 절 이제는 황폐화되었는데 古寺今荒廢
한가로운 꽃만 홀로 어여쁘구나 閑花獨可憐
기준왕 즐겨 놀던 땅 箕王遊樂地
방초에 석양 비낀 하늘 芳草夕陽天
옛일에 감회 젖어 말을 멈추고 感舊停行馬
봄이 서러워 두견새 쫓아 버렸는데 傷春却杜鵑
당간지주 헛되이 남아 있어 空餘華表柱
석양 구름 가에 높이 기대어 있다 高倚暮雲邊

87 연못……있건만 : 지명법사(知命法師)의 신력(神力)으로 하룻밤 사이에 산을 옮겨 연못을 메우고 미륵사를 지었다는 전설이 있다. 《금마지(金馬志)》 상권 사찰 항목 참조.

미륵사의 석탑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

귀신의 공인지 백성의 힘인지 알 수 없지만　鬼功民力竟茫茫
위로 용화산 만길 산등성이를 능가하였네　上軼龍華萬仞岡
석재로 천년의 죄안을 이루었으니[88]　千載石材成罪案
가련하기 그지없는 금마국의 무강왕이여　可憐金馬武康王

미륵탑에 적다[題彌勒塔]

수재(瘦齋) 소동명(蘇東鳴)

하늘 메꾼 여와[89]를 당시에 본받았는데　女媧當時擬補天
천년이 가깝지만 아직도 유적이 남아 있구나　尙餘遺跡幾千年
일찍이 여지도서 안에서 볼 수 있었고　曾隨輿地圖中見
다시금 권근(權近)의 붓 아래서 전파되었지　更向陽村筆下傳
우뚝 솟아나는 새의 날개를 뛰어넘고　屹屹遙凌飛鳥翼
조룡의 채찍[90]도 맞지 않은 채 웅장하다네　巖巖不受祖龍鞭
부지됨은 본디 신명의 힘이라 할 것이니　扶持自是神明力

---

88 석재로……이루었으니 : 석재로 불탑을 조성한 무왕에 대해 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하는 내용이다.

89 여와(女媧) : 중국 신화에, 공공씨(共工氏)가 축융(祝融)과 싸워서 지고 분한 마음에 머리로 부주산(不周山)을 들이받아 천주(天柱)가 부러지자, 오색의 돌을 단련하여 하늘을 깁고 자라의 발을 잘라 땅의 4극(極)을 지탱했다고 한다. 《補史記 三皇本紀》

90 조룡(祖龍)의 채찍 : 조룡은 진 시황(秦始皇)의 별칭이다. 진 시황이 돌다리를 만들려고 하니, 신인(神人)이 돌을 몰아오는데 돌이 빨리 가지 않으므로 돌에게 채찍질하자[鞭石] 돌에서 모두 피가 흘렀다 한다. 《三齊略記》

동남 하늘 한쪽을 떠받치고 있구나 撑柱東南一半邊

금마(金馬)

수재(瘦齋) 소동명(蘇東鳴)

미륵산 봉우리 높고 시냇물 맑은 彌勒峯高溪水淸
수백 년 세월 아름다운 옛 왕성 百年佳麗舊王城
관아 누각은 너른 들녘 남으로 끌어당기고 官樓南控長郊遠
불탑은 평탄한 큰길 서쪽으로 내려다보네 佛塔西臨大道平
버드나무 그림자 속엔 소소의 집[91] 楊柳影中蘇小宅
대숲 깊은 곳엔 사령운(謝靈運)의 정자[92] 竹林深處謝公亭
강남에선 이 지역이 진실로 빼어난 곳으로 江南此地眞淸絶
금릉만이 홀로 미명을 독차지하지 못한다네[93] 不獨金陵擅美名

---

91 소소(蘇小)의 집 : 기생집을 말한다. 소소는 소소소(蘇小小)로 남조(南朝) 제(齊)나라 때 전당(錢塘)의 명기(名妓)이다. 당나라 시인 백거이(白居易)의 〈화춘심(和春深)〉에 "전당의 소소소는 사람들이 가장 교태롭다고 하네.[錢塘蘇小小, 人道最夭斜]" 하였다.

92 사령운(謝靈運)의 정자 : 시인 묵객들이 자주 오르는 정자를 말한다. 사령운은 남북조 시대 동진(東晉)과 송(宋) 양대에 걸쳐 활약했던 시인이자 문신이다. 정치적으로 불우하여 정무(政務)를 돌보지 않고 명승(名勝)을 유람하다가 관직에서 물러나 정교하고 섬세한 시어로 산수의 아름다움을 읊어 중국 산수시(山水詩)의 비조(鼻祖)가 되었다.

93 금릉(金陵)만이……못한다네 : 금릉은 중국 남경(南京)의 옛 이름으로, 장강(長江) 가에 위치하여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물산이 풍부하고 상업이 발달하여 여러 왕조의 수도였다. 익산이 금강 가에 위치하여 아름답고 백제의 옛 수도였기에 금릉에 못지않은 곳이라 극찬하는 내용이다.

오금암(五金菴)

양곡(陽谷) 소세양(蘇世讓)

봉우리 서쪽 절을 찾지 않은 지　不到峯西寺
별안간에 세 해가 지났다네　三霜瞥眼過
선을 논하던 스님은 이미 돌아가시고　談禪僧已寂
벽돌로 쌓은 연못만 부질없이 물결치고 있네　甃石沿空波
지난 일은 진실로 꿈만 같으니　往事眞如夢
나의 인생 또한 마지막을 바라보는 나이　浮生亦有涯
백여 척이나 되는 아슬아슬한 누각에 올라　危樓高百尺
홀로 서 있는데 석양은 한없이 아름답구나　獨立夕陽多

은선암에 놀러 가서[遊隱仙菴] 백련사(白蓮社)라 이름을 바꾸었다.

양곡(陽谷) 소세양(蘇世讓)

구십 일의 봄빛이 벌써 저무는데　九十春光已云暮
조그만 서실을 혼자 오랫동안 지켜왔다　書巢斗屋獨長守
세 노인을 초대하여 말안장 나란히 하고 가는데　三老招邀竝鞍行
한 무리 조카아이들이 뒤를 따라온다　阿咸群稚隨其後
용화산 동쪽 산기슭 골짜기가 그윽한데　龍華東麓洞府幽
비 갠 뒤라 맑은 물은 잔잔히 흐르는구나　雨後淡水潺湲流
우뚝한 바위굴에 피어나는 구름은 예스럽고　岩嶢石窟雲霞古
멀리 보이는 마을 오두막엔 대나무가 빽빽하다　迢遞村廬竹木稠
어지러운 바위엔 여기저기 이끼가 늙어 가는데　亂石縱橫苔蘚老

맑은 냇물 앞머리에서 은선으로 가는 길을 물었다 白水前頭問歸路
길은 점점 가팔라지고 사람도 이제 드물어 가는데 路漸逼仄人漸稀
연궁을 멀리 바라보니 소나무 가지에 가려 있다 遙望蓮宮隱松梢
발걸음 가는 대로 걸어서 어느덧 절 앞에 이르니 意行不覺到門前
두세 명 늙은 스님들이 다가와서 안내한다 二三殘僧來導先
도끼 소리 방금 끊기고 벽도 겨우 말랐는데[94] 斧音纔絶壁初乾
스님이 절 이름은 은선이라고 말해 준다 僧言是寺名隱仙
돌을 쌓아 백여 척 계단을 만들었고 壘石爲階百餘尺
세 칸 기둥 건물은 제법 널찍하였다 三間棟宇頗軒豁
바위 구멍에서 솟는 샘물은 맑고 달아 泉流巖竇潔且甘
한잔 들이키니 갈증이 문득 해소되었다 一酌頓解塵喉喝
진달래 활짝 피고[95] 산새는 나는데 山榴爛熳山鳥飛
나물 이파리는 부드럽고 고사리는 살져 있다 蔬葉茸茸蕨芽肥
종이 팔뚝 위의 매로 꿩 두 마리를 잡고 虞奴臂鷹獲兩雉
향기로운 쌀로 밥을 지어 주린 배를 채워 주었다 香粳新炊飽我飢
기갈이 이미 사라지고 번뇌도 없어져 飢渴已消煩惱空
창문 쪽에 베개 두고 꿈나라로 들었다 一枕黑甜當窓風
금당의 좋은 집이 멀리 있지 않다 여겨서 金堂玉室不在遠
문득 이곳에서 늙은 몸을 안주하고 싶었다 便欲此地安衰躬
이십 년 전 일[96]에 대해 되돌아 생각해 보니 回頭二十年前事

---

94 도끼……말랐는데 : 절을 짓는 공사가 막 끝났음을 표현한다.

95 진달래 활짝 피고 : 원문의 '산류(山榴)'는 '산골 석류'를 가리키는데, 작품의 계절적 배경으로 보면 진달래를 표현한 듯하다.

낡은 신발 벗어던지듯 해야 했음을 오늘에야 진실로 알겠다

今日信知如脫屣

산꽃이 지기 전에 내 다시 찾아오리니　　山花未落吾更來

스님께 기다리고 있으라 기별 좀 해 다오　　寄語菴僧好相俟

곶절 앞의 너럭바위에서 놀며[遊串寺前盤石]

양곡(陽谷) 소세양(蘇世讓)

말을 타고 대문을 나가　　騎馬出門去

깊은 개울 울창한 숲을 느릿느릿 지났다　　穿深度密遲

봄이 끝나 가는 날을 바로 당했으니　　正當春盡日

응당 경치 좋은 풍경을 만날 것이다　　應値艷陽時

산기슭엔 시들어 가는 꽃들이 남아 있고　　林麓殘花在

마을 가엔 부드러운 버들가지 드리워 있다　　村邊弱柳垂

산봉우리는 검과 창처럼 삐쭉삐쭉 솟아 있고　　峯巒攢劍戟

모래사장 시냇물은 깨끗하여 유리와 같다　　沙水淨琉璃

너럭바위로 함께 가서　　共往盤陀石

굽은 나뭇가지에 몸을 기대어 보니　　仍倚屈曲枝

바위가 둘러싸 바람 소리를 머금었고　　巖回含徵羽

못물은 맑아서 잔물결이 일어난다　　潭瑩貯漣漪

골짜기 새들은 앵앵 지저귀고　　谷鳥嚶嚶喚

산바람은 산들산들 불어온다　　山風細細吹

---

96 이십……일 :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가리키는지 현재로서는 자세하지 않다.

누가 능히 즐기고 사랑하는가 何人能賞愛
나 혼자만 마음으로 알고 있구나 而我獨心知
저무는 게 아쉬워 술잔 자주 기울이고 畏暮杯頻倒
즐거움을 탐하여 자주 자리를 옮겨 본다 貪歡席更移
은퇴하여 사는 집을 늦게야 마련했구나 菟裘吾卜晩
흰머리로 부질없이 슬픔에 빠져들었다 白首謾含悲

판교천 가에서 놀다[遊板橋川上]

양곡(陽谷) 소세양(蘇世讓)

서리 맞은 숲 소소하게 잎이 모두 떨어졌고 霜林蕭蕭葉盡下
한 조각 가을빛은 넓은 들녘에 머물고 있다 一片秋光逗平野
나는 흥에 겨워 우연히 대문을 나서서 先生乘興偶出門
고삐 풀어 놓고 늙은 말이 가는 대로 맡겨 두었다 縱轡意行聽老馬
차가운 물은 잔잔하여 맑기가 씻은 듯하고 寒流無波瑩如洗
무리 지어 노는 피라미 때때로 방향을 바꾸었다 作隊遊鯈時瀁瀁
콩과 조를 거둬들였고 벼 이삭은 무르익었는데 菽粟初收稻離離
작년보다 올해가 풍년이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人道今年勝前歲
용화산 끊어진 산기슭은 누에의 머리 같고 龍華斷麓如蠶頭
올라 내려다보니 사방에 구름 낀 산이 조밀하구나 登臨面面雲山稠
그물로 은어를 잡아 올리고 매로 꿩을 잡아 網鱣銀刀鷹捕雉
향기로운 벼로 밥을 지으니 냄새가 구수하다 香粳炊熟香浮浮
젊은 기생들은 부드럽게 노래하며 생황을 연주하고 小姬緩歌撫秦笙

오랑캐 피리 소리 내어 흥을 돋운다 助以篳篥羌管聲
마른 나뭇가지 불을 붙여 백주를 데우고 自燒枯槎煮白酒
거나하게 취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체를 잃었다 陶然不覺相忘形
기다리며 쳐다보니 서광이 구름 가에 생겨나고 待看瑞光生雲端
차가운 둥근 달이 솟아오르는데 황금 쟁반 같구나 氷輪湧出黃金盤
인생백세가 진실로 순식간이라지만 人生百歲眞瞬息
좋지 않은 낯빛으로 근심할 필요가 뭐 있으랴 何用多愁無好顔
그대들은 보지 못했소, 상채에서 사냥개 끌고자 하고[97] 화정에서 학 울음소리 듣고자 했음을[98] 君不見上蔡犬華亭鶴
인생살이 이런 상황이 된다면[99] 어찌 애석하지 않겠는가 人生到此寧非惜
날마다 일백 잔의 술을 마시는 생활만 못하리니 不如日飮一百杯
좋을 시절 아름다운 풍경 마음껏 즐기며 놀아 보세 佳辰美景恣歡謔

---

97 상채(上蔡)에서……하고 : 상채는 진(秦)나라 승상 이사(李斯)의 고향이다. 그가 사형을 받기 직전에 아들을 돌아보며 "사냥개와 매를 몰고 상채의 성문을 나가 토끼 사냥을 하고 싶어도 이제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말한 고사가 있다.

98 화정(華亭)에서……했음을 : 화정은 지금의 상해시(上海市) 송강현(松江縣) 서쪽에 있는 정자이며, 학(鶴)의 산지로 유명하다. 진(晉)나라 육기(陸機)가 동생 육운(陸雲)과 함께 이곳에서 10여 년을 살았는데, 나중에 참소를 당하여 죽을 때 "화정의 학 울음소리를 듣고 싶다만 그 일이 가능하겠는가.[欲聞華亭鶴唳, 可復得乎.]"라고 탄식한 고사가 있다.

99 인생살이……된다면 : 이사(李斯)나 육기처럼 죽을 때에야 일찍 물러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일을 가리킨다.

눈 온 뒤 왕궁탑을 바라보며[雪後望王宮塔]

양곡(陽谷) 소세양(蘇世讓)

눈 속에 옛 왕궁탑이	雪中舊宮塔
하늘 높이 솟아 있구나	聳立霄漢間
선인의 손바닥인가 생각해 보니	却訝仙人掌
다만 이슬 받는 쟁반[100]이 없고	只無承露盤
또 화표주[101]인가 의심해 보니	又疑華表柱
요동(遼東)의 학[102]은 어느 때 돌아오려나	遼鶴何時還
만일 기이한 절경을 보태고자 한다면	若欲添奇絶
온 누리에 가득한 둥그런 달빛이어라	崢嶸月滿山

---

100 이슬 받는 쟁반 : 원문으로는 '승로반(承露盤)'인데, 한나라 무제(武帝)가 천상의 이슬을 받기 위해 건장궁(建章宮)에 승로반을 만들었다. 금으로 만든 선인(仙人)이 손바닥으로 승로반을 받치고 있는데 그 높이가 20장(丈)이었다. 무제는 이렇게 해서 받은 이슬을 옥가루와 섞어 장생불사하는 약을 만들려고 했다.

101 화표주(華表柱) : 교량, 궁전, 성문, 묘소 등에 장식용으로 세우던 거대한 돌기둥이다.

102 요동(遼東)의 학 : 한(漢)나라 때 요동 사람 정영위(丁令威)가 영허산(靈虛山)에 들어가 선술(仙術)을 배우고 뒤에 학으로 변하여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성문(城門)의 화표주에 앉았는데, 한 소년이 활을 가지고 그를 쏘려 하자, 그 학이 날아올라 공중을 배회하면서 말하기를 "새여 새여 정영위가 집 떠난 지 천년 만에 이제야 돌아왔네. 성곽은 예전 같은데 사람은 그때 사람 아니어라, 어이해 신선술 안 배우고 무덤만 즐비한고."라고 했다는 고사가 있다.

퇴휴당(退休堂)[103] 병서(幷序)

명(明)나라 사신 화찰(華察)[104]

찬성 소세양(蘇世讓) 씨는 몸을 일으켜 과거에 급제한 뒤 조선에서 몇 년을 벼슬하여, 지위가 1품에 이르렀으나 머리가 세지도 않았으며 풍류는 넘쳐나고 문장도 매우 뛰어났다. 바야흐로 국정을 오롯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에 '퇴휴(退休)'라고 집에 이름을 붙였다. 내가 괴이해서 물었더니, 그는 말하기를 "늙은 어머니가 계시니, 감히 내 몸을 다른 사람에게 바칠 수 없습니다. 선비는 그칠 줄 아는 것을 귀하게 여기니, 나는 여기에서 그쳐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부끄러워졌는데, 이로 말미암아 시(詩)로써 뜻을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몸을 바쳐 나라 위해 도모한 지 여러 해　　許身謀國幾多年
헛된 이름임을 스스로 깨달아 이미 담박해졌네　　自覺浮名已澹然
동성에서 자줏빛 인끈 차는 영광을 누렸고[105]　　紫綬榮分東省內
색동옷 입고 춤추는 꿈이 북당 앞을 맴돌았다[106]　　班衣夢繞北堂前

---

103 퇴휴당(退休堂) : 금마면 서고도리 귀대숲 태허정 아래 죽림 사이에 세워진 집으로, 양곡(陽谷) 소세양(蘇世讓)이 관직에서 물러나 살았던 고향집이다. 거당(居堂)과 누당(樓堂)이 따로 세워져 있었는데 양곡이 사망한 뒤 외손들에 의해 여러 번 중수하여 유지되었다고 하나 지금은 터만 남아 있다.

104 화찰(華察) : 1497~1574. 중국 명나라 세종(世宗)~신종(神宗) 때의 문신이다. 한림원 학사(翰林院學士)·동궁 시독(東宮侍讀) 등을 지냈으며, 1539년(중종34) 명나라의 사신으로 조선에 왔다.

105 동성(東省)에서……누렸고 : 동성은 국정을 의논하는 부서인 의정부를 가리키며, 정3품 이상의 당상관은 도장 끈을 자줏빛으로 하였다.

평온한 마음으로 항상 재계하고 채식하고자 하고　禪心欲把長齋茹
성곽 밖에 농지가 남아 있어 귀향을 계획하였다　歸計空餘負郭田
곧바로 진정하여 해골을 구걸하지[107] 마시길　莫便陳情乞骸骨
옥백을 가지고 가서 천자께 조회함이 어떠할지　好將玉帛去朝天

퇴휴당(退休堂)

양곡(陽谷) 소세양(蘇世讓)

제1수

일이 많아지면 비로소 시골집 좋음을 안다는　多事始知田舍好
소동파의 이 말은 자연에서 나온 것이었구나　坡翁此語出天然
공문서 쌓이어 골치 아픈 일이란 전혀 없어　了無牒訴來相溷
문 닫고 밤새도록 빗소리 들으며 잘 수 있다네　閉閤通宵聽雨眠

제2수

그때에는 도연명을 항상 괴이하게 여겼지　爾時常怪陶彭澤
나이 들어 미미한 녹봉 꾀함을 부끄러워한 것을　歲晩羞爲五斗謀
누가 헤아렸으랴 지금 내가 긴 도장 줄 가벼이 풀어 놓고
誰料我今輕若若
송죽 우거진 고향 가고픈 마음이 깊어질 줄을　故山松竹意偏悠

---

106 색동옷……맴돌았다. : 늙은 어머니에게 효도하려는 생각이 간절했음을 표현한 말이다. 노래자(老萊子)가 나이 70에 부모 앞에서 색동옷을 입고 춤을 추어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 드렸다고 하며, 북당은 어머니가 거처하는 집을 가리킨다.

107 해골을 구걸하지 : 원문은 '걸해골(傑骸骨)'인데, 고향에 돌아가 뼈를 묻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한다는 뜻으로, 신하가 왕에게 사직을 청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제3수

찾아오는 사람 없어 사립문 열지 않아서　柴門無客不曾開
깊숙한 골목에 이끼만 수북이 자라 있겠지　園巷深深長綠苔
죽순 이미 빽빽하고 매실도 벌써 맺혔을 텐데　笋已成叢梅已子
주인은 무슨 일로 아직껏 돌아가지 않는 것일까　主人何事未歸來

제4수

홀로 빙빙 돌며 망설이는 모습 절로 가련한데　自憐隻影轉倚倚
집은 남았건만 사람 없다니 꿈엔들 생각했으랴　室在人亡夢也非
가랑비 비 외론 등불 잠 못 이루는데　細雨孤燈眠不得
바람벽에 쥐며느리 떨어지도록[108] 놔둘 수 있으랴　可堪風幔落伊威

제5수

유림에서 이십 년 동안 헛된 명예 훔치다가　儒林廿載竊虛名
이제는 노쇠하여 백발만 무성해지고 말았구나　潦倒如今白髮明
어찌 아니하랴 몸뚱이 구걸해[109] 옛 살던 땅으로 돌아가
　曷不乞身歸舊隱
퇴휴당 안에서 남은 인생 보내는 결행(決行)을　退休堂裏送餘生

---

108 쥐며느리 떨어지도록 : 원문의 '이위(伊威)'는 쥐며느리 '이위(蛜蝟)'와 통용하여 쓰인다. 《시경(詩經)》〈빈풍(豳風) 동산(東山)〉에 "쥐며느리가 방에 있고, 납거미가 문에 있도다.[伊威在室, 蠨蛸在戶.]"라고 하였는데, 이는 방을 청소하지 않아서 쥐며느리가 방에 있으며, 사람이 출입하지 않아서 문에 거미줄이 쳐졌다는 것으로, 황폐해진 집을 형용한 말이다.

109 몸뚱이 구걸해 : 고향에 돌아가 뼈를 묻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한다는 뜻으로, 신하가 왕에게 사직을 청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해골을 구걸한다[乞骸骨]'라고도 표현한다.

퇴휴당(退休堂)

관찰사(觀察使) 이경전(李慶全)[110]

제1수

지난 자취 헤아려 보니 모두가 사라졌는데 思量往跡只茫然
이 어르신의 문장만은 만고토록 전해지리 此老文章萬古傳
신선 되어 떠나신 뒤 소식은 감감하건만 仙鶴一歸消息杳
들꽃과 정원 풀 자기들만 해마다 돌아오누나 野花園草自年年

제2수

당시 터 잡아 집 지은 것이 어찌 우연이었으랴 當時卜築豈偶然
소 신선 떠나신 뒤 다시 누구에게 전해졌던가 蘇仙去後更誰傳
오직 손수 심은 뜰 앞의 나무만 남아 있어서 惟餘手種庭前樹
지금은 아름드리로 자라나서 나이를 알 수가 없네 合抱如今不記年

앞 시에 차운하여

사은(四隱) 소영복(蘇永福)

제1수

학의 자태 신선 풍모 이미 사라졌지만 鶴姿仙骨已飄然

---

110 이경전(李慶全) : 1567~1644.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중집(仲集), 호는 석루(石樓)이다. 1590년(선조23)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이듬해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다. 예조 좌랑, 병조 좌랑 등을 역임하였고, 충홍도(忠洪道)·전라도의 관찰사를 지냈다. 1637년(인조15)에 장유(張維), 이경석(李景奭) 등과 함께 삼전도(三田渡)의 비문 작성의 명을 받았으나 병을 빙자하고 거절하였다. 문필이 뛰어나 이름이 높았으며 저서로는 《석루유고(石樓遺稿)》가 있다.

이웃 나라에 명성 남기고 하인들에게까지 전해졌다네 夷夏遺名走卒傳
퇴휴당에 자취를 거둬들여 서른 해 동안 收跡退休三十載
문학과 글씨에 침잠하여 여생을 보낸 결과겠지요 沈潛文墨送餘年

제2수

드넓은 문장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으니 浩浩文章出自然
예로부터 의발은 대대로 전수하는 것이었다네[111] 從來衣鉢世相傳
소 신선이 옛집에 시구들을 남기셨으니 蘇仙舊宅留詩句
수백 년 지나도록 명성을 너도나도 퍼뜨리겠죠 共播聲名幾百年

쌍봉에 올라[登雙峯]

양곡(陽谷) 소세양(蘇世讓)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에 몸을 맡기고 내려다보니 身御泠然汗漫風
수놓은 망망한 언덕은 그림 병풍 속이로구나 茫茫繡隴畵屛中
백리에 펼쳐진 산천에는 구름이 자욱하여 山川百里雲煙膩
창공을 시야에 넣고서야 조망이 끝났다네 眼入長空望始窮

111 의발(衣鉢)은……것이었다네 : 의발은 가사(袈裟)와 바리때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불교에서 전법(傳法)의 표가 되는 가사와 바리때를 후계자에게 전하던 일에서, 스승으로부터 전하는 교법(敎法)을 이르는 말이 되었다. 여기서는 소세양이 특정한 스승에게 문장의 비법을 전수받지 않았고 자득했다는 말이다.

두제천 가에서 놀며[遊斗堤川上] 회문시(回文詩)[112]의 형식으로 지었다.

양곡(陽谷) 소세양(蘇世讓)

모래 깔린 둔덕 가로 물은 유유히 흐르고　沙鋪岸上水悠悠
따뜻한 날 바람 맑아서 흥겹도록 놀았다　暖日風淸盡興遊
인가 멀리 피어나는 연기 곳곳에서 밥 짓고　家遠生煙炊處處
그늘 짙은 푸른 나무에 둘러싸인 물가의 누각　多蔭綠樹水邊樓

십 리에 핀 홍련의 장연[十里紅蓮長淵]

사은(四隱) 소영복(蘇永福)

고르게 펼쳐진 붉은 구름이 십 리 남짓이고　平鋪紅雲十里賒
물가의 연꽃 천 송이 어지럽게 비껴 있다네　渚蓮千柄亂橫斜
작은 배에 술을 싣고 꽃 사이에서 즐기니　扁舟載酒花間樂
만약 곡강[113]에 비유해도 차이가 없겠네　若比曲江無等差

---

112 회문시(回文詩) : 한시를 첫머리에서부터 내리읽어도, 반대로 뒤에서부터 거꾸로 올려 읽어도 의미가 통할 뿐만 아니라 시법(詩法)에도 어긋나지 않게 지은 시를 말한다. 이 작품의 경우 거꾸로 읽으면 "누각 가장자리 강가 나무는 녹음이 많은데, 곳곳에서 밥 짓는 연기가 먼 집에서 생겨난다. 유흥이 맑기 그지없음은 바람과 해가 따스해서요, 유유히 흐르는 강물 가장자리엔 모래 깔린 언덕이라오.[樓邊水樹綠蔭多, 處處炊煙生遠家. 遊興盡淸風日暖, 悠悠水上岸鋪沙.]"가 된다.

113 곡강(曲江) : 당나라 장안(長安) 동남쪽에 있던 연못인 곡강지(曲江池)로 일명 부용원(芙蓉園)이라고도 한다. 연꽃이 장관이어서, 한유(韓愈)의 시에 "십 리나 뒤덮은 곡강의 연꽃이여, 강호가 눈에 선해 생각을 금치 못하네.[曲江荷花蓋十里 江湖生目思莫緘]"라고 하였다.

남촌서원(南村書院)[114]에 적다

수재(瘦齋) 소동명(蘇東鳴)

고려 말에 홀로 우뚝 서시어 獨立麗朝季
위태로운 사직을 기어이 유지하셨다 期扶社稷危
임금을 모시고 나라로 돌아오던 날 扈君還國日
피리를 연주하며 대도(大都)를 떠나오던 때 吹笛出都時
학덕이 높았던 삼한의 어르신 宿德三韓老
고결하신 풍도는 백세토록 우러른다네 高風百世仰
저희들은 크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吾徒興景慕
이곳에 새로이 사당을 지었나이다 於此起新祠

【잡저(雜著)】

청심루기(淸心樓記)[115]

송을개(宋乙開)

금마군(金馬郡)은 예전 무강왕(武康王)이 왕을 일컬었던 땅인데, 산천은 예전과 같으며 탑과 절이 완연하여 천년이 지난 오늘에도 웅장한 풍도가 장렬했음을 상상해 알 수 있다. 나라가 망하여 군이 되었는데, 병

114 남촌서원(南村書院) : 화암서원(華巖書院)의 다른 명칭이다. 현재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에 있는 미륵사지 북편에 자리하고 있는데, 남촌(南村)은 이 서원에서 주벽으로 모시고 있는 문충공(文忠公) 이공수(李公遂)의 호이다.

115 청심루기(淸心樓記) : 청심루는 《금마지》 상권에 금마 객사 동편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기문의 내용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도 수록되어 있다.

자년(1456, 세조2)에 무진(茂珍)[116]의 노 상군(盧相君)[117]이 이 고을에서 군수로 있으면서 처음으로 청심루(淸心樓)를 객관 동쪽에 세웠다.

세월이 오래되자 누각이 기울고 헐었는데, 무진년(1508, 중종3) 봄에 밀양(密陽)의 손 후(孫侯)[118]가 군수로 와서 노는 사람을 불러 모으고 재목을 마련하고 기와를 구워 새로이 단장하면서 벽을 바르고 단청을 칠하여 2개월 만에 완성을 보았다.

내가 생각건대, 어질구나! 군수 손씨여. 관아에서 공사를 하는데 백성이 몰랐고 위에서 마음을 가지자 아래에서 서로 도왔으며, 재물이 관청에서 나오지 않아도 일하는 사람이 배불렀고 공사를 많은 사람이 하지 않고도 일이 완공되었다. 이러한 도리를 미루어 모든 일을 펴 나간다면, 무슨 일인들 인(仁)이 아니겠는가.

동헌중수기(東軒重修記)

양곡(陽谷) 소세양(蘇世讓)

호남(湖南)에 읍(邑)이 50여 곳인데 오직 우리 군(郡)이 가장 오래되었다. 본래 마한(馬韓) 무강왕(武康王)이 도읍한 곳으로 궁터와 왕릉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 후조선(後朝鮮) 왕 기준(箕準)이 연(燕)나라

---

116 무진(茂珍) : 전라도 광주의 옛 이름이 무진군(茂珍郡)이었다.

117 노 상군(盧相君) : 여기서 '상군(相君)'은 군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 초기에 노씨(盧氏) 성을 가진 군수로, 명환(名宦) 조에 나오는 '노귀상(盧龜祥)'이 보이나 시기가 맞지 않아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

118 손 후(孫侯) : 여기서 '후(侯)'는 군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 전기의 익산군의 선생안(先生案)이 전하지 않아 이름을 알 수가 없다.

사람인 위만(衛滿)에게 쫓기게 되어 바다에 떠서 남쪽으로 내려와 용화산(龍華山)에 도읍을 정하였는데, 산에는 산성이 있어 분칠한 성가퀴가 어제 쌓은 듯하다.

용화산의 한 가닥이 구불구불 동쪽으로 달려오다 또 휘어져 남쪽으로 뻗어 맺혀서 쌍봉을 이루었는데, 높이 하늘을 떠받치고 울울창창하여 말의 귀와 같이 생겼다. 용화산의 여러 골짜기 물들이 합쳐져 긴 내를 이루는데 넘실넘실 남쪽으로 달려 춘포로 들어간다. 고을 터가 쌍봉의 아랫자락에 자리하여 서쪽으로 시내를 끼고 있어, 땅이 외지고 나무들은 늙었으며 풍속이 순박하고 사람은 노둔하여 옛날 수도로서의 풍속이 남아 있는데, 객사가 넓고 깊은 빼어난 경치를 독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문이 넓고 단아하며 호기심이 많은 선비로서 이곳을 지나는 자들은 반드시 고적을 구경하여 회고의 정서를 일으키고 이리저리 다녀 시를 읊조리면서 쉽사리 떠나지 못한다.

옛 객사(客舍)는 어느 시대에 지어졌는지 알 수 없었는데, 낮고 좁으며 기울고 무너져 가 거의 사신(使臣)들을 수용할 수가 없다. 정덕(正德) 갑술년(1514, 중종9)에 동헌(東軒)과 정청(正廳)이 불에 타는 재앙을 만났는데, 사문(斯文)[119] 박거린(朴巨鱗)[120]이 군수로 부임하여 그 터를 넓히고 새로이 지었다. 그 뒤를 이어 청심루(淸心樓)와 대문,

---

119 사문(斯文) : 여기서는 유학자(儒學者)를 가리킨다. 《논어(論語)》에서 공자가 "문왕(文王)이 이미 별세하였으니, 문(文)이 이 몸에 있지 않겠는가. 하늘이 장차 '이 문[斯文]'을 없애려 하였다면 내가 이 문에 참여할 수 없었을 것이다.[文王旣沒, 文不在玆乎? 天之將喪斯文也, 後死者不得與於斯文也.]"라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120 박거린(朴巨鱗) : 본관은 함양으로 연산군 10년(1504) 식년시 문과에 급제하여, 익산 군수와 장령을 역임하였으나 익산 군수로 재임했던 시기는 파악할 수가 없다.

낭무(廊廡)와 부엌 및 마구간을 고치고 수리한 사람은 군수 황기필(黃耆弼)[121]이었다. 위아래의 서헌(西軒) 옛것을 철거하고 새롭게 지은 것은 군수 이순증(李順曾)[122]이었다. 그리고 동익실(東翼室)은 군수 한영(韓永)[123]이 지었다. 용마루와 기둥은 단단히 짜여 있고 계단은 반듯하고 마당은 널찍하여 비로소 한 고을의 어엿한 광경이 되었다.

지금의 군수인 이국신(李國信)[124] 씨는 젊어서부터 문학(文學)으로 이름을 떨쳤으며 중앙 부서에서 근무하여 일찍이 알려졌는데, 판여(板輿)[125]의 봉양을 위하여 이 고을에 좌부(左符)[126]를 나눠 받아 부임하였다. 그리하여 누각에서 쉬고 거문고를 타면서 공평하고 소탈하게 다스렸는데, 마당에는 곡식을 축내는 참새와 쥐[127]가 없었으며 담장에는 형

---

121 황기필(黃耆弼) : 본관은 상주(尙州), 자는 충노(忠老)이다. 익산 군수를 지냈으나 그 재임 시기는 파악할 수가 없다.

122 이순증(李順曾) : 자는 효원(孝元)이다. 중종 15년(1520) 별시 문과에 급제하였다. 사간원 정언을 거쳐 익산 군수를 지냈으며, 후에 이조 판서에 추증되었다.

123 한영(韓永) : 생애가 현재로서는 자세하지 않다.

124 이국신(李國信) : 국신은 이인현(李仁賢)의 자이다. 호는 쌍첨당(雙尖堂)으로, 중종 20년(1525) 식년시 문과에 급제하여, 익산 군수를 역임하고 벼슬이 내자정(內資正)에 이르렀다. 하지만 익산 군수로 재임하였던 시기는 확실하지 않다.

125 판여(板輿) : 방석을 깐 가마로, 관리가 임지로 부모를 모셔와 봉양하는 경우에 쓰였다. 진(晉)나라 반악(潘岳)의 《한거부(閑居賦)》에서 "모친을 판여에 모시고 가벼운 수레에 올라 멀리는 왕도를 유람하고 가까이는 집안 뜰을 주유한다.[太夫人乃御板輿, 升輕軒, 遠覽王畿, 近周家園.]"라고 한 구절에서 유래하였다.

126 좌부(左符) : 부절(符節)의 왼쪽 절반을 말한다. 한(漢)나라 제도에는 태수(馱數)가 임지로 나갈 때 좌부를 가지고 가서 주군(州郡)에 도착하여 우부(右符)와 합하여 보고 서로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127 참새와 쥐 : 국가재정을 좀먹거나 백성의 재물을 침탈하는 간교한 아전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다.

벌을 주는 도구가 버려져 있는 것이 어느덧 지금까지 네 해가 되었다.

지난해 11월 초하루에 객사의 관인(館人)이 땔감을 안전하게 옮겨 두라는 경계를 조심하지 못해서 동쪽 상방(上房) 부엌에 화재가 발생하여 잠깐 사이에 화염이 위로 치솟았다. 이날은 객사 북쪽 담장 밖에 마침 시장이 열려서 이웃 고을의 주민들도 모두 나왔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투어 바쁘게 달려들어 겨우 불을 잡을 수가 있었지만 동헌(東軒)은 이미 어쩔 수가 없었다. 우뚝했던 건물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자, 군수는 이에 탄식하고 다시 지을 것을 결심하였다.

고을의 연장자들이 군수에게 의견을 올리기를,

"우리 고을은 지역이 들판으로 이어져 있어 녹나무, 가래나무 등의 재목을 기를 수 있는 높은 산과 큰 고개가 없습니다. 앞서 관아 건물을 지을 때 목재를 대부분 변산(邊山)에서 베어 옮겨 왔는데 깊은 바다를 멀리 건너다니느라 백성들이 매우 고생스러워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왜구(倭寇)들이 노략질을 자행해서 변방이 편안하지 않아, 장정들은 방어에 동원되고 노약자들은 황무지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시국이 어려운 상황에 큰 공사를 일으키는 일을 옛사람이 경계하였습니다. 왜 내년 추수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는지요? 부안(扶安)은 토지와 백성 숫자가 우리보다 열 배이고, 게다가 변산은 그들이 관할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객사가 화재로 소실된 지 여러 해가 되도록 아직도 다시 짓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대개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군수는 이에 수염을 떨치고 책상을 치면서 말하기를,

"무릇 고을의 공공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객관(客館)을 우선시하는

것은 임금님의 사명(使命)을 공경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동헌(東軒)은 귀한 손님들이 거처하는 곳으로 객관에 동헌이 있는 것은 사람에게 얼굴이 있는 것과 같으니, 어떻게 없이 방치할 수 있겠는가. 불초한 내가 백리의 땅을 잘못 책임지고 있는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해이하지 않았지만 화재가 일어나기를 굳이 동헌에서 하였다. 생각해 보면, 이는 하늘이 나를 크게 깨우쳐 주려는 연유이다. 하루라도 편안히 앉아 태연히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나의 근심을 뒤에 부임할 군수에게 미루어서도 안 된다.

한 고을 안에는 사방의 산림도 있고 민가의 정원도 있다. 재목감을 골라 가져다가 큰 것은 들보와 용마루로 하고, 작은 것은 서까래로 하면 된다. 나는 멀리 있는 변산에서 구하지 않겠다. 하찮은 조무래기 왜구가 우연히 한 구역을 침범했지만, 국가 병력의 위엄으로 이미 소탕하여 몰아냈으니 다시 엿보는 걱정은 반드시 없을 것이다. 게다가 수령은 교체가 일정하지 않으니, 어떻게 내년 가을을 멀리 기약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이에 즉시 도목수를 완산(完山) 땅에서 얻어 지휘의 임무를 맡겼는데, 건축 규모를 늘리고 줄이는 계획은 모두 군수에게서 나왔다. 또 성실하고 부지런한 아전을 파견하여 들에서 기와와 벽돌을 굽게 하였다. 이에 톱질하는 사람, 나무를 깎는 사람, 흙을 이기는 사람, 찰흙을 다루는 사람 등등 여러 일꾼들이 함께 달려들어 서두르라 하지도 않았지만 게을리하지 않아, 겨우 몇 달 만에 도끼 소리가 멈추고 단청이 모두 끝났다. 이에 아름다운 두공과 나란한 처마는 꿩이 나래를 편 듯

하고 새가 차오르는 듯하며, 가로지른 난간은 아름답게 둘러쳐 있으며, 주렴에는 햇살이 은은히 비치고 분을 칠한 벽은 아름다워 시선을 빼앗았다. 건물의 규모는 비록 옛것을 말미암았지만 당당하고 아름다운 점은 훨씬 뛰어났다. 군수는 이에 길일을 잡아서 손님들을 모아 놓고 술을 따라 낙성식을 거행하였다.

아! 건물이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것은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이 현명한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재주 있는 자는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망녕되이 건물을 짓고, 졸렬한 자는 무너지는 건물을 앉아서 바라만 보며 멍청하게 조처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러한 두 사람은 모두 백성에게 병폐를 끼치는 자들이다. 그런데 이루어지는 것은 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사람의 손에서 이루어지며, 무너지는 것은 항상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너질 시기에 무너지는 것이다. 이루는 것은 어려우며 무너지는 것은 쉽다. 그러므로 일을 하려는 자는 어려운 바를 보전하고 쉬운 바를 조심해야 하니, 비록 이루어짐과 무너짐이 무궁하게 서로 이어지는 것이지만 이루어졌다고 하여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너졌다고 하여 매우 염려할 것도 아니다. 지금부터 부임하여 뒤를 잇는 자들이 우리 군수의 마음으로 마음을 삼는다면, 나는 고향의 공공건물이 이루어짐은 있지만 무너짐은 없음을 보게 될 것이니, 어찌 다행스럽지 않겠는가.

나는 군수와 오가면서 노닌 지가 오래되었는데, 매번 그에게 다소 곳한 선비의 기상이 있음을 사랑하였다. 하지만 그의 가슴속에 만 칸의 커다란 집이 들어 있으며 번거로운 업무를 처리하는 재주가 이와 같이 빠를 줄은 알지 못하였다. 군수가 자연에 묻혀 사는 나를 찾아와

동헌중수기를 부탁하였는데, 나의 재주가 삼왕(三王)[128]이 아니어서 칭송하는 일에 장로(張老)[129]의 재주가 부족하니, 어떻게 높고 큰 건물의 아름다움을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우선 무너지고 이루어진 자초지종을 대략 이상과 같이 썼다.

군수의 이름은 이인현(李仁賢)이고 국신(國信)이 그의 자인데, 을유년(1525, 중종20) 식년시 문과 급제자이다.

가정(嘉靖) 정사년(1557, 명종12) 가을에 소세양은 쓰다.

훈지당기(壎篪堂記)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

현 임금 갑진년(1664, 현종5)에 둘째 형[130]이 익산 군수로 있었는데, 관아 건물들을 보니 모두 기둥을 떠받친 낡은 집들이어서 거의 거주할 수가 없었으며,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을 보니 모두가 없는 형편이었다. 드디어 관아 앞에다 별당(別堂)을 우선 지었으며 앞으로 차례차례 고치고 짓고 할 생각이었다. 이윽고 뜻에 즐겁지 못한 일이 있어서 곧바로 사직하고 귀향하였다.

---

128 삼왕(三王) : 당(唐)나라의 왕발(王勃), 왕서(王緖), 왕중서(王仲舒)를 가리키니, 그들은 모두 서(序), 부(賦), 기(記) 등의 기사문(記事文)을 잘 지은 문인들이었다.

129 장로(張老) : 《예기(禮記)》 〈단궁 하(檀弓下)〉에, 진(晉)나라 헌문자(獻文子)가 집을 짓자 이를 축하하기 위해 찾아간 대부들 가운데 장로가 송축하고 이에 응수하여 헌문자가 기원했는데, 이에 대해 군자들은 "송축도 잘했고, 기원도 잘했다.[善頌善禱]"라고 평하였다.

130 둘째 형 : 우암 송시열의 형인 송시묵(宋時默, 1605~1672)을 가리킨다. 익산 군수를 1664년(현종5) 11월에서 1665년 12월까지 역임하였다.

우리 아우[131]가 한 해 뒤 둘째 형을 이어서 익산 군수가 되었는데, 시일 차이는 일곱 달이었다. 즉시 둘째 형이 하려고 했던 바를 하고자 했는데, 두 해에 걸쳐 잇따라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오직 기민(飢民)을 구휼하는 일에만 전념하였다. 이에 더하여 영장(營將)[132]이 익산에 진영(鎭營)을 설치했기 때문에 요구에 부응하고 물자를 공급하느라 갖가지 폐단이 생겨 아전과 백성들이 매우 곤궁했으므로 더욱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다.

한 해 동안 입고 먹는 비용을 줄여 창고에 쌓인 것이 조금 넉넉해지자, 드디어 무신년(1668, 현종9) 봄에 공사를 시작하였다. 기민을 동원하여 일을 시키고 인하여 먹였는데, 옛사람들의 진휼과 공사를 아우르는 정책처럼 한 것이었다. 다음 해 봄 공무로 서울에 갔는데, 주상께서 인견하면서 고을의 폐단을 묻자 드디어 영장이 진영을 설치한 일로 응답하였다. 주상께서는 담당자에게 명하여 진영을 다시 여산으로 옮기도록 하니, 아전과 백성들은 편해졌다 말하였고 힘쓸 일꾼은 더욱 많아졌다.

드디어 경술년(1670) 봄에 여러 공사들이 끝나니, 창사(倉舍)의 마루[廳事], 객사(客舍)의 서헌(西軒), 낭위청(郎位廳), 사후청(伺侯廳), 공수청(公須廳), 대문으로부터 새로 옮긴 아사(衙舍)의 사당(祠堂)·마루·동서실(東西室)·주고(廚庫)·행랑(行廊)·안팎의 문에 이르기까지 총 130칸이었다. 모든 건립되어야 하는데 건립되지 아니했던 것들이 모

---

131 아우 : 이 작품의 끝에 이름을 제시하였는데 송시도(宋時燾)이다. 그는 1667년에서 1670년까지 익산 군수를 역임하였다.

132 영장(營將) : 일명 진영장(鎭營將)이라고도 하는데, 인조 때 설치된 정3품직이다. 진영장은 경관(京官)인 총융사(摠戎使)·수어사(守禦使)·진무사(鎭撫使) 또는 각 도의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의 소속하에 지방 군대를 지휘 감독하였다.

두 완전히 새로워졌고, 오직 객사의 마루와 동헌(東軒)만은 옛것을 그대로 따라 수리했을 뿐이었다.

또 아사(衙舍)를 이미 옮겼으므로 별당(別堂)을 옛 자리에 그대로 두기에도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아사 곁으로 이건하였는데, 둘째 형이 완성한 별당이었기 때문에 규모와 제도를 하나도 늘리거나 줄이지 않았다. 또 둘째 형이 연못을 파고 그 앞에다 연(蓮)을 심었기 때문에 우리 아우도 마찬가지로 물을 끌어다 연못을 만들고 아울러 그 연을 옮겨 심었다. 그러고는 별당에 이름 붙이기를 '훈지당(壎篪堂)'[133]이라 했으니 《소아(小雅)·하인사(何人斯)》 편의 뜻을 취한 것이고,[134] 연못은 '징벽(澄碧)'이라 했으니 주자(朱子)가 '연꽃이 맑은 물에 비쳐 있구나[芙蓉映澄碧]'라고 한 구절[135]에서 따온 것이었다.

대개 생각건대, 나라에서 고을 수령의 녹봉을 제도화하지 않았지만 대동법(大同法)이 실시된 이후부터는 다달이 모두 일정한 봉급이 지급되었다. 비록 지역에 따른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요컨대 서울에서 벼슬하는 관원보다는 넉넉하였다. 다만 고을의 아전들이 꼭 곁눈질하여 스스로의 이익을 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속여먹

---

133 훈지당(壎篪堂) : '훈(壎)'은 흙을 구워서 만든 악기로 크기가 기러기 알만 하고, '지(篪)'는 대나무로 만든 악기로 길이가 1척 3촌이고 여덟 개의 구멍이 있다.

134 소아(小雅)·하인사(何人斯)……것이고 : 해당 작품에서 "백씨가 질나발을 불거든, 중씨는 젓대를 분다.[伯氏吹壎 仲氏吹篪]"라고 하여 형제간의 우애를 노래했다. 아우 송시도는 형 송시묵을 이어 익산 군수가 되었고 또 형이 지었던 별당을 원래의 규모와 제도 그대로 이건하였기 때문에 이 작품 내용을 따서 '훈지'라 이름 붙인 것이다.

135 구절 : 이 구절이 보이는 작품의 제목은 '연소(蓮沼)'인데 전체 내용은 이러하다. "꼿꼿이 선 하얀 연꽃, 멀리 서서 맑은 물을 비춘다. 다만 걱정은 산 위의 밝은 달이, 비추어 찬이슬 맺혀 떨어뜨릴까 염려라네.[亭亭玉芙蓉, 逈立映澄碧. 只愁山月明, 照作寒露滴.]"

고 빼먹고 하는 짓을 막지 못하는 일이 으레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수령들은 재정이 부족한 것이 항상 걱정이 되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아우의 상황으로 살펴보건대, 재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재정을 활용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며, 재정을 활용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활용을 마땅하게 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일이라 하겠다.

우리 아우의 치적(治積)은 기록할 만한 것이 진실로 많다. 그러나 옛사람이 '아버지가 칭찬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닌 사람이 칭찬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였다. 형제간과 부자간은 서로의 차이가 얼마나 되겠는가. 그래서 건물에 대하여 공사가 시작하고 끝난 날 및 완성한 칸수만을 썼는데, 이름을 붙인 뜻과 같은 것은 한집안의 사적인 관계인데 그것을 공관에 달아 놓았으므로 비난을 불러올 듯도 하다. 그렇지만 형제의 윤리는 천하의 통용되는 공변된 이치이니, 천하에 어찌 윤리 밖의 사람이 있겠는가. 뒤에 후임으로 오는 수령은, 한 사람의 사적인 일이라 여기지 말고 이 형제의 윤리 한 단서를 말미암아 미루어 넓혀서 백성을 교화해야 한다. 그러면 합문을 닫고서 과오를 뉘우치지도 않고 눈물을 떨굴 필요도 없이, 저절로 고릉(高陵)이나 청하(淸河)의 백성[136]은 없어질 것이다. 이는 아마도 행정을 하는 근본에 거의 가까우리라 생각한다.

우리 아우의 이름은 송시도(宋時燾)이고 자는 성보(誠甫)요, 그 선

136 합문을……백성 : 좌풍익 한연수(韓延壽)가 고릉(高陵)을 순행할 때 형제간에 전지(田地)를 다투는 일이 있자 합문을 닫고 자신의 허물을 반성하여 교화시켰고, 남청하(南淸河) 태수 소경(蘇瓊)이 형제끼리 전지를 다투어 송사를 하자 눈물을 흘리며 설득하여 교화하였다.

조는 은진(恩津) 사람이다. 은진 송시열은 쓰다.

화산서원(華山書院)[137] 상량문(上梁文)

월주(月洲) 소두산(蘇斗山)

덕택을 입은 백성들이 지난 현인(賢人)을 사모하는 마음 간절하여 무성한 잡목 숲에 집을 지어 새로운 사당(祠堂)의 창립을 보게 되었으니, 스승 삼을 만한 곳에는 사당을 지어 제사를 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선생은 천년 이래 도학의 맥을 이어 한 시대 유학자의 으뜸이셨습니다. 염락(濂洛)의 연원(淵源)[138]에 거슬러 올라가시어 사람들이 향할 바를 알게 되었고, 추로(鄒魯)의 정학(正學)[139]을 창도하시어 선비들이 의귀할 곳이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께서는 여러 해 동안 안빈낙도(安貧樂道)하시며, 지나간 성현(聖賢)들을 계승하여 앞으로의 학자들을 개발해 주는 것을 당신의 임무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선생께서는 예(禮)를 알았다고 말할 수 있으니 율곡(栗谷) 이이(李珥)와 우계(牛溪) 성혼(成渾) 같은 현인에

---

137 화산서원(華山書院) : 현재 익산시 금마면 용순신기길 44-76에 소재하고 있는 사액서원(賜額書院)이다. 효종 8년(1657)에 창건하였고, 현종 3년(1662)에 사액을 받았다. 주벽으로 익산 군수를 역임한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을 모셨으며, 숙종 21년(1695)에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을 추가하여 모셨다. 당시에 원생 30명을 지닌 이 고장에서는 가장 큰 서원이었다.

138 염락(濂洛)의 연원(淵源) : '염(濂)'은 염계(濂溪) 주돈이(周敦頤), '락(洛)'은 낙양(洛陽) 출신의 정호(程顥)와 정이(程頤)로 북송 성리학의 발전에 영향이 컸던 학자들인데, 이들의 학문을 연원으로 삼았음을 말한다.

139 추로(鄒魯)의 정학(正學) : '추(鄒)'는 맹자(孟子)의 출생지이고, '노(魯)'는 공자(孔子)의 출생지인데, 유학(儒學)이 제자백가의 학문 가운데 올바른 학문이었다는 뜻이다.

게 배웠기 때문이고, 경서(經書)에 대한 담론을 그치지 아니하시어 문학(文學)을 자유(子游)와 자하(子夏)[140]보다도 뛰어나게 세우셨습니다.

선조(宣祖)의 지우(知遇)를 입자 현량(賢良)들을 천거하셨고, 익주(益州)[141]의 목민관으로 책임을 맡자 정사를 어질고 너그럽게 펼치셨습니다. 문옹(文翁)이 촉(蜀)을 다스렸던 것처럼 유학의 교화를 이룩하였고,[142] 창려(昌黎)가 조주(潮州)에서 자사로 있었던 때처럼 학문과 행실을 가르쳐 돈독히 하셨습니다.[143] 바야흐로 숙도(叔度)가 부임한 것이 늦었다고 노래를 불렀는데,[144] 하무(何武)가 떠나자 그리워하는 것을 문득 보게 되었습니다.[145] 무성(武城)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

---

140 자유(子游)와 자하(子夏) : 공자(孔子)의 제자 가운데 뛰어났던 이들로 문학(文學)에 뛰어나 열 명의 현인[十哲]에 끼었다.

141 익주(益州) : 익산의 고려 시대 명칭이다. 《금마지(金馬志)》 상권 설치 연혁[建置沿革] 조항에, 충혜왕(忠惠王) 복위 5년(1344)에 원나라 순제(順帝)의 황후 기씨(奇氏)의 외가 고을이라는 이유로 승격시켜 익주라 하였다는 내용이 보인다.

142 문옹(文翁)이……이룩하였고 : 문옹(기원전 179~기원전 101)은 이름이 당(黨), 자가 중옹(仲翁)으로 서한(西漢) 경제(景帝) 때에 촉군 태수(蜀郡太守)로 나가서 교화를 펼치고 학교를 일으켜 문풍(文風)을 크게 떨쳤다. 무제(武帝) 때 온 천하에 학교를 설립한 것은 문옹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한다.

143 창려(昌黎)가……하셨습니다 : 창려는 당나라의 문학가이자 사상가인 한유(韓愈)의 호인데, 조주 자사(潮州刺史)로 좌천된 적이 있다. 소식(蘇軾)의 〈조주한문공묘비(潮州韓文公廟碑)〉에 조주(潮州) 사람들이 학문을 몰랐는데 한유가 조주 자사가 되어 조덕(趙德)을 시켜 가르치게 하니 선비들의 문행(文行)이 독실해졌다는 내용이 있다.

144 숙도(叔度)가……불렀는데 : 숙도는 황헌(黃憲)의 자인데, 어려서부터 뛰어난 자질이 널리 알려져 같은 고을의 진번(陳蕃)과 주거(周擧)는 늘 "두어 달만 황생을 보지 못하면 마음속에 비루한 생각이 다시 싹터 버린다.[時月之間不見黃生, 則鄙吝之萌復存乎心.]"라고 하였다.

145 하무(何武)가……되었습니다 : 한 성제(漢成帝) 때 사람으로 자는 군공(君公)이다. 양주 자사(揚州刺史) 등을 역임하면서 선정을 많이 베풀었다. 《한서(漢書)》 권86

하는 것[146]이 오늘까지 이르고, 하분(河汾)에서 학문을 익히는 것[147]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혼탁한 조정[148]은 정치가 어지러웠으니 어찌 걸(傑)과 같은 폭군에게 나아갈 마음이 있으셨겠습니까. 신야(莘野)[149]에서 몸소 밭 갈면서 요(堯) 임금을 좋아하는 길만을 아셨습니다. 행장용사(行藏用舍)[150]를 의리에 적합하게 하였고, 얻고 잃고 막히고 출세하고[得喪窮達]를 하늘에 맡기셨습니다. 인조(仁祖)가 왕이 되어 중흥의 국운이 열렸는데, 대로(大老)였던 선생을 수레로 모셔 아경(亞卿)[151]에 발탁하였습니다.

삼대(三代)의 융성한 정치[152]를 바야흐로 기약할 수 있었는데, 어찌

하무전(何武傳)에 "그가 있는 곳에 혁혁한 명성은 없었지만, 그가 떠나간 뒤에는 항상 백성들의 사모함을 받았다.[其所居亦無赫赫名, 去後常見思.]" 하였다.

146 무성(武城)에서……것 : 공자(孔子)의 제자 자유(子游)가 무성의 수령이 되어 예악(禮樂)으로 고을을 다스렸는데, 공자가 "닭을 잡는 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겠는가." 라고 농담을 한 일이 있다.

147 하분(河汾)에서……것 : 하분은 중국의 하수(河水)와 분수(汾水)를 가리키는데, 수(隋)나라 유학자 왕통(王通)이 이 지역으로 돌아와 제자를 가르쳐 설수(薛收)와 방교(房喬), 이정(李靖), 위징(魏徵), 방현령(房玄齡) 등 1천 명이나 되는 제자를 길렀으며 《중설(中說)》 10권을 남겼다.

148 혼탁한 조정 : 여기서는 광해군(光海君)이 다스리던 조정을 가리킨다.

149 신야(莘野) : 유신국(有莘國)의 들판으로, 이윤(伊尹)이 이곳에서 농사짓다가 탕왕(湯王)의 초빙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 상(商)나라를 일으켰다.

150 행장용사(行藏用舍) : 진퇴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논어(論語)》에서 공자(孔子)가 안연(顔淵)에게 "세상이 써 주면 도(道)를 행하고 세상이 버리면 은둔하는 것을 오직 나와 너만이 할 수가 있다.[子謂顔淵曰, 用之則行. 舍之則藏, 惟我與爾有是夫.]"라고 하였다.

151 아경(亞卿) : 일반적으로 아경은 참판을, 정경(正卿)은 판서를 가리킨다.

152 삼대(三代)의 융성한 정치 : 중국 하(夏), 은(殷), 주(周)의 세 시대의 정치를 이상적인 태평성대로 여겼다.

그리도 급하게 두 기둥 사이에서 제사상을 받는 꿈을 꾸셨습니까.[153] 문하생들이 죽을 때까지 슬픔을 머금은 것은 공자 70제자의 지극한 심정이었고, 고을 백성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잊지 못한 것은 4, 5기(紀)[154]가 되어도 더욱 새로웠습니다. 다만 전쟁과 기근이 서로 이어졌기 때문에 선현(先賢)의 제사를 밝게 거행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남향(南鄕)은 은혜와 사랑을 더할 곳이 있어 군자들이 덕을 그리워하는데, 북암(北巖)은 향을 사를 곳이 없어서 고로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155] 이에 마땅한 터를 잡아 닦고 길한 산의 그림자를 택한 곳이 정해졌습니다. 신이 다니는 길은 청정함을 숭상해서인지 숨겨져 있던 유명한 이곳을 얻게 되었고, 유림(儒林)들은 다른 문으로 가지 않아서인지 호혜의 동지로서 노력하였습니다.

우뚝한 소나무와 잣나무를 벌목하여 운반하느라 땀을 흘리는 소가 천 마리였고, 높고 깊숙한 건물이 완성되자 꿩이 두 날개를 편 듯하옵니다. 재주 있는 목수들이 묘한 기술을 끝까지 발휘하여 이에 풍우가 들이치지 않은 집을 보게 되었고, 높은 하늘에 기둥을 세우고 들보를 올리니 벌써 제비와 참새들이 날아와 축하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를 시작함에 서두르지 말라 했건만 처음부터 백성들이 자식처럼 몰려들었

---

153 두 기둥……꾸셨습니까 : 《예기(禮記)》에서 공자(孔子)가 "내가 지난밤 꿈에 두 기둥 사이 마루에 앉아서 궤전(饋奠)을 받았다.……나는 아마 죽을 것이다.[予疇昔之夜, 夢坐奠於兩楹之間.……予殆將死也.]"라고 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운명하였다.

154 4, 5기(紀) : 1기는 목성(木星)의 공전 주기인 12년을 가리킨다.

155 남향(南鄕)은……있습니다 : 남향과 북암(北巖)이 어느 곳을 말하는지 알 수 없어, 이곳 내용은 미상이다.

고, 계획을 물음에 모두가 동의하여 마침내 사림(士林)들이 메아리처럼 호응하였습니다.

어질다는 명성이 저와 같이 오래 지속되었는데, 높고 편안한 서원(書院)이 이제야 지어지고 있습니다. 널찍한 면적의 사당에서는 아, 천년 동안 제사가 지속될 것입니다. 세상에 행해지는 한 책[156]의 모범적인 내용은 자양서실(紫陽書室)[157]의 주자(朱子)가 제정한 예문(禮文)을 본받은 것이었고, 시렁에 올려 있는 일만 권의 책은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에 간직된 장서에 비견되옵니다. 이곳을 지나는 자가 반드시 절을 하는 것은 선생의 토방을 오르내리는 모습을 완연히 대하는 듯해서이고, 바라봄에 앞에 계시듯 느껴져 선생의 기침 소리[聲咳]를 받드는 날[158]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창평(昌平)[159]처럼 가시나무가 자라지 못하며 궐리(闕里)[160]처럼 예악을 부흥시킬 수 있을 것이니, 사라지지 않은 문화가 여기에 있으며 실추되지 아니한 우리 도(道)가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익산향교(益山鄕校)의 공자님 사당이 건립된 뒤에 더불어 시종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고, 《금마선생안(金馬先生案)》[161]을 볼 때의 감회는 선생이 계시

---

156 한 책 : 김장생(金長生)의 대표적 저술인 《가례집람(家禮輯覽)》을 가리킨다.

157 자양서실(紫陽書室) : '자양(紫陽)'은 원래 안휘성(安徽省) 흡현(歙縣)에 있는 산 이름이다. 주희의 아버지 주송(朱松)이 그곳에서 글을 읽었는데, 주희가 복건성(福建省) 숭안현(崇安縣) 담계(潭溪) 가에 있을 때 아버지의 그 일을 잊지 않기 위해 거처하는 집을 자양서실이라 이름하였고, 이로 인해 그의 별칭이 되었다.

158 기침……날 : 직접 윗사람을 만나 보는 날을 가리킨다.

159 창평(昌平) : 춘추 시대 노(魯)나라 창평현(昌平縣)으로, 공자가 태어난 곳이다.

160 궐리(闕里) : 산동성(山東省) 곡부현(曲阜縣)에 있는 공자의 구리(舊里)로, 공자가 이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다.

나 안 계시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선생에 대하여 무엇을 기술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을 모시고 직접 배우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따름입니다. 백대가 지난 후세에 선생에 대한 풍문을 듣는 것은 다행스럽게도 장엄하게 만들어 놓은 이 서원이 제자리를 얻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짧은 칭송의 글이나마 올려 들보를 올리는 행사를 돕고자 합니다.

여보게들,[162] 들보 동쪽에 떡 하나 던지게나, 마이산(馬耳山) 산줄기 이곳으로 방향을 돌렸네. 맑은 기운 정령 모아 길사(吉士)가 많으니, 모자 쓴 어린아이들 무우(舞雩)의 풍도[163]를 배우고자 한다네.

여보게들, 들보 서쪽에 떡 하나 던지게나, 일만 골짜기 다투어 달리고 뭇 새들이 낮게 나네. 고려 말엽 문충공(文忠公) 이공수(李公遂)의 사당[164]이 있는데, 시대를 밝히신 사표(師表)로 또한 사계

---

161 금마선생안(金馬先生案) : 익산 역대 군수들에 대하여 그 이임과 부임의 연월을 기록한 책이다.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162 여보게들 : 원문의 '아랑위(兒郞偉)'는 젊은 사람을 뜻하는 아랑(兒郞)의 복수형으로, 상량문에서 도목수(都木手)가 장인(匠人)들을 통틀어 부를 때 상투적으로 쓰는 표현이다. 일설에는 대들보를 올릴 때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어영차' 하는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라고도 한다.

163 무우(舞雩)의 풍도 : 도(道)를 즐기며 벼슬을 구하지 않는 기풍을 가리킨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말해 보라고 하자, 증점(曾點)은 "모춘에 봄옷이 이루어지거든 관자 대여섯 사람과 동자 예닐곱 사람과 함께 기수(沂水)에 목욕하고 무우에서 바람을 쐬고 시를 읊으면서 돌아오겠다."라고 대답하였다.

164 이공수(李公遂)의 사당 : 화암서원(花巖書院)을 가리킨다. 이공수는 익산 이씨로 공민왕 때 익산부원군에 봉해졌는데, 문장으로 일국에 명성을 떨쳤으며 유학 진흥에

(沙溪) 선생이 계셨다네.

여보게들, 들보 남쪽에 떡 하나 던지게나, 춘포(春浦)의 횡탄(橫灘)은 마전한 베 자락이 잠겨 있는 듯하네. 제사하는 사당이 자리 잡은 이곳은 매우 청결한 땅인데, 익산(益山)은 연산(連山) 황산(黃山)과 세 산[165]이 되었네.

여보게들, 들보 북쪽에 떡 하나 던지게나, 우뚝 서 있는 산봉우리 눈썹 먹을 칠한 색이라네. 산자락의 소나무는 소공(召公)이 심은 아가위나무[166]와 같으니, 베지 말아 끼쳐 준 덕을 길이 노래하도록 하세.

여보게들, 들보 위쪽에 떡 하나 던지게나, 하늘과의 거리 겨우 다섯 자여서 별도 만지겠네. 하늘의 도움으로 부지되어 있는 미륵석탑처럼 우뚝하신데, 봄바람 같은 기상이 남아 있는 듯하네.

여보게들, 들보 아래쪽에 떡 하나 던지게나, 대문 앞에는 아득한 들녘이 내려다보이네. 도를 체득한 위대한 현인의 공을 알고자 하면, 쉬지 않고 흘러가는 강물을 간취하게나.

공이 컸기 때문에 광해군 때 화암서원에 향사되었다.

165 세 산 : 익산(益山)의 화산서원(華山書院), 충남 논산시 연산(連山)에 있는 돈암서원(遯巖書院), 그리고 강경의 처음에는 지명을 따라 황산서원(黃山書院)으로 불리다가 후에 죽림서원(竹林書院)이 된 세 서원이 있는 지명으로, 이 서원들은 모두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을 주벽으로 모시고 있기에 이같이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166 소공(召公)이 심은 아가위나무 : 소공은 주(周)나라 성왕(成王) 때 주공(周公)과 함께 삼공이 되어 섬서(陝西) 지역에 인정(仁政)을 펼쳤는데, 백성들은 그가 쉬었던 아가위나무를 베지 않고 기념했다.

엎드려 원하옵건대, 상량한 뒤에는 단사표음(簞食瓢飮)하는 안자(顔子)가 마을에 살고,[167] 비파를 타는 중유(仲由)가 마루에 오르도록 하소서.[168] 책을 부지런히 읽어 옛 전적의 깊은 뜻을 힘써 익히고, 많은 유생들이 제사의 성대한 의식을 공경히 받들도록 해 주소서.

---

167 단사표음(簞食瓢飮)하는……살고 : 단사표음은 대그릇의 밥과 표주박의 물이라는 뜻으로, 안빈낙도(安貧樂道)를 뜻한다. 공자가 일찍이 제자였던 안연(顔淵)을 칭찬하여 "어질다, 안회여! 한 그릇의 밥과 한 바가지 물을 마시며 누추한 시골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그 근심을 견디지 못하는데, 안회는 그 속에서도 항상 도를 즐기니, 어질다, 안회여!"라고 하였다.

168 비파를……하소서 : 중유(仲由)는 공자의 제자인 자로(子路)의 이름이다. 《논어(論語)》에 "공자가 '중유는 어찌 나의 문에서 비파를 타는고?' 하니, 문인이 자로를 공경하지 않았다. 공자는 '중유의 학문은 마루에 올랐으나 아직 방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였다."라는 내용이 보인다. '마루에 올랐다[升堂]'는 말은 학문이 정대하고 고명한 경지에 나아갔다는 뜻이다. 익산에 안회처럼 안빈낙도하고 자로처럼 학문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많은 인재가 배출되기를 기원하는 내용이다.

금마지 발문 金馬志跋文

위의 《금마지(金馬志)》는 2권이다. 금마(金馬)는 곧 익산(益山)의 다른 이름이다. 고을 이름에 다른 이름이 있는 것은 오래된 일이지만, 그중에서 금마가 가장 오래되었다. 본래 후조선(後朝鮮) 기준(箕準)이 도읍한 곳이었으며, 그 뒤 안승(安勝)과 대문(大文)이 연이어서 점거하였으니, 이곳은 진실로 호서(湖西)와 호남(湖南) 두 지역에서는 하나의 큰 도회지이다. 오늘날에 와서도 산천은 바뀌지 않고 성곽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천년을 내려오며 전해지는 풍속은 여전히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사적(事蹟)을 돌아보면 모호하여 일컬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것은 어찌 한 지역의 문헌(文獻)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일찍이 들으니, 옛사람들은 읍지(邑誌)를 편찬할 때 비록 실개천이나 개미둑과 같은 사소한 것이라도 반드시 찾아서 기록했다고 한다. 이제 소경정(蘇景鼎)[169]과 김집(金濈)[170] 등 고을 선비들이 지은 《익산지(益山誌)》를 보면, 《여지승람(輿地勝覽)》과 《고사촬요(攷事撮要)》의 예에 다만 의거하여 간단히 생략하면서 모두 기록하지 않은 것이 많다. 이에 옛 읍지에다가 새로 들은 것을 보태었고, 우리 역사책에

---

169 소경정(蘇景鼎) : 《진주소씨족보》에 의하면, 부는 이건(爾建)이며, 자는 우경(禹卿)이다. 인조 19년(1641)에 태어나 숙종 30년(1704)까지 살았던 것으로 전한다.

170 김집(金濈) : 행적은 미상이다. 다만 소두산(蘇斗山)이 사망했을 때 지었던 그의 만사(輓詞)가 《월주집(月洲集)》에 수록되어 있다.

대략이라도 보이는 고사(故事)와 인구에 회자되어 읊어지고 있는 옛 사람들의 시문(詩文)을 책의 끝에 함께 붙여 속편(續編) 1편을 완성하였다. 이 책은 오래된 사실[古實]들을 아울러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 붙이기를 《금마지》라고 하였다. 세상의 유람을 다니며 옛것을 좋아하는 인사들은 어쩌면 이 책의 내용을 읽고 신뢰할 만하다고 여길 것이다.

숭정(崇禎) 기원후(紀元後) 129년 병자(1756, 영조32)에 의령(宜寧) 남태보(南泰普)는 기록한다.

추가로 기록한 내용 追錄

금마군 객사 벽 위에 적다[題金馬郡壁上]

병자년 6월 저헌(樗軒) 이석형(李石亨)[171]

순(舜) 임금 때 두 여인의 반죽(斑竹)[172]	虞時二女竹
진나라 때 대부에 봉해진 소나무[173]	秦日大夫松
비록 슬픔과 영광의 차이가 있었지만	縱有哀榮異
어찌 싫어하고 좋아하는 표정을 지었겠는가[174]	寧爲冷熱容

---

171 이석형(李石亨) : 1415~1477.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백옥(伯玉), 호는 저헌(樗軒)이다.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14년 동안 집현전 학사로 재임하면서 《치평요람(治平要覽)》, 《고려사(高麗史)》 등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세조 때에는 사서(四書)의 구결(口訣) 작업에 참여해 《논어(論語)》의 구결을 주관하였다. 저서로는 《대학연의집략(大學衍義輯略)』 21권과 《저헌집(樗軒集)》이 있다. 저헌(樗軒)은 임진왜란 때 익산에서 의병을 일으켜 순절한 이보(李寶)의 5대조가 된다. 현재도 그의 후손들이 익산시 팔봉면 은기리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172 순(舜) 임금……반죽(斑竹) : 요(堯) 임금의 두 딸로 순 임금의 왕비가 된 아황과 여영이 순 임금 사후에 상강에서 슬피 울다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 이때 흘린 눈물방울이 대나무에 얼룩져서 소상 반죽(瀟湘斑竹)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173 진(秦)나라……소나무 : 진 시황(秦始皇)이 태산에 올라가 봉선(封禪)의 제사를 올리고 나서, 홀연히 폭풍우를 만나자 소나무 아래로 피했는데, 그 소나무가 공을 세웠다고 하여 오대부(五大夫)의 작위를 내려 봉했다는 대부송(大夫松)의 고사가 전한다.

174 어찌……지었겠는가 : 대나무와 소나무는 인간이 끼쳐 준 슬픔과 영광을 그저 담담히 받아들였던 것처럼, 저헌 이석형 선생도 당시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여 그들과 함께 했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보인다.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뜻을 노골적이지 않고 함축적으로 표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위의 시를 차운하고 서문을 붙이다[次 幷序]

숭정(崇禎) 재기해(再己亥 1719 숙종45) 중춘(仲春) 상완(上浣)

관찰사(觀察使) 홍석보(洪錫輔)[175]

"순 임금 때 두 여인의 반죽/ 진나라 때 대부에 봉해진 소나무/ 비록 슬픔과 영광의 차이가 있었지만/ 어찌 싫어하고 좋아하는 표정을 지었겠는가[虞時二女竹, 秦日大夫松. 縱有哀榮異, 寧爲冷熱容.]"라고 한 위의 시는 저헌(樗軒) 이석형(李石亨) 선생의 시이다. 선생은 세종(世宗) 때 삼장장원(三場壯元)[176]을 하여 성삼문(成三問), 박팽년(朴彭年) 등 여러 학사들과 같이 명성을 날렸다. 세조 병자년(1456, 세조2) 6월 육신(六臣)의 옥사(獄事)가 일어났을 때 선생은 바야흐로 본도의 관찰사였는데, 상복(喪服)을 겨우 벗자마자 바로 외직에 임명된 것이었기 때문에 홀로 연루되지 않았다. 같은 달 27일에 순행하다 본 고을에 이르러 여러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 시를 지었던 것이다. 이때 대간(臺諫)이 선생을 국문하자고 청하였는데, 세조는 이 시를 읽어 보고 "시인의 표현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겠다. 어찌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말하여, 드디어 그만두었다. 그 당시에는 시가 건물

---

175 홍석보(洪錫輔) : 1672~1729.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양신(良臣), 호는 수은(睡隱)이다. 1706년(숙종32)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이조 참의, 대사성, 대사헌 등을 역임하였고, 전라우도감진어사 때에는 영남의 곡식 4만여 섬을 운반해 멀리 제주 사람들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다. 좌찬성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경(忠敬)이다.

176 삼장장원(三場壯元) : 과거에 응시하여 초시(初試), 복시(覆試), 전시(殿試) 세 차례 시험장에서 매번 가장 좋은 성적으로 합격한 사람을 이르던 말이다.

벽에 걸려 있었으나, 지금은 병화(兵火)로 소실되었다. 못난 내가 선생의 외손(外孫)으로서 외람되게도 관찰사의 직임을 맡고 있는데, 옛 사적이 사라진 것이 매우 개탄스러워 직접 써서 판에 새겨 놓고자 하였다. 삼가 원 작품의 운자를 따라서 아래와 같이 짓는다.

늠름한 사육신의 절개 凜凜六臣節
푸릇푸릇한 만길의 소나무! 蒼蒼萬丈松
칩룡으로 잠겨 있기를 지극히 했지만 蟄龍潛雖極
마침내 성스런 조정의 면모를 보게 되었네[177] 終見聖朝容

177 마침내……되었네 : 사육신이 난신(亂臣)이라는 죄명을 입은 채 지하에서 오랜 세월 동안 누워 있었지만, 1691년(숙종17) 마침내 신원되어 사당에 제사하기 시작하였음을 표현한 내용으로 이해한다.

원문

原文

金馬志　上卷

邑號

金馬，益州，益山。

建置沿革

本馬韓國。後朝鮮 世稱檀君爲前朝鮮，箕子爲後朝鮮。王箕準，箕子四十一代孫也。避衛滿之亂，浮海而南，至韓地開國，仍號馬韓。至百濟始祖溫祚王幷之，自後號金馬渚。新羅神文王改金馬郡，至高麗屬全州，忠惠王後五年，以元順帝皇后奇氏外鄉陞爲益州。本朝太宗十三年，例改今名爲郡。《輿地勝覽》。

疆域

東自礪山界，西至咸悅界；北自礪山界，南至全州界。

程途

東至礪山界十里，距礪山府治二十里；南至全州界二十五里，距全州府治五十里；東南至全州界十五里，西南至金堤界三十里，距[1]金堤郡治七十里；西至咸悅界二十里，臨陂界二十里，距[2]咸悅臨陂縣治四十里；北至礪山界十里，西北至龍安界二十里，距

1 距 : 《익산문화》 2집에 수록된 영인본(이하 '영인본'으로 약칭함)에는 누락되었는데,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필사본(이하 '필사본'으로 약칭함)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2 距 : 영인본에는 누락되었는데, 필사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龍安縣治四十里；距京都四百六十八里。五日程十五息十八里。

官員

郡守，一員。○ 自堂下從四品，至正三品，文、南、武交差，瓜限六十朔。訓導。一員。今廢。

鎭管兼帶

全州鎭管兵馬同僉節制使 全州，卽四長官之一，故本郡爲全州屬邑，而兵馬則屬後營礪山鎭。兼禁衛營把捻， 兼帶之任，未知自何年始也。新官辭朝日[3]，自本營成送傳令須知。右道諸邑禁衛軍，每式年，屬邑送雜頉成冊，則成都案，置于本郡，一有徵發，兼把捻領付本營。每年春秋，有巡點之事，而今廢。元定兼官。全州府。

把營

礪山後營。營屬三部六司，左部臨陂，同部左司臨陂，右司沃溝；右部錦山，同部左司高山，右司錦山；中部礪山，同部左司咸悅，右司礪山。本部隸中部右司左中兩哨。本郡束伍，三百四十六名內二百五十二名，分隸中部右司左中兩哨；餘軍九十四名內五十五名，合于高山右哨；三十九名合于礪山前哨。馬軍四十九名隸于右列。

---

3 辭朝日：영인본에는 '辭期朝日'로 되어 있으나, 필사본에 의거하여 '期' 자를 삭제하였다.

姓氏

金，韓，宋，李，黃，林，仇。并本郡。出《地志》。李，仇，金。并黑石。出《地志》。

風俗

生民厖朴，朴礎詩：“生民厖朴馬韓風。”俗朴人魯。蘇世讓記：“俗朴而人魯，有故都遺風。”○世稱湖南風俗多巧詐，而本邑風俗反是，敦朴而魯鈍，無機巧之習。陽谷生長此邑，習知土俗故云。居處作土宇，其戶向上。俗不重錦罽，而貴瓔珠，用以飾髮垂耳。男子衣帛袍，履草蹻，性勇悍，讙呼力作。史氏記馬韓俗如此。卽今外村居民，往往築土室，上其戶，雨則以席掩戶。婦女服素衣裳，而或有着染裳者，則人皆譏笑，視之若娼妓如，有尙白遺風，其不重錦罽，可知也。少女皆穿耳輪爲孔，絓以絲繩，若將結珥瑠然。士人着道袍，而躡藁鞋。凡於力作農作，人皆群噪，勇爲最。以勤力見稱於他邑。故都風俗，歷千載而猶有彷彿焉。

氣候

邑在兩湖 湖南湖西。之間，而風氣與嶺下 蘆嶺以南。絶異，夏不甚熱，冬亦苦寒。四時南風連吹，冬月多南風，則驗嗣歲豊熟。○地接海門，汚下卑濕，居人善病，痎、癘、水腫之症居多。

形勝

金華山峙于北，都順山在于東，南有三川，參禮驛前川。橫拖如帶，流入于春浦之西，與海港相接。中鋪以方八十里曠野，林邊詩所謂"西南坼處荒郊闊"，是也。○ 湖白山蒼。徐居正詩云："南湖白白益山蒼"。○ 使星往來分二路，一由礪山，一由咸悅，而時或並出於本郡路。

山川

乾子山，在郡北一里。龍華山一支東馳，又折而南，爲郡之鎭山，一云乾支山。○ 一名馬耳山，或云馬耳峯，山盡竦立處，結爲雙峯，尖頭如馬耳故云。○ 一名濟山，山過峽復聳處，若墊沒而極出之狀，故得名以此。龍華山，文殊山一支西馳，而又南，爲此山，在郡北八里，一名彌勒山。將軍峯，在龍華山西山之最高處。都順山，文殊山一支南馳[4]，又折而西，爲此山，俗稱施茶山，在郡東五里帝石面。五金山，世傳薯童大王一云麻婆孫，事母至孝，掘薯蕷得五金，山名以此。龍華山一支折而西，爲此山，在郡西三里。唐山，五金山一支西馳五里，爲此山，在郡西八里豆川面，產三栗，詳見果木。八峯山，唐山西轉五里，爲此山，山有[5]八峯故云。道川，自龍華山發源，抱郡居而南，與扶桑川合于豆村面新方橋，入于春浦面橫灘下流。扶桑川，在郡東五里，自龍華山東麓發源，與道川會于新方橋，入于橫灘下流。宮坪川，在郡南十里，自全州北固山發源，入于橫灘下流。

---

4 南馳：영인본에는 '馳南'으로 되어 있으나, 필사본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5 山有：영인본에는 '山上有'로 되어 있으나, 필사본에 의거하여 '上' 자를 삭제하였다.

綿川，在郡西二十里，自龍華山西北麓發源，經彌勒、巳梯、九文川、栗村四面，會于支石面蓮田坪，入于全州新倉津。豆川，在郡西十里，自龍華山西麓發源，經彌勒、豆川、支石三面，會于蓮田坪。上矢淵，在郡西十七里，俗稱藩池，有上下池，幾廢。出《勝覽》。橫灘，在郡西南三十里春浦面沙川村前三川之下流，海潮至此，商船來泊。猪子門淵，在郡南二十里春浦面佛堂里前，積水成潴。長淵。在郡西南二十里春浦面，全州紆西洑水流入爲淵，長十里，滿池盡是芙蕖，見比錢塘，且產菱芡。冬月[6]鴻雁鵁鴨來集。○ 四隱蘇永福〈家狀〉云：“光海時荐歲亢旱，全北益南大野荒滌，居民四散。公建議穿渠四十餘里，躬莅董役，經畫周詳，三年而後成，瀹江注野，民享[7]其利。

佳境

黃閣洞，在郡北七里，水石頗奇。石門，在獅子菴西邊，雙門對峙，其間僅容一人出入。陽村臺，在郡西十五里夢串里村後小丘，環以竹林，野望四十里。權陽村謫本郡時，築亭于此，以爲遊憩之所，今則亭毁，以臺稱焉。石窟，在獅子菴前，多藏小銅佛。上元窟，在上元寺洞口，其深不可測，傍有兩層岩瀑，鳴聲琮琤，頗有佳趣。迎春臺，在退休堂東偏。送春臺。在馬耳山腰，與迎春臺相對，竝蘇陽谷命名。

---

6 冬月 : 영인본에는 ‘冬月爲’로 되어 있으나, 필사본에 의거하여 ‘爲’ 자를 삭제하였다.
7 享 : 영인본에는 ‘亨’으로 되어 있으나, 필사본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奇觀

上臺，卽將軍峯，俯瞰蒼海落照。兜巖，在將軍峯之南，石形如兜故云。燈盞巖。在萬方菴之東四十步，石上有窪[8]云。

土產

竹，鯽魚，薑，竝出《地志》。今人不種薑。鐵，[9] 烏磁器，楮，麻，漆，鵝，天鵝，白魚，秀魚，鯉魚，蟹。

果木

梨，栗，產唐山。俗傳一歲三實，移栽他處則否，一樹三巡生華，次次結實，故謂之三栗。棗，柰，柹，早紅，石榴，木苽，胡桃，葡萄，菱仁。

花木

梧桐，枳，梅，紅碧桃，三色桃，牧丹，月季，四季，荷花，杜沖，百日紅。

泉井

寒井，在郡衙東偏百步，冬溫夏冷，可療水土疾。王宮井，在郡南五里舊宮墟，

---

8 窪 : 영인본에는 '窒'로 되어 있으나, 필사본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9 鐵 : 영인본에는 누락되었는데, 필사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今堙。冷井，一在水柏菴北偏，沐浴則癒頭風；一在豆村面倉坪上，沐則癒頭風眼疾。雩壇井。俗稱龍湫，在明寂菴東三里。

藥材

半夏，麥門冬，木苽，天門冬，澤瀉，赤、白芍藥，枳實，蓮實，菱仁，甘菊，白扁[10]豆，地骨皮，雀舌，兎絲子。

掌面

春浦，郡西南，近則二十里，遠則三十里。帝石，郡東南，近則十里，遠則十五里。豆村，郡南，近則十里，遠則十五里。豆川，郡西，近則五里，遠則十五里。支石，郡西，近則十里，遠則十五里。栗村，郡西，近則十五里，遠則二十里。巳梯，郡西北，近則十里，遠則十五里。一云龍梯。九文川，郡西北，近則十里，遠則二十里。彌勒，郡北，近則三里，遠則十里。郡內。

館舍

衙舍，舊在乾支山稍西八十步許。顯宗庚戌，郡守宋時燾移建于今基；肅宗己卯年間，郡守鄭重基重修。舍凡四十七間半。東軒，八間，附屋四間，凡十二間。庫舍、門屋，合二十一間。公須，在郡衙南，舍五間。客館。在郡衙北偏子坐午向。舊館不知何代所創，而正德甲戌，東軒燬于火，郡守朴巨鱗重建。嘉靖丙辰，東軒又燬于火，郡守李仁賢重建。舊無西軒，顯宗戊申，郡守宋時燾新創。當宁甲

10 扁 : 영인본에는 '片'으로 되어 있으나, 필사본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戌，甓大廳及西軒，竝燬于火，東軒一半亦燬，翌年乙亥，郡守南泰普重建。

各廳

鄉廳，在郡衙北偏一里。軍官廳，在郡衙南墻外，丙子重建。軍廳，在客館西墻外，束伍將官所居。選武廳，附于軍官廳。郡司，在郡衙南偏。軍器廳，在客館北墻外，丙子重修。刑獄，在郡衙南偏。作廳，在郡衙南墻外。通引廳，附工房庫。羅將廳，附于三門。馬房。在客館西偏，丙子重建。

亭榭

壎篪堂，在東軒東偏澄碧池上。清心樓，在客館東，今毁。太虛亭，在郡西二里山腰，陽谷蘇世讓始創，有眺望之勝，今廢。額板，華使朱之蕃追書，而藏在族孫家云。自娛亭，蘇陽谷創，在窺見堤東岸，今毁。退休堂。在太虛亭下稍東竹林裏，陽谷蘇世讓退老，始名扁。其後外孫重新焉。

學校

鄉校，在郡東二里乾子山東麓下。華山書院，沙溪金文元公主享，孝宗朝甲午創建，顯宗朝壬寅賜額。尤菴宋文正公配享，肅宗朝乙亥追配。華巖書院，南村李公遂主享，萬曆壬子進士蘇永福創建。困菴蘇世良、陽谷蘇世讓、鐏巖李若海，幷天啓癸亥追配。眠窩蘇東道，肅宗己亥追配。司馬所，在郡西一里，癸酉圮于水。興學堂，在郡北八里，今毁。勸學齋，在郡北一里，今毁。觀善堂。在郡北七里，士人白尙馨倡建。

祠廟

社稷壇，在郡西二里猪城。社稷祠，在客館北，奉安位板。乙亥重修。文廟，在鄕校。城隍祠，在社稷祠傍，奉安位板兼安無[11]祀鬼神位板。乙亥重修。厲壇，在郡北三里窺見坪。祈雨壇。一在獅子菴東絶頂上，一在都順山上。

院宇

黑石院，在郡南二十里黑石部曲，今廢。蛇橋院。在郡西十九里巳梯面，今廢。

寺刹

彌勒寺，在龍華山西麓下。世傳武康王旣得人心，立國馬韓。一日王[12]與善花夫人欲幸獅子寺，至山下大池邊，三彌勒出見池中。夫人謂王曰：“願建伽藍於此地。”王許之。詣知命法師，問塡池術，師以神力一夜推山塡池，創佛殿，又作三彌勒像。新羅眞平王遣百工助之云。謹按眞平王乃新羅末葉，是時馬韓已亡，安有所謂馬韓武康王。且塡池創寺之說，極涉不經。旣載《地志》，故姑存之。○《東史》云:“新羅聖德王十八年唐開元七年秋九月震金馬郡彌勤寺。”上院寺，在龍華山東麓下。南殿，在上院寺東四十步許，今毁。都順寺，在都順山，今毁。東山寺，在龍華山東麓炭谷蘇氏齋宮。獅子菴，在龍華山絶頂。僧徒傳言箕準師知命法師爲創斯菴。箕準之世佛法未及來，其說未免荒誕。左右巖壁有鑿破痕，認是

---

11 無：영인본에는 누락되었는데, 필사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12 一日王：영인본에는 ‘王一日’로 되어 있으나, 필사본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創寺時鑿開也。眼界無垠，稱勝地。竹寺，在獅子菴西隔岡百步，今毁。水柏菴，在竹寺北百餘步，今毁。萬房菴，在獅子菴南二百步，今毁。靈穴寺，在水柏菴西北一里，一名串寺。明寂菴，在獅子菴二百步，今毁。天定菴，在明寂菴東一里石角上，僧雪淨[13]始創，今毁。五金寺，在報德城南，世傳薯童大王事母至孝，爲母掘薯蕷，忽得五金。後爲王，卽其地創寺，因以五金名焉。今廢。隱仙菴[14]。五金寺遺址創菴，少其制焉。

橋梁

上漢橋，在郡西百步，駕道川。下漢橋，在郡五里南亭子。草三坪橋，在郡南十里豆村面，橫木爲橋，駕扶桑川下流大路。立石橋，在郡南十五里春浦面全州大路，駕宮坪川。文宗橋，在郡南十五里。長淵橋，在郡南二十里。俱在春浦面。新防橋，在郡南二十里豆村面野路，駕道川下流，用板爲橋。板橋，在郡北七里龜龍里龍安咸悅大路，駕豆川上流。磻溪橋，在郡西十里支石面五相里前[15]，駕豆川下流。院橋，在郡西十五里巳梯面上里，駕緜川上流咸悅大路。鉅橋，在郡西七里支石面內豆川里，駕豆川臨陂大路。緜川橋。在郡西二十里栗村面，駕緜川臨陂大路。

---

13 僧雪淨：영인본에는 '淨' 자가 누락되었는데, 필사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14 菴：영인본에는 '寺' 자로 되어 있으나, 필사본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15 前：영인본에는 누락되었는데, 필사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古蹟

黑石部曲, 在郡南十五里, 今廢。箕準城, 在龍華山絶頂之北, 世傳箕準所築, 故名焉。石築至今宛然, 周三千九百尺, 高八尺, 城內有井有溪, 水門植以鐵箭, 至今不朽。村人入城採樵, 往往拾得故物焉。報德城, 在郡西一里, 遺址僅存。世傳新羅文武王封高句麗外孫安勝爲報德王, 以兄女妻之, 處之金馬渚。後徵還, 其族子大文留金馬渚, 謀反伏誅, 餘衆殺官吏又叛, 新羅王命將討誅之。詳見故事。宮坪, 在郡東七里帝石面利仁里。都順山一支西南爲鷹峯, 峯下有造山, 高一丈, 俗稱獨山, 或稱鍾閣遺址。山下有宮墟, 世傳馬韓時內宮, 至今階砌石尙存。造山上有碑臺石, 石中凹, 大如屋。王宮坪, 在郡東南五里帝石面龍華山南麓盡處。世傳馬韓時朝宮舊墟, 城址宛然, 累土爲壘, 不用石焉。村人耕田, 瓦石鋪地, 深入猶在。或鑿起堄石, 入地幾尺許, 而房一間鋪以石四瓦兩, 石相交處, 必啄磨爲緣。石下媒燼尙在, 往往拾得玉佩、銅錢、鐵釘之屬云。自此距宮坪三里。王宮塔, 在宮墟前, 高十丈, 累石宛然。俗傳馬韓時造此塔, 但塔劫卽佛家所設, 而馬韓時佛敎未及東來。一說道詵謂完山地理, 若蹲狗形, 建塔于此, 以壓狗尾, 蓋爲麗太祖壓勝甄萱, 而塔成之日, 完山晝晦三日。其說固涉不經, 而且道詵麗祖以前人, 未知道詵預知麗祖統合, 而陰贊除萱之術也歟? 未可知也。王宮井, 在塔北二十步, 見泉井。倉坪, 在郡南五里豆村面葉洞里, 距王宮坪三里, 似是故都時府庫所在處。石檣洞, 在郡西十里山麓, 有古寺遺址, 石檣屹立, 高二丈, 俗名其洞曰石檣洞。前[16]代用壓勝法如此。蹲巖, 在郡北七里衾店路邊, 俗稱憩巖, 李若海取以爲號。彌勒寺塔, 在彌勒寺舊墟之南, 高十餘丈, 俗傳東方石塔之最高者。下通八門, 可容人出入, 世稱象八陣法, 有生殺[17]門云。不知何

16 前 : 영인본에는 누락되었는데, 필사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年爲雷震所擊，而西一半頹落，厥後經浩劫，而亦不益崩耳。按《燃藜記述》，新羅聖德王二十九年六月雷擊而崩。釜畓，在彌勒寺後，鐵釜埋地，今人種禾其上，其圍可播一斗租，非人力所可拔出云。立石，在郡南十五里帝石面路傍，出地五尺，入地七八尺，前面鑿穴，至半不盡穿。不知古人設此何爲也。里名立石以此。支石，在郡西十五里支石面林內里西偏，累石而上覆大石，未知古人何所取象也。面名以此云也。遺愛碑。郡守李厚原、趙正純碑，在客館前；郡守金嶷、申鳴漢、沈濮，觀察使具鳳瑞、洪錫輔碑，在上漢橋西路傍。

戶口

戶三千七百六十八，內新戶二百十三戶。口一萬四千一百五十八口。男六千七百八十五口，女八千三百十九口。

儒林

齋長一人，掌議一人，齋任二人，校生五十人。華山書院，院生三十人。華巖書院，院生二十人。

武班

馬軍別將一人，哨官二人，知殼官一人，旗牌官四人，火砲教師一人，禁衛知殼官一人，山城精抄旗牌官三人，巡牙兵哨官一

17 殺 : 영인본에는 '死' 자로 되어 있으나, 필사본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人，守堞兵房一人，牙兵知穀官一人，出身六人，選武兵房一人。

邑裨

行首軍官一人，兵房軍官一人，官軍官五十人，額數未充。作隊哨官一人，軍器監官一人，都譏察將一人，在邑內。面譏察將九人，各面皆有。竹田監官一人。

軍總

忠翊衛三十三名，屬忠勳府。忠贊衛五十名，忠順衛六名。幷屬兵曹。選武軍官七十九名。訓鍊都監，砲手保一百三十名，軍餉保二十九名。每年作米六斗式，納訓局。御營廳，正軍三十五名，官納保七十名，每名作米六斗式。正軍資保三十七名。內卜馬保二名。禁衛營，正軍四十七名，內卜馬軍三名。官納保一百二十四名，每名作米六斗式。正軍資保五十名，內卜馬保三名。別破陣四名。兵曹，騎兵五百三十四名，七月當。步兵一百七十一名。十月當。開城府相換騎兵十三名，四月當。禁軍保十名，衹直保一名，扈輦隊保四名，京驛保三名，內吹保一名。掌樂院，樂生一名，樂生保八名，樂工一名，樂工保八名。聖堂倉漕軍十八名，左水營漕軍七名。兩處漕軍，每名各給復二結，每二結作米二石，以大同條上納，謂之騎船米畓，布則十八名，納于聖堂倉；七名，納于群山倉。典設司諸員二十名。以上京案付。監營屬除番軍官十七名，謂之納布軍官。藥材進上陪持保三十四名，匠人六名，以上幷納布。馬軍保六名，內良一賤五。旗手三名，步軍五十八

名。一年赴操，一年納米三斗。水軍餘軍四十五名，威鳳山城守堞軍官三十名，兼役。輪回立番，納番錢。完府以守城將次知。別破陣十二名，納番錢，山城別將次知。精抄軍三十一名，爲山城設置，無所事。兵營新選五十五名。納布。束伍，馬軍四十九名，保人九十八名；步軍三百三十四名，保人三百三十四名；大旗手七名，保人七名；大砲手二名，保人二名；軍牢十一名，保人十一名；塘保軍三十三名，保人三十三名；隨率五十七名，保人五十七名。以上外案付。

進上保七十五名，良賤參半。軍器保五十名，良九賤四十一。紙匠保五十名，良九賤四十一。官匠保五十名。京外案付軍，合爲三千五十一名。納布軍一千六百十八名，納米軍二百八十一名，上番軍八十二名，除番軍十二名，兼役軍六十一名，赴操軍四百九十三名，保四百四十四名。

募屬

吏奴作隊一百二十六名，社稷壇、厲壇[18]直一人。兼良軍。鄉校假屬五十名，良賤參半。華山書院假屬三十名，良賤參半。華巖書院假屬二十名。良賤參半。鄉廳假屬五十名，兼役。軍官廳假屬十名，兼役。作廳假屬五十名。兼役。

鄉任

座首一人，別監二人。風憲，各面一人；約正，各面一人。

---

18 厲壇 : 영인본에는 누락되었는데, 필사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官屬

鄕吏七，假吏二十三。貢生二十五，醫生一，羅將二十三。官奴二十三，官婢十六。

公賤

寺奴四口。

田結

元帳付，田二千四百十二結六十五負六束，內雜頃一千三百五十結六十一負六束，實一千六十二結四負。畓二千六百九十二結九十九負四束。內雜頃七十二結七十四負八束，實二千六百二十結二十四負六束。

租稅

賦稅，田賦下之中、下，中則出糙米六斗，下則出糙米四斗，上納戶曹。每年斛數，依時執田結數增減。大同，每結十一斗一升三合七勺九撮式收捧，分上納儲置，每年依劃定數，上納則輸于宣惠廳，儲置則捧留本官。官需米，春、秋等並二百七十石。使客米，三十九石七斗五升，油、清、紙地價幷入。○ 幷官需三百九石七斗五升，每朔二十五石十一斗八升七合五勺分排。稅太，二百三十四石五斗五升五合四勺，今中、下等收捧如糙米例，戶曹納。位太，一百十八石一斗五升七合五勺，每結六升七勺八里式收捧，戶曹納。水鐵匠十名，每名二兩式收捧，十月當兵曹納。巫稅布八疋。內上納五疋，作木一疋，役價二疋，每疋錢三

兩代捧，戶曹納。

徭役

三手糧，自田結中磨鍊。結錢，每一結錢五錢式收捧，均役廳上納。雜役米，每結二斗七升八合四勺四里進上，添價米五十七石及氷丁、炬炭、雉鷄、營納年分紙、官用百物，自其中責應。柴，每四結一同二束式收捧。草。每四結三束式收捧，生草則馬一匹一日所喂價錢五分，以雜役米上下。

免稅

壽進宮免稅，田二結三十二負六束，畓四結七十二負三束。敦寧府免稅，畓五十結。靖嬪房免稅，畓四十結。貞安翁主房免稅，畓一結三十一負三束。於義宮免稅，畓九十結。新生翁主房免稅，畓五十結。官屯，見下。國屯。田一結十五負九束，畓一結五十七負 ○ 依民結出稅，自官捧若干稅，'國'字未可考，似是舊都遺物。

復戶

官公須位十五結，免稅出賦。衙祿位四十結，免稅出賦。校位田畓七結，華山書院位田畓三結，人吏復戶十五結，孝子復戶一結，二人各五十負式。出征將士復戶六結，十二名各五十負式。漕軍復戶五十結。二十五名分授，七名所受十四結，群山倉納；十八名所受三十六結，聖堂倉納。

官田

屯田十結九十一負四束，内陳三結三十八負一束，實四結三十七負九束，垈三結十五負四束。屯畓三結五十四負三束，内陳九十八負，實二結五十六負三束。栗田，在豆川面唐山里，所謂三栗。竹田。在郡西四里竹林里，邑一作宇字，周回三百五十尺。

營屯

後營屬逃亡束伍屬公田畓稅，太五石七斗九升，租一石四斗。中營屬盜賊籍沒田畓稅。太一石，租二石十斗。

堤堰

立石堤，外堤，加佐洞堤，內堤，支餘堤，甁洞堤。幷在帝石。黑石堤，長淵堤。幷在春浦。葛田堤，津山洑堤。幷在豆村。毛里川堤。在豆川。內豆川堤。在支石。所羅谷堤。在栗村。高次洞堤，今可村堤，坫防築堤。幷在巳梯。竹靑堤，蓮等洞堤，沙吾郎堤，猪梯堤，今音條堤，龍堤。幷在九文川。板梯堤，產蓴。蓼串堤。幷在彌勒。東亭子堤，新堤，一名蓮堤。窺見堤。幷在郡內。

防洑

扶桑川洑，炭谷洑，東面洑，好音橋洑，中洑，王宮洑，塔里洑，麻田洑。幷在帝石。立石洑。在春浦。鴈川洑，中洑，狗梯洑，金吉

洑，葉洞洑，鹿沙坪洑，下洑，倉坪洑。幷在豆村。上洑，下洑，宗坪洑。幷在豆川。蘆芽洑，蓁子谷洑，茂助洑，馬山洑。幷在支石。東山川洑，下洑，城後洑，下洑。幷在彌勒。乾支里洑，倉後洑，元豆里洑，獄後里洑，斗堤洑，玉川洑。幷在郡內。

池塘

澄碧池，在壎篪堂前。斗池，在郡南五里，古有佛堂，今廢，邑人游賞之所。馬龍池。在郡西三里五金寺南百餘步，薯童大王母築室處。○ 幷在郡內。藏財池。在春浦。鶴池，其深不可測，魚族多聚。耒翻池，冷水池。幷在豆村。

坪作[19]

郡內 ： 邑一作，東二作。自天字至夜字五十五字。帝石 ： 東三作，東四作。自光字至率字七十字。沙井 ： 東五作，南一作。自賓字至染字七十一字。春浦 ： 南二作，南三作。自詩字至蘭字七十字。豆村 ： 南四作，南五作。自斯字至隨字七十字。南山 ： 南六作，南七作。自外字至爵字七十字。豆川 ： 南八作，西一作。自舍字至亦字七十一字。梨堤 ： 西二作，西三作。自聚字至匡字七十字。支石 ： 西四作，西五作。自合字至岳字七十字。栗村 ： 西六作，北一作。自宗字至勅字七十一字。已梯 ： 北二作，北三作。自聆字至莽字七十字。九文川 ： 北四作，北五作。自抽字至紡字七十字。彌勒 ： 北六作，北七作。自侍字至犢字七十一字。

---

19 坪作 : 영인본에는 '作坪'으로 되어 있으나, 필사본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幷二十六作，自天字至犢字八百九十九字。

進上 營主人擔當進排本價，儲置米二十三石，添價雜役米六十石，保錢一百兩。錢則分春秋兩等，每等五十兩式。

正朝：乾雉二首，乾柹一貼，小箱一部，草席一立，條所一巨里。○ 正月朔：乾雉二首，清一升，小箱一部，草席一立，條所一巨里，白布十尺。○ 二月朔：乾雉一首，清一升，草席一立，條所一巨里。○ 三月朔：清一升，中箱一部，條所一巨里，草席一立。○ 四月朔：清一升，條所一巨里，草席一立，中箱一部。○ 五月朔：清一升，大麥二升，小麥二升，草席一立，條所一巨里，大箱一部。○ 端午：乾雉三首，草席二立，條所一巨里，大箱一部，白貼扇三柄，漆別扇十柄，白油扇十六柄。○ 六月朔：乾雉一首，清一升，白缸一坐，草席一立，條所一巨里。○ 七月朔：清一升，草席一立，條所一巨里，中箱一部，新稻米三升。○ 八月朔：乾雉一首，清一升，草席一立，條所一巨里，小箱一部。○ 大殿誕日：乾雉一首，草席一立，條所一巨里。○ 九月朔：清一升，生梨十個，胡桃五升，小箱一部，草席一立，條所一巨里，白布十尺。○ 十月朔：乾雉一首，乾柹二貼，清一升，白缸一坐，草席一立，條所一巨里，紅柹五介，胡桃二升。○ 十一月朔：乾雉一首，乾柹一貼，清一升，紅柹五介，去核四兩，白缸一坐，草席一立，條所一巨里，大箱一部。○ 冬至：乾柹一貼，生梨四介，紅柹十三介，乾雉二首，條所一巨里，草席一立。○

十二月朔 : 乾雉二首, 乾柿一貼, 淸一升, 草席一立, 條所一巨里, 小箱一部。○ 臘日[20] : 生獐一頭, 生兎一口, 條所一巨里。

分定

巡營納 : 啓目紙一束, 封裹草席一立, 細繩二十把, 中繩三十五把, 壯紙一張, 眞荏一石六斗, 水荏一石六斗, 羔毛三兩九錢, 折價錢一兩五錢。藥材陪持錢六十九兩。已上幷春秋兩等。墨法油一斗。三年一次。○戶曹納 : 草席五立, 羔毛六兩。折價錢三兩, 幷春秋兩等。○吏曹納 : 壯紙二束。每式年世系單子修上時納。○軍器寺納 : 鵰羽。勅行時分定。

求請

冬至上使 : 壯紙十束, 白紙十二束, 笠帽三事。副使 : 壯紙八束, 白紙十束, 笠帽二事。書狀官 : 壯紙五束, 白紙七束, 笠帽二事。○耆老所 : 錢三兩, 壯紙二束, 白紙三束。春秋兩等。中樞府 : 錢二兩, 壯紙一束, 白紙二束。均役後停。

貢物

寺奴身布四疋。

---

20 日 : 영인본에는 '月'로 되어 있으나, 필사본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倉庫

司倉，在郡西偏。大同庫，司倉附。城倉，在威鳳山城內，距郡七十里。軍器庫，在客舍北墻外。官廳庫，在郡衙西偏。雜役庫。在鄉廳前。

倉穀

司倉，米九百九十八石五升八合三里二分。○ 太四百七十七石十斗五升八合一里三分。○ 正租六千五百六十一石一升五合八勺五里三分。○ 小豆四石六斗二合二勺五里七分。○ 木麥十六石七斗五升。○ 皮牟六百七十石六斗九升九合九勺三里九分。○ 眞麥八百三十六石三斗四合七里六分。備局句管軍作米，六百六十九石十三斗四升二合二勺二里六分。大同儲置米，二千五百六十石一斗一升八合三里。山城米，一千一百三十九石六斗一升二合七勺四里九分內，七百八十二石四斗五升五合三勺二里六分，山倉捧留；三百五十七石一斗四升一合四勺二里三分，邑倉捧留。山城租，八十九石七斗三升二合二勺二分內，五十九石九斗八升三合一勺一里八分，山倉捧留；二十九石十斗一升八合八里四分，邑倉捧留。合諸色穀，一萬四千五十三石二斗九升三合三勺七里八分。

雜畜

分養馬二匹。羊，會付六口，牧子無面。羔，會付三十五口，時存十三口。猪。會付一百口。

場市

郡內，每月二日、七日、十二日、十七日、二十二日、二十七日，出市。檜花，五日、十日、十五日、二十日、二十五日、三十日，出市。磻溪。古有今無。

工匠

冶匠，十一名。弓人，一名。矢人，弓人兼。木匠，七名。輪匠，三名。網巾匠，二名。筆匠，二名。石物匠，二名。瓮匠，彌勒店十三戶，帝石店十一戶，栗村店六戶，支石店四戶。水鐵匠，南山店二戶，彌勒店二戶。笠子匠，二名。蔽陽子匠，十四戶，店在彌勒面。皮鞋匠，二名。柳器匠。十五名。

軍器

黑角弓二百十張，黃角弓十三張，交[21]子弓一百二張。弓家三百三十五筒，預備弓弦三十四箇。長箭二百二十八浮二十箇，片箭六十四浮，筒兒六十四箇，長槍十四柄。拒[22]馬作八十一坐，條所二百沙里。拒馬作所入。蔆鐵三千四百七十二箇，蔆鐵入盛櫝子二坐。鐵甲冑四部。鳥銃九十四柄，又二百四十七柄。束五軍分授。千步銃十柄，鍮火砲一柄，三穴銃三柄。鉛丸七萬四千九百四十五箇。 火藥一千三百十六斤十二兩五錢八分， 火藥入盛櫝子二十八坐。耳藥桶六十六箇，南飛箇[23]六十六箇。火繩一百九十八

---

21 交 : 영인본에는 '支'로 되어 있으나, 필사본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22 拒 : 영인본과 필사본 모두 '車'로 되어 있으나, 문맥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沙里，藥升六十六坐。火鐵六十六箇，圓針六十六箇。錚四坐，羅叭一雙，大鼓二坐，具臺中鼓二坐，具臺小鼓四坐。鞭棍四十九柄，旗機二坐，大緞巡視旗一雙，大緞令旗一雙。以上會付。三穴砲一柄，大鼓一坐，中鼓四坐。射貫革二坐，砲貫革四坐，騎芻貫革九坐。漏水器一坐。鳥銃鐵釘一柄，鑄丸執巨一柄。青黑紅三色衣燈十一件，燈鐵機十二箇。黑冪六箇，百斤稱子一柄。火藥砧二坐，木臼三坐。紅氈笠一雙。已上會付。長槍二十八柄，黑角弓一百七十一張，交子弓一百十三柄。長箭一百十四浮，片箭一百十四浮。筒兒一百十四箇，弓弦二百八十四箇，弓家二百八十四箇。鳥銃四十柄，鉛丸七百十八箇。火藥一百三十三斤十兩四錢，南飛箇四十箇，耳藥桶四十箇。火繩四十沙里，火鐵四十箇，竹桶一千二百箇。圓針四十箇，錐針四十箇，藥升四十箇。已上威鳳山城藏。

書板

《胡傳春秋》。板缺不用。

書籍

《胡傳春秋》七卷，缺。《書傳諺解》五卷，《詩傳》具諺解，《詩傳大文》二卷，《孟子》具諺解，《孟子大文》二卷，《中庸》具諺解，《大

23 箇 : 영인본에는 누락되었는데, 필사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學》具諺解,《禮記》十卷,《小學》四件,《孝經大義》,《擊蒙要訣》三件,《通鑑》十三卷,缺。《李白詩》十四卷,《儷文程選》六卷,《三綱行實》,《喪禮備要》,《闡義昭鑑》三卷,《受教輯錄》二卷,《簡易集》九卷,《稽古錄》一卷。以上鄕校藏。○《詩傳》,《春秋》七卷,《近思錄》四卷,《釋疑》一卷,《三綱行實》,《二倫行實》,《事文類聚》四十卷,缺。《沙溪集》四卷,《尤菴集》五十七卷,《滄洲集》七卷,《闡義昭鑑》三卷。以上華山書院藏。○《周易》十一卷,《詩傳》十卷,《春秋》一卷,《禮記》十二卷,《左傳抄評》六卷,《李白詩》五卷,《杜詩諺解》十八卷,《唐音》二卷,《闡義昭鑑》三卷,《五先生遺事》一卷,《陽谷集》五卷。以上華巖書院藏。○《五禮儀》二卷,《鄕約文》一卷,《大明律》三卷,《經國大典》六卷,《無冤錄》一卷,《增修無冤錄》一卷,《續大典》四卷,《勘亂錄》四卷,《均役事目》一卷,《良役實捻》一卷。以上星廳藏。

名宦

[前朝] 陳義貴。有政聲。[本朝] 盧龜祥,決訟果斷。崔德之,行己儉約,處事詳明。李仁賢,嘉靖甲寅仕,平易爲治,丙辰重修客館東軒。梁喜,嘉靖甲午文科,己未仕,丙申還家遭母喪,政尙淸簡。金長生,萬曆癸卯仕,興儒化,士林立祠賜額。李厚源,崇禎甲戌仕,乙亥登文科,有去思碑,丙子遞。沈濮,崇禎丙子仕,丁丑遞,有去思碑。金嶷,崇禎丁丑仕,壬午瓜遞,有去思碑。宋時燾。顯宗朝丁未仕,以公事上京,上引見諮民瘼,以設鎭營爲對,特命還移礪山,吏民稱便。重建衙舍,辛亥遞。

人物

[高麗] 李湊，高宗朝登第，官至翰林學士承旨。性溫良，善屬文，工筆札。不理生產，家無礪石之儲，益山人。李行儉，湊之子，文科，官至國子典酒寶文閣直提學知製誥。以直節聞。李公遂。行儉之孫，忠烈王朝以監察糾正擢魁科，恭愍朝賜推忠守義同德贊化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領都僉議事右文館大提學，封益山府院君。謚文忠，配享恭愍廟。○ 享華巖書院。

[本朝] 金仲舒，安東人，惕若齋九容孫，擧進士，以門蔭筮仕，歷執義，至戶曹參議。退老本郡，壽八十九。蘇世良，字元友，號困菴，晉州人。中宗朝登第，官至大司諫知製敎。性孝友，不事產業，與李悔齋、金慕齋、金思齋、朴訥齋、金沖菴友善，相與往來，講磨論道。忤權奸，斥補龍潭縣令，己卯禍以在外獨免焉。享華巖書院，有文集刊行于世。蘇世讓，字彥謙，號陽谷，世良之弟。中宗朝登第，官至崇政左贊成，典文衡。文章贍麗，筆法得松雪體。四迎華使，一朝皇都，聲名播於中土。致仕，優遊田廬二十餘年，壽七十七。享華巖書院，有文集刊行于世。蘇逢，字叔卿，號花江，世良之子。中宗朝登第，官至副提學。退老于鄉。蘇光震，字子實，號后泉，世良之弟縣監世得之曾孫。宣祖朝登第，官至校理，四十六夭。以文行名，竹陰趙希逸誄曰:“蘇君坐席，三日有香。”有文集。蘇永福，字重綏，號四隱，逢之孫。擧進士，不復赴擧。師事金徵士殷輝，以學行著名。有經世才，以宰臣薦，授禧陵參奉，不就。築室道川，以耕釣自娛，隱德以終。葬日故友諸生會者，七百餘人。與金沙溪、鄭愚伏、趙重峯、韓久菴爲道義交，有文集。蘇東道，字子由，號慣眠窩，世良之弟僉知世恭曾孫。仁祖朝登第，官至監司。居家孝友，在官清白，有文集。蘇斗山。字望如，號月洲，東道之從侄。顯宗朝登魁科，官至平安兵使。狀貌英俊，器度宏深，早遊宋尤菴、宋同春兩賢之門，講學春秋，以才局稱，有文集。

『流寓』[本朝] 權近, 字可遠, 號陽村, 安東人。恭愍朝登第, 入我朝, 策佐命功, 封吉昌君, 官至崇政左贊成。嘗謫居本郡, 著《入學圖說》。李若海, 以蘇世良之弟世儉之壻, 贅居本郡。○ 字景容, 號嶧巖, 廣州人。中宗朝登第, 又登擢英試, 官至直提學。乙巳禍竄, 丁未有後命。配享華巖書院。徐益, 以李若海之外孫, 寓居本郡。○ 字君受, 號萬竹, 扶餘人。宣祖朝登第, 官至承旨。詩人, 靑邱永言[24]。韓百謙, 以蘇自坡之外曾孫壻, 贅居本郡。○ 字明吉, 號久菴, 淸州人。以學行官至參議。李貴。父廷華爲縣監盧祐賢之壻, 瑞山守之侍養子, 故公嘗往來此郡。[25] ○ 字玉汝, 號默齋, 延安人。宣祖朝登第, 策靖社元勳, 封延平府院君, 官至崇祿左贊成。謚忠定, 配享仁祖廟庭。

文科

崔自淑, 弘治乙卯別試乙科第七人, 官至郡守。蘇世良, 正德丁卯式年丙科第一人。○ 見人物。蘇世讓, 正德己巳別試乙科第二人。○ 見人物。楊公俊, 正德庚辰別試丙科第八人。○ 字彦卿, 南原人, 官至禮曹佐郎。蘇逢, 嘉靖乙酉式年乙科第一人。○ 世良之子, 見人物。金世良, 嘉靖乙未別試乙科第一人。○ 字彦叔, 慶州人, 官至郡守。本以慶州貢生居本貫, 而載本郡地誌。或云隨子來寓, 其子得地。見蔭仕。楊洪, 嘉靖庚子[26]別試丙科第七人。○ 公俊之子, 字深源, 官至司僕副正。黃祐, 嘉靖丙午增廣丙科第六人。○ 字慶仲, 紆州人, 進士應琛

---

24 靑邱永言 : 영인본과 필사본 모두 '靑邱風雅'로 잘못되어 있어 바로잡았다.

25 父廷華爲縣監盧祐賢之壻, 瑞山守之侍養子, 故公嘗往來此郡。: 영인본에는 누락된 내용으로, 필사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26 庚子 : 영인본에는 누락되었는데, 필사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之孫，官至工曹佐郎。權德饒，萬曆癸未別試丙科第二十一人。○ 字饒夫，安東人。蘇光震，萬曆丁酉庭試丙科第五人。○ 見人物。蘇泗源，萬曆乙巳增廣第十八人。○ 字道淵，僉使世溫曾孫，官至縣監。金廷益，萬曆癸丑增廣第三人。○ 字士謙，蘇世良侄、參奉蘇適外孫，官至郡守。楊時遇，萬曆甲寅別試丙科第二人。○ 字彦亨，洪之孫，官正縣監。蘇東道，崇禎乙亥增廣丙科第十一人。○ 見人物。尹弼殷，孝宗丙申別試丙科第二人。○ 字湯卿，坡平人，官至判官。蘇斗山，顯宗庚子直赴魁科。○ 見人物。尹輔殷，顯宗庚子式年丙科第二十人。○ 字殷卿，弼殷之弟，官至成均博士。韓㙫，肅宗己未式年丙科第三人。○ 字仲厚，清州人，官止縣監。李起漢，肅宗丙寅別試丙科第二人。○ 字汝挺，全州人，官至司藝，德興大院君玄孫。宋思胤。肅宗己卯增廣丙科弟十二人。○ 字錫爾，官至掌令，鎭川人。

武科

蘇世得，世良之弟，正德乙亥出身，官止縣監。蘇連，世良之子，嘉靖出身，官止郡守。權擇中，萬曆出身，官止直長。蘇文震，世得曾孫，萬曆甲午出身，官止水使，壽七十七。李德芳，丁酉倭亂，將從軍，而無以治裝逃。崔岌，萬曆出身，全州人，官至縣令。蘇汝衡，主簿好善子，官至萬戶。蘇鳴遠，逢曾孫，萬曆出身，官至參奉。蘇蕙，鳴遠弟，都總都事，以老陞通政，壽八十二。蘇啓遠，文震庶子。蘇啓盛，啓遠弟，官至主簿。趙明瑀，護軍，丙子南漢扈從。崔警，官止判官，丙子南漢扈從。崔健，鐵原人。崔侃，健弟，幷見孝子。朴明浩，高山移去，胡亂從征，軍潰逃，梟示。蘇山海，世得五代孫，仁祖己丑出身，官至營將。崔尙勳，孝宗朝出身，官止監察。吳應賢，孝宗朝出身，長興

人，官守門將。吳應弼，應賢弟，孝宗朝出身。吳應哲，孝宗朝出身。柳涑，移去京中。蘇山濬，山海弟。蘇珹，禁府都事。○ 啓興孫，丙辰榜。吳廷龍，長興人，吳廷達。 廷龍之弟。金起鼎，丙辰榜。李棨，進士檗之弟，吳應哲壻。李必著，朴就弘，順天人。朴就輅，就弘弟。崔廷達，吳斗興，長興人，丙辰榜。崔日中，尙勳子，丙辰榜。李道栽，棨子，肅宗朝出身。楊莘擧，南原人，丙辰榜[27]。崔弘俊，崔濤。全州人，肅宗朝出身。韓以道，李善儀，李俊，吳允周，長興人。李廷永，李永進，崔世龍，全州人。朴得永，判官。李枝福，崔以謙，江華人。吳慶弘，同福人，官至萬戶。陳汝起，朴昌文，蘇再述。以上不知何年榜。金鵬，吳應雷，應祥從兄。吳應祥，吳景祥，應雷侄。吳應男，應祥弟。吳景瑞，景祥弟，長興人。吳世英，應祥從侄。吳世雄，世英弟。李汝迪，兵使。蘇德恒，珹子。李禧遠，汝迪子，兵使。金漢翊，李榮，李載恒，全琦。當宁乙亥庭試。

生進

林得茂，進士，益山人，堅味玄孫。崔自淑，進士。○ 見文科。蘇世良，弘治丙辰生員。○ 見文科。蘇世讓，弘治甲子進士。○ 見文科。蘇世儉，癸酉進士。○ 見蔭仕。楊公俊，正德丁卯生員。○ 見文科。蘇建，僉知世恭子，嘉靖庚子進士，字大立，號四勿齋，贈左承旨。蘇逢，正德己卯生員。○ 見文科。蘇巡，正德間進士。○僉使世溫子，字警夫，號葆眞堂。善筆法，嘗從叔父世讓赴京，華人購筆跡，大加稱賞。蘇遲，世良之子，嘉靖辛卯生員。金得地，蘇世讓弟世儉之壻，生員。盧侃，進士。蘇奉善，巡之子，生員。蘇宗善，縣令邂子，

27 丙辰榜 : 영인본에는 '出身' 2자가 추가로 쓰여 있는데, 필사본에 의거하여 삭제하였다.

進士。蘇亨震，宗善子，進士。楊洪，公俊子，嘉靖庚子生員。○ 見文科。楊士獻，萬曆間進士。○ 字叔琛，南源人。蘇曄，萬曆庚戌生員。○ 字而晦，進士巡之曾孫。黃澤，紆州人，生員。楊時遇，萬曆辛丑進士。黃應琛，澤子，生員。蘇貞震，萬曆庚寅生員。○ 見蔭仕。蘇泗源，萬曆庚寅生員。○ 見文科。吳彥一，萬曆進士。吳忠甲，萬曆進士，同福人。楊汝櫟，萬曆生員，士獻孫。金廷晉，得地子，生員。金廷益，廷晉弟，萬曆庚寅生員。○ 見文科。黃名世，應琛孫，進士，善筆法。蘇永福，逢孫，進士。○ 見人物。蘇慶門，永福子，萬曆乙巳進士。蘇振門，慶門之弟，天啓甲子生員。蘇聖門，監察敏善孫，天啓甲子生員。辛壽胤，生員。蘇啓興，光震子，進士。○ 見蔭仕。尹策，仁祖丙戌生員魁，南原人。○ 見蔭仕。呂誨齊，仁祖朝進士。李燧，進士。李時珊，貴子，癸丑進士。○ 見蔭仕。李悟，貴之孫，生員。○ 見蔭仕。蘇東道，萬曆丁巳生員，建孫。○ 見文科。黃自厚，名世子，癸酉進士。○ 見蔭仕。蘇東鳴，仁祖丙戌進士，建孫。○ 見蔭仕。尹弼殷，戊子生員。○ 見文科。尹輔殷，戊子榜。○ 見文科。李起漢，壬辰進士。○ 見文科。蘇斗山，孝宗壬辰進士，東鳴子。○ 見人物。李公著，悟侄，丁酉進士。李衛漢，起漢弟，丁酉進士。金聲徹，庚子生員。盧後益，庚子生員。李曼著，庚子進士。蘇厚錫，庚子生員。李光漢，戊子進士。李明著，公著兄，癸卯進士。○ 見蔭仕。白光瑞，癸卯進士。○ 見蔭仕。黃翼漢，名世孫，己酉進士。李重榮，己酉進士，光漢子。金五一，壬子生員。尹志堯，輔殷子，甲子生員。李蘧，乙卯進士。金澥，丁卯生員。權玉衡，曼衡弟，辛未生員。權曼衡，己卯生員。盧斗望，己卯生員。李允著，壬午生員。李載華，承旨東誼子，乙酉生員。李祉胤，丁酉生員。黃道復，自厚孫，辛丑生員。李潑，辛丑生員。蘇大晉，丙午生員。李東白，丁未生員。權傹，玉衡子，己酉生員。崔可恒，己

酉生員。李泰著，乙巳進士。任泰中，癸丑進士。李廷夔，東白子，乙卯進士。蘇顯道，庚申生員。楊震燧，甲子生員。權挺東。玉衡孫，甲戌生員。

蔭仕

金仲舒，官戶曹參議。○ 見人物。盧允弼，安東人，扶安縣監，陞通政。盧允正，允弼弟，官參議，一云參校。蘇自坡，進士，成宗朝入仕，儀賓府都事，贈左贊成。蘇世溫，自坡子，臨溜鎭僉使。蘇世恭，世溫弟，字敬之，號老圃亭，從叔父兵使自坡征倭，錄軍功，官馬梁鎭水軍僉節制使，以耋老陞僉知壽八十五。蘇世儉，世恭弟，字約而，號雙峯，成化癸酉進士，歷郡守，至同中樞，壽九十一。盧仁錫，允正子，官縣監。盧祐賢，允弼子，官縣監。蘇遂，世讓子，官郡守。蘇適，世儉子，參奉。蘇邂，世得子，綾城縣令。蘇通，遂庶弟，都事。金得地，世良弟世儉之壻，官別坐。蘇好善，連子，主簿。蘇膺善，逢子，庶尹。蘇敏善，逢子，監察。蘇擇善，世得孫，主簿。蘇萬善，建子，察訪，以子東道貴，贈兵曹判書。蘇潤源，巡孫，主簿。金天命，宣祖朝入仕，官止主簿。蘇貞震，擇善子，參奉。蘇永福，膺善子，以學行除禧陵參奉，不就。李時達，贈持平寶子，文，縣監蘇泗源壻，仁祖朝入仕，官止主簿。李時珊，忠定公貴子，仁祖朝入仕，至同知贈判書。蘇尙謙，蕙子，監察。蘇啓興，光震子，進士，官經歷。李博，時達子，仁祖朝入仕，官止縣監。李愻，時珊子，仁祖朝入仕，海州牧使。李悟，愻弟，生員，除參奉不仕，贈左承旨。蘇東鳴，建孫，字聞遠，號瘦齋，進士。歷直長，至同知中樞府事。壽八十四，以子斗山貴，贈吏曹參判。黃自厚，康陵參奉。○ 見生進。金翊震，天命孫，仁祖朝入仕，止監察，以孝友見稱。尹策，生員壯元，孝宗朝入仕，止縣令。李忞，悟弟，縣監。

李碩著，博子，奉事。蘇后山，東道子，官司評。李明著，愔子，進士，官至縣監。李起漢，奉事。○見文科。白光瑞，水原人，休菴仁傑四代孫，官奉事。白尙彦。光瑞孫，奉事。

忠臣

李寶，延安人，默齋貴之兄，樗軒石亨玄孫，天性慷慨，志氣倜儻。當壬辰倭亂，召募義旅四百餘人，自備兵糧器械，直趨錦山倭屯。時義兵將高敬命之軍新敗，賊勢益熾，而猶生死向前。至珍山之梨峴，遇賊交戰，矢盡力竭而死。其奴命起、婢夫塊同相守不去，抱持而死。事聞，贈持平，當宁甲戌旌閭。蘇行震，晉州人，世得之曾孫，意氣慷慨，忠義鬱結。壬辰倭變，同鄉人李寶募義旅，方丁憂，起復以從，死生與之。珍山之戰，不旋踵而死。噫！以草莽臣而殉難一節，如此卓爾，旌閭之典，獨不及焉，蓋無子孫，不得顯揚故也。崔侃。與兄健俱中武科，嘗爲父報讐，事母盡孝。丙子之亂，自募於元帥陣中，中和之戰，力戰死之。贈訓鍊院僉正。

孝子

柳承春，文化人，與妻金氏，孝養其親，務悅親志，靡不用極，鄉黨稱其孝，曰孝子孝婦。初居扶安，晚住本郡，兩邑人士敍其孝行，或訴本官，或呈營門，而迄未蒙旌褒之典。蘇東獻，晉州人，建之孫，年甫十三，母病瀕危，再割其股，出血以試之，賴而復甦。後遭兩親喪，居廬啜粥，終三年。壽八十，仁祖朝事聞旌閭。蘇國民，東獻兄，東俊子也。天性至孝，父病割股，出血以救之。後遭父母喪，啜粥終制。孝宗朝，邑人敍其孝行，訴于營門，轉聞于朝，命旌閭，國民以生前旌門爲

不可，固辭之。蘇相琦，東獻孫，天性至孝，且有學行。金忠立，本郡正兵也。父病劇，忠立斷其指，出血入口，病卽愈。孝宗朝事聞旌閭。崔健、崔侃，兄弟具中武科。赴防關西，父爲惡僧所害，兄奔喪，葬祭以禮，誓心報仇。一日逢讐僧於場市中，斬殺之，食其肉，奔告父墓，且訴官家，自首擅殺之罪，邑倅轉報朝廷，朝廷嘉其孝，幷釋之。其母有疾阽危，健嘗糞以驗甘辛，侃斷指進血，母病卽愈。其母以天年終，兄弟居廬墓側，終三年。仁祖朝事聞，値丙子亂，旌褒之典未果行。李敏樟，全州人，完山府院君襄悼公之後也。居帝石，目不知書，而孝友出天性，奉養偏母，克盡其誠。母年踰八十，前後得疾瀕危者四次，敏樟每斷指出血以救之，病輒回甦。至於五次血指，則母以天年終焉，更無前效。事聞，命復其戶。金永錫，人家奴也。其服事於上典也，終日不離簷砌間，上典號之，則輒應聲對，未嘗見過。又事母至孝，戊戌春，母遘厲在幕，幕中失火，永錫冒炎突入，負母以避，未及出，母子皆焦死。景宗壬寅閭旌。金昌大，金海人，新羅敬順王後裔也。居帝石面，自幼時善事父母，庚午歲，父致文重得時疾，幾殆，擧家束手號哭，時昌大年纔十四，引刀斷指，出血納口，仍得回穌。里胥報其孝，營門給米肉。李鳳成，巳梯百姓也。事父母至孝，一日失火，父病，臥病中不得出，鳳成冒熱炎入房，扶父而出，父子頭額皆焦爛，幾死僅甦。父嘗病革，鳳成血指以救之。以禁衛軍將上番，而不忍離捨父側，邑倅憐之，免其役，移差選武軍官。事聞，巡營給米肉。吳瑞垕，長興人，在彌勒面。自幼時未嘗一咈親意，母嘗遘厲，瑞垕亦深痛，力疾扶護，母病旣革，嚙指出血以灌口，血止則又嚙他指以繼之，竟回其旣殞之命。事聞，結復終其身。朴召史，居巳梯面，夫李義成早死，事姑至孝，姑淹病在席，大小便出入，朴召史必背負而行，隣里稱爲孝婦，營門給米肉，以彰其孝。姑年九十而歿，朴召史啜粥，不食厚味，長在祭廳，號泣不絶，聲聞者亦悲。金召史，適金有泰，居春浦，年未二十而寡，只有一子。庚午歲，舅姑及同生兄弟遘厲

盡歿，金召史躬自收屍，竭誠營葬。其舅祖父義宗，年九十，子孫盡死，與一孫之無父母者相依爲命。金召史竝其祖孫，迎置其家，盡心養育，義宗之壽職帖文頒下，金召史抱持舅祖而泣，曰："若使吾夫生而見此慶，則其喜當何如也。"女家只有五斗畓，斥賣辦需，遍邀隣里，爲壽讌，以慰舅祖之意。事聞，營門給米肉。李琇，光州人，居帝石。早孤，事母以至誠，稍長事商販，專爲養親，殖一產，則分與其弟，且率育從妹之無依者，婚嫁以時，居家懿行，無[28]非孝之推也。鄕人狀其行呈官，轉報營門，請可旌褒，未蒙施行耳。李思遠，延安人，默齋貴之玄孫。母疾革，晨昏露禱，鬢髮盡白，親壽得延數朔。及居喪，朝脯奠需，必親執，不委婢僕。兩兄鰥而且窮，別造一大被，與之同寢。孝友之誠至死彌篤。鄕人敍其行，呈營邑，請旌閭褒之，未果施行。崔昌夏，江華人。事父母盡孝，父患內腫，腫潰，昌夏吮之。母以風症，全身不收，昌夏與其妻，竭誠扶護，鄕里感其孝焉。權玉童，安東人。早孤，與母李氏相[29]依爲命。丙子歲，李氏得染疾，夜聞殞絶之聲，時玉童年纔十四，斷指出血，灌于口，壹指墮落，而母病卽回甦，鄕里稱爲孝童。蘇德器，后泉蘇光震之玄孫也。早失姑恃，事繼母以誠，撫弟妹亦至，以孝友著聞旁士林，士林狀其行，呈營門，請旌表，未見施行，惜哉。檢同。人家奴也。有八十老母，常業商遠出，歸而見母凍餓，杖其妻而逐之。母嘗病革，斷指以救之，延至十餘年，上典嘉其孝，贖其身。

烈女

仇氏，年十五適曺敏，居郡內。早寡，誓不再適，斷髮爲尼，寫夫眞壁，掛陳衣服，

---

28 無：영인본에는 누락되었는데, 필사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29 相：영인본에는 누락되었는데, 필사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日夜哀號。朝夕享食，出入[30]必告，時食必薦，不茹蔬羹，不着美服，素衣[31]白裳，終其身。成化辛卯事聞，給米旌閭。吳氏，適池[32]三近，夫亡，廬墓三年，朝夕親奠，哭悲哀，聞者歎服。都氏，適忠義衛李楫，一日夜，猛虎猝入其家，攫咬其夫，都氏忘生奔救，以身翼夫，以手搏虎，相持不捨，虎乃去。事聞旌閭。李召史，適河京楫，居春浦。夫亡，曲盡喪制，母欲奪志，私許於强暴者，李召史雖欲堅拒母指，而將爲强暴所汚，故定意自決，訣兩稚，投水死。孝宗朝事聞旌閭。天道無知！二子幷無后。柳氏，籍晉州，縣監搏之女，夫延安李思章，牧使曼著之子也。夫歿，柳氏以死自誓，猶不忍自毁遺體，不食二十餘日，不死。自恨曰："吾命之頑，一至此哉!"自初喪，處于殯側之小廳，足不履廳外者，五年。苦節比之忠臣，則與文天祥燕獄事相類，命旌閭。其婢德今，與上典同居一廳，必左右扶持，未嘗須臾暫離[33]。德今有夫與幼子，謝遣其夫，使娶他妻，托其子于人，與柳氏同悲苦，三年如一日，先柳氏二年而死。事聞于一時，命賜其子米布。李氏，德水人，容齋李荇之後孫。適宋炳朝，居郡內，自失所天，水醬不入口，小祥日自盡。當宁丙辰旌閭。尹氏，海平人，海崇尉新之玄孫。適蘇相參(月洲斗山子)，居郡內。遭夫喪，勺水粒米不入口，喪制纔畢，柴毁自盡。當宁癸亥旌閭。李氏，全州人，懷安大君之後也。適士人崔德觀，事舅姑，極其誠敬。夫死，斂殯畢，飮藥從死。事聞旌閭。洪氏，士人林茁後妻也。前室有四子女，撫之如己出，夫病親供藥物，不委婢僕。及喪，治初終備誠禮，每欲自決以從，家人防守甚緊，爲緩人意，處之若泰然，過六朔後，飮藥而死。金召史，適林春郁，居彌勒面，事舅姑盡誠。

---

30 入 : 영인본에는 누락되었는데, 필사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31 衣 : 영인본에는 '服'으로 되어 있으나, 필사본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32 池 : 영인본에는 '浥'으로 되어 있으나, 필사본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33 離 : 영인본에는 '移'로 되어 있으나, 필사본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春郁年尙幼, 蓋預嫁也, 不知同調之[34]樂, 而春郁遘厲死, 襲斂諸節, 身自經紀, 第三日入屍房, 引斂布, 絞自縊死。事聞旌閭。宋氏。適士人蘇洙涵。夫亡, 欲自裁以從, 而爲[35]傍人所防守, 遂絶食毁死, 臨終以老姑幼女托于女僕, 聞者悲之。

陵墓

雙陵, 在五金寺數百步。《高麗史》云“後朝鮮武康王及妃陵也。”俗稱末通大王陵。一云:“百濟武王, 小名薯童, 所謂末通者, 卽薯童之翻訛也。”參議金仲舒墓, 在豆村面新洞, 有碣, 刻字盡刓。贈贊成蘇自坡墓, 在帝石面炭谷, 有碣, 南袞撰, 悠然齋金希壽書; 陰記, 容齋李荇撰, 遯齋成世昌書。大司諫蘇世良墓, 在帝石面炭谷, 有碣, 家弟陽谷世讓撰, 自書。贊成蘇世讓墓, 有神道碑, 認齋洪暹撰, 子遂書。副提學蘇逢墓, 在彌勒面內山洞, 有碣, 縣監楊時遇撰。校理蘇光震墓, 在郡內面猪城。監司蘇東道墓。在帝石面炭谷, 有碣, 宋尤菴題面。

---

34 之 : 영인본에는 누락되었는데, 필사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35 而爲 : 영인본에는 ‘以’로 되어 있으나, 필사본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金馬志　下卷

馬韓廢興

周武王己卯，封殷太師箕子于朝鮮，都平壤，相繼歷九百餘年。至四十代孫否，當始皇二十六年庚辰，畏秦服屬焉。否死，子準立後二十九年漢惠帝戊申，燕人衛滿亡命，聚黨攻之，準浮海而南，至金馬郡，都之，稱馬韓。統五十餘國，歷四郡二府 漢武帝元封三年，討右渠，遂定朝鮮故地，爲樂浪、臨屯、玄菟、眞番四郡。漢昭帝始元五年，以朝鮮舊地平邦、玄菟等郡爲平州都督府，臨屯、樂浪等郡爲東府都督府。之時，傳世亦二百年。《東史》。

箕準既爲衛滿所攻奪，率其左右宮人，走入海，居韓地金馬郡，自號韓王。其民土着種植，知蠶桑，作綿布，各有長師，大者自名爲臣智，其次爲邑借，散在山海間，無城郭。有爰襄國、牟水國、桑外國、小石索國、大石索國、優休牟涿國、臣儥沽國、伯濟國、速盧不斯國、日華國、古濛者國、古離國、怒藍國、月支國、咨離牟盧國、素謂乾國、古爰國、莫盧國、卑離國、點離卑國、臣釁國、支侵國、狗盧國、卑彌國、監奚卑離國、古蒲國、致利鞠國、冉路國、兒林國、駟盧國、內卑離國、感奚國、萬盧國、辟卑離國、舊斯烏朝國、一離國、不離國、友半國、狗素國、捷盧國、牟盧卑國、臣蘇塗國、古臘國、臨素半國、臣雲新國、如來卑離國、楚山塗卑離國、一難國、狗奚國、不雲國、不斯濆邪國、爰池國、乾馬國、楚離國，凡五十餘國，大國萬餘家，小國數千家，總十餘萬戶。俗大綱紀，居處作草屋土宇，其戶向上。俗不重金銀錦罽，而貴瓔珠，用以飾髮垂耳。其男子衣帛袍，履草蹻，性勇

悍，讙呼力作，善用弓、楯、矛、櫓。《東史》。

戊辰七月新莽初始元年，百濟王謂諸將曰：“馬韓漸弱，上下離心，勢不能久。倘爲他有，唇亡齒寒，悔不可及，不如先入取之。”冬十月，陽出獵，潛師襲之，遂幷其國。唯圓山、錦峴二城，固守不下，翌年夏四月，二城降，馬韓亡。《東史》。

丙子新莽天鳳三年，馬韓舊將周勤起兵，據百濟牛谷城今不知其地，王帥兵五千討之，周勤自經，腰斬其尸，竝殺妻子。《東史》。

新羅文武王八年二月唐高宗總章元年，唐遼東道大總管李世勣，合新羅兵，攻高句麗，九月拔平壤城，執王高藏以歸，高句麗亡。十年唐咸亨元年夏六月，故高句麗大兄劍牟岑，立高藏外孫安勝爲王，使人告新羅曰：“我先王臣藏，失道見滅。今臣等得本國貴族安勝，奉以爲君，願作藩[1]屛，永世盡忠。臣等聞興滅繼絶，天下之公義也。惟大國是望。”新羅王處之金馬渚。唐遣大將軍高勝，討安勝，安勝奔新羅。勝之族子將軍大文，據金馬渚，謀叛伏誅。餘衆殺官吏，據報德城以[2]叛。神文王四年甲申唐中宗嗣聖元年，遣將士討誅之，徙其人於國南州郡，以其地爲金馬郡[3]。《東史》。

---

1 藩：영인본과 필사본 모두 ‘潘’으로 되어 있으나, 문맥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2 以：영인본에는 누락되었는데, 필사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3 郡：영인본에는 누락되었는데, 필사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權陽村曰 ：“三韓之說，互有不同。然朝鮮王箕準避衛滿之亂，浮海而南，開國號馬韓。至百濟溫祚立，遂幷之。今之益州有故城，至今人稱爲箕準城，則馬韓之爲百濟，無疑矣。辰韓，新羅始祖赫居世所起之地。《新唐書》曰：‘卞韓，在樂浪之地’，又曰：‘平壤，古漢之樂浪郡’，則辰韓之爲新羅，卞韓之爲高句麗，亦無可疑。崔孤雲云‘馬韓麗也，卞韓百濟也[4]’，誤矣。”馬韓王稱辰韓、卞韓爲屬國，則句麗之非卞韓，明矣。詳見下文。

韓久菴《東國地理志》辨曰：“四郡二府在漢江以北，三韓在南，元不相涉。漢北後爲高句麗，馬韓爲百濟，今全羅道；辰韓爲新羅，今慶尙道。漢南京畿及忠淸道，分屬羅、濟。卞韓，卽辰韓之附國，本北方避亂之民，因其北方所居之舊地，而有樂浪之號，非句麗所起之地，而仍屬新羅。後人見卞韓之亦稱樂浪，便以高句麗爲卞韓，誤矣。甄萱云：‘昔馬韓先起，赫居世勃興，辰、卞從之而興。於是百濟開國金馬山，六百餘年。’今按，溫祚幷馬韓後，稱其地爲金馬渚，而不稱金馬山，且金馬郡未嘗爲百濟所都，萱之言未知所據。”《輿地勝覽》○ 按百濟始都慰禮城，再遷漢山，三遷北漢山，四遷熊津，終遷泗沘，國號南扶餘，未嘗以金馬爲都，《勝覽》已辨萱言之誤，而徐四佳《益山題詠》云‘濟國遺墟空老樹’，‘濟國’之稱，亦何據焉?

蘇陽谷〈益山東軒重新記〉云 ：“邑於湖之南者，五十餘矣。而唯

4 也 : 영인본에는 누락되었는데, 필사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吾郡最古，本馬韓武康王所都，宮基王墓，至今存焉。後朝鮮王箕準，爲燕人衛滿所逐，浮海而南，都于龍華山，山有山城，粉堞如昨。”信如陽谷言，則馬韓開國，武康建都，似在箕準之先，而三韓之時，八十餘國散如棋局，雖有君長之名，未聞有一人稱王者。史氏所謂“馬韓、黃龍等國，有同蠻觸，安得以爲國，安得以稱王”云，是也。且謚法始行於新羅中葉，則武康之號，決非馬韓以上之君也。東史諸韓，或有王號，實史氏追尊之也。郡西十里許，有雙陵，麗史云“後朝鮮武康王及妃陵”，一云“百濟武王陵也”。果若麗史所傳，則武康似是箕準子孫也。今見武康時宮基亘數里，塔劫立五丈，閱累千載宛然。始箕準失國竄身，艱艱自保，而其子孫能重恢祖業，大起家居，是固一世之雄，而何其歷年不長，滅亡斯忽也！《勝覽》云“武康造寺塔，而新羅眞平王遣工造成云”，三韓之時，佛法未及出來，然則寺塔之役，似是三韓以後事也。又按《東史》，百濟武寧王，與新羅眞平王幷世，而武寧驕傲盤樂，多榮土木，此距濟都，不滿百里，或者武寧設行宮于此，而仍葬于此耶[5]？武王陵之說，似近之，而亦未詳。

馬韓古事

漢成帝鴻嘉元年春二月，新羅始祖赫居世，遣瓠公聘於馬韓，馬韓王讓曰：“辰、卞二韓，爲我屬國。比年不修職貢，事大之禮，其若是乎?”對曰：“我國自二聖謂赫居世及妃閼英肇興，人事修，天時和，倉庾充實，人民敬讓，辰韓、卞韓、樂浪、倭人無不畏懷。而吾王謙虛，遣下臣修聘，可謂過於禮矣。而大王反怒，劫之以

5 耶 : 영인본과 필사본 모두 ‘欺’로 되어 있으나, 문맥에 의거하여 모양이 비슷하여 발생한 오자로 판단하여 바로잡았다.

兵，何耶?”馬韓王愈怒，欲殺之，左右諫止，乃聽還。先是中國之人苦秦亂東來馬韓者，頗多，與辰韓雜居，至是寖盛，故馬韓忌之。史氏曰“馬韓之滅，金富軾、權近皆不言箕君始終，何耶?”云云，竊謂以箕子過化存神之功，子孫衰弱播遷，殄滅其祀，非但八條之善政無聞。抑三韓之文獻不足，前史之不書終始，固無足怪。今於東史中，取事跡之一二概見者，錄爲馬韓古事。

漢哀帝建平元年八月，百濟始祖溫祚王，自慰禮城移住漢山下，遣使馬韓，告遷都。

漢哀帝元壽二年冬十月，靺鞨侵百濟，王帥兵逆戰於七重河，虜酋長素牟，送馬韓，坑其餘衆。

漢王莽居攝元年秋七月，百濟立熊川柵，馬韓王遣使責曰：“王初渡河，無所容足，吾割東北百里之地，安[6]之。其待王不爲不厚，宜思有以報之。今以國完民聚，謂莫與我敵[7]，大設城池，侵伐我封疆，如義何?”王慚，遂壞之。

金馬遺事

高麗忠肅王十六年元天曆二年三月，盜發金馬郡馬韓祖虎康王卽武康王陵，捕繫典法司，及賊逸，政丞鄭方吉欲劾典法官，贊成林仲沿沮之曰：“賊繫獄二年，無見贓，而死者多矣。”方吉曰：“固知發塚人多金[8]。”仲沿慚恚。仲沿必起於椎埋。

---

6 安 : 영인본과 필사본에는 ‘界’로 되어 있으나, 《삼국사기》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7 謂莫與我敵 : 영인본과 필사본에는 ‘謂我莫與敵’으로 되어 있으나, 《삼국사기》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高麗恭愍王元年元至正十二年，倭寇全羅道，知益州事金輝等領舟師擊之，不克。

辛禑二年大明洪武九年，倭寇林州，全羅道兵馬師柳寶、知益州事金密等，力戰却之。

辛禑四年九月，倭寇益州。十一月，又寇益州。自馬韓至麗季，干戈相尋，我祖三百年，一境寧謐，權陽村詩云:“鋒鏑千年後，桑麻四野春。”

鄕里記言

李典酒行儉，嘗爲刑部官，貞和院主認民爲隸，民訴之。同僚逼於勢，屈訟之直者，公死執不可，會疾作在告，同僚幸於無公，卽決之。夢利劍自天而下，斬刑部官吏，未幾皆暴病死，獨公無恙。官至國子典酒。李牧隱記。

李南村，恭愍辛丑爲贊成事。時沙賊旣退，京城新創，公量才度事，朝無廢政。祭先聖先師，廩生徒，內外學悉贍，導成禮俗，養育人材，蓋於投戈講藝、息馬論道之義，深有得焉。癸卯回自元時，成均館功役方興，公聞之大喜，卽解帝賜金帶，助其費。李牧隱撰述誌。○ 有功斯文，宜享俎豆。

李南村，以癸卯歲迎駕還京，奸臣崔濡[9]在元奉德興君，夤緣

8 金 : 영인본과 필사본 모두 누락되었는데,《고려사》권124의 내용에 의거하여 추가하였다.

9 濡 : 영인본과 필사본 모두 ‘儒’로 되어 있으나,《고려사》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權倖，謀廢玄陵，受命將行。玄陵[10]命公，奉表如元。至西京，詣太祖原廟，再拜誓曰：“吾君不復位，臣公遂之死不復還。”旣至都，皇后、皇太子郊勞絡繹。元順帝皇后奇氏，卽李氏之外孫也。

皇太子以帝命召公， 同上萬壽山廣寒殿， 太子問殿額仁智之義，公曰：“愛民之謂仁，辨物之爲智。帝王用二字，御四極，萬歲太平矣。”入殿，指金玉之柱，又曰：“老人曾見如此之珠乎?”公曰：“聞之，帝王發政施仁，則所居之屋，雖朽木，猶金玉之堅。不然，則金石之堅，反如朽木也。”出殿賜坐。禿魯帖木兒詹事立彈瑟，太子取而彈之，未成曲，捨之曰：“久不習，忘之矣。”公卽跪曰：“憂民之心，不至于忘，則瑟上一二調忘之，何害?”帝在太液池舟上，太子以公語奏之，帝曰：“吾固知此老賢者也。汝外家，惟此一人耳。”李牧隱記。

李南村在元，恭愍復位，公亦乞歸田里。出齊化門，使蒼頭吹笛，謂從者曰：“天下之樂，復有加於此者乎?”沿道馬困，蒼頭以一矢買一束菽飼之，公見[11]之曰：“何故奪窮民之食乎?”截綿布以充其價。閭山站，無人，粟積于野，從者又取飼馬[12]。公問粟一束直木綿幾尺，如其言，書於兩端，置于粟積中。從者曰：“持馬者回，必取之去，何益。不如不償之爲愈也。”公曰：“吾固知之矣。然必如是，然後吾心安焉。”李牧隱撰誌。

---

10 受命將行。玄陵：영인본에는 이 6자가 누락되었는데, 필사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11 見：영인본에는 누락되었는데, 필사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12 從者又取飼馬：영인본과 필사본에는 이 6자가 누락되었는데, 《고려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李南村，精明謹愼，果斷剛毅，一毫不妄取與，屹然不爲權勢所窘。自元東還也，忠義聞於天下，王厚待之。時辛旽當國，頗忌公，公亦以盛滿自戒，居德水縣別墅，幅巾藜杖，嘯咏其中，風流閑雅，蕭然有山野之趣。及遘疾，親戚謂夫人金氏曰：“盍禱于佛?”金氏曰：“公平生未嘗佞佛，妾安敢背其道，以欺公耶?”《東史》。

蘇困菴，自少力學，潛心聖賢之書，探賾義理之原。嘗有詩曰:“鏡不理塵水不波，胸中天地自中和。 世間查滓都消盡，始覺從前着力多。”此可見其造詣之深邃矣。蘇陽谷撰行狀。

蘇困菴，所與交遊，皆一時名賢，如晦齋李先生、慕齋金先生、思齋金先生、訥齋朴先生、沖菴金先生， 皆其友也。 相與往來，講磨論道。釋褐之後，卽入翰苑，陞爲吏郎，長居臺諫，守正不撓，一時疏箚，皆出其手，不悅者衆。正德丁丑，爲權奸所忤，出爲龍潭縣令。己卯之禍，諸賢打盡，而公以在外，故禍不及焉。蘇陽谷撰行狀及蘇眼窩撰遺事。

蘇困菴在翰院，中宗二年丁卯，與奉敎李希曾、金瑛，檢閱權橃、文瓘、金希壽等，論啓戊午史局事，請追罪李克墩，伸雪佔畢齋之冤。噫！戊午禍後十年之間，士氣摧沮，公論沕鬱，何幸扶正誅邪之論，自史局始倡，是非大定，人心快之，書諸國乘，豈不韙歟！第公家狀及碑文中，此一節皆闕而不錄，故今特記之。

蘇陽谷，年纔七八，好學問，不煩師資。中廟銳意文治，遵英廟

故事，選一時文學士七人，賜長暇讀書，終至典文衡者五人，公其一也。洪認齋撰神道碑。

蘇陽谷在玉署，顯德王后廢棄位號，幾六十年，臺諫侍從，累月伏閤，請復昭陵，久不得允。一日公入侍，面對極陳其不可廢棄，辭氣慷慨，言論切當，卽蒙允許。移葬顯陵，附于大廟，時論聳動。

蘇陽谷，以吏曹參議，欲便養，出尹全州，大提學李荇啓曰：“如某，合居文翰之職，不宜久滯卑秩。”上特加公嘉善階，拜漢城右尹。

蘇陽谷，與申企齋、鄭湖陰同時，而李容齋於陽谷最稱許，屢言於上前，“某當爲主文之人，不可置下位。”及乞養授洪州，容齋又言“文章之士，不宜出外”，上命召還。厥後申、鄭及陽谷，皆典文衡，而陽谷早退家，其享淸閑之福者，殆二十年。近世詞人，考終富貴，無出其右。《芝峯類說》。

蘇陽谷如京師，賀生皇太子，禮部尙書夏言，聞公有能詩聲，求見公作，稱美不已，贈以書册。及東還，上亦覽公行稿，命題賦詩數首而進，錫賚便蕃。俄判工曹，言者，以公入中朝，與學士唱和，將有後弊，論執甚力，竟遞。

蘇陽谷，以遠接使，迎送天使華察于江上，應接之際，不但周旋中禮，酬答詩篇輒爲華使所賞，至於揮涕而別。其後我國使臣入朝，華公必來，問公消息。

蘇陽谷，未病謝事，安於蕭散，構得淨室於竹林之下，規作終老計，扁其堂曰[13]退休堂，以示其意。然愛君之念，老而不衰，如

遇人自王京歸者，必斂衽改容，先問上體如何，餘無一語及乎朝政。

蘇陽谷之二兄世恭世儉，年皆八十餘，公年亦近八十，接屋而居，子姪之居又多隣比，晨夕過從，以爲常，頗有柳公綽昆弟之風。公爲諸兄，先辦供具，輪日遞行，次及子姪，肩輿要致，山椒水次，嘯咏徜徉，老幼扶携，久而不倦。聞者莫不歆艷。

蘇陽谷，筆法得松雪體。搢紳間，求得先墓碑誌、遺稿序跋及記題館宇，索筆蹟爲屛幛者，相踵於門，而公不喜誇張，靳於答應，故人罕有得之者。

蘇陽谷，館伴華使，華使問東國勝地，陽谷曰：“天下勝地，莫如東國；東國勝地，莫如湖南；湖南勝地 莫如益山；益山勝地，無出太虛亭。”華使欲一往賞，陽谷謂有村厲，以沮之。

蘇四隱，少遊國庠，持風裁，動遵禮義，專以名節自勵，人肅然起敬。時東西新裂，新進喜事者，論議多激。儒生安德仁上疏，斥宰執，上意專注一番人，西士之在學者，欲聯名封[14]疏爭之，公再三强之而後往，正色言曰：“近日分黨，只緣論議同異，不可以賢邪定目。救時之務，只在調劑兩間，釋其疑貳。吾輩居首善之地，當持論公平而已。區區辨爭，只激成其勢，不可保合，我則不敢苟同。”揖而歸。申公應榘，聞之，服其見。

---

13 曰 : 영인본에는 누락되었는데, 필사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14 封 : 영인본과 필사본 모두 '對'로 되어 있으나, 문맥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蘇四隱，年五十，謝絶人事，常居山中，訓導鄉人之來學者，講義不撤[15]。沙溪金文元公，出宰本郡，以敎化爲先，選蒙士敎《小學》，請公表率，公辭以病。希[16]元每以公退之暇，肩輿造廬，考質德義，咨詢政事，因訪南士之賢，公擧崔石溪命龍，遂知名於世。

蘇四隱，從子鳴國，締附權倖。有一時宰，托名用巖穴，將擧擬公臺官，欲以勢鉤致，作己援，使鳴國以書探之。公答書切責，引朱子論吳伯豐事，'寧有顔回爲桓司馬家臣'之語。

蘇四隱，不喜評品人，而鑑識甚精，不中者鮮。鳴國之始生也，至於[17]產室門外，聞啼聲，不見之，歸語人曰："墜先德而覆我家者，必此兒也。"及長，早升上庠，結交貴顯，聲譽藉甚，公獨不悅，遺書戒責，不啻馬伏波之於嚴敦。而書辭傲慢，無悔悟之意，竟陷奸黨，及於禍。鳴國，生而重瞳子。文翰夙就，生進俱中，驍勇絶人，超上上院寺法堂，言論風旨，傾動一座，每入洛，過從者甚盛。徐羊甲獄，辭連拷死。

蘇四隱，先墓在道川後岡。一日，里中失火，延及松楸，將犯塋域。公冠帶稽天，須臾反風下雨，火滅。鄉人傳爲孝感。

蘇四隱，常事伯兄如事父。朝夕起居，惘其鰥居，親供衣食。及病革，刺指和藥，沒後，語及，必垂涕。

蘇四隱，與金文元、鄭愚伏、趙重峯、韓久菴，相期以道義，麗

15 撤 : 영인본과 필사본에는 모두 '轍'로 되어 있으나, 문맥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16 希 : 영인본과 필사본에는 모두 '之'로 되어 있으나, 문맥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希元'은 김장생의 자이다.

17 於 : 영인본에는 누락되었는데, 필사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澤有孚。鄭公嘗歷，會於道川，講論踰月。入爲講官時，域中書籍，蕩殘於兵火。宣廟於經筵，求遺書，鄭公對曰：“臣見，湖南進士蘇某家所藏甚博，請遣使求之。”上顧李相弘胄。李公奉書傳諭，公以經傳子史數千卷封進。上覽後，命藏校書。明年，李公適將薦擬，公聞之，貽書峻却曰：“獻書干進，亦非小嫌。”李公乃止。

蘇四隱，與蓮峯李公基禹，交契甚密。李公累除官，不起。中年喪耦再娶後，托養病不言，親賓往候，惟畫字視意。公正色責曰：“遠其小妻，乃頤生大方，毋作此詭異之行以欺人”，李公欣然謝，自是言笑自若，其見重類此。

蘇四隱，貴義輕財，施人如恐不及。嘗曰：“士子家有蓄積，是累其德。周人，計我豐約，非義也。”

蘇四隱，於異教不經之說，一切闢之，佛老稗官之說，一不寓目。我東麗俗未變，鄉民設忌祭于僧舍，中元日，男丁前期上寺，設齋飯僧，成風已久。公嚴定約束，令在家行祀，中元則只使擇明淨處，祭其先。舊俗於葬日，例設夜樂，公禁，逐巫覡，不得近里巷，鄉里多化之。以上幷家狀。

蘇眠窩，出守殷山，移牧定州，殷、定之民，數前後有德惠者，必曰：“蘇公！蘇公!”隣邑守宰，亦畏憚，不敢爲非，故廉問使書啓，有曰‘淸北御史’云。宋尤庵撰神道碑。

蘇瘦齋，在韋布時，校宮之西，舊有盤松，不知其幾百年。枝幹

蟠結如龍蛇，爲一邑奇觀，使星之抵境者，必迂轡歷賞。邑倅尹調元，厭其應接，命斧手斫伐之。瘦齋有詩曰：“虎踞千年久，龍顚一瞬中。甫堂顔色減，魋伐古今同。影斷三更月，聲殘十里風。出門無所望，回首半天空。”倅見之，大恚，笞其家僮云。後日，倅以事見拿，瘦齋聞之，又有詩曰：“聞道凶人敗，天心固有知。端宜投有北，寧保聖明時。”

世傳，薯童大王掘薯蕷，得五金，因稱山名曰‘五金’。至今，山之石光土色，每當雨霽陽曝，則金采閃爍，令人眼眩，必此間產金，而惟不貪者可知焉。

宋正言乙開詩：“完府輿圖今拱北，馬韓文物久成空。”謹按馬韓之時，雖有君長之名，而史氏云：“俗無綱紀，且箕王，崎嶇山海，僅[18]能立國，至於文物制作，似未暇焉。”陽谷稱‘俗朴人魯’云者，可想尙質之遺風，‘文物’二字，恐是失題。

占家擲錢爲占，必以朝鮮通[19]寶爲貴，盖以鑄時最久，故取其物久則神也。至今千有餘年，其錢罕傳於世，惟此地墟里塚墓間，人或往往拾得焉。不但占者爲寶，人皆以古物亦貴之。

---

18 僅 : 영인본에는 ‘董’으로 되어 있으나, 문맥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19 通 : 영인본에는 ‘遞’로 되어 있으나, 문맥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蘇陽谷，謝事居鄉二十年，位高望重 爲一邑所推尊。一日邑倅坐衙，官屬闕朝仕。倅怪問之，侍者以往候贊成宅爲對。倅恚曰: “安用邑宰爲哉?” 遂投印符徑去。陽谷使子弟追及於礪山，挽住懇乞而後始還。

蘇陽谷，常處太虛亭，亭之東偏，有鴨脚樹。道內守宰之來謁者，不敢佩印以入，以綬懸之樹間，人稱掛印亭。祇今亭子雖毁，而老樹尙存，高枝拂雲，望[20]之者，知其爲故家喬木也。

李完南厚源， 初由蔭路， 宰是郡， 中崇禎乙亥增廣文科。古例，守令許赴同道科擧，公見咸悅東堂初試，與邑士蘇東道、崔德元參榜， 三人會于巳梯面村舍， 爲會試工夫， 公與蘇公俱中覆試。公改面名曰‘龍梯’，蓋謂登龍有梯也。至今兩名俱行。崔生以湖南巨擘稱，而早歿不第云。

蘇月洲，狀貌凝重，號令嚴肅，長不滿七尺，而腰大六圍。雖家人僕隷，擧皆畏憚，莫敢擧頭仰視，而對人接客，言笑樂易，致其勤款。

蘇月洲，早遊尤庵、同春兩宋先生之門，講學《春秋》，兩先生皆以大器許之。自是逐年往從，講質不已。兩先生每加勉奬，而公亦自益勵焉。

蘇月洲，言議淸平，風儀動人。無貴賤賢愚，所交甚廣，在泮，

---

20 望 : 영인본에는 ‘望望’으로 되어 있으나, 필사본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有同泮錄凡一百五十二人，洛下從遊錄凡二百五人，又湖南文官錄凡四拾九人，而皆來從，及在臺閣，異趣之人去者，殆半。

蘇月洲，有一女擇壻。公宰舒川時，設戰藝，一童子請紙筆及寫手，許之。立就策對一道，公覽而大奇之，卽權遂初堂忭，遂許妻之。權公之始終樹立，果不負公鑑識。

蘇陽谷，文集中，每稱與地主、鄉人觀漁納涼，而其會必於川上及斗池，玆實邑中遊賞之勝境也。到今彌勒山，面面童濯，崩沙流下，道川一帶水淺而不滀，斗池夷而爲陸。沿川上下，一鱗不產，而且無樹陰可憩處，欲尋先輩遺躅，只有野草墟煙而已。噫！山川改易，人事隨之，過之者，孰不有俛仰之感也?

蘇陽谷，兄弟皆住邑中。其謂太虛亭、退休堂、風泉閣、自娛亭、水雲軒、靜觀齋、淸心堂等諸榭，竝陽谷所創，而兼有湖山水竹之勝焉，以其第宅之盛，亦可想家貲之饒也。至今郡居[21]七十餘家，無非陽谷之旁孫或外裔，而皆以世業安坐而享[22]富貴，有歌僮舞女，佳辰令節，置酒邀賓以爲娛，眞所謂三公不換也。自經辛、壬變年以來，家計日漸旁落，賣土而無餘，食糴而未報，徒守世傳之廣屋[23]，而其中則四壁徒立。言其生涯，與貧寒者無異，古史云'物盛而衰，固其變也'，信矣。

---

21 居 : 영인본에는 누락되었는데, 필사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22 享 : 영인본에는 '亨'으로 되어 있으나, 필사본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23 屋 : 영인본에는 없는 글자인데, 필사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本郡，鄕綱最嚴，上下等級截然，不相凌越。三韓舊族之子孫，毋論土着與浮寄，皆陵替不振，行乞資生，比凡氓尤貧弊，而鄕人猶以兩班待之，里正不以閑丁侵之。嶺南則兩班庶派，皆不免軍役，入[24]校院生，則極以爲榮，而此土則累代庶支，猶不失班名。意者，蘇陽谷致仕居鄕二十年，爲一郡嚴立鄕綱，陶成邑俗而然也歟。比來各邑，豪民之爲軍校者，必陵侮兩班，視若儕友，而本土則軍校見兩班，不許廳上拜，立庭而見之，見過則命奴笞之，亦不敢致憾，而其恭愈甚，不有鄕綱，則決不如是也。以此，畿湖士夫之貧窮不能聊生者，皆以此土爲可居，爭集于境內，版籍所載四千戶，班戶爲一千五百餘。以九文川面檢池里論之，戶九十戶，班戶七十九，常漢只十一戶。所謂兩班，皆無率丁，身自樵汲，俗所稱兼奴上典，而所居之屋，藩籬不設，席門常關，有若避戶之未還者然。男兼農商，女事耘織以資身，而亦不能勤力如常漢，生理極其艱楚。雖在樂歲，鵠形鶉衣，無異乞兒樣子。公賦官糴，率皆後輸，村中無常漢可堪爲里正者。每於催科時，出送邑差，臨門催督，則兩班必大喝曰：“內近，宜退。”自經乙、丙饑疫，全家俱歿者，不知其數，而新寓者繼而麇集。此可[25]見士族盛衰之變，而余則曰‘本郡乃士族之尾閭也’。

本郡客館，不知何代所創，而東軒、正廳，燬于正德甲戌，太守

---

24 入：영인본에는 ‘人’으로 되어 있으나, 필사본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25 可：영인본에는 ‘未’로 되어 있으나, 필사본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朴斯文巨鱗重新之。 東軒復燬于嘉靖丙辰， 時倅李侯仁賢重建之。甓大廳及東上室、西軒，盡燬于當宁甲戌。回錄之再値甲戌，亦一異也。李侯之始經營也，邑之父老難[26]之曰:“運材邊山，民憚遠涉，海寇作孽，丁壯防戍，時屈擧贏，古人所戒，請俟來[27]歲秋成。”侯曰 :“一境之內，有四山林藪，有人家園苑，吾不遠求於邊山。”遂決意重搆，閱數月而畢，人稱其神速。再甲戌告災之纔數月， 時倅魚史績坐事罷去， 未及經營， 余代之。到官翌日，往觀灰燼之墟，俳佪不勝傷歎。謀所以改作，詢諸邑人，皆云 :“地無尋丈之材，民經饑疫之厄，時未可以營作，宜俟歲豐，徐議之”，一如李侯時父老之言。又與使相議之，使相又沮之曰 :“道內金堤、昌平、谷城等邑，皆無客館，雖無客館，何害之有？只當衰境任便，何必興勞役爲哉?”余迺慨然曰 :“本郡自馬韓以來，三爲群雄竊據。地理最勝，伯氣間發，非殿牌奉安之所，則無以鎭之，此不可一日無客館。”遂召匠而計其材，棟樑桷榱，幾千餘株。昔之林藪園苑，今皆童赭，邊山之松，不可冒邦禁而私斫。遂遍求之于四境，不毛之地，及朞而告落。蓋館宇燬處，非特東軒，且覓材之難，比前倍甚，故訖工斯遲。自今以後，一邑之所當警戒者，宜莫如禁火，而甲戌厄運，尤可悉也。

---

26 難 : 영인본에는 ‘歎’으로 되어 있으나, 필사본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27 來 : 영인본에는 ‘未’로 되어 있으나, 필사본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題詠

益山懷古

佔畢齋 金宗直

燕虜凶吞浿水西，南奔不啻會稽棲。
龍華山上城蕪絶，尙[28]帶君王駿馬蹄。

穠李花開縟禮成，寓公贏得一時榮。
自從身作蕭琮鬼，千載難尋報德城。

箕準城

安齋 成任

箕郎雌伏竟無成，强弱幷呑理自明。
想得當時麾下士，幾人回首憶西京。

次

四隱 蘇永福

往事悠悠一夢成，廢臺殘堞夕陽明。
江左偸安經幾歲，遺民傳說舊王京。

箕王南渡有何成，靑史丁寧故事明。

---

28 尙 : 영인본과 필사본 모두 '常'으로 되어 있으나, 《점필재집》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遙境太師來海外，當時萬國會周京。

客館

觀察使　李德泂

故國風煙惱客情，千秋金馬尙留名。
韓王殿廢耕犁遍，箕準城頹草樹平。
勳業麗朝推李子，文章昭代說蘇卿。
英雄鳥過豪華盡，依舊靑山夕照明。

前朝李公遂我朝蘇世讓皆邑人故云

次

都事　林瀼

飛鳥歸雲萬古情，山谿空帶馬韓名。
西南坼處荒郊闊，牛斗墟間暮堞平。
天府金湯稱蜀益，地靈前後有公卿。
一尊酒盡醺醺倒，旅館寒燈照枕明。

清心樓

郡守 張善淹

金馬千年郡，銅章一老翁。
自知才有限，還愧食無功。
舊竹穿煙碧，新蓮出水紅。
平生喜淸賞，興發簿書叢。

淸心樓

瘦齋 蘇東鳴

竹下通池池上樓，遠樓四面樹陰稠。
閑來倚柱不歸去，杜宇一聲山更幽。

益山途中

四佳 徐居正

南湖白白益山蒼，往事微茫夢一場。
濟國遺墟空老樹，箕君故殿幾斜陽。
百年無語憐金馬，萬古多情記石羊[29]。
白髮遠遊多慷慨，登臨無處不神傷。

---

29 羊 : 영인본에는 '年'으로 되어 있으나, 필사본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益山懷古

進士 宋光祿

仁化猶存立國初，孱孫其奈失權輿。
一般千古興亡恨，笑指扶蘇半月墟。

西京形勝好家居，去國何年傳舍如。
南渡乾坤蠻觸小，盡輸王氏混車書。

彌勒寺

陽村 權近

窓外靑山似削成，愁時擧目轉分明。
秋風日日吹巾杖，欲上高岑望玉京。

彌勒寺

四隱 蘇永福

古塔千年鶴，空齋[30]一箇僧。
塡池雖有跡，往事問無憑。

30 齋 : 영인본과 필사본 모두 '齊'로 되어 있으나, 문맥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過彌勒寺

瘦齋 蘇東鳴

古寺今荒廢，閑花獨可憐。
箕王遊樂地，芳草夕陽天。
感舊停行馬，傷春却[31]杜鵑。
空餘華表柱，高倚暮雲邊。

彌勒寺石浮圖

佔畢齋 金宗直

鬼功民力竟茫茫，上軼龍華萬仞岡。
千載石材成罪案，可憐金馬武康王。

題彌勒塔

瘦齊 蘇東鳴

女媧當時擬補天，尙餘遺跡幾千年。
曾隨輿地圖中見，更向陽村筆下傳。
屹屹遙凌飛鳥翼，巖巖不受祖龍鞭。
扶持自是神明力，撑柱東南一半邊。

---

31 却 : 영인본에는 '劫'으로 되어 있으나, 필사본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金馬

瘦齊　蘇東鳴

彌勒峯高溪水清，百年佳麗舊王城。
官樓南控長郊遠，佛塔西臨大道平。
楊柳影中蘇小宅，竹林深處謝公亭。
江南此地眞清絶，不獨金陵擅美名。

五金菴

陽谷　蘇世讓

不到峯西寺，三霜瞥眼過。
談禪僧已寂，甃石沿空波。
往事眞如夢，浮生亦有涯。
危樓高百尺，獨立夕陽多。

遊隱仙菴 改名白蓮社

陽谷　蘇世讓

九十春光已云暮，書巢斗屋獨長守。
三老招邀竝鞍行，阿咸群稚隨其後。
龍華東麓洞府幽，雨後淡水潺湲流。
岩嶢石窟雲霞古，迢遞村廬竹木稠。
亂石縱橫苔蘇老，白水前頭問歸路。
路漸逼仄人漸稀，遙望蓮宮隱松梢。

意行不覺到門前，二三殘僧來導先。
斧音纔絶壁初乾，僧言是寺名隱仙。
壘石爲階百餘尺，三間棟宇頗軒豁。
泉流巖竇潔且甘，一酌頓解塵喉喝。
山榴爛熳山鳥飛，蔬葉茸茸蕨芽肥。
虞奴臂鷹獲兩雉，香粳新炊飽我飢。
飢渴已消煩惱空，一枕黑甜當窓風。
金堂玉室不在遠，便欲此地安衰躬。
回頭二十年前事，今日信知如脫屣。
山花未落吾更來，寄語菴僧好相俟。

遊串寺前盤石

陽谷　蘇世讓

騎馬出門去，穿深度密遲。
正當春盡日，應値艷陽時。
林麓殘花在，村邊弱柳垂。
峯巒攢[32]劍戟，沙水淨琉璃。
共往盤陀石，仍倚屈曲枝。
巖回含徵羽，潭瑩貯漣漪。
谷鳥嚶嚶喚，山風細細吹。
何人能賞愛，而我獨心知。

---

32 攢 : 영인본과 필사본에는 '櫬'으로 되어 있으나,《양곡집》권7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畏暮杯頻倒，貪歡席更移。

菟裘吾卜晩，白首謾含悲。

遊板橋川上

陽谷　蘇世讓

霜林蕭蕭葉盡下，一片秋光逗平野。

先生乘興偶出門，縱轡意行聽老馬。

寒流無波瑩如洗，作隊遊儵時瀲瀲。

菽栗初收稻離離，人道今年勝前歲。

龍華[33]斷麓如蠶頭，登臨面面雲山稠。

網薦銀刀鷹捕雉，香粳炊熟香浮浮。

小姬緩歌撫秦笙，助以篳篥羌管聲。

自燒枯槎煮白酒，陶然不覺相忘形。

待看瑞光生雲端，氷輪湧出黃金盤。

人生百歲眞瞬息，何用多愁無好顔。

君不見上蔡犬華亭鶴，人生到此寧非惜。

不如日飮一百杯，佳辰美景恣歡謔。

---

33 龍華：영인본에는 이 아래로 '盡下……龍華'의 53개 자가 중복되어 있으나, 필사본에 의거하여 삭제하였다.

雪後望[34]王宮塔

陽谷 蘇世讓

雪中舊宮塔，聳立霄漢間。
却訝仙人掌，只無承露盤。
又疑華表柱，遼鶴何時還。
若欲添奇絶，崢嶸月滿山。

退休堂 幷序

明使 華察

贊成蘇君，發身及第，仕朝鮮若干年，致位一品，頭未班白，風流醞藉，鬱然有文，方當專秉國政，乃以退休名堂。余怪而問焉，曰："有老母在，不敢以身許人。且士貴知止，吾其已矣。"余聞之憮然，因詩以見意。

許身謀國幾多年，自覺浮名已澹然。
紫綬榮分東省內，班衣夢繞北堂前。
禪心欲把長齋茹，歸計空餘負郭田。
莫便陳情乞骸骨，好將玉帛去朝天。

34 雪後望：이 세 글자는 영인본과 필사본에 보이지 않는데,《양곡집》권5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退休堂

陽谷　蘇世讓

多事始知田舍好，坡翁此語出天然。
了無牒訴來相溷，閉閤通宵聽雨眠。

爾時常怪陶彭澤，歲晩羞爲五斗謀。
誰料我今輕若若，故山松竹意偏悠。

柴門無客不曾開，園巷深深長綠苔。
笋已成叢梅已子，主人何事未歸來。

自憐隻影轉倚倚，室在人亡夢也非。
細雨孤燈眠不得，可堪風幔落伊威。

儒林廿載竊虛名，潦倒如今白髮明。
曷不乞身歸舊隱，退休堂裏送餘生。

退休堂

觀察使　李慶全

思量往跡只茫然，此老文章萬古傳。
仙鶴一歸消息杳，野花園草自年年。

當時卜築豈偶然，蘇仙去後更誰傳。
惟餘手種庭前樹，合抱如今不記年。

次

四隱　蘇永福

鶴姿仙骨已飄然，夷夏遺名走卒傳。
收跡退休三十載，沈潛文墨送餘年。

浩浩文章出自然，從來衣鉢世相傳。
蘇仙舊宅留詩句，共播聲名幾百年。

登[35]雙峯

陽谷　蘇世讓

身御泠然汗漫風，茫茫繡隴畵屛中。
山川百里雲煙膩，眼入長空望始窮。

遊斗堤川上 回文

陽谷　蘇世讓

沙鋪岸上水悠悠，暖日風淸盡興遊。
家遠生煙炊處處，多蔭綠樹水邊樓。

---

35 登 : 영인본과 필사본에는 모두 누락되었는데, 《양곡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十里紅蓮長淵

四隱　蘇永福

平鋪紅雲十里賒，渚蓮千柄亂橫斜。

扁舟載酒花間樂，若比曲江無等差。

題南村書院

瘦齋　蘇東鳴

獨立麗朝季，期扶社稷危。

扈君還國日，吹笛出都時。

宿德三韓老，高風百世仰。

吾徒興景慕，於此起新祠。

雜著

清心樓記

宋乙開

金馬郡，昔武康王稱王之地，山川如昨，塔廟宛然，千載之下，可以想見其雄風壯烈也。國除爲郡，歲丙子，茂珍盧相君守是邑，始起樓於客館之東，歲久傾圮。戊辰春，密陽孫侯來莅政，召募遊手，伐木陶瓦，以重新之，塗墍丹雘，閱兩月而告成。予惟，仁哉！孫侯也。官有是役，而民不知，上有是心，而下相勸；財不官出，而役者飽，役不因衆，而功以成。推是道，施之事，何

往而非仁乎。

東軒重修記

陽谷 蘇世讓

邑於湖之南者, 五十餘矣。而惟吾郡最古, 本馬韓武康王所都, 宮基王墓, 至今存焉。後朝鮮王箕準, 爲燕人衛滿所逐, 浮海而南, 都于龍華山, 山有石城, 粉堞如昨。龍華一支, 蜿蜒東走, 又折而迤南, 結爲雙峯, 高撑蔥鬱, 若馬耳然。華山諸洞之水, 混爲長川, 汩汩南奔, 入于春浦。邑居當雙峯之趾, 而西枕溪流, 地僻而木老, 俗朴而人魯, 有故都遺風, 而客館專曠奥之勝。是以博雅好奇之士過此者, 必攬古興懷, 徘徊嘯詠[36], 而有不能去矣。舊館, 不知何代所營, 低隘傾陊, 殆無以容使節。正德甲戌, 東軒正廳, 燬于回祿, 朴斯文巨鱗來守, 高廣其基, 而重新焉。繼而修繕者, 淸心樓及大門, 若廊廡若廚廄, 則黃侯耆弼也; 撤舊而改創者, 上下西軒, 則李侯順曾也; 東翼室, 則韓侯[37]永也。連甍接棟, 結構締固, 階級峻整, 庭除弘敞, 始爲一邑之偉觀矣。今地主李侯國信氏, 早以文學鳴, 立于朝嘗顯矣。爲板輿之奉, 剖左符于此, 臥閣鳴琴, 施以平易之政, 而庭無雀鼠, 墻掛桁楊者, 四年于玆矣。往年仲冬朔, 館人不謹徙薪之戒, 火發於東上房竈舍, 轉眄之間煙焰上騰。是日館北墻外, 適開場市, 旁郡畢

36 詠 : 영인본에는 누락되었는데, 《양곡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37 侯 : 영인본에는 누락되었는데, 《양곡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至，指可千數，爭相奔救，纔得撲滅，而東軒則已無及矣。渠渠之屋，頃刻煨燼，侯迺感歎，決意重構。邑之父老，進言於侯曰：“吾邑地連平野，無高山大嶺可以養楩柟杞梓之材。前者營造公廨之時，率皆筏運於邊山，遠涉重溟，人甚苦之。況今海寇作孽，邊塵不靖，丁壯團聚於防戍，老弱劬勞於洿萊。時屈擧贏，古人所戒，盍俟來歲之秋成乎？扶安，土地人民什倍於我，且邊山乃其所管，而客軒之災，屢經寒署，尙未改造者，非力不足，蓋有待焉耳。”侯迺奮髯抵几曰：“凡營建邑居，必先客館者，所以敬使命也。況東軒，上賓之所處，客館之有東軒，猶人之有頭目，安可無耶？吾以無似，謬專百里，心存撫摩，不敢弛懈，而火災之作，必起於東軒。意者，天所以儆余者，大矣。不可一日安坐而恝視，又不可以我之憂而貽後來之君子也。一境之內，有四山林藪焉，有人家園苑焉[38]，掄[39]材取用，大者爲樑棟，小者爲杙桷，吾不遠求於邊山矣。蕞爾小醜，偶犯一隅，以國家兵威，旣已掃逐，必無再窺之憂。況守令，遞代不常，安敢遠期來秋乎?”卽召募都料匠，迺得之於完府之境，付以指揮之任。若夫規畫增損之方，則悉出於侯。又遣勤幹之吏，陶瓦甓於野。於是[40]鋸者、斲者、埏者、埴者，[41] 百手竝作，勿亟不[42]怠，纔閱數月，而斤斧收

---

38 焉：영인본에는 누락되었는데,《양곡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39 掄：영인본과 필사본은 모두 ‘稐’으로 되어 있으나,《양곡집》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40 是：영인본과 필사본 모두 ‘時’로 되어 있으나,《양곡집》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41 埴者：영인본에는 누락되었는데,《양곡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42 不：영인본에는 누락되었는데,《양곡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聲，丹雘畢施。芝栱鱗簷，翬飛鳥跂，曲欄橫檻，周遭窈窕，簾旌隱映而耀日，粉壁芳菲而奪目。制雖仍舊，而偉麗則遠過焉[43]。侯迺捐吉日，會賓客，觴而落之。噫！館宇之成毁，係於守土之賢否。能者，自以爲衙[44]，而妄有興作；拙者[45]，坐觀頹仆，而瞢然無所措之。二者，皆爲民之病也。然成不自成，必成於成者之手；毁不常毁，必毁於毁之之時，成之難而毁之易。故爲事者，保其難而愼其易，則雖成敗相尋於無窮，而成未必恃，毁不足慮也。自今繼來者，以吾侯之心爲心，則吾見吾鄉之官舍有成而無毁，豈非幸歟。余與侯往還，遊從之久，每愛其恂恂有儒者氣象，不知胸中藏大廈萬間，而治劇之才有如是其快也。侯訪余於林下，以軒記爲囑，余才非三王，頌乏[46]張老，曷足以盡輪奐之美？姑書成毁之始終，略書如左。侯名仁賢，國信其字，乙酉科出身也。嘉靖丁巳下澣，蘇某記。

壎篪[47]堂記

尤菴 宋時烈

今上甲辰，仲氏視篆金馬，見其官廨，皆老屋支柱，殆不可居；

---

43 焉 : 영인본과 필사본에는 '矣'로 되어 있으나, 《양곡집》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44 衙 : 영인본에는 '衙'로 되어 있으나, 《양곡집》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45 者 : 영인본에는 누락되었는데, 《양곡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46 乏 : 영인본과 필사본 모두 '之'로 되어 있으나, 《양곡집》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47 壎篪 : 영인본과 필사본 모두 속자를 사용하여 '塤㙓'로 표기하였으나, 여기서는 정자를 사용하였다.

又見其所不可無者，皆無也。遂先治別堂於衙舍之前，將次第修建矣。已而[48]意有所不[49]樂，卽解歸。家弟隔一年代之，相去厘七月矣。卽欲爲仲氏之所欲[50]爲者，而連歲不豊，惟賑飢是事，兼且營將設鎭於邑中，策應支供，無弊不有，吏民重困，則尤不可於營繕矣。旣一年縮衣貶食，帑儲稍羨，遂起功於戊申春，役飢民，仍以哺之，如古人兼賑之策。明年春，又以公事至京，上引見，咨以郡瘼，遂以營將設鎭爲對，上命有司還移礪山，則吏民稱便，而力役益饒矣。遂以庚戌春，諸工告訖，蓋自倉舍[51]之廳事，客舍之西軒，郎位廳，伺侯廳，公須廳，大門，及新移衙舍之祠堂、廳事、東西室、廚庫、行廊、內外門總一百三十間，凡所當建而未建者，擧[52]皆一新，而惟客舍廳事、東軒，仍舊葺理而已。又以衙舍旣移，則其別堂不宜仍在故處，故竝移於新衙之傍，而以仲氏之所成也，故其規制一無增損焉。又仲氏鑿池，種蓮於其前，故亦引水爲沼，竝移其蓮。而名其堂曰壎篪堂，蓋取小雅〈何人斯[53]〉篇之義也。沼曰澄碧，取晦翁'芙蓉映澄碧'之句也。蓋惟本朝邑倅之俸，未有定制，自行大同之法，則逐朔皆有常支，雖其多寡不同，要之甚優於京官矣。只緣爲吏者雖不必橫

---

48 而 : 영인본과 필사본에 모두 누락되었는데,《송자대전》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49 不 : 영인본에는 '有'로 되어 있으나,《송자대전》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50 欲 : 영인본에는 누락되었는데,《송자대전》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51 倉舍 : 영인본과 필사본은 모두 '司倉'으로 되어 있으나,《송자대전》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52 擧 : 영인본과 필사본에 모두 누락되었는데,《송자대전》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53 斯 : 영인본과 필사본에 모두 누락되었는데,《송자대전》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目自營，而例多侵欺滲漏之未塞，故常患不足，而不得爲其所當爲者矣。今以家弟觀之，則財不難，而用之爲難；用之不難，而用之當者尤難也。家弟治行，固多可記，而古人云'其父譽之，不若非其父譽之'。兄弟與父子，所爭幾何哉。只書其屋宇之作止年月及所作之間架焉。若其名堂之義，則以一家之私而揭之公館，似若有招議者。然兄弟之[54]倫，是通天下之公理，天下豈有倫外之人歟。後之繼而來者，無以爲一人之事，而因此一端，推廣而敎於民，則不待閉閤，不必下淚，而自無高陵淸河之民矣。其於[55]爲政之本，殆庶幾焉爾。家弟，名時燾，字誠甫，其先恩津人也。恩津宋某記。

華山書院上樑文

月洲 蘇斗山

德澤酌生靈，恒切慕賢於旣往；荊榛化堂宇，獲覩創祠之維新，師之所存，廟焉而享。伏惟沙溪金先生，千年道脈，一代儒宗。泝濂洛之淵源，人知所向；倡鄒魯之正學，士有依歸。安貧樂道者幾年？繼往開來之自任。可謂知禮，師事栗牛之賢；不輟談經，學立游夏之上。受知遇於宣廟，擧以賢良；任字牧於益州，政用仁恕。文翁治蜀，陶甄儒化之成；昌黎守潮，敎養文行之篤。方歌叔度之來暮，忽見何武之去思。武城之絃[56]歌至今，河汾之講

54 之 : 영인본에는 누락되었는데, 《송자대전》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55 於 : 영인본에는 누락되었는데, 《송자대전》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學依舊。昏朝政亂，寧有就傑之心；莘野躬耕，只知樂堯之道。行藏[57]用舍之適義，得喪窮達之聽天。逮仁祖之龍興，運開中否；起大老於車載，位擢亞卿。方期三代之治隆，何遽兩楹之夢奠？繄門生終天含痛，七十子之至情；惟邑民沒世不忘，四五紀之愈久。第以師旅飢饉之相繼，不遑先賢祀事之孔明。南鄉之惠愛有加，君子懷德；北巖之香火無所，故老興嗟。玆營相地之宜，允副影山之吉。神道尙淸淨，有待慳秘之名區；儒流不異門，努力惠好之同志。丸丸之松柏是斷，汗牛千頭；渠渠之廈屋告成，翬鳥雙翼。窮般倕之妙技，佇看風雨之攸除；架棟樑於層霄，已致燕雀之來賀。經始勿亟，初聞民庶之子來；詢謀僉同，終見士林之響應。仁聲仁聞之如彼久也，攸芋攸寧之此其時哉！巍然數畝之閎宮，猗歟千載之血食。行世一篇之模範，倣紫陽制禮之文；揷架萬軸之卷舒，擬白鹿莊書之洞。過者必式，宛對陟降之時；瞻之在前，如承謦[58]咳之日。昌平之荊棘不入，闕里之禮樂可興；未喪之斯文在玆，不墜之吾道焉是。自益州夫子廟後，可與始終；覽金馬先生案中，無間存沒。小子何述，恨未及函丈之摳衣；百世聞風，幸有此莊修之得所。玆呈短頌，助擧備樑。

---

56 紘 : 영인본과 필사본에는 모두 '鉉'으로 되어 있으나, 《월주집》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57 藏 : 영인본과 필사본에 모두 '莊'으로 되어 있으나, 《월주집》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58 謦 : 영인본과 필사본 모두 '警'으로 되어 있으나, 모양이 비슷하여 발생한 오자이어서 바로잡았다.

兒郎偉抛樑東，馬耳龍回向此中。淑氣鍾精多吉士，冠童擬挹舞雩風。

兒郎偉抛樑西，萬壑爭趨衆鳥低。麗季文忠遺廟在，明時師表又沙溪。

兒郎偉抛樑南，春浦横灘一練涵。毖祀宅茲清絶地，連黄山與益山三。

兒郎偉抛樑北，立立峯巒增黛色。山際松如召伯棠，長教勿剪歌遺德。

兒郎偉抛樑上，去天尺五捫星象。巍峨石塔助扶持，彷彿春風留氣像。

兒郎偉抛樑下，門前指點蒼茫野。欲知體道大賢功，看取川流流不舍。

伏願上樑之後，顔瓢在巷，由瑟升堂。黄卷孜孜，勉講墳典之奥旨；青襟濟濟，敬奉俎豆之盛儀。

金馬志跋[59]

右金馬志二卷，金馬卽益山別號也。邑之有別號，尙矣，唯金馬最古。本後朝鮮箕準所都，其後安勝、大文相繼竊據，此實兩湖間一都會。而至今山川不改，城郭猶存，千載之下，其遺風流俗，庶可影象。而顧其事蹟，則茫昧而無稱焉，斯豈非一邦文獻之不足故歟？嘗聞古人撰志，雖涓流蟻垤，必索錄焉。今觀邑士蘇景鼎、金澱所爲益山誌，則只依《勝覽》、《撮要》之例，而多有闊略不盡錄者。玆就舊本，益以新聞，至於故事之概見於東史者、古人詩文之誦傳於人口者，竝附于尾，續成一編。以其兼錄古實，故名之曰金馬志。世之遊觀好古之士，庶幾覽此而或有所徵信焉。崇禎紀元後百二十有九年丙子月日，宜寧南泰普識。

59 金馬志跋：이 제목은 영인본과 필사본 원문에는 없는 것인데, 독자의 편의를 위해 보충하였다.

追錄

題金馬郡壁上

丙子六月　樗軒 李石亨

虞時二女竹，秦日大夫松。
縱有哀榮異，寧爲冷熱容。

次 幷序

崇禎再己亥仲春上浣　觀察使 洪錫輔

“虞時二女竹，秦日大夫松。縱有哀榮異，寧爲冷熱容”，右樗軒李先生詩也。先生，當英廟朝，三場壯元，與成、朴諸學士齊名。世祖丙子六月，六臣獄起，先生方爲本道方伯，以甫閱憂服，旋除外仕，獨無所坐。同月二十七日，巡到本郡，聞諸人盡死，有此詩。時臺諫請鞫，世祖覽之，曰：“詩人命意，不知所在。何必乃爾。”遂止。當時揭于壁間，今爲兵燹所失。不佞，以先生外裔，猥叨觀察之任，深慨舊蹟之泯滅，手書鏤板，謹步原韻如左云爾。

凜凜六臣節，蒼蒼萬丈松。
蟄龍潛雖極，終見聖朝容。

金馬志

影印本

追録

題金馬郡壁上　丙子六月　樗軒　李石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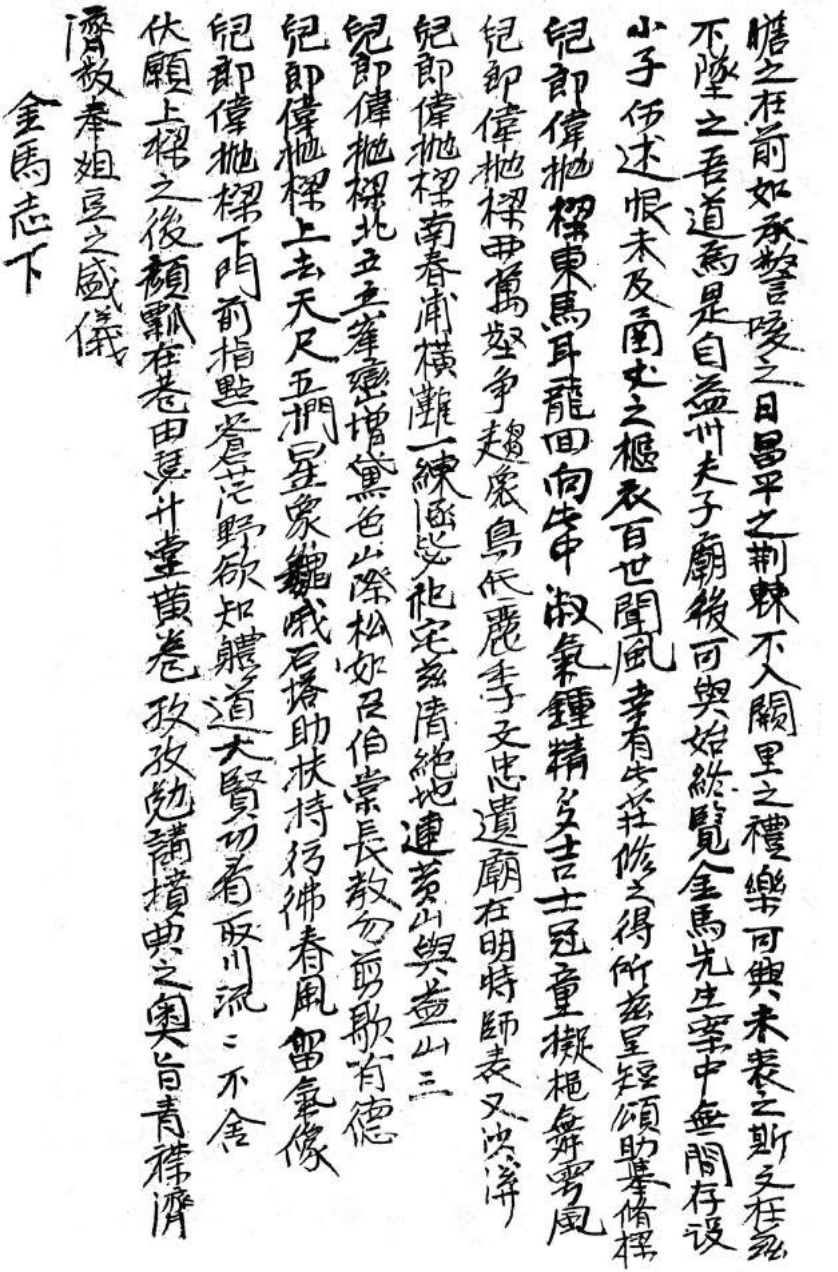
當時二女忻泰日大夫松縱有衰榮異寧爲冷熱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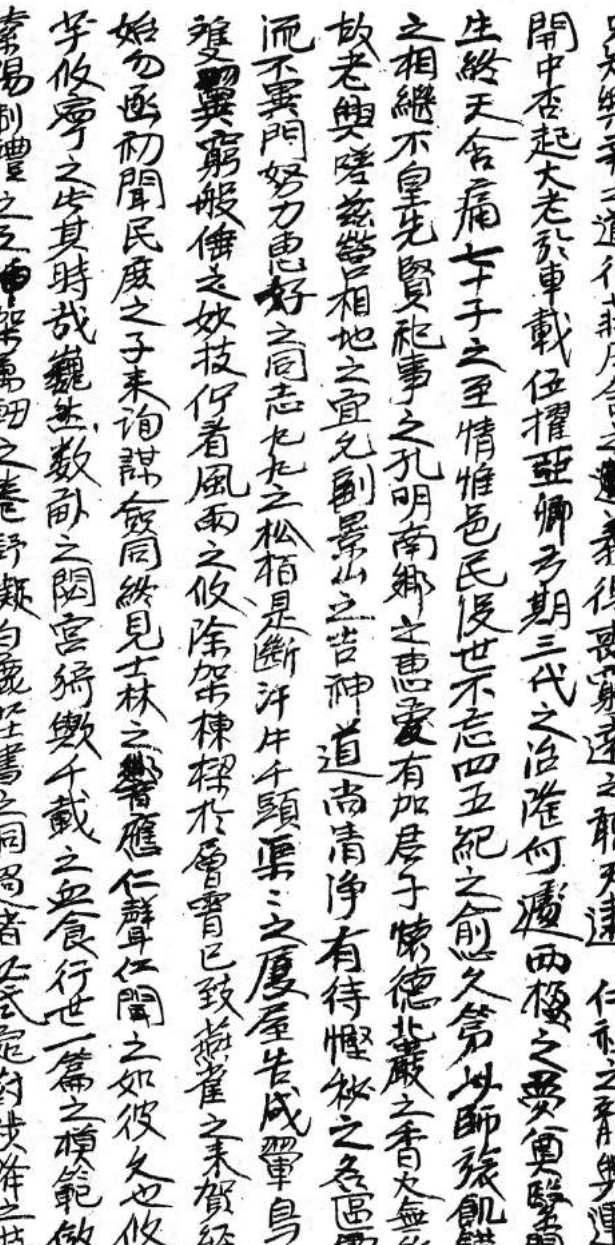
次　弁序　崇禎再己亥中春上浣　觀察使　洪錫輔

當時二女忻泰日大夫松縱有衰榮異寧爲冷熱容右樗軒李先生詩也盖先生當英廟朝三場壯元與朴林諸學士齊名世祖丙子六月六臣獄起先生方爲本道方伯以閔憂服旋除外任獨免所坐今月二十七日迆到本郡聞諸人盡死有古詩咏臺諫請鞫世祖覽之曰詩人命意不知所在何必乃尔遂止當時揭于壁間今爲兵燹所失不傳以先生外裔猥叨觀察之任深慨舊蹟之泯滅手書鋟板謹步原韻揭之云尔

竄棄六臣節蒼蒼萬丈松潛雖極後見聖朝容

右金馬志二卷金馬即益山別號也邑之有別號尚矣惟金馬最古本後朝
鮮箕準所都其後安勝大文相繼窃據此實兩湖間一都會而至今山川不
改城郭猶存千載之下其遺風流俗庶可影象而顧其事蹟則茫昧而
無稱焉斯豈非一邦文獻之不足故歟嘗聞古人採摭志雖涓流壤土以拿録焉
今觀邑志古蘇景具金瀣所爲益山誌則只依勝覽撮要之例而多有闕畧不
盡録者若乾旧本益以新聞至於故事之散見於東史者古人詩文之稱傳
於人口者並附于尾續成一編以其兼録古實故名曰金馬志世之遊觀好古之士
庶幾覽此而或有所徵信焉崇禎紀元後百年有九年 丙子 月 日 直寧
南泰耆識





多侵欺滲漏之未塞故常患不足而不得爲其所當爲者矣今以家弟觀之則財不難而用之爲難用之不難而用之當者尤難也家弟治行固多可記而古人云其父爨之不善非其父爨之兄弟共父子取爭幾何哉只書其屋宇之作與年月及所作之間架爲善其名堂之義則以家之私而揭之公館似善有招議者然兄弟偏是通天下之公理天下豈有偏外之人歟後之繼而來者無以爲一人之私而因生一端推廣而教於民則不待閭閻不出下溪而自無高陵清河之民矣其爲政之本殆庶幾焉依家弟名時壽字識甫其先恩津人也恩津宋某記

峯山書院上樑文

月洲　蘇斗山

德澤酌生靈恒切慕賢於既往剌棒化堂宇獲覩創祠之維新師之所存廟焉而享伏惟沙溪金先生千年道脈我儒宗泝濂洛之淵源人知所向倡鄒魯之正俾學士有依歸安貧樂道者幾年繼往開來之首任可謂知禮師乎栗牛之賢不輟談經學子遊夏之上受知過孔　宣廟舉以賢良任字牧於益州政用仁恕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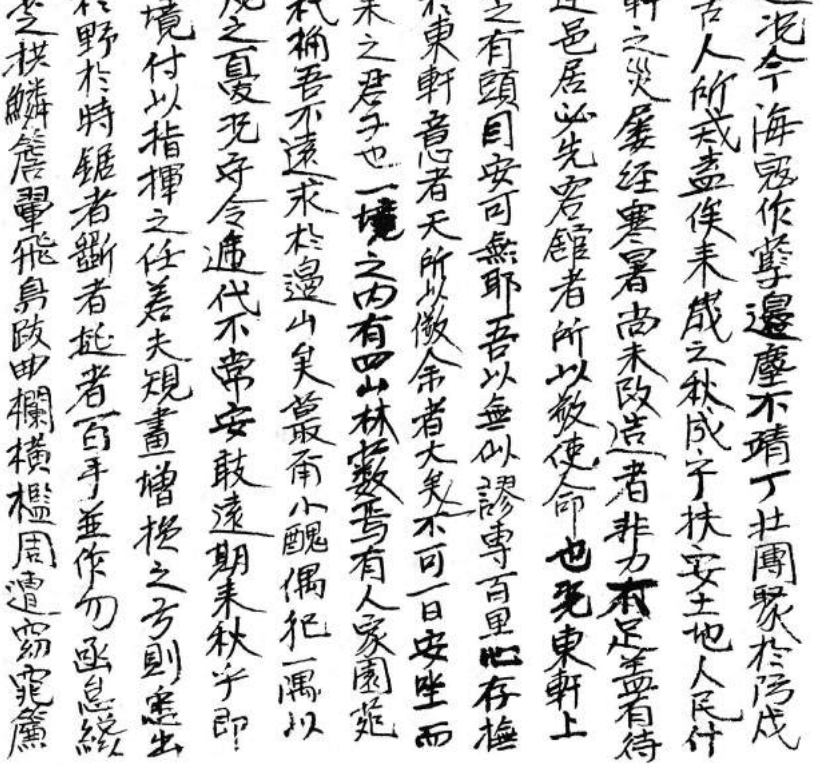
家弟備一手代之相去屢七月矣即欲為仲氏之所爲者而連歲不豐惟賑飢是事策
且營將設鎮於邑中策應支供無弊不有吏民重困則尤不暇於營繕矣既一
年縮衣貶食節儲補羨遂起功於戊申春後飢民仍以哺之如古人兼賑之策明
年春又以公事至京 上引見咨以郡瘼遂以營將設鎮爲對 上命有司還移鎮
山則吏民稱便而力役益饒矣遂以庚戌春諸工告訖盖自司倉之廳事客
舍之西軒即佐廳伺候廳公須廳大門及新移衙舍之祠堂廳事東西堂
厨庫行廊內外門摠一百三十間凡所當建而未建者皆一新而惟客舍廳事東軒
仍舊葺理已而又以衙舍既移則其別堂不宜仍在故處故並移於新衙之傍而
以仲氏之所成也故其規制一無增損焉又仲氏鑿池種蓮於其前故并引水爲沼並
移其蓮而名其堂曰塤篪堂盖取小雅何人篇之義也沼曰澄碧亦取梅翁芙
蓉映澄碧之句也盖惟 本朝邑倅之俸未有定制自行大同之法則逐邑皆有
常定雖其多寡不同要之甚優於京官矣只緣爲吏者雖不必橫目自營而例

弦隱映而耀日粉壁芳菲而奪目制雖仍舊而偉麗則遠過矣侯適捐吉日會
賓客觴而落之噫館宇之成毀係於守土之賢否能者自以為衛而妄有興作拙
者觀頹仆而瞢然無所措之二者皆為民之病也然成不自成必成於成者之手
毀不常毀必毀於毀之之特成之難而毀之易故為事者保其難而慎其易者則
雖成敗相尋於無窮而成未必特毀不足慮也自今繼來者以吾侯之心為心則
吾見吾鄉之官舍有成而無毀豈非幸歟余與侯造還遊從之久每愛其恂恂有
儒者氣象不知胸中藏大廈萬間而治劇之才有如是其快也侯請余於林
下以斯記為囑余才非三王須之張老曷足以華輪奐之美姑書成毀之始終畀
書如左侯名仁賢國信其字乙酉科出身也嘉靖丁巳下澣蘇某記

損埽堂記

右菴　宋時烈

今上甲辰仲氏視篆金馬見其官廨皆老屋支柱殆不可居又見其所不可無
者皆無也遂先治别堂於衙舍之前將次第修建矣已意有所有樂即解歸



地僻而木老俗朴而人魯有故都遺風而客館專曠奥之勝是以博雅好
奇之士過此者必攬古興懐徘徊瞻有不能去矣舊館不知何代所營低隘傾
陊殆無以容使節正德甲戌東軒正廳燬于回祿朴斯文巨鱗來守高廣
其基而重爲新觀爲繼而修繕者清心樓及大門差廊廳廚廄則黃
候耆弼也撤舊而改刱者上下西軒則李候順曾也東翼與室則韓永也連
甍接棟結構締置級崚嶒庭除弘敞始爲一邑之偉觀矣今也李
候國信氏早以文學鳴于朝當顯矣爲板輿之奉剖左符于此卧閤鳴
琴絃以平易之政而庭無雀鼠牆樹桁楊者四年于玆矣往年仲冬朔館人
不謹從薪之戒火發於東上房竈舍轉眄之間煙焔上騰是日館北墻
外適開場市雲屈畢至措可千數争相奔救纔得撲滅而東軒則已無及
矣累累之屋頃刻煨燼候迺感歎決意重構邑之父老進言於候曰吾邑
地連平野無高山大嶺可以養梗楠杞梓之材前者營造公廨之時率資於

雜著

清心樓記

宋乙閑

金馬郡(昔)武康王稱王之地 山川(如)作塔廟宛然 千載之下可以想見其雄風壯烈也 國除爲郡 世(歲)丙子 洪侯盧相(君)郡守是邑 始起樓於客館之東 歲久(傾)頹圮 戊辰春密陽孫侯來從政 召募遊手伐木陶瓦 以重新之 塗堅丹雘 閱兩月而告成 敢予惟(仁)哉 孫侯之宜有是役 而民不擾 上有是心而下相勸 財不官出而役(役)者飽 役不因衆而功以成 惟是適施之事 何治而非仁乎

東軒重修記

陽谷 蘇世讓

邑於湖之南者 五十餘矣 而惟吾(鄕)郡最古 而(馬)韓武康王所都 宮基王墓至今存焉 昔(發)朝鮮王箕準(爲)爲衛滿所逐 浮海而南 都于龍華山 山有石城 粉堞依昨 龍華一支 蜿蜒東走 又折而迤南 結爲雙峯 高撑(聳)君馬耳 然華山諸洞之水 匯爲長川 洄洄南奔 入于春浦 邑之居 當雙峯之趾 而西枕溪流

吹　　四隱　蘇永福

鶴姿仙骨已飄然　爽負遺名老卒傳　收跡退休三十載　沉潛文墨送餘年

沸沸文章出自然　往來衣鉢世傳　蘇仙舊宅留詩句　共播聲名幾百年

雙峯　　陽谷　蘇世讓

身御冷然汗漫風　茫茫縹緲畫昇中　山川百里雲烟膩　眼入長空望始窮

遊汴堤川上回文　　陽谷　蘇世讓

沙鋪堤上水悠悠　曖日風清盡興遊　家遠生烟炊處處　秀陰綠樹水邊樓

十里紅蓮　長湖　　四隱　蘇來福

平浦紅雲十里餘　渚邊千柄亂橫斜　扁舟載酒花間樂　若失曲江無等差

題南村書院　　瘦齋　蘇東鳴

獨立巖巖朝季期　扶社稷危危君還國日　吹雨出都時宿儒　三韓老高風百世仰吾徒

與景直於此起新祠

敢以身許人且士貴知止吾其已矣余聞之慨然因詩以見意

許身諸國幾多年自覺浮名已濫然案後榮分東省内班衣優繞北臺前禪

心欲把長齋搖役討安歸頁郭田莫便陳情乞骸骨好將(持)玉帛去朝天

退休堂 陽谷 蘇世讓

多事始知田舍好坡翁此語出天然了無餘訴未相溷閑閣通宵聽雨眠

有時常憶陶彭澤歲晚蕭蕭五斗謀誰料我今輕君之故山松竹意偏侈

柴門安宗不曾開園巷深深長綠苔爭已成叢橡已子主人何事未歸來

自憐度影轉依依臺在人亡慶也非細雨孤燈眠不得可堪風慢之落偶成

儒林卅載會虛名慚愧(如)非今白髮明哥不乞(乞)身敗舊退休堂裡退餘生

退休堂 觀察使 李慶全

思量往事只茫然此老文章萬古傳仙鶴一歸消息杳野花園草自年年

當時卜築豈偶然蘇仙去後更誰傳惟能手種庭前樹合抱如今不記年

盡下一片秋光逗平野先生乘興偶出門縱轡意行聽老馬寒流無波瑩如洗依
隊游鯈時潑潑松栗初收稻離離人道今年勝前歲龍華山麓如吞頭登臨之
雲山綱網鶯銀鷹捕雉香粳炊熟香浮浮小筵緩歌撫秦箏助以簫笛兼羌管聲 力
自燒枯槎煮白石陶然不覺相忘形待看璐先生雲端氷輪湧出黃金盤人生百歲真
瞬息何用多愁無好顏君不見上蔡犬華亭鶴人生到此寧悲惜不如日飲一百杯
辰美景恣歡謔

王宮塔　　陽谷　蘇世讓

雲中舊宮塔聳立霄漢間都訴仙人掌只無承露盤又疑華表柱遼鶴何時還若欲
添奇絕峥嶸月滿山

退休堂 并序　　明使　華察

贊成蘇君發身及第仕朝鮮若干年致位一品鬚未斑白風流蘊藉猶
然有文方當專秉國政乃以退休名堂余怪而問焉曰有老母在不

階百餘尺三間棟宇傾軒路泉流巖竇潔且甘一酌頓解塵喉渴山榴爛熳山
鳥飛巍巍葉茸々巖笋肥處々奴劈虎蹲獲雨雉肴粳新炊飽我飢々渴已消
煩惱空一枕黑甜睡窩風金堂玉室不在遠便欲占地安袞斯回頭二十年前事
今日信知晩(如)歸從山花未落吾更來寄語庵僧好相俟

遊串寺前盤石　　陽谷　蘇世讓

騎馬出門去穿深度壑遲正當春盡日應値艷陽時林叢殘花在村迴弱柳垂
峰巒積釼戟沙水淨琉璃共(性)盤礎石仍倚屋曲枝出巖囬含微羽潭瑩野津漪
谷鳥嚶々喚山風細々吹何人(然)憒憂而我獨心知畏暮杯頻御貪歡席更移笑衰
吾卜晚白首謾含悲

遊板橋川上　　陽谷　蘇世讓

霜林蕭々葉盡下一片秋光逕平野先生乘興偶出門縱轡意行饑老馬
寒流無波瑩如鏡(洗)作隊遊儵時瀲々水淑粟初收稻誰々人道今年勝前歲竜葬

之遥凌飛鳥聳異巖之不受祖庵鞭扶持自是神明力撐柱東南一半邊

金馬　瘦齋　蘇東鳴

彌勒峰高溪水清百年佳麗舊王城官樓南控長郊遠佛塔西臨大道平楊柳影中蘇小宅竹林深處謝公亭江南此地真清絶不獨金陵擅美名

五金菴　陽谷　蘇世讓

不到峰西寺三霜瞥眼過談禪僧已寂鶩石沿[沿]空波往事真如夢浮生亦有涯危樓高百尺獨立夕陽多

遊隱仙菴改名白蓮社　陽谷　蘇世讓

九十春光已云暮書巢牛屋獨長年之老招邀並轡行阿咸辭維隨其後竟華東嶽洞府幽雨後溪水潺湲[潺 岩]流甚瓷石嵒雲霞古逕遊村廬竹木稠亂石縱橫皆蘚老白水前頭問路路之漸遥一行人漸稀遥望蓬宮隱松杪意行不覺到門前二三殘僧來導先登言條絶壁初乾僧言是寺名隱仙果不爲

西京形勝好家居去国何年傳舍如南渡乾坤塵觸小盡輸王氏混車書

彌勒寺 陽村 權近

窓外青山似削成愁時擧目轉分明秋風日日吹巾袂欲上高岑望玉京

彌勒寺 四佳 蘇求福

古塔千年鶴空齊一區僧塡泥雖有跡注尋問無焉

過彌勒寺 瘦齋 蘇東鳴

古寺今荒廢閑花獨可憐箕王遺樂地芳草夕陽天感舊停行馬傷春勸杜鵑空空繞華表柱高倚暮雲邊

彌勒寺石塔圖 佔畢齋 金宗直

鬼役民力竟茫茫土散庵華万佛國千載石村成罪業可憐金馬武康王

題彌勒塔 瘦齋 蘇東鳴

女媧當時擬補天內餘遺跡幾千年曾隨輿地圖中見更向陽村筆下傳屹

平天府金湯稱蜀屋地靈前後有公卿一尊酒盡醺々倒旅館寒燈照人
桃明

清心樓　　　郡守　張善淹

金馬千年鄧銅章一老翁自知才有限遲愧食無功舊竹窓(穿)烟望新蓮出水紅(紅)平生嘗清讀(讀)興發傳書聲

清心樓(桂)　　　瘦齋　蘇東鳴

竹下迴池々上樓遠四面樹陰稠閑未倚桂不欲去杜宇一聲山更幽

盃山途中　　　四佳　徐居正

南湖白々盃山蒼々渚尋徽草花夢一場齊国遺墟空老樹舊君故殿幾斜陽
百年無語憐金馬万古多情記石羊(年)白髮遠遊多慷慨春歸無處不神傷

盃山懷古　　　進士　宋光禄

仁氣(化)猶存三国初房孫其(徐)失権興(興)一般千古興亡恨一天指扶蘇中月墟

穠李花開得禮成寓公無亂渴一時榮自經身作蕭牆果千載誰尋報德城

箕準城　　安齋　成任

箕邦雖伏竟無成強弱并吞理自明想得當時麾下士幾人回首憶西京

次　　四隱　蘇求福

浩事悠悠一夢成廢臺殘堞夕陽明江左偷安經幾歲遺民傳說舊王京

箕王南渡有何成青史丁寧故事明遼境太師來海外當時嵩國會周京

密館　　觀察使　李德洞

故國風烟惱客情千秋今為尚留名韓王殿廢耕犁遍箕準城頹草樹

平熟叢叢朝推李子文章昭代說蘇鄉英雄鳥過豪華盡依舊青山

夕照明　前朝李公逐我　朝蘇世讓皆是人故云

次　　都事　林瀷

飛鳥歸雲萬古情山谿空帶馬韓名西南浙浙露菜郊洞牛斗墟向暮堞

未可以營作宜俟歲豐徐議之如李侯時父老之言又與使相議之使鞫又盡

之日近內金堤昌平谷城等邑皆無客館雖無館何害之有只當衰境任

便何必興役勞民為哉余猶慨然曰本郡自馬韓以來三為群雄竊據地理最勝

但茶間數非敬御奉安之所則無以鎮之是故不可一日無客館遂臨而計其材棟樑

楠椽發于韓林昔之林藪園使皆童赭淫山之松不可得郡倅崇而採斫遍求

之于四境不毛之地及朞而告落蓋構宇數處非特東軒且不見材之難比前

倍甚故記之斯館之自今以後一邑之所當敬而戒者須莫如禁火而甲戌厄運大

可嗟也

題詠

孟山懷古

佔畢齋 金宗直

燕虜函吞浿水西南奔不當會稽棲龍華山上城蕪絕常帶君王駿馬蹄

能勤力如常漢生理極其艱楚雖在樂歲鵠形鶉衣無異乞兒樣子公賦
官糴卒皆從後輸納村中無常漢不堪為里正者爭先推移時出送邑罪臨門催
督則雨雅必大喝曰內近宜退自經乙丙饑疫全家俱沒者不知其數而新寓
者徒而聚集焉不見士族盛衰之變而今則日本郡乃士族之尾閭也
本郡客館不知何代所創而東軒正廳燬於壬辰燹甲戌太守朴斯文巨麟
重新之東軒復燬於嘉靖丙辰時倅李侯仁賢重建之而尾大廳及東上室
西軒盡燬於 當宁甲戌回祿之再值甲戌亦一異也李侯之始經營也
邑之父老數之曰還材還山民悼遠涉海難作孽丁壯防戍時屢[illegible]
更新戎請俟來歲秋成侯曰一境之內有四山林藪有人家圍築者不遠求
於邊山邊山遂決意重構閱數月而畢人稱其神速再甲戌告災之後數
月時倅 吳史倩坐事罷去未及經營余代之到官翌日往觀灰燼之餘徘
徊不勝傷歎謀諸[illegible]作詢諸邑人皆云地無可尋大之材良經饑疫之後時

日漸旁落賣土而無餘食糴而未報徒守世傳之廣而其中則四壁徒立言其生涯與貧寒者無異古史云物盛而衰固其處也信矣

本郡鄉綱最嚴上下等級截然不相凌越三韓舊族之子孫毋論土著與淳齊皆廢替不振行乞資生比比有之貧弊而鄉人猶以兩班待之里正不敢闌丁侵之嶺南則兩班庶派皆不免軍役人校院生則極以為榮而此土則累代庶支猶不失班名意者麟陽公致仕居鄉十年為一郡嚴立鄉綱陶成邑俗而然也歟北來名邑豪民之為軍校者以凌侮兩班視為常事而本土則軍校見兩班不許廳上拜於庭而見之見過則命奴笞之而不敢致憾而其恭愈甚至有鄉綱則決不然是也以此鐵湖士夫之貧窮不能聊生者皆以此土為可居爭集于境內[illegible]籍所載四千戶班戶為一千五百餘以九文川劉檢池知里論之戶九十戶班戶七十九常漢只十一戶所謂兩班皆無率丁身自樵汲俗所稱無奴上典而所居之屋蓬蘿不設廊門常閉有客避之戶之未還者然男為農商女事耘織以資身而亦不

十六人洛下從遊録已二百五人文湖南文官録凡四拾九人而皆未從及在其室閨異趣
之人去者殆半
蘇月洲有一女擇婿公宰錦川特設戰藝一童子請從筆及寫手許之五歎策
對一道公覽見而大奇之即權遂初堂行遂許妻之權公始終樹立果不負公鑑識
蘇陽谷文集中每稱堪他主鄉人觀漁納涼而其會宴於川上及斗池茲實邑中
遊賞之勝槩(覺)也到今彌勒山畓二壹濯崩決流下道川一帶水淺而不淪斗池
棄而為陸沿川上下一鱗不産而且無樹陰可憩處欲尋先輩遺躅只有野草
壚烟已而隱山川改易人事隨之過之者孰不有俛仰之感也
蘇陽谷兄弟皆任邑中其為(謂)太虛亭退休堂風泉閣自娛亭水雲軒静觀齋清心
堂等諸榭並陽谷所刱而兼有湖山水竹之勝焉以其第宅之盛亦可想家貲之饒
也至今郡七十餘家無非陽谷之雲孫或以商而皆以世業安坐而享富貴有歌僮
舞女佳辰令節置酒邀賓以為娛真所謂三公不換也自經辛壬變之年以來家計

蘇陽谷常寓太虛亭 亭之東偏有鴨脚樹 道內守宰之來謁者不敢佩印以入 以綬懸之樹間 人稱掛印亭 祇今亭子雖毀 而老樹尚存 高枝拂雲 望之者知其為故家喬木也

李完南學源初由蔭路宰是郡中 崇禎乙亥增廣文科 古例守令許赴同道科擧 公見咸恍東堂初試 其邑士蘇東道崔德元叅榜三人 會于巳梯面村舍 為會試工夫 公與蘇公俱中覆試 公改面名曰龍梯 蓋謂登龍有梯也 至今兩名俱行 崔生以湖南巨擘稱 而早歿不第云

蘇月洲狀貌凝重 辭令嚴肅 長不滿七尺 而腰大夫圍 雖家人僕隸 擧皆畏憚 莫敢擧頭仰視 而對人接客 言笑樂易 致其勤款

蘇月洲早遊尤菴同春兩先生之門 講學春秋 兩先生皆以大器許之 自是逐年往從 講質不已 兩先生每加勉獎 而公亦自益勵焉

蘇月洲言議清平 風儀動人 無貴賤賢愚 所歡交甚廣 在泮有同泮錄 凡一百五

見拿手瘦齋聞之又有詩曰聞道哉人敢天心固有知端宜拔有北寧保聖明時

世傳薯童大王掘薯蕷得黃金曰稱山名曰五金至今山之石光土色每當雨霽陽曝則金采閃爍令人眼眩如此間產金而惟不貪者可知矣

宋正言乙開詩免府輿圖今撫北馬韓文物久成空謹按馬韓之時雖有君長之名而史氏云俗無綱紀且箕王崎嶇山海僅能立國至於文物制作似未暇焉陽谷稱俗朴人魯云者可想尙質之遺風文物二字恐是失題

占家擲錢爲占必以朝鮮通寶爲貴蓋以鑄時最久故取其物久則神也至今千有餘年其錢罕傳於世惟此地墟里塚墓間人或往往拾得爲不但占者爲寶人皆以古物亦寶之

蘇陽谷謝事居鄉二十年位高望重爲一邑所推尊一日邑倅坐衙官屬朝謁仕倅性問之侍者以徃候贊成宅爲對倅恚曰安用邑宰爲哉遂投印待經去陽谷使子弟追及於礪山挽住懇乞而後始還

蘇四隱貴義輕財施人如恐不及嘗曰士子家畜有積是累其德周人卹我豈約非義也

蘇四隱於異教不經之說一切闢之佛老釋宦之說一不寓目我東麗俗未變鄉民設忌祭于僧舍中元日男丁前期上寺設齋飯僧成風已久公嚴定約束令在家行祀中元則只使擇明淨處祭其先舊俗於是日例設夜樂公秂公之遂亟覩不得近里巷鄉里多化之以上並家狀

蘇眠寓出守殷山移牧定州殷定之民數前後有德惠者必曰蘇公蘇公蒞邑守宰並畏憚不敢為非故廉問使書啓有曰清北御史云 宋老菴撰神道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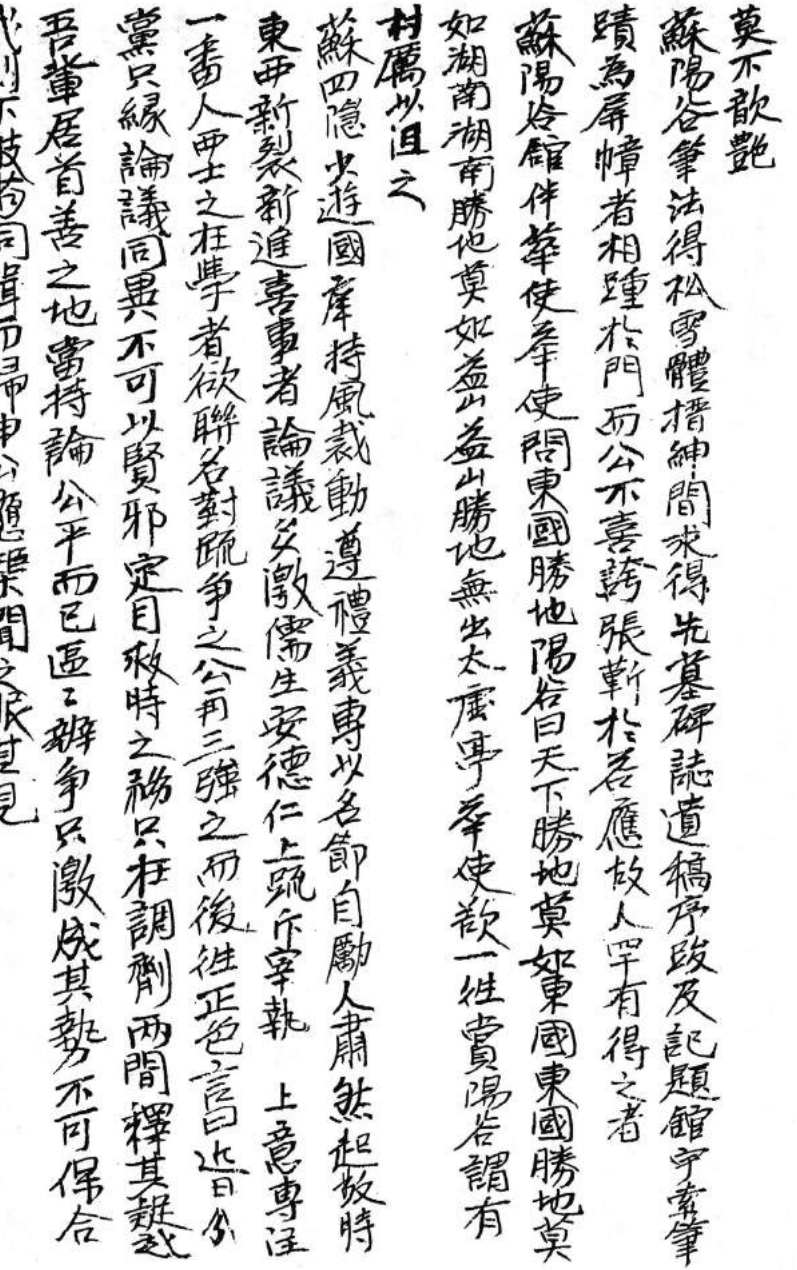
蘇瘦齋嗣在韋布時校宮之西舊有盤松不知其幾百年枝幹蟠結如龍蛇為一邑奇觀使星之抵境者必迂轡歷賞邑倅尹調元厭其應接命斧手斫伐之瘦齋有詩曰虎踞千年久龍顛一瞬中甫堂顏色減䰟伐古今同影斷三更月聲殘十里風出門無所望回首半天空倅見之大恚笞其家僮云後丹倅以事

蘇四隱先墓在道川後岡一日里中失火延及松楸將犯塋域公冠帶稽天
須臾反風下雨火滅鄉人傳為孝感
蘇四隱常事伯兄如事父朝夕起居憫其鰥居親供衣食及病革刺指
和藥沒後語及必垂涕
蘇四隱與全文元鄭愚伏趙重峯韓久菴相期以道義麗澤有資鄭公
嘗歷會於道川講論踰月入為講官特域中書籍蕩殘於兵火 宣廟
於經筵求遺書鄭公對曰臣見湖南進士蘇某家所藏甚博請遣使求
之 上顧李相弘胄曰李公奉書傳諭公以經傳子史數千卷封進上覽後
命藏校書明年李公適將薦擬公聞之貽書峻却曰獻書干進亦非小嫌李公乃止
蘇四隱與蓮峯李公基卨交契甚密李公累除官不起中年喪耦可娶後
托養病不言親賓浅候惟畫字示意公正色責曰遠其小妻乃瀕生大子毋依
此詭異之行以欺人李公欣然謝自是言笑自若其見重類此

蘇四隱年五十謝絶人事常居山中訓導鄉人之來學者講義不輟
汝濟金文元公出宰本郡以教化為先進蒙士教小學請公表率公
辭以病之元每以公退之暇肩輿造廬考質德義咨詢政事曰訪
南士之賢公舉崔石濟命龍遂知名於世

蘇四隱姪子鳴國締附權倖有一特寧於名用巖穴將擧擬公甚官欲
以勢鉤致作巳援使鳴國以書探之公答書切責引朱子論吕伯恭事
寧有顔面為桓司馬家臣之語

蘇四隱不喜評品人而鑑識甚精不中者鮮鳴國之始生也至産室門外
聞啼聲不見之歸語人曰墜先德而覆我家者必此兒也及長早升上庠
結交貴顯聲譽藉甚公獨不恤遺書切責不啻馬伏波之於嚴敦而書
辭傲慢無悔悟之意竟陷奸黨及於禍 鳴國生而重瞳子文翰夙就且進俱中 驍勇絶人起上上院寺法堂言論風旨
傾動一座每入洛過從者
甚盛徐羊甲獄辭纏樗延



莫不歆艷
蘇陽谷筆法得松雪體楷紳間求得先塋碑誌遺稿序跋及記題額字素筆
蹟為屏幛者相踵於門而公不喜誇張靳於答應故人罕有得之者
蘇陽冷館伴華使華使問東國勝地陽谷曰天下勝地莫如東國東國勝地莫
如湖南湖南勝地莫如益山益山勝地無出太虛亭華使歆一往賞陽谷謂有
村厲必沮之
蘇四隱少遊國庠持風裁勤道禮義專以名節自勵人肅然起敬時
東西新製新進喜事者論議多激儒生安德仁上疏斥宰執 上意專注
一番人西士之在學者欲聯名對疏爭之公再三強之而後往正色言曰近日外
黨只緣論議同異不可以賢邪定目攸時之務只在調劑兩間釋其疑忮
吾輩居首善之地當持論公平而已區區辨爭只激成其勢不可保合
我則不敢苟同拂而歸申公應榘聞之服其見

閑之福者殆二十年近世詞人考終富貴無出其右 芝峯類說
蘇陽谷如京師 賀生皇太子禮部尚書夏言聞公有能詩聲求見公作稱美
不已贈以書冊及東還 上亦覽公行稿命題賦詩數首而進賜賚便蕃
判工曹言者以公入中朝與學士唱和將有後弊論執甚力竟遞
蘇陽谷以遠接使迎送 天使華察于江上應接之際不但周旋中禮酬答
詩篇輒為華使所賞至於揮淚而別其後我國使臣入朝華公必來問公消息
蘇陽谷未病謝事安於蕭散搆得淨室於竹林之下規作終老計扁其堂
退休堂以示其意然愛君之念老而不衰如遇人自王京歸者必斂袵改容
先問 上體如何餘無一語及于朝政
蘇陽谷之二兄世恭世儉年皆八十餘公年亦近八十搆屋而居子姪之居又
多鱗比晨夕過從以為常頻有朴公綽昆弟之風公為諸兄先辦供俱輪
日遞行次及子姪有興要致山椒水次嘯咏徜徉老幼扶携久而不倦聞者

人心快之書諸國乗宜不韙歟第公家狀及碑文中此一節皆闕而不錄故
今特記之
蘇陽谷年纔七八好學問不煩師資 中廟欲急文治遵英廟故事選一
時文學之士七人賜長暇讀書於至典文衡者五人公其一也 洪忍齋撰神道碑
蘇陽谷在玉署 顯德王后廢棄仍歸幾五十年臺諫侍從累月伏閤請
復 昭陵久不得 允百公入侍面對極陳其不可廢棄辭氣慷慨言論
切當即蒙 允許移葬顯陵附于 大廟時論從聳動
蘇陽谷以吏曹參議欲便養出尹全州大提學李荇 啓曰如某合居文
翰之職不宜久滯早秩 上特加公嘉善階拜漢城左尹
蘇陽谷與申企齋鄭湖陰同時而李容齋於陽谷最稱許屢言於 上
前某當爲主文之人不可置下位及乞養後洪忍齋容齋又言文章之士不
宜出外 上命召還厥後申 鄭及陽谷皆典文衡而陽谷早退家其亭清

敢背其道以欺公耶 東史

蘇困菴自少力學潛心聖賢之書探賾義理之原嘗有詩曰鏡不埋塵水不波胸中天地自中和世間查滓都消盡始覺從前著力多此可見其造詣之深邃矣 蘇湯谷撰行狀

蘇困菴所與交遊皆一時名賢如悔齋李先生慕齋金先生思齋金先生訥齋朴先生冲菴金先生皆其友也相與往來講磨論道釋褐之後即入翰苑陞爲吏郞長居臺諫守正不撓一時疏劄皆出其手不悅者衆正德丁丑爲權奸所怵出爲龍潭縣令己卯之禍諸賢打盡而公以在外故禍不及焉 蘇湯谷撰行狀及蘇[illegible]窩撰遺事

蘇困菴在翰苑 中宗二年丁卯 與奉敎李希曾金瑛檢閱權橃及金希壽等論 啓戊午史局事請追罷李克墩伸雪佔畢齋之冤戊午禍後十年之間士氣摧沮公論沸鬱何幸 扶正誅邪之論自史局始倡是非大定

何害帝在太液池舟上太子以公語奏之帝曰吾固知此老賢者也俟外家
惟此一人耳 李牧隱記

李南村在元恭愍復位公亦乞歸田里出齊化門使蒼頭吹笛謂從者曰天
下之樂復有加於此者乎沿道馬困蒼頭以一矢買一束芻飼之公之曰何
故奪窮民之食乎截錦布以充其價閭山站無人粟積于野公問粟一束
直木綿幾尺如其言書於兩端置于粟積中從者曰 持馬者田必取之
去何益不如不償之爲愈也公曰吾固知之矣然必如是然後吾心安
焉 李牧隱撰誌

李南村精明謹慎果斷剛毅一毫不妄取與屹然不爲權勢所屈自元
東還也忠義聞於天下王厚待之時辛旽當國頻忌公公亦以盛滿自
戒居德水縣別墅幅巾藜杖嘯咏其中風流閑雅蕭然有山野之趣及
遘疾親戚謂夫人金氏曰盍禱于佛金氏曰公平生未嘗侫佛妄安

李南村恭愍辛丑爲贊成事時汝賊既退京城新創公量才度事朝無
廢政祭先聖先師廩生徒內外學悉贍導成禮修養育人材盡於援戈
講藝息馬論道之義深有得焉癸卯四月元時成均館切役〻興公
聞之大喜即觧帝賜金帶助其費 李牧隱撰墓誌亦有 功斯文留享俎豆
李南村以癸卯歲迎駕還京奸臣崔儒在元奉德興君負緣權倖謀廢玄
陵命公奉表如元至西京詣太祖原廟再拜誓曰吾君不復任臣公遂之死
不復還既至都皇后皇太子郊勞絡繹 元順帝皇后奇氏即李氏之外孫也代 皇太子以帝命召
公同上萬壽山廣寒殿太子問殿額仁智之義公曰愛民之謂仁辨物之
謂智帝王用二字御四極萬世太平矣入殺指金玉之柱又曰老人曾見如此
之珠乎公曰聞之帝王發政施仁則邪居之屋雖朽木猶金玉之堅不然則金
石之堅反如朽木也出殿賜坐尭魯帖木兒啓事玉彈琵太子取而彈之未成
曲捨之曰久不習忘之矣公即跪曰憂民之心不至于忘則琵上一二調忘之

金馬遺事

高麗忠肅王十七年 元天歷二年 三月盜發金馬郡馬韓祖虎康王 武康王即 陵捕繫典法司及賊逸政丞鄭方吉欲劾典法官費成林冲沇沮之曰賊繫獄二年無見贓而死者多矣方吉曰国知發塚人多冲沇衛恚 冲沇必起於椎埋

高麗恭愍王元年 元至正十二年 倭寇全羅道知益州事金輝等領舟師擊之不克

辛禑二年 大明洪武九年 倭寇林州全羅道兵馬使柳實知益州事金密等力戰却之

辛禑四年九月倭寇益州十月又寇益州 自馬韓至麗季干戈相尋我祖三百年一境寧謐 權陽村詩云鋒鏑千年纔樂康四野春

鄉里記言

李典酒行儉嘗爲刑部官員和院主認民爲隷民訴之同僚逼於勢屈訟之直者公死執不可會疾作在告同僚卒於無公即决之夢利鉏自天而下斬刑部官吏未幾皆暴病死獨公無恙官至國子典酒 李牧隱記

讓辰韓卞韓樂浪倭人無不畏懷而吾王謙虛遣下臣修聘可謂過
於禮矣而大王反怒劫之以兵何耶馬韓王愈怒欲殺之左右諫止乃聽還先
是中國之人苦秦亂東來馬韓者頗多與辰韓雜居至是寖盛故馬韓忌之
史氏曰馬韓之滅金璽軾推近皆不言箕君始於何耶云云竊謂以箕子過化存
神之切子孫衰弱播遷遷殄滅其祀非但八條之善政無聞抑三韓之文獻不足前
史之不書然始固無足怪今於東史中
取事歸之一二緊見者錄爲馬韓古事
漢哀帝建平元年八月百濟始祖溫祚王自慰禮城移住漢山下遣使馬韓
告遷都
漢哀帝元壽二年冬十月靺鞨侵百濟王帥兵逆戰於七重河虜酋長素牟
送馬韓坑其餘衆
漢王莽居攝元年秋七月百濟立熊川柵馬韓王遣使責曰王初渡河無所容足
吾割東北百里之地界之其待王不爲不厚宜思有以報之今以國完民聚謂
我莫與敵大設城池侵伐我封疆如義何王慚遂壞之

韓武康王所都宮基王墓至今存焉後朝鮮王箕準爲燕人衛滿所逐浮海而南都于龍拏山山有山城粉堞如昕（信如陽宕言則馬韓開國武康王建都似在箕準之先而三韓之時八十餘国散如碁局雖有君長之名未聞有一人稱王者史氏所謂馬韓箕龍嵒国有同蠻觸安得以爲国安得以稱王云是也且謚号始行於新羅中葉則武康之號決非馬韓以上之君也東史諸韓武有王騙賣史氏追遷之也郡西寸里許有雙陵麗史云後朝鮮武康王及妣陵一云百濟武王陵也果若麗史所傳則武康似是箕準子孫也今見武康時宮基亘數里塔刼立五丈閭累千載宛然始箕準失国竄身艱難自保而其子孫能重恢祖業大起家居是国一世之雄而何其歷年不長滅亡斯忽也勝覽云武康造寺塔而新羅真平王遣工造成云三韓之時佛法未及出来然寺塔之後似是三韓以後事也又按東史百濟武寧王與新羅真平王并世而武寧驕傲盤樂又嘗土木此距濟都不啻百里或者武寧設行宮于此而仍葬于此歟武王陵之訛似近之而亦未詳）

馬韓古事

漢成帝鴻嘉元年春二月新羅始祖赫居世遣瓠公聘於馬韓馬韓王讓曰辰卞二韓爲我屬国比年不修職貢事大之禮其若是乎對曰我国自二聖（謂赫居世及閼英）肇興人事修天時和倉庾充實人民敬

下韓在樂浪之地又曰平壤古漢之樂浪郡則辰韓之為新羅下韓之為高句麗亦無可疑崔孤雲云馬韓麗也下韓百濟誤矣馬韓王稱辰韓下韓為屬國則句麗之非下韓明矣詳見下文

韓久菴東國地理志辨曰四郡二府在漢江以北三韓在南元不相涉漢世後為高句麗馬韓為百濟今全羅道辰韓為新羅今慶尚道漢南京畿及忠清道分屬羅濟下韓即辰韓之附國本北方避亂之民因其北方所居之舊地而有樂浪之號非句麗所起之地而仍屬新羅後人見下韓之亦稱樂浪便以高句麗為下韓誤矣甄萱云昔馬韓先起赫居世勃興辰下從之而興於是百濟開國金馬山之百餘年今按溫祚并馬韓後稱其地為金馬渚而不稱金馬山且金馬郡未嘗為百濟耶都萱之言未知所據輿地勝覽○按百濟始都慰禮城再遷漢山三遷北漢山四遷熊津絡遷泗沘國號南扶餘未嘗以金馬為都勝覽已辨萱言之誤而徐四佳益山題詠云濟國遺墟空老樹濟國之稱亦何據焉

蘇陽谷益山東軒重新記云邑於湖之南者五十餘矣而唯吾郡最古本馬

勤自經膝斬其尸並殺妻子 東史
新羅文武王八年二月 唐高宗總
章元年 唐遼東道大總管李世勣合新羅兵
攻高句麗九月拔平壤城執王高臧以歸高句麗亡十年 唐咸亨
元年夏六月
故高句麗大兄劒牟岑立高臧外孫安勝為王使人告新羅曰我先王臣
臧失道見滅今臣等得本國貴族安勝奉以為君願作藩屏永世盡忠
臣等聞興滅繼絕天下之公義也惟大國是望新羅王慶之金馬渚唐
遣大將軍高勝討安勝安勝奔新羅勝之族子將軍大文擾金馬渚謀
叛伏誅餘衆殺官吏擾報德城叛神文王四年甲申 唐中宗嗣
聖元年 遣將士
討誅之徙(徙)其人於國南州郡以其地為金馬 東史
權陽村曰三韓之說互有不同然朝鮮王箕準避衛滿之亂浮海而南開
國號馬韓至百濟溫祚立遂并之今之益州有故城至今人稱為箕準
城則馬韓之為百濟無疑矣辰韓新羅始祖赫居世所起之地新唐書曰

國臣釁國支侵國狗盧國卑彌國監奚卑離國古蒲國致利鞠國冉
路國兒林國駟盧國內卑離國感奚國萬盧國辟卑離國舊斯烏朝國一
離國不彌國支半國狗素國捷盧國牟盧卑離國臣蘇塗國古臘國
臨素半國臣雲新國如來卑離國楚山塗卑離國一難國狗奚國不雲國
不斯濆邪國爰池國乾馬國楚離國凡五十餘國大國萬餘家小國數千家
摠十餘萬戶俗少綱紀居處作草屋土室其戶向上俗不重金銀錦罽而貴
瓔珠用以歸髮垂耳其男子衣帛袍履草蹻性勇悍讙呼力作善用弓楯
于櫓 東史

戊辰七月(新莽初始元年)白濟王謂諸將曰馬韓漸弱上下離心勢不能久倘爲他
有脣亡齒寒悔不可及不如先入取之冬十月陽出獵潛師襲之遂并其國
唯圓山錦峴二城固守不下翌年夏四月二城降馬韓亡 東史

丙子(新莽天鳳三年)馬韓舊將周勤起兵據百濟牛谷城(今不知其地)王帥兵五千討之周

金馬志下

馬韓廢興

周武王己卯封殷太師箕子于朝鮮都平壤相繼歷九百餘年至卑代孫否當始皇二十六年庚辰畏秦服屬焉否死子準立后二十九年漢惠帝戊申燕人衛滿亡命聚黨攻之準浮海而南至金馬郡都之稱馬韓統五十餘國歷四郡二府漢武帝元封三年討右渠遂定朝鮮故地為樂浪臨屯玄菟真潘四郡漢昭帝始元五年以朝鮮舊地平那玄菟等郡為平州都督府臨屯樂浪等郡為東府都督府之時傳世亦二百年東史

箕準既為衛滿所攻奪率其右右宮人走入海居韓地金馬郡自號韓王其民土著種植知蠶桑作綿布各有長帥大者自名為臣智其次為邑借散在山海間無城郭有爰襄國牟水國桑外國小石索國大石索國優休牟涿國臣儐沛國伯濟國速盧不斯國日華國古離者國古離國怒藍國月支國咨雍牟盧國素謂乾國古爰國莫盧國卑雍國占雍卑

以老姑幼女托于女僕聞者悲之

陵墓

雙陵 在五金寺數百步高麗史云朝鮮武康王及妃陵也俗稱末通大王陵一云百濟武王小名薯童所謂末通者則薯童之誂訛也

叅議金仲鈞墓 在匡村面信洞有碣刻字書刓

贈贊成蘇自坡墓 在帝石面炭谷有碣南袞撰悠無齋金希壽書陰記容齋李荇撰遯齋成世昌書

大司諫蘇世良墓 在帝石面炭谷有碣家弟陽谷世讓撰自書

贊成蘇世讓墓 有神道碑認齋洪暹撰子遂書

副提學蘇遂墓 在獐勒面內山洞有碣縣監楊特遇撰

校理蘇光震墓 在郡內面楮撰

監司蘇東道墓 在帝石面炭谷有碣宋尤菴題面

金馬志 上

烈女

佡氏年十五適曹敏居郡內早寡擔誓不再適斷髮爲尼寫夫真壁掛像衣服
日夜哀號朝夕亨食出必告特食必薦不茹蔬菜不着美服素服白裳
終其身成化辛卯 吳氏 適沮三近夫亡廬墓三年朝 都氏 適忠義衛李楫一日
事聞給米旌閭 夕親奠哭悲哀聞者嘆服 夜猛虎猝入其家攫
咬其夫都正忘生奔救以身翼夫 聞旌閭 李召史 適河東楫 居春甫夫亡典盡能制
以手摶虎相持不捨虎放乃去事 娛款奪志 松許於强暴者李召史
雖斷堅拒毋指而將爲强暴所污故定意自款决而雅投 柳氏 籍晉州縣監博之
水死 李宗朝事聞旌閭 天道無知 二子并無后 女夫近要人李思
章收使曼着之子也夫殁柳氏以死自誓猶不忍自毀實體不食二十餘日不死自恨
日吾命之頑一至此哉自初喪處于殯側之外廳足不履廳外者五年苦節比之忠臣
則婢大天祥燕織事相類 命旌閭 其婢德今婢上典同居一廳必左右扶持未曾須臾
暫移德今有夫與幼子謝遣其夫使娶他妻托其子于人與柳氏同悲苦三年如一日先
柳氏二年而死事聞 李氏 德水人容顏將之后孫 適宋炳朝居郡內自伏所
于一時命賜其子米布 天水斷不入口 小祥日自盡 嘗宁丙辰 旌閭 尹
氏 海平人 嘗海尉新之玄孫 適蘇相參(月州斗山子)居郡內 李氏 全州人懷安大
遺夫喪勺水粒米不入口喪葬制級畢柴毀自盡 嘗宁丙辰旌閭 君之后也 適士
人崔德觀事舅姑極其誠 夫死 洪氏 士人林茁後妻也前室有四子女撫之如己
歛殯葬飲藥從死事聞旌閭 出夫病親侍湯物不委婢僕及喪治初終備
誠禮每款自決以從家人防守甚緊為緩 金召史 適林春郁居踊勤而事舅姑盡誠
人意處之若恭然過三朔後飲藥而死 春郁年尚幼蓋顏嫁也不知同調樂
而春郁遺腹死襲歛諸節自自經絕前三 聞旌閭 宋氏 適士人蘇陳頤夫亡歎自裁以從
日入屍旁引歛布絞自縊死事 以傍人所防守遂絕食毀死臨絞

之以禁衛軍將上畜不忍離捨父側邑倅憐之
免其役捺善進武軍官事聞巡營給米(內)

吳瑞屋

長與人在祁勤而自幼時未嘗
一嘸親意母嘗遺屬瑞琁亦
柴痛力症扶護母病既革嚙指出血以灌口血止則又
嚌他指以繼之竟回其既殞之命事聞給復終其身

朴呂史

居巳梯面夫李義成早死
事姑至孝姑淹病癱大小
使出入朴呂史必北背負以行滿里稱為孝婦營门給米內以彰其孝姑
年九十而殁朴呂史啜粥不食厚味長在祭廳號泣不絕聞者亦悲

金呂史

有泰遺金
居春浦年未二十而寡只有一子庚午歲舅姑及同生兄弟遺屬呂殁金呂史躬自
收屍竭誠營葬其舅祖父義宗年九十子孫盡死與一孫之無父母者相依為命全
呂史並其祖孫迎置其家盡心養育義宗之壽職帖文須下金呂史抱持舅祖
而泣曰善使吾夫生而見此慶則其喜當何如又女家只有五斗畓斥賣辨需遍
數滿里為壽讌以慰舅祖
之意事聞營門給米內

李琇

光州人居高石早孤事母以至誠精長事嫡
專為養親殖一産則分與其弟且乘青泮妹之敗
無依者皆撫以特居家懿行非孝之推也鄉人

李思遠

延安人默廢刷貢之云母
狀其行呈官轉報營門請加旌褒未蒙旌行身
疾革晨昏禱贊影火晝
親壽得延數朔及居喪朝晡奠需必親執不委奴僕而兄鰥而且窮別造一大
被與之同寢孝友之誠至死蒲鄉人敘其行呈營邑請旌閭褒之未果旌行
權

昌夏

江華人事父母盡孝父患內腫亡潰昌夏吮之母以風
症全身不收昌夏與其妻竭誠扶護鄉里感其孝焉

權玉童

安東人早孤
其母李氏依
為命丙子歲李大得染疾夜殞絕之聲時玉童年纔十四斷
指出血灌于口壹指復蘇而母病即回甦鄉里稱為孝童

蘇德器

泉后
蘇光震之玄孫也早失怙事繼母以誠撫弟妹亦至以孝
友著聞鄉士林士林狀其行呈營門請旌表未見施行惜哉

檢同

人家奴也有八十
出毆而見母乘醉狀其妻而逐之母嘗病革斷
老母常鞏南遠
指以救之延至十餘年上史嘉其孝贖其身

孝子

柳承春 文化人與妻金氏孝養其親務悅親志靡不用極鄉黨稱其孝曰孝子而子
孝婦初居扶安晩任本郡兩邑人士叙其孝行武訴本官武呈營門
迄未蒙旌 蘇東獻 晉州人達之孫年甫十三母病瀕危再割其股出血以試之賴
褒之典 而復甦後遭兩親喪居廬啜粥終三年壽八十 仁祖朝事聞旌閭
蘇國民 東獻兄東俊子也天性至孝父病割股出血而救之後遭父母喪啜粥終
制 孝宗朝邑人叙其孝行訴于營門轉聞于朝命旌閭國民生前旌門爲
不可固 蘇相琦 東獻孫天性至 金忠立 本郡正兵也父病劇忠立斷其指出 崔健
辭之 孝且有學行 血入口病即愈 孝宗朝事聞旌閭
崔俔 兄弟俱中武科赴防關西父爲惡僧所害兄弟奔喪葬祭以禮誓心報仇一
日逢惡僧於場市中斬殺之食其肉奔告父墓且訴官家自首擅殺之罪邑
倅轉報 朝廷ㄑㄑ嘉其孝並釋之其母有疾阽危 健嘗糞以驗甘苦 俔斷指進
血母病即愈其母以天年終兄弟居廬墓側終三年 仁祖朝事聞値丙子亂旌褒之
典未 李敏樟 全州人完山府院君襄悼公之后也居帝石目不知書而孝友出天性
果行 孝養偏母極盡其誠母年踰八十前後得疾瀕危者四次敏樟每斷指
出血以救之病輒回甦至於五次血指則 金承錫 人家奴也其服事於上典也終日不違
母以天年終焉更無前效事聞命復其戶 蒼砂間上典呼之則輒必躬對寺
見過 又事母至孝戊戌春母遘癘在幕ㄑ中失火承錫冒 金昊 金海人新羅敬
炎突入負母以避未及出母子焦死 景宗壬寅旌閭 順王后裔也居
帝石面自幼時善事父母庚午歲父致受重得時疾幾殆縣家東
手號哭特昌大年纔十四引刀斷指出血納口仍得回甦里胥報其孝營門給米四
李鳳成 邑樑百姓也事父母至孝一日失火父病臥病中不得出鳳成冒烈炎
入房扶父而出父子頭髮皆焦爛幾死僅甦 父嘗病革鳳成血指以救

蘇貞震擇善子參奉 蘇永福孱善子以學行除禧陵參奉不就 李時達贈□寅子交縣監蘇泗源之晴仁祖朝入仕官至王傅 李
時聃忠定公貴子仁祖朝廷八仕官至同知贈判書 蘇尚謙蕙子監察 蘇啓興光震子進士官經歷 李惇時達子仁祖朝入
仕官止縣監 李憕時聃子仁祖朝入仕海州牧使 李悟憕弟生員除參奉不仕贈左承旨 蘇東鳴達孫字聞遠歸癈齋進士歷直
長至同知中樞府事壽八十以子斗山貴贈吏曹參判 黃自學康陵參奉見生進 金珊震天命孫仁祖朝入仕至監察以孝友見稱 尹策
生員壯元孝宗朝入仕至縣令 李忺悟弟縣監 李頊著惇子奉事 蘇后山東道子官司評 李明著憕子進士
官至縣監 李起漢奉事見文科 白光瑞水原人休菴仁傑四代孫官奉事 白尚彥光瑞孫奉事

忠臣

李寶延安人默齋貴之兄樗軒石亨玄孫天性慷慨志氣倜儻當壬辰倭亂乃募義旅四百餘人自備兵粮器械直趨錦山倭屯時義兵
將高敬命之軍新敗賊勢益熾而猶生死向前至錦山之梨峙遇賊交戰天盈力竭
而死其奴命起婢夫塊同相守不去抱持而死事聞 贈持平 當宁甲戌旌閭
蘇行震晉州人世得之曾孫意氣慷慨忠義樹節結壬辰倭變同鄉人李寶募義旅方丁憂起復以從死生與之錦山之戰不旋踵死噫以草莽臣而
殉難一節如此卓異旌閭之典獨
不及焉蓋無子孫不得顯揚故也 崔俍與兄健俱中武科嘗為父報讐事毋盈孝丙子之亂自募於元帥陣中仁和之
戰力戰死之 贈
訓鍊院僉正

李重榮 己酉進士 光漢子 金五一 壬子生員 尹志堯 輔殷子 生員 李亨 蘤 乙卯進士 金 滉 丁卯生員 權

玉衡 曇衡弟 辛未生員 權曇衡 己卯生員 盧斗望 己卯生員 李允著 壬午生員 李載莘 乙酉生員 承旨東寅子

李祉胤 丁酉生員 黃道復 自厚孫 辛丑生員 李 澲 辛丑生員 蘇大晉 丙午生員 李東白 丁未生員 權

偟 玉衡子 己酉生員 崔珣恒 己酉生員 李恭著 乙巳進士 任恭中 癸丑進士 李廷夔 東白子 乙卯進士 蘇顯道

庚申生員 楊震燧 甲子生員 權挺東 玉衡孫 甲戌生員

蔭仕

金仲舒 官戶曹參議 見人物 盧允弼 安東人 扶安縣監 陞通政 盧允正 允弼弟 官參議 一云參校 蘇自坡 進士 成宗朝入仕 儀

賓府都事 贈左贊成 蘇世溫 自坡子 臨淄鎮僉使 蘇世恭 世溫弟 字敬之 號老圃亭 從叔父兵使 起坡征倭錄軍功 官馬梁鎮水軍僉節

制使 以耆老陞僉 知 壽八十五 蘇世儉 世恭弟 字約而 號遯叟 擧成化癸酉 進士 歷郡守 至同中樞 壽九十一 盧仁錫 允正子 官縣監

盧祐賢 允弼子 官縣監 蘇 遂 世讓子 官郡守 蘇 適 世儉子 參奉 蘇 邂 世得子 擬縣令 綾 蘇

通 遂庶弟 都事 金得地 蘇世良弟世儉之壻 官別坐 蘇好善 達子 主簿 蘇膺善 達子 庶尹 蘇敏善 達子 監察

蘇擇善 世得孫 主簿 蘇萬善 達子 榮秩以子東道貴 贈曹判書 蘇潤源 巡孫 主簿 金天命 宣祖朝入仕 官止主簿

達 正德己卯生員○見文科
蘇巡 正德間進士○僉使世溫子字夫警號梧真堂菴筆法嘗從叔父世讓赴京舉人號筆師大加稱賞
蘇遲 世良之子嘉靖辛卯生員
金得地 世俊之壻生員
盧僴 進士
蘇奉善 巡之子生員
蘇宗善 縣令遴之子進士
蘇亨震 宗善子進士
楊洪 公俊子嘉靖庚子生員○見文科
楊士獻 萬曆間進士○字叔謀南原人
蘇曄 萬曆庚戌生員○字西疇進士巡之曾孫
黃澤 紆州人生員
楊時遇 萬曆辛丑進士
黃應璨 澤子生員
蘇貞震 萬曆庚寅生員○見蔭仕
蘇泗源 萬曆庚寅生員○見文科
吳彥一 萬曆進士
吳忠甲 同福人萬曆進士
楊汝櫟 萬曆生員士獻孫
金廷晉 得地子生員
金廷益 廷晉弟萬曆庚寅生員○見文科
黃名世 應璨孫進士善筆法
蘇永福 逢孫進士○見人物
蘇慶門 永福子萬曆乙巳進士
蘇振門 慶門之弟天啓甲子生員
蘇聖門 監察敏善孫天啓甲子生員
辛壽胤 生員
蘇啓興 光震子進士○見蔭仕
尹策 仁祖丙戌生員魁南原人○見蔭仕
呂誨齊 仁祖朝進士
李澟 進士
李時聃 貴子癸丑進士○見蔭仕
李悟 貴之孫生員○見蔭仕
蘇東道 萬曆丁巳生員逢孫○見文科
黃自厚 名世子癸酉進士○見蔭仕
蘇東鳴 仁祖丙戌進士逢孫○見蔭仕
尹彌殷 戊子生員○見文科
尹輔殷 戊子榜見文科
李起漢 壬辰進士見文科
蘇斗山 孝宗壬辰進士東鳴子○見人物
李公著 悟侄丁酉進士
李衛漢 起漢之弟丁酉進士
金聲徹 庚子生員
盧後益 庚子生員
李昊著 庚子進士
蘇厚錫 庚子生員
李光漢 戊子進士
李明著 公著兄癸卯進士○見蔭仕
白光瑞 癸卯進士○見蔭仕
黃翼漢 名世孫己酉進士

賢 孝宗朝出身 長興人 官守門將 吳應弼 應賢弟 孝宗朝出身 孝 吳應哲 孝宗朝出身 柳 涑 校生 京中 蘇山濬

山海弟 蘇 瑊 禁府都事 啓興孫 丙辰榜 吳廷龍 長興人 吳廷達 廷龍之弟 金起□ 丙辰榜 李榮 進士蘇潔之弟 吳應哲婿

李必著 朴就弘 順天人 朴就輅 就弘弟 崔廷達 吳斗興 長興人 丙辰榜 崔日中 尚勳子 丙辰榜 李

道載 榮子 肅宗朝出身 楊莘基 南原人 丙辰榜出身 崔弘俊 崔 濤 全州人 肅宗朝出身 韓以道 李善

儀 李 俊 吳久周 長興人 李廷承 李承進 崔世龍 全州人 朴得承 判官 李

枝福 崔以謙 江華人 吳慶弘 同福人 官至萬戶 陳汝起 朴昌文 蘇再述 以上不知何年榜

金 鵬 吳應雷 應祥從兄 吳應祥 吳景祥 應雷侄 吳應男 應祥弟 吳景瑞 景祥弟

弟 長興人 吳世英 應祥從侄 吳世雄 世英弟 李汝迪 兵使 蘇德恒 瑊子 李禧遠 汝迪子 兵使 金

漢翊 李 榮 李載恒 全 琦 當宁乙亥府試

生進

林得茂 進士 益山人 堅孫玄孫 崔自淑 進士○見文科 蘇世良 弘治丙辰生員○見文科 蘇世讓 弘治甲子進士○見文科

蘇世儉 癸酉進士 見蔭仕 楊公俊 正德丁卯生員○見文科 蘇 建 僉知世恭之子 嘉靖庚子進士 字大立 號四勿齋 贈左承旨 蘇

公俊之子字深源官至司僕副正
黃祐 嘉靖丙午增廣丙科第六人○字慶仲紆州人進士應擇之孫官至工曹佐郎
權德饒 萬曆癸未別試丙科第二十一人○字皎夫安東人
蘇光震 萬曆丁酉庭試丙科第五人ㄙ見人物
蘇泗源 萬曆乙巳增廣第十八人○字道淵僉使世溫曽孫官止縣監
金廷益 萬曆癸丑增廣第三人○字士謙蘇世良侄孫奉蘇適外孫官至郡守
楊時遇 萬曆甲寅別科丙科第二人○字彥亨洪之孫官至縣監
蘇東道 崇禎乙亥增廣丙科第十人ㄙ見人物
尹弼殷 孝宗丙申別試丙科第二人ㄙ字湯卿坡平人官至判官
蘇斗山 顯宗庚子直赴魁科ㄙ見人物
尹輔殷 顯宗庚子式年丙科第二十人○字殷卿弼殷之弟官至成均博士
韓[土+典] 肅宗己未式年丙科第三人○字仲亨清州人官至縣監
李起漢 肅宗丙寅別試丙科第二人ㄙ字汝極全州人官至司藝德興大院君玄孫
宋思涓 肅宗己卯增廣丙科第十二人ㄙ字錫甫官至寧令鎮川人

武科

蘇世得 世良之弟正德乙亥出身官至縣監
蘇連 世良之子嘉靖出身官至郡守
權擇中 萬曆出身官至直長
蘇文震 世得曽孫萬曆甲午出身官至水使壽七十七
李德芳 丁酉倭亂將從軍而無以治裝进
崔岌 萬曆出身全州人官至縣令
蘇汝衡 壬傳好善之子官至萬戶
蘇鳴遠 逢曽孫萬曆出身官止參奉
蘇蕙 鳴遠弟都摠都事以老陞通政壽八十二
蘇啓遠 文震庚子
蘇啓盛 啓遠弟官至主簿
趙明瑀 護軍丙子南漢扈從
崔警 官止判官丙子南漢扈從
崔健 鐵原人
崔偃 健弟並見孝子
朴明浩 高山移居胡亂從征軍潰逃梟示
蘇山海 世得五代孫仁祖己丑出身官至營將
崔尙勳 孝宗朝出身官止監察
吳應

朝登第官至校理早夭以文行名於僉 **蘇秉福** 字重綏號四隱進之孫擧進士不復
趙希逸誄曰蘇君坐席三百者有文集 赴擧師事金徵士啟輝以學行著名
有經世才以宰臣薦授 蔭陵參奉不就尊室道川以耕釣自娛隱德以終葬日
故友諸生會者七百餘人吳金以淨鄭愚伏趙重峯韓大菴爲道義交有文集 **蘇**
東道 字子由號慣眠窩世良之弟僉知世蕃曾孫 仁祖 **蘇斗山** 字望如號月洲東
朝登第官至監司居家孝友在官清白有文集 道之從侄 顯宗
朝登別科官至平安兵使狀貌英俊器度宏深早遊宋
尤菴宋同春兩賢之門講學春秋以才局稱有文集

流寓（本朝）

權近 字可遠號陽村安東人恭愍朝登第入我朝策佐命功封吉昌君官至崇政左贊成嘗謫居本郡著入學圖說

李若海 以蘇世良之弟世儉之壻贅居本郡○字景容號鐔岩廣州人中宗朝登第又登擢英試官至直提學乙巳禍竄丁未有後命配享莘岩書院

徐益 以李若海之外孫寓居本郡 字君受號萬竹扶餘人 宣祖朝登第官至承旨詩人青邱風雅

韓百謙 以蘇自坡之外曾孫壻贅居本郡○字鳴吉號久菴清州人以學行宦至咨議

李貴 字玉汝號默齋延安人 宣祖朝登第策靖社元勳封延平府院君官至崇祿大夫左贊成諡忠定公配享 仁祖廟庭

文科

崔自淑 弘治乙卯別試乙科第七人官至郡守

蘇世良 正德丁卯式年丙科第一人○見人物

蘇世讓 正德己巳別試乙科第二人○見人物

楊公俊 正德庚辰別試丙科第八人○字彥卿南原人官至禮曹佐郎

蘇進 嘉靖乙酉式年乙科第一人○世良之子見人物

金世良 嘉靖乙未別試乙科第一人○字君叔慶州人官至郡守本以慶州貢生居本貫而載本郡地誌或云道子來寓其子得地見蔭仕

楊洪 嘉靖別試丙科第七人○

(前朝)陳義貴 有政聲

(本朝)盧龜祥 結訟果斷

崔德之 行己儉約處事詳明

李仁賢 嘉靖甲寅仕平易為治丙辰重修客館東軒

梁喜 嘉靖甲午文科己未仕庚申遷家遭母喪政尚清簡

金長生 萬曆癸卯仕興儒化士林立祠賜額

李厚源 崇禎甲戌仕乙亥登文科有去思碑丙子遞

沈㒞 崇禎丙子仕丁丑遞有去思碑

金嶷 崇禎丁丑仕壬午瓜遞有去思碑

宋時燾 顯宗朝丁未仕以公事上京上引見諮民瘼以設鎮啓為對特命還移礪山吏民稱便重建衙舍辛亥遞

人物

(高麗)李湊 高宗朝登第官至翰林學士承旨性溫良善屬文工筆札不理生產家無儋石之儲益山人

李行儉 湊之子文科官至國子典酒寶文閣直提學知製誥以直節聞

李公遂 行儉之孫忠烈王朝以監察糾正擢魁科恭愍朝賜推忠守義同德贊化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領都僉議事右文館大提學封益山府院君諡文忠配享恭愍廟今享華巖書院

(本朝)金仲舒 安東人號若齋九容孫擧進士以門蔭筮仕歷敭義至戶曹參議退老本郡壽八十九

蘇世良 字元友號困菴晉州人中宗朝登第官至大司諫知製敎性孝友不事產業與李晦齋金慕齋金思齋朴訥齋金沖菴友善相與往來講磨論道忤權奸亦補龍潭縣令巳卯禍以在外獨免焉享華岩書院有文集刊行于世

蘇世讓 字彥謙號陽谷世良之弟中宗朝登第官至崇政左贊成典文衡文章贍麗筆法得松雪體四遞聘使一朝皇都聲名播於中華致仕優遊田廬二十餘年壽七十七享華岩書院有文集刊行于世

蘇逢 字叔卿號花江世良之子中宗朝登第官至副提學退老于鄉

蘇光震 字子實號白泉世良之弟縣監世得之曾孫宣祖

書籍

胡傳春秋七卷缺 書傳諺解五卷 詩傳具諺解 詩傳大文二卷 孟子具諺解
孟子大文二卷 中庸具諺解 大學具諺解 禮記十卷 小學四件 孝經大義
擊蒙要訣三件 通鑑十三卷缺 李白詩十四卷 儷文程選六卷 三綱行實 喪
禮備要 闡義昭鑑三卷 受教輯錄二卷 簡易集九卷 稽古錄一卷 以上鄉校藏 △
詩傳春秋七卷 近思錄四卷 釋疑一卷 三綱行實 二倫行實 事文類聚四十卷缺
沙溪集四卷 尤菴集五十七卷 滄州集七卷 闡義昭鑑三卷 以上華山書院藏 △周易十一卷
詩傳十卷 春秋一卷 禮記十二卷 左傳批評六卷 李白詩五卷 杜詩諺解十卷
唐音二卷 闡義昭鑑三卷 五先生遺事一卷 湯谷集五卷 以上華巖書院藏 △五禮儀
二卷 鄉約文一卷 大明律三卷 經國大典六卷 無寃錄一卷 增修無寃錄一卷
續大典四卷 勘亂錄四卷 均役事目一卷 良役實總一卷 以上星廳藏

各宦

于二十八坐 耳藥桶六十五箇 南飛六十五箇 火繩一百五十八以里 藥升五十五坐 火鉄
六十六箇 圓針六十六箇 錚四坐 羅叭一雙 大鼓二坐 具臺 中鼓二坐 具臺 小鼓四
坐 鞭棍四十九柄 護機二坐 大緞巡視旗一雙 大緞令旗一雙 以上會付 三穴砲一柄 大鼓
一坐 中鼓四坐 小鼓四坐 射習貫革二坐 砲貫革四坐 騎蒭貫革九坐 漏水器一坐
鳥銃鉄釘一柄 騎𢱢靴巨一柄 青黑紅三色衣燈十一件 燈鉄機廿二箇 黑畧布具
箇百斤桶子一柄 火藥砧二坐 太鼓三坐 紅氊笠一雙 已上會付 長槍二十八柄 黑角
弓一百七十一張 交子弓一百十三柄 長箭一百五十浮 片箭一百五十浮 筒兒一百十四箇
弓絃二百八十四箇 弓家二百八十四箇 鳥銃四十柄 鉛丸七百十八箇 火藥一百三十三斤十
兩四十 南飛箇四十箇 耳藥桶四十箇 火繩四十以里 火鉄四十箇 竹桶一千二百
箇 圓針四十箇 藥升四十箇 威鎭已上 山城藏

書校

胡傳春秋 校缺 不用

分養馬二匹 羊 會付六口 牧子無面 羔 會付三十五口 特存十三口 猪 會付百口

場市

郡內 每月二日、七日、十二日、二十二日、二十七日出市 檜花 五日、十日、十五日、二十日、二十五日、三十日出市 磻溪 古有今無

工匠

冶匠十名 弓人一名 矢人 弓人兼 木匠七名 輸匠三名 網巾匠二名 筆匠二名 石物匠二名 笆匠 彌勒店十三戶 弟右店十二戶 栗村店六戶 支石店四戶 水鐵匠 南山店二戶 彌勒店二戶 笠子匠二名 蔽陽子匠十四名 店在彌勒面 笠鞋匠二名 柳器匠五名

軍器

黑角弓二百十張 黃角弓十三張 交子弓一百二張 弓家三百三十五箇 預備弓弦三十四箇 長箭二百二十八浮二十箇 片箭六十四浮 筒兒六十四箇 長槍六十柄 車馬依八十一坐 弓所二百沙里 車馬依所入 菱鐵三千四百七十二箇 菱鐵入盛樻子六坐 鐵甲胄四部 鳥銃九十四柄 又二百四十七柄 束伍軍分校 千步銃十柄 鍮火砲一柄 三穴銃三柄 鉛丸七萬四千九百四十五箇 火藥一千三百十六斤十二兩五戔 入公火藥入盛樻

貢物
寺奴身布四疋
倉庫
司倉 在郡西偏 大同庫 附司倉 城倉 在威鳳山城內 距郡七十里 軍器庫 在客舍北墻外 官廳庫 在郡衙西偏 雜
從庫 在鄉廳前
倉穀
司倉 米九百九十八石五斗八合三里二分 ○太四百七十七石十斗五升八合一里三分 ○正租六千五百六十一
石一升春八夕五里三分 ○小米四石五斗二合二夕五里七分 ○木麥十五石七斗五升 皮牟六百七十
石五斗九升九合九夕三里九分 ○真麥 備局句管軍作米 五百十九石十三斗四 大同儲置米
八百三十五石三斗四合七里六分 升二合二夕二里六分
二千五百六十石一 山城米 一千一百三十九石六斗一升二合七夕四厘九分內七百八十一石四斗五升
斗一升八合三里 春三夕二里六分山倉捧留 三百五十七石一斗四升一合四夕三里三分邑倉
捧 山城租 八十九石七斗三升二合二夕二分內 五十九石九斗八升三合一夕 合諸色穀一
留 一里八分山倉捧留 二十九石十斗一升八合八里四分邑倉捧留
萬四千五十三石二斗九升三合三夕七里八分
雜畜

立 条所一巨里 大箱一部 ○冬至 乾柿一貼 生梨四介 紅柿十三介 乾雉二
首 条所一巨里 草席一立 ○十月朔 乾雉二首 乾柿一貼 清一升 草席一
立 条所一巨里 小箱一部 ○臘月 生獐一頭 生兎一口 条所一巨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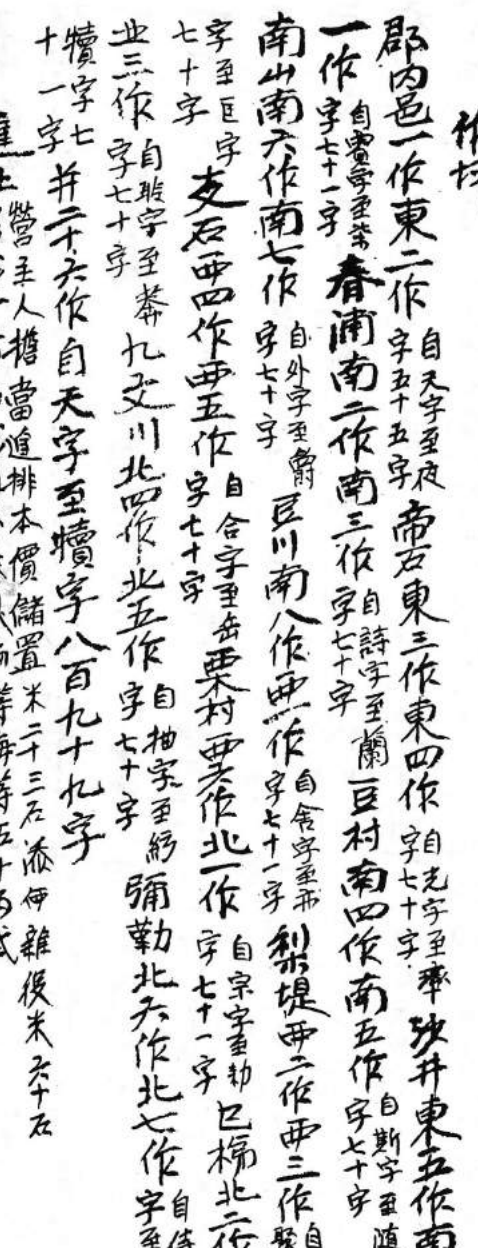
分定

巡營納 啓目紙一束 封裹草席一立 細繩二十把 中繩三十五把 裹紙(壯)一張
真荏一石六斗 水荏一石六斗 羔毛三兩九戔 折価錢一兩五戔 藥材陪特錢六十九兩 已上
并春秋兩等 墨法油一斗 三年一次 ○兵曹納 草席五立 羔毛六兩 折価錢三兩 并春秋兩等 ○吏曹納 壯紙
二束 每式年世系子修上特納 草軍器寺納 鵰羽 勅行時 分定

求請

冬至上使壯紙十束 白紙十二束 笠帽三事 副使壯紙八束 白紙十束 笠帽二事
書狀官壯紙五束 白紙七束 笠帽二事 ○春老所錢三兩 壯紙一束 白紙二束 春秋
兩等 中樞府錢二兩 壯紙一束 白紙二束 均役後停

正朝乾雉二首乾柿一貼小箱一部草帋一五条所一巨里[redacted]正月朔乾雉二首
清一升小箱一部草帋一五条所一巨里白布十尺○二月朔乾雉一首清
一升草帋一五条所一巨里○三月朔清一升中箱一部条所一巨里草帋
一五ノ四月朔清一升条所一巨里草帋一五中箱一部○五月朔清一升大麥
二升小麥二升草帋一五条所一巨里大箱一部○端午乾雉三首草帋
二五条所一巨里大箱一部白貼扇三柄漆刷扇十柄白泡扇十六柄○
六月朔乾雉一首清一升白缸一坐草帋一五条所一巨里○七月朔清一升
草帋一五条所一巨里中箱一部新稍米三升○八月朔乾雉一首清一升草帋
一五条所一巨里小箱一部○大殿誕日乳雉一首草帋一五条所一巨里○九月朔
清一升生梨十個胡桃五升小箱一部草帋一[redacted]条所一巨里白布十尺○十月朔
乾雉一首乾柿二貼清一升白缸一坐草帋一[redacted]条所一巨里紅柿五升胡桃
二升○十月朔乳雉一首乳柿一貼清一升紅柿五升去核四而白缸一坐草帋一



營屯

後營屬遊云東伍屬公田畓稅 太五石七斗九升租一石四斗 中營屬盜賊藉沒田畓稅 太一石租二石十斗

堤堰

五石堤 外堤 加佐洞堤 內堤 乭餘堤 楓洞堤 並在帝石 黑石堤 長淵堤 幷在春浦

葛田堤 津山洑堤 並在巨村 毛里川堤 在巨川 內巨川堤 在支石 那羅谷堤 在栗村 高次洞堤

今可村堤 乼防築堤 幷在巨楊 竹青堤 運等洞堤 沙吾郎堤 豬楊堤 今音

余堤 龍堤 並在九文川 板楊堤 在雪 葛夕串堤 幷在蹄勒 東亭子堤 新堤 一名萱堤 窺見堤 幷在郗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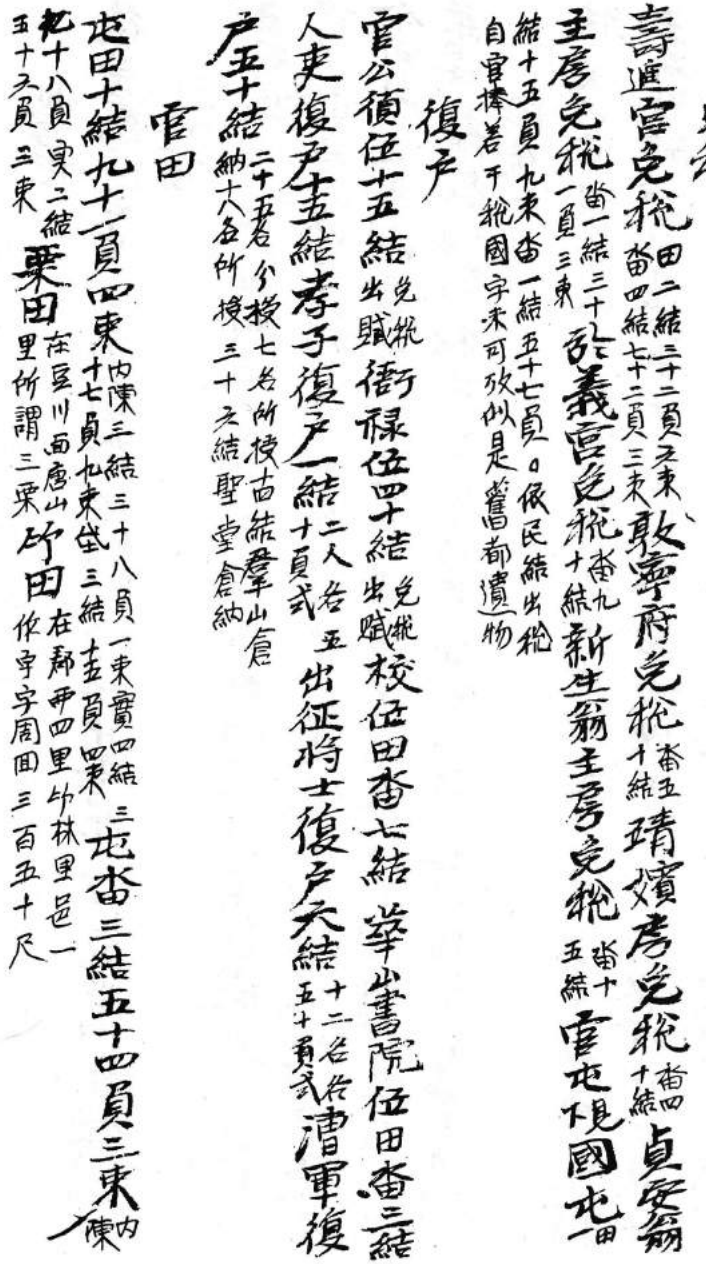
防洑

扶桑川洑 炭岩洑 東面洑 好音橋洑 中洑 王宮洑 塔里洑 麻田洑 幷在帝石

五石洑 在春浦 鳫川洑 中洑 狗楊洑 金吉洑 蘂洞洑 鹿沙坪洑 下洑 倉

坪洑 並在巨村 上洑 下洑 宗坪洑 並在巨川 蘆芽洑 蓁子谷洑 茂助洑 馬岩洑

並在支石 東山川洑 下洑 城後洑 下洑 並在蹄勒 乾支里洑 倉後洑 元巨里洑 獄後洑里



官用百物自其中責應 柴 每四結一同二束式收捧 草 每四結三束式收捧生草則馬匹一日所喂佣錢五分以雜役米上下

免稅

壽進宮免稅 田二結三十二負六束 畓四結七十二負三束 敦寧府免稅 畓五十結 靖嬪房免稅 畓四十結 貞安翁主房免稅 畓一結三十一負三束 於義宮免稅 畓九十結 新生翁主房免稅 畓十五結 官屯 見下 國屯 田一結十五負九束 畓一結五十七負 ○依民結出稅自官捧若干稅國字未可攷似是舊都遺物

復戶

官公須伍十五結 免稅出賦 衙祿伍四十結 免稅出賦 校伍田畓七結 華山書院伍田畓三結 人吏復戶十五結 孝子復戶一結 二人各五十負式 出征將士復戶六結 十二名各五十負式 漕軍復戶五十結 二十五名分授七名所授十四結羣山倉納十八名所授三十六結聖堂倉納

官田

屯田十結九十一負四束 內陳三結三十八負一束實四結三十七負九束 岱三結十五負四束 屯畓三結五十四負三束 內陳九十八負 實二結五十六負三束 栗田 在豆川面唐山里所謂三栗 竹田 在鄰西四里竹林里邑一作宇字周回三百五十尺

公賤

寺奴 四口

田結

元帳付田二千四百十二結六十五負六束 内雜頃一千三百卒結六十一負六束 實一千六十二結四負 時起二千六百九十二結九十九負四束 内雜頃卒十二結七十四負八束 實二千六百二十結二十四負六束

租稅

武賦 田賦下之中 下中則出糙米六斗 下下則出糙米四斗 上納戶曹 每年解數依時執田結數增減 大同 每結十二斗一升三合七夕九里式收捧 分上納儲置 每年依畫定數上納則輸于宣惠廳 儲置則捧留本官 官需米 二百七十石 春秋等並 使客米 二千九石七斗五升 油淸紙地価并入 ○ 并官需三百九石七斗五升 每朔二十五石十一斗八升七合五夕分排

稅太 二百三十四石五斗五升五合四夕 每名中太等收捧 如糙米例 戶曹納 位太 一百十八石一斗五升七合五夕 每結六升七夕八里式收捧 戶曹納 水鐵匠十名 每名二兩式收捧 [illegible] 納 巫稅布八疋 内上納五疋 作木一疋 役価二疋 每疋錢三兩代捧 戶曹納

徭役

三手糧 自田結中磨鍊 結錢 每一結錢五戔式 收捧 均役廳上納 雜役米 每結二斗七升八合四夕四里 進上漆毋米 五十七石及氷丁炬炭雉鷄營納年分紙

名、大旗手十六名、保人七名、大砲手二名、保人二名、軍牢十六名、保人十二名、塘報軍二十二名、保人二十二名、隨率二十七名、保人二十七名 以上外案付 進上保十五名 良賤參半 軍器保二十名 良九賤一 紙匠保二十名 良九賤一 官匠保二十名、京外案付軍合爲三千五十一名 納布軍一千六百十八名、納米軍 除番軍三百八十二名 上番軍八十六名、除番軍十二名、營役軍六十一名、赴操軍四百九十三名

保四百四十四名

募屬

吏奴作隊一百二十六名、社稷壇直一人 並良軍 鄕校假屬五十名 良賤參半 華山書院假屬三十名 良賤參半 華嚴書院假屬二十名 良賤參半 鄕廳假屬五十名 並役 軍官廳假屬十名 一番役

作廳假屬二十名 番役

鄕任

座首一人、別監二人、風憲一人 各面 約正一人 各面

官屬

鄕吏七、假吏二十三、貢生二十五、醫生一、羅將二十三、官奴二十三、官婢十八

軍摠

忠翊衛三十三名(屬忠勳府) 忠贊衛五十名 忠順衛六十名(並屬兵曹) 選武軍官七十九名 訓

鍊都監砲手保一百三十名 軍餉保二十九名(每年作米六斗式納訓局) 御營廳正軍三十五名

官納保七十名(每名作米六斗式) 正軍資保三十名(內下馬保二名) 禁衛營正軍四十五名(內下馬軍三名) 官納保一百五名

(每名作米六斗式) 正軍資保五十名(內下馬保六名) 別破陣四名 兵曹騎兵五百三十四名(七月當) 步兵一百七十名(十月當) 開

城府相換騎兵十三名(四月當) 禁軍保十名 祇直保一名 扈輦隊保四名 京驛保二名 吹

保一名 掌樂院樂生一名 樂生保八名 樂工一名 樂工保八名 聖堂倉漕軍十八名

(丙寅漕軍每名各給復二結 每二結作米二石以大同條上納 謂之騎船米)

左水營漕軍七名(春布則十八名納于聖堂倉 七名納于牢山倉)

典設司諸員二十名(以上京各案付) 監營屬除番軍官十七名(布軍官 謂之納) 藥材 進上陪持保二十四名 匠

人六名(以上并納布) 馬軍保六名(內良一 賤五) 旗手三名 步軍五十八名(一年赴操一 年納米三斗) 水軍鎮軍四十五名 咸鳳

山城守堞軍官三十名(建興役輪回一番仍番錢 完府以守城將次知) 別破陣十名(納番錢山城 別將次知) 精抄軍三十名(為山城設 置無所事)

兵營新選五十六名(納布) 束伍馬軍四十九名 保人九十八名 步軍三百三十四名 保人一百二十四

戶口

戶三千七百六十八(內新戶二百十三戶) 口一萬四千一百五十八口(男六千七百八十五口 女八千三百十九口)

儒林

齋長一人、掌議一人、齋任二人、校生五十人、華山書院儒生三十人、華巖書院儒生二十人

武班

馬軍別將一人、哨官二人、知彀官一人、旗牌官四人、大砲教師一人、禁衛知彀官一人、山城精抄旗牌官三人、巡牙兵哨官一人、守堞兵房一人、牙兵知彀官一人、出身六人、業武兵房一人

邑裨

行首軍官一人、兵房軍官一人、官軍官五十人(額數未充)、衛隊哨官一人、軍器監官一人、都譏察將一人(內在邑)、面譏察將九人、(各面皆有)竹田監官一人

有湑水門植以鉄箭至今不朽村人入城採樵往〻拾得故物焉

報德城 在郡西一里遺址僅存世傳新羅文武王封高句麗外孫安勝為報德王以兄女妻之處

之金馬渚後徵還其孫子大文留金馬渚謀叛伏誅餘衆殺官吏又叛新羅王命將討誅之詳見故事

宮坪 在郡東七里帝石面利仁里都恆山一支西南為鷹峰之下有造山高一丈餘稱獨山或稱鍾閣遺址山下有宮墟世傳馬韓時內宮至今階砌石尚存造山上有碑撥石〻中凹大如屋

王宮坪 在郡東南五里帝石面龍華山南麓盡處世傳馬韓時朝宮舊墟城址宛然累土為壘不用石為村人耕田尾石觸地深入猶在或鑿起突石入地幾尺許而廣一間鋪以石四尾兩石相交處如啄磨為緣石下爐熖尚在往〻拾得玉佩銅鈼鈇所之屬云自此距宮坪三里

王宮塔 在宮墟前高十丈累石宛然俗傳馬韓時造此塔但塔劫即佛家所設而馬韓時佛教未及東來一說云

道詵謂完山地理善蹲狗形建塔于此以壓狗尾蓋為麗太祖壓勝甄萱而塔成之日完山晝晦三日其說固陋不經而且道詵麗祖以前人未知道詵預知麗祖統合而陰贊除萱之術也奘未可知也

王宮井 在塔北二十步見泉井

倉坪 在郡南五里豆村面葉洞里距王宮坪三里似是故都時府庫所在處

石檣洞 在郡西十里山麓有古寺遺址石檣峙立高二丈俗名其洞曰石檣洞代用壓勝法如此

鑄巖 在郡北七里鼎店路邊俗稱鐵岩李善海取以為鑄

彌勒寺塔 在彌勒寺旧墟之南高十餘丈俗傳東方石塔之最高者下通八門可容人出入世稱象八陣法有生死門云不知何年為雷震所擊而西一半頹落廢後經浩劫而亦不益崩耳按勝覽記述新羅聖德王二十九年六月雷擊而崩

釜沓 在彌勒寺後鐵釜埋地今人種禾其上其圍可播一斗租非人力所可按出云

立石 在郡南十五里帝石面紫停出地五尺入地七八尺前面鑿穴至半不盡穿不知古人設此何為也里名立石以此

支石 在郡西十五里支石面林內里西偏累石而上覆大石未知古人何所取象也面名以此云也

遺愛碑 郡守李厚源植正純碑在客館前郡守金蘿申鴻慶石池集觀察使具鳳瑞洪錫輔碑在上漢橋西路傍

蘇氏霽雲

獅子菴 在龍華山絶頂僧徒傳言箕準師知命法師爲刱斯菴箕準之世佛法未及來其說未免荒誕左右岩壁有鑿破痕認是刱寺時鑿開也眼界無垠稱勝他

竹寺 在獅子菴西隅岡百步今毁

水柏菴 在竹寺北百餘步今毁

萬彥菴 在獅子菴南二百步今廢

靈天寺 在水柏菴西北一里一名串寺

明寂菴 在獅子菴二百步今廢

天定菴 在明寂菴東一里有上僧雲始刱今毁

五金寺 在報德城南世傳薯童大王事母至孝爲母掘薯蕷忽得五金後爲王即其地刱寺因以五金名焉今廢

隱仙寺 五金寺遺址刱菴大其制壽

橋梁

上漢橋 在郡西百餘步道川

下漢橋 在郡五里南亭子

葉三坪橋 在郡南十里豆村面橫木爲橋駕扶桑川下流大路

岩橋 在郡南十五里春浦面全州大路駕宮坪川

交宗橋 在郡南十五里

長淵橋 在郡南二十里俱在春浦面

新防橋 在郡南二十里豆村面驛路駕道川下流用板爲橋

板橋 在郡北七里廻龍里龍安咸悅大路駕豆川上流石

畓溪橋 在郡西十里支石面五相里駕豆川下流

院橋 在郡西十五里巳梯面上里駕鮮川上流咸悅大路

鉅橋 在郡西七里夫石面內豆川里駕禽川臨陂大路

鯀川橋 在郡西二十里粟村面駕鯀川臨陂大路

古蹟

黑郡石串 在郡南十五里今廢

箕準城 在龍華山絶頂之北世傳箕準所築故名焉石築至今宛然周三千九百尺高八尺城內有井

迪 配眠窩藪東道 肅宗己亥追配

司馬所 在郡西一里 癸酉圯于水

興學堂 在郡北八里 今毁

勸學齋 在郡北一里 今毁

觀善堂 在郡北七里 士人白尚馨倡建

祠廟

社稷壇 在郡西二里 猪城

社稷祠 在君臨北 奉安位板 乙亥重修

文廟 在鄉校

城隍祠 在社稷祠傍 奉安位板 兼安祀鬼神位板 乙亥重修

厲壇 在郡北三里 窺見坪

祈雨壇 一在獅子菴東絶頂上 一在都恢山上

院宇

黑石院 在郡南二十里 黑石部曲 今廢

蛇橋院 在郡西十九里 巳椅面 今廢

寺刹

彌勒寺 在龍華山西麓下 世傳武康王既得人心立國馬韓 王一日與善花夫人欲幸獅子寺 至山下大池邊 三彌勒出見池中 夫人謂王曰願建伽藍於此地 王許之 詣知命法師 問填池術 師以神力一夜頽山填池 創佛殿 又作三彌勒像 新羅真平王遣百工助之云 謹按真平王乃新羅末葉 是時馬韓已亡 安有所謂馬韓武康王 且填池刱寺之說 極涉不經 既載地志 故姑存之 ○東史云 新羅聖德王十八年 唐開元七年秋九月 震金馬郡彌勒寺

上院寺 在龍華山東麓下

南殿 在上院寺東四十步許 今毁

都恒寺 在都恢山 今毁

東山寺 在龍華山東麓岸谷

大廳及西軒並燬于火東軒一半亦燬翌年乙亥郡守南崙善重建

各廳

鄉廳在郡衙北偏一里 軍官廳在郡衙南墻外丙子重建 軍廳在客舘西墻外東伍將官所居 鍊武廳附于軍廳

郡司在郡衙南偏 軍器廳在客舘北墻外丙子重修 刑獄在郡衙南偏 作廳在郡衙南墻外 通引廳

附工房庫 羅將廳附于三門 馬房在客舘西偏丙子重建

亭榭

塤篪堂在東軒東偏臨碧池上 清心樓在客舘東今毁 太虛亭在郡西二里山腰陽谷蘇世讓始刱有眺望之勝今廢額板

華使朱之蕃退書而藏在蘇孫家云 自娛亭蘇陽谷刱在竇見堤東岸今毁 退休堂在太虛亭下稍東竹林裡陽谷蘇世讓退老始名扁

其後外孫重新焉

學校

鄉校在郡東二里乾子山東麓下 華山書院沙溪金文元公主享孝宗朝甲午刱建顯宗朝壬寅賜額尤菴宋文正公配享

肅宗朝乙亥退配 華巖書院南村李公遂主享萬曆壬子邑士蘇永福刱建因菴蘇世良陽谷蘇世讓慵岩李若海並天啓癸亥

村面倉坪上沐則愈頭風眼疾雲壇亘井俗稱龍湫在明寂菴東三里

藥材

半夏 麥門冬 木瓜 天門冬 澤瀉 赤白芍藥 枳實 蓮實

菱仁 甘菊 白扁豆 地骨皮 雀舌 兎絲子

掌面

舂浦郡西南近則二十里遠則三十里帝右郡東南近則十里遠則十五里巨村郡南近則十里遠則十五里巨川郡西近則五里遠則十五里支石郡西近則十里遠則十五里栗村郡西近則十五里遠則二十里巳楊郡西北近則十里遠則十五里一云龍楊九支川郡西北近則十里遠則二十里彌勤郡北近則三里遠則十里郡內

廨舍

衙舍舊在乾支山梢西八十步許顯宗庚戌郡守宋時燾移建東軒于今基肅宗己卯年間郡守鄭重基重修舍凡四十七間畢閣八間附屋四間凡十二間庫舍門屋合二十一間公須在郡衙南舍五間客館在郡衙北偏子坐午向旧館不知何代所刱而正德甲戌東軒燬于火郡守朴巨鱗重建嘉靖丙辰東軒又燬于大郡守李仁賢重建旧無西軒顯宗戊申郡守宋時燾新刱當宁甲戌釐

(暎與迎春拍相對並蘇湯右命右)

奇觀

上臺 (邵將軍峰俯瞰滄海落照) 兜巖 (在將軍峯之南石形如兜故云) 燈盞巖 (在萬丐菴之東四十步石上有堂故云)

土産

竹 鯽魚 薑 (並出地志今人不種薑) 烏磁器 楮 麻 茶 鵝 天鵝 白魚 秀魚 鯉魚 蟹

果木

梨 栗 (産廬山滸傳一歲三實移栽他處則否一樹三巡生華及之結實故謂之三栗) 棗 柰 柿 早紅 石榴 木瓜 胡桃 葡萄 葠仁

花木

梧桐 枳 梅 紅碧桃 三色桃 牧丹 月季 四季 荷花 杜冲 百日紅

泉井

寒井 (在郡衙東偏百步名溫夏冷可療水土疾) 王宮井 (在郡南五里舊宮墟今堙) 冷井 (一在水拍菴北偏沐浴則愈頭風一在豆)

薯童大王一云麻婆孫事母至孝掘薯簣得五金山名以此龍華山一支折而西為此山在郡西三里

唐山 五金山一支西馳五里為此山在郡西八里豆川面産三栗詳見果木

八峰山 唐山西轉五里為此山〻上有八峰故云

道川 自龍華山發源抱郡居而南與扶桑川合于豆村面新方橋入于春浦面橫灘下流

扶桑川 在郡東五里自龍華山東麓發源與道川會于新方橋入于橫灘下流

宮坪川 在郡南十里自全州业田山發源入于橫灘下流

鯀川 在郡西二十里自龍華山西北麓發源經彌勒巳梢九文川栗村四面會于支石面蓮田坪入于全州新倉津

豆川 在郡西十里自龍華山西麓發源經彌勒豆川支石三面會于蓮田坪

上矢淵 在郡西十七里沿循藩池有上下池幾廢出勝覽

橫灘 在郡西南三十里春浦面汶川村前三川之下流海潮至此商艘來泊

猪子門淵 在郡南二十里春浦面佛堂里前橋水成渚

長淵 在郡西南二十里春浦面全州紆西狀水流入為淵長十里滿池盡是芙蕖見比錢塘且産菱芡冬月為鴻雁鸊鴨來集○四隱蘇福永家狀云光海時洊歲元旱全业益南大野荒漭居民四散公建議穿渠四十餘里躬莅董役經畫周詳三年以後成淪江注野民享其利

佳境

黃閣洞 在郡北七里水石頗奇

石門 在獅子菴西邊雙門對峙其間僅容一人出入

陽村臺 在郡西十五里黃串里村後小丘環以竹林野望四十里權陽村謫本郡時築亭于此以為遊憩之所今則亭毀以臺稱焉

石龕 在獅子菴前多藏小銅佛

上元龕 在上元寺洞口其深不可測傍有兩疊岩瀑鳴聲琮琤頗有佳趣

迎春臺 在退休堂東偏

送春坮 在馬耳山

邑在兩湖(湖南 湖西)之間而風氣異嶺下(以芦嶺 以南)絶異夏不甚熱冬而皆寒四時南風連吹冬月爻南風則驗歲豐歉○地接海門汚下卑濕居人苦病痠㾜水腫之症居多

形勝

金峯山峙于北都順山在于東南有三川(前川)登禮驛橫拖如帶流入于春浦之西與海港相接中鋪以方八十里曠野林藪詩所謂西南坼處荒郊潤是也○湖白山蒼(徐居正詩云南湖白〻益山蒼〻)○使星往來分二路一由礪山一由咸悅而時或並出於本郡路

山川

乾子山(在郡北一里龍峯山一支東馳又折而南為郡之鎮山一云乾支山○一名馬耳山或云馬耳峯山盡頭石處結為雙峯尖聳如馬耳云故○一名泠山山過峽復聳處差墊沒而極出之狀故得名以此)龍峯山(又珠山一支西馳而又南為此山在郡北八里一名彌勒山)將軍峯(在龍華山西山之最高處)都順山(文珠山一支馳南又折而西為此山俗稱砲茶山在郡東五里而石面)天金山(傳世)

山同部左司高山右司錦山中部礪山同部左司咸悅右司礪山本郡隸中部右司左中兩哨本郡束伍三百四十六名内二百五十二名分隸中部右司左中兩哨餘軍九十四名内五十五名合于高山右哨三十九名名于礪山前哨馬軍四十九名隸于右列

姓氏

金 韓 宋 李 黄 林 仇 并本郡出地志 李 仇 全 并黑石出地志

風俗

生民尾朴 朴璞詩生民尾朴馬韓風俗朴人魯 蘇世讓記俗朴而人魯有故都遺風公世稱湖南風俗多巧詐而本邑風俗反是敦朴而魯鈍無機巧之習陽谷生長此邑習知土俗故云 居處作土宇其户向上俗不重錦罽而貴瓔珠用以歸髮垂耳男子衣帛袍履草蹻性勇悍讙呼力作 史氏記馬韓俗如此即今外村居民住二等土壁上其户兩則以席掩户婦女服素衣裳而或有着㕘裳者則人皆識笑視之若娼妓如有尚白遺風其不重錦罽可知也以女皆穿耳輪爲孔結以絲繩若將結項璫然士人着道袍而躡藁鞋亦許力作農作人皆羣噪勇爲最以勤力見稱於他邑故都風俗歷千載而猶有彷彿焉

氣候

東至礪山界十里距礪山府治二十里南至全州界二十五里距全州府治五十里東南至全州界十五里西南至金堤界三十里金堤郡治七十里西至咸悅界二十里臨陂界二十里咸悅臨陂縣治四十里北至礪山界十里西北至龍安界二十里距龍安縣治四十里距京都四百六十八里 五日程十五息十八里

官員

郡守一員 自堂下從四品至正三品文南武交差瓜限六十朔 訓導一員 今廢

鎮官兼帶

全州鎮管兵馬同僉節制使 全州即四長官之一故本郡雖為全州屬邑而兵馬則屬後營礪山鎮 兼禁衛營把摠 兼帶之任未知自何年始也新官辭朝自本營成送傳令須知右道諸邑禁衛軍每式年屬邑送雖頃成冊則成都案置于本郡一有徵發兼把摠領付本營每年春秋有巡點之事而今廢 元定兼官 全州府

把營

礪山後營營屬三部六司左部臨陂同部左司臨陂右司沃溝右部錦

金馬志上

郡守南卷普撰

邑號

金馬　益州　益山

建置沿革

本馬韓國後朝鮮（世襲箕子為後朝鮮）王箕準箕子四十一代孫也避衛滿之亂浮海而南至韓地開國仍號馬韓至百濟始祖溫祚王并之自後號金馬渚新羅神武（文）王改金馬郡至高麗屬全州忠惠王後五年以元順帝皇后奇氏外鄉陞為益州　本朝　太宗十三年例改今名為郡（輿地勝覽）

疆域

東自礪山界西至咸悅界北自礪山界南至全州界

程途

五十九 軍器
六十 書板
六十一 書籍
六十二 名宦
六十三 人物
六十四 文科
六十五 武科
六十六 生進
六十七 薦仕
六十八 忠臣
六十九 孝子
七十 烈女

七十一 陵墓

金馬志下

目錄

一 馬韓廢興
二 馬韓古事
三 金馬遺事
四 鄉里記言
五 題詠
六 雜著

金馬志上

目錄

一 邑號　二 建治沿革　三 疆域　四 程途　五 官員　六 鎮官兼帶　七 把管　八 姓氏　九 風俗　十 氣候

十一 形勝　十二 山川　十三 佳境　十四 奇觀　十五 土產　十六 果木　十七 木花　十八 泉井　十九 藥材　二十 堂面　二十一 館舍　二十二 各廳

二十三 亭榭　二十四 學校　二十五 祠廟　二十六 院宇　二十七 寺剎　二十八 橋梁　二十九 古蹟　三十 戶口　三十一 儒林　三十二 武班　三十三 邑裡　三十四 軍祭

三十五 募屬　三十六 鄉仕　三十七 官屬　三十八 公賤　三十九 田結　四十 租稅　四十一 雜役　四十二 免稅　四十三 復戶　四十四 官田　四十五 營屯　四十六 堤堰

丁卯仲春

金馬志

全

ㄱ

가축(家畜) 93
강역(疆域) 40
객관(客舘) 54, 55, 58, 65, 105, 179, 180, 181, 184, 204, 207
거교(鋸橋) 62
거리[程途] 40
건자산(乾子山) 46
건지산(乾支山) 46, 54
건치연혁(建置沿革) 39
검동(檢同) 134
검모잠(劍牟岑) 146
검지리(檢池里) 178
겸노상전(兼奴上典) 178
고산(高山) 43, 116
고승(高勝) 146
고을 이름[邑號] 39
고적(古蹟) 62
공물(貢物) 91
공민왕(恭愍王) 107, 109, 153, 155, 157
공수(公須) 54
공천(公賤) 76
곶절[串寺] 193
과목(果木) 51
관선당(觀善堂) 58
관속(官屬) 75
관아(官衙) 55, 56, 80, 81, 91, 133, 173, 204, 210
관아 건물[衙舍] 54
관원(官員) 41, 212
관청 건물[館舍] 54
괘인정(掛印亭) 173
교량(橋梁) 61
구문천면(九文川面) 54, 83, 178
구봉서(具鳳瑞) 65
구씨(仇氏) 135
구청(求請) 90
군관청(軍官廳) 55, 56, 74
군기(軍器) 94
군기청(軍器廳) 56
군내면(郡內面) 54, 83, 85, 135, 136, 139
군사(郡司) 56
군산창(群山倉) 71, 81
군수(郡守) 41
군역 총수[軍總] 69
군청(軍廳) 55
궁터[宮坪] 63
궁평천(宮坪川) 47, 61
권경(權儆) 123
권근(權近) 49, 109, 146, 151, 154, 187, 189
권덕요(權德饒) 113
권만형(權曼衡) 122
권벌(權橃) 159
권변(權忭) 175
권옥동(權玉童) 134
권옥형(權玉衡) 122, 123
권정동(權挺東) 123
권택중(權擇中) 115

권학재(勸學齋) 58
금마(金馬) 39, 80, 150, 153, 184, 185, 186, 190, 222
금마군(金馬郡) 39, 60, 143, 146, 148, 153, 203
금마산(金馬山) 49, 148
금마선생안(金馬先生案) 218
금마저(金馬渚) 39, 63, 146, 148
금마지(金馬志) 222, 223
금산(錦山) 42, 43, 127
금화산(金華山) 46
기부(箕否) 143
기우단(祈雨壇) 59
기이한 볼거리[奇觀] 50
기자(箕子) 39, 143, 151
기준(箕準) 39, 60, 62, 143, 147, 149, 150, 183, 204, 222
기준성(箕準城) 62, 147, 183
기후(氣候) 45
김기정(金起鼎) 116
김득지(金得地) 112, 119, 120, 125
김량(金亮) 122
김밀(金密) 153
김부식(金富軾) 151
김붕(金鵬) 117
김성철(金聲徹) 121
김세량(金世良) 112
김안국(金安國) 107, 158
김영(金瑛) 159
김영석(金永錫) 131
김오일(金五一) 122
김의(金嶷) 65, 106
김익진(金翊震) 127
김장생(金長生) 57, 105, 109, 165, 167, 214
김정(金淨) 107, 159
김정국(金正國) 107, 158
김정익(金廷益) 113, 120
김정진(金廷晉) 120
김제군(金堤郡) 40
김조이[金召史] 132, 137
김종직(金宗直) 159, 181, 189
김중서(金仲舒) 107, 123, 138
김집(金集) 222
김창대(金昌大) 131
김천명(金天命) 125, 127
김충립(金忠立) 129
김한익(金漢翊) 118
김휘(金輝) 153
김희수(金希壽) 138, 159

ㄴ

나장청(羅將廳) 56
남전(南殿) 60
남촌서원(南村書院) 203
남태보(南泰普) 55, 223
냉정(冷井) 52
노간(盧侃) 119
노귀상(盧龜祥) 105
노두망(盧斗望) 122
노우현(盧祐賢) 111, 124
노윤정(盧允正) 123, 124
노윤필(盧允弼) 123, 124
노인석(盧仁錫) 124
노후익(盧後益) 121
농지 76, 78, 80, 81
누정[亭榭] 56
능묘(陵墓) 138

ㄷ

당산(唐山) 47, 51
대문(大文) 63, 146, 222
덕흥군(德興君) 155
도내[道川] 47, 61, 109, 167, 176
도순사(都順寺) 60
도순산(都順山) 46, 47, 59, 60, 63
도씨(都氏) 135
도천(道川) 167
동산사(東山寺) 60
동헌(東軒) 54, 55, 56, 105, 179, 205, 207, 208, 212
동헌중수기(東軒重修記) 204
두제천(斗堤川) 202
두천(豆川) 48, 62, 86
두천면(豆川面) 47, 53, 81, 82, 84
두촌면(豆村面) 47, 52, 53, 61, 62, 64, 82, 84, 85, 138
등잔암(燈盞巖) 50

ㅁ

마방(馬房) 56
마이산(馬耳山) 46, 219
마파손(麻婆孫) 47
마한(馬韓) 39, 44, 59, 60, 63, 64, 143, 145,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72, 180, 184, 204
마한국(馬韓國) 39
만방암(萬房菴) 61
면세(免稅) 79, 80
면천(綿川) 47, 62
면천교(緬川橋) 62
명적암(明寂菴) 52, 61
명환(名宦) 105
모속(募屬) 74
무강왕(武康王) 59, 60, 138, 149, 150, 153, 189, 203, 204
무과(武科) 급제자 114
무령왕(武寧王) 150
무반(武班) 67
문과(文科) 급제자 111
문관(文瓘) 159
문묘(文廟) 58, 155
문수산(文殊山) 47
문종교(文宗橋) 61
미륵면(彌勒面) 54, 83, 85, 94, 132, 137, 139
미륵사(彌勒寺) 59, 60, 64, 65, 187, 188, 189
미륵사탑(彌勒寺塔) 64
미륵산(彌勒山) 47, 176, 190
미륵탑(彌勒塔) 189

ㅂ

박거린(朴巨鱗) 55, 179, 205
박득영(朴得永) 117
박명호(朴明浩) 116
박상(朴祥) 107, 158
박조이[朴召史] 132
박창문(朴昌文) 117
박초(朴礎) 44
박취로(朴就輅) 117
박취홍(朴就弘) 116
박팽년(朴彭年) 225
박혁거세(朴赫居世) 147, 151
반계교(磻溪橋) 62
방보(防洑) 83

백광서(白光瑞) 122, 127
백상언(白尙彦) 127
백상형(白尙馨) 58
백제의 수도 148
보덕성(報德城) 61, 62, 146, 182
복호(復戶) 80, 81, 130, 132
부답(釜畓) 65
부상천(扶桑川) 47, 61
북고산(北固山) 47
분정(分定) 89

ㅅ

사교원(蛇橋院) 59
사마소(司馬所) 58
사묘(祠廟) 58
사자암(獅子菴) 49, 59, 60, 61
사제면(巳梯面) 53, 59, 62, 83, 131, 132, 174
사직단(社稷壇) 58, 74
사직사(社稷祠) 58, 59
사찰(寺刹) 59
산천(山川) 46
삼율(三栗) 47, 51, 81
삼천(三川) 46
상대(上臺) 50
상시연(上矢淵) 48
상원굴(上元窟) 49
상원사(上院寺) 60, 166
상한교(上漢橋) 61, 66
생원(生員) 합격자 118
서거정(徐居正) 46, 148, 186
서동대왕(薯童大王) 47, 61, 85, 171
서울 40, 73, 116, 163, 167, 183, 187, 211, 212
서익(徐益) 110
서적 목판[書板] 99
서적(書籍) 99
석굴(石窟) 49
석문(石門) 49
석장동(石檣洞) 64
선무청(選武廳) 56
선화부인(善花夫人) 59
성당창(聖堂倉) 71, 81
성삼문(成三問) 225
성씨(姓氏) 43
성임(成任) 183
성혼(成渾) 214
성황사(城隍祠) 59
소건(蘇建) 119, 121, 125, 126, 129
소경문(蘇慶門) 120
소경정(蘇景鼎) 222
소계성(蘇啓盛) 115
소계원(蘇啓遠) 115
소계흥(蘇啓興) 116, 120, 126
소광진(蘇光震) 108, 113, 120, 126, 134, 139
소국민(蘇國民) 129
소대진(蘇大晉) 122
소덕기(蘇德器) 134
소덕항(蘇德恒) 118
소동도(蘇東道) 58, 109, 113, 121, 125, 127, 139, 159, 169, 174
소동명(蘇東鳴) 121, 126, 170, 171, 185, 188, 189, 190, 203
소동헌(蘇東獻) 129
소두산(蘇斗山) 109, 113, 121, 126, 137, 174, 175, 214
소련(蘇連) 114
소만선(蘇萬善) 125

소명국(蘇鳴國) 165, 166
소명원(蘇鳴遠) 115
소문진(蘇文震) 115
소민선(蘇敏善) 120, 125
소봉(蘇逢) 108, 112, 115, 119, 120, 125, 139
소봉선(蘇奉善) 119
소사원(蘇泗源) 113, 120, 126
소산준(蘇山濬) 116
소산해(蘇山海) 116
소상겸(蘇尙謙) 126
소상기(蘇相琦) 129
소성(蘇珹) 116
소성문(蘇聖門) 120
소세검(蘇世儉) 110, 119, 124
소세공(蘇世恭) 109, 119, 124
소세득(蘇世得) 108, 114, 116, 124, 125, 128
소세량(蘇世良) 57,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8, 119, 125, 139, 158, 159
소세양(蘇世讓) 44, 49, 56, 57, 107, 112, 118, 119, 124, 139, 149, 158, 159, 160, 161, 162, 163, 172, 173, 176, 178, 184, 191, 193, 194, 196, 198, 201, 202, 204, 210
소세온(蘇世溫) 113, 119, 124
소수(蘇遂) 124, 139
소순(蘇巡) 119, 125
소여형(蘇汝衡) 115
소엽(蘇曄) 119
소영복(蘇永福) 48, 57, 108, 120, 125, 164, 165, 166, 167, 168, 183, 188, 200, 202
소윤원(蘇潤源) 125
소응선(蘇膺善) 125
소자파(蘇自坡) 110, 123, 138
소재술(蘇再述) 117
소적(蘇適) 113, 124
소정진(蘇貞震) 120, 125
소종선(蘇宗善) 119
소지(蘇遲) 119
소진문(蘇振門) 120
소택선(蘇擇善) 125
소통(蘇通) 124
소해(蘇邂) 119, 124
소행진(蘇行震) 128
소현도(蘇顯道) 123
소형진(蘇亨震) 119
소혜(蘇蕙) 115, 126
소호선(蘇好善) 115, 125
소후산(蘇后山) 127
소후석(蘇厚錫) 121
송광록(宋光祿) 186
송사윤(宋思胤) 114
송설체(松雪體) 108, 163
송시도(宋時燾) 54, 55, 106, 213
송시열(宋時烈) 57, 109, 139, 169, 210
송씨(宋氏) 138
송을개(宋乙開) 171, 172, 203
송준길(宋浚吉) 109, 175
송춘대(送春臺) 49
수공업자[工匠] 93
수백암(水柏菴) 52, 61
수운헌(水雲軒) 176
시다산(施茶山) 47
신광한(申光漢) 161
신돈(辛旽) 158
신명한(申鳴漢) 65

신방교(新坊橋) 62
신수윤(辛壽胤) 120
신우(辛禑) 153, 154
신응구(申應榘) 165
심집(沈潗) 65, 106
쌍릉(雙陵) 138, 150
쌍봉(雙峯) 201

ㅇ

아름다운 경치[佳景] 49
안덕인(安德仁) 164
안승(安勝) 62, 146, 222
약재(藥材) 52, 72, 90
양공준(楊公俊) 119
양사헌(楊士獻) 119, 120
양시우(楊時遇) 113, 120, 139
양신거(楊莘擧) 117
양여력(楊汝櫟) 120
양진수(楊震燧) 123
양촌대(陽村臺) 49
양홍(楊洪) 112, 113, 119
양희(梁喜) 105
어사적(魚史績) 180
여단(厲壇) 59, 74
여산(礪山) 40, 42, 43, 46, 106, 173, 211
여산진(礪山鎭) 41
여회제(呂誨齊) 121
연못[池塘] 85
연산(連山) 220
열녀(烈女) 135
영둔(營屯) 82
영춘대(迎春臺) 49
영혈사(靈穴寺) 61
오경상(吳景祥) 118
오경서(吳景瑞) 118
오경홍(吳慶弘) 117
오금사(五金寺) 61, 85, 138
오금산(五金山) 47, 171
오금암(五金菴) 191
오두흥(吳斗興) 117
오서후(吳瑞垕) 132
오세영(吳世英) 118
오세웅(吳世雄) 118
오씨(吳氏) 135
오언일(吳彦一) 120
오윤주(吳允周) 117
오응남(吳應男) 118
오응뢰(吳應雷) 118
오응상(吳應祥) 118
오응철(吳應哲) 116
오응필(吳應弼) 116
오응현(吳應賢) 116
오정달(吳廷達) 116
오정룡(吳廷龍) 116
오충갑(吳忠甲) 120
옥구(沃溝) 42
온조(溫祚) 147, 148, 152
왕궁 우물[王宮井] 64
왕궁정(王宮井) 52
왕궁탑(王宮塔) 64, 196
왕궁터[王宮坪] 63
요역(徭役) 78
용안현(龍安縣) 40
용화산(龍華山) 46, 47, 48, 59, 60, 62, 63, 149, 182, 189, 191, 194, 205
우곡성(牛谷城) 145
우단정(雩壇井) 52

우물[泉井] 52
원교(院橋) 62
원우(院宇) 59
위례성(慰禮城) 148, 152
위만(衛滿) 39, 143, 147, 149, 205
위봉산성(威鳳山城) 72, 91, 99
유공작(柳公綽) 163
유림(儒林) 66
유보(柳寶) 153
유속(柳涑) 116
유승춘(柳承春) 129
유씨(柳氏) 136
유애비(遺愛碑) 65
윤보은(尹輔殷) 114, 121, 122
윤씨(尹氏) 137
윤자임(尹自任) 159
윤조원(尹調元) 170, 171
윤지요(尹志堯) 122
윤책(尹策) 120, 127
윤필은(尹弼殷) 113, 121
율촌면(栗村面) 53, 62, 83, 94
은선암(隱仙菴) 61, 191
음사(蔭仕) 123
이경전(李慶全) 200
이계(李棨) 116
이공수(李公遂) 57, 107, 155, 156, 157, 184, 219
이공저(李公著) 121
이광한(李光漢) 122
이국신(李國信) 206
이귀(李貴) 111, 121, 126, 127, 133
이극돈(李克墩) 159
이기설(李基卨) 168
이기한(李起漢) 114, 121, 127
이덕방(李德芳) 115
이덕형(李德泂) 184
이도재(李道栽) 117
이동백(李東白) 122
이만저(李曼著) 121, 136
이명저(李明著) 122, 127
이민장(李敏樟) 130
이박(李博) 126, 127
이발(李潑) 122
이보(李寶) 126, 127, 128
이봉성(李鳳成) 131
이사원(李思遠) 133
이색(李穡) 154, 155, 157
이석저(李碩著) 127
이석형(李石亨) 127, 224, 225
이수(李琇) 133
이순증(李順曾) 206
이시달(李時達) 126
이시담(李時聃) 121, 126
이씨(李氏) 136, 137
이약해(李若海) 57, 64, 110
이언적(李彦迪) 107, 158
이여적(李汝迪) 118
이영(李榮) 118
이영진(李永進) 117
이오(李悟) 121, 126
이위(李蔿) 122
이위한(李衛漢) 121
이윤저(李允著) 122
이은(李瑿) 116, 121
이이(李珥) 214
이인현(李仁賢) 55, 105, 179, 180, 210
이재항(李載恒) 118
이재화(李載華) 122
이정기(李廷夔) 123
이정영(李廷永) 117

이조이[李召史] 135
이주(李湊) 106
이준(李俊) 117
이중영(李重榮) 122
이지복(李枝福) 117
이지윤(李祉胤) 122
이징(李澄) 126
이태저(李泰著) 123
이필(李怭) 127
이필저(李必著) 116
이행(李荇) 136, 138, 161
이행검(李行儉) 106, 154
이홍주(李弘胄) 168
이후원(李厚源) 65, 105, 173
이희원(李禧遠) 118
이희의(李喜儀) 117
이희증(李希曾) 159
익산(益山) 39, 46, 48, 106, 118, 148, 164, 211, 220, 222
익산지(益山誌) 222
익산회고(益山懷古) 181, 186
익주(益州) 39, 147, 154, 185, 215
인물(人物) 106
임기(林 46
임기(林夔) 184
임득무(林得茂) 118
임중연(林仲沇) 153
임태중(任泰中) 123
임피(臨陂) 40, 42
입석(立石) 65
입석교(立石橋) 61
입학도설(入學圖說) 110

ㅈ

자오정(自娛亭) 57, 176
작청(作廳) 56, 74
장군봉(將軍峯) 47, 50
장선엄(張善淹) 185
장시(場市) 93
장연(長淵) 48, 202
장연교(長淵橋) 62
저자문연(猪子門淵) 48
전기(全琦) 118
전주부(全州府) 40, 42
전주진관(全州鎭管) 41
정경세(鄭經世) 109, 167
정관재(靜觀齋) 176
정방길(鄭方吉) 153
정사룡(鄭士龍) 161
정중기(鄭重基) 54
제산(濟山) 46
제석면(帝石面) 47, 53, 63, 65, 82, 84, 94, 130, 131, 133, 138, 139
제언(堤堰) 82
조명우(趙明瑀) 115
조세(租稅) 76
조정순(趙正純) 65
조헌(趙憲) 109, 167
주근(周勤) 145
주지번(朱之蕃) 56
죽사(竹寺) 60, 61
준암(罇巖) 64
중포(中鋪) 46
지명법사(知命法師) 59, 60
지석(支石) 65, 86
지석면(支石面) 48, 53, 62, 65, 82, 84, 94

진관(鎭管) 41
진사(進士) 합격자 118
진상(進上) 87
진여기(陳汝起) 117
진영(鎭營) 42
진의귀(陳義貴) 105

ㅊ

창고 곡식[倉穀] 92
창고 터[倉坪] 64
창고(倉庫) 91
천정암(天定菴) 61
청심당(淸心堂) 176
청심루(淸心樓) 56, 185, 204, 205
청심루기(淸心樓記) 203
초삼평교(草三坪橋) 61
최가항(崔可恒) 123
최간(崔侃) 115, 128, 130
최건(崔健) 115, 128, 130
최경(崔警) 115
최급(崔岌) 115
최덕원(崔德元) 174
최덕지(崔德之) 105
최도(崔濤) 117
최명룡(崔命龍) 165
최상훈(崔尙勳) 116
최세룡(崔世龍) 117
최유(崔濡) 155
최이겸(崔以謙) 117
최일중(崔日中) 117
최자숙(崔自淑) 111, 118
최정달(崔廷達) 117
최창하(崔昌夏) 134
최치원(崔致遠) 147
최홍준(崔弘俊) 117
춘포(春浦) 46, 86, 132, 135, 205, 220
춘포면(春浦面) 47, 48, 53, 61, 82, 84, 85
충숙왕(忠肅王) 153
충신(忠臣) 127

ㅌ

태허정(太虛亭) 56, 57, 164, 173, 176
통인청(通引廳) 56
퇴휴당(退休堂) 49, 57, 176, 197, 198, 199, 200, 201
투구바위(兜巖) 50
특산물(特産物) 50

ㅍ

파수(把守) 42
판교(板橋) 62
판교천(板橋川) 194
팔봉산(八峯山) 47
평작(坪作) 86
풍속(風俗) 44
풍천각(風泉閣) 176

ㅎ

하언(夏言) 162
하한교(下漢橋) 61
학교(學校) 57
한백겸(韓百謙) 109, 110, 147, 167
한영(韓永) 206
한이도(韓以道) 117
한전(韓㙫) 114

한정(寒井) 52
함열(咸悅) 40, 43, 46, 174
향교(鄕校) 57, 58, 66, 74, 101, 170, 177
향리기언(鄕里記言) 154
향임(鄕任) 75
향청(鄕廳) 55, 74, 92
형승(形勝) 46
형옥(刑獄) 56
호강왕(虎康王) 153
호구(戶口) 66
홍석보(洪錫輔) 66, 225
홍섬(洪暹) 139, 160
홍씨(洪氏) 137
화목(花木) 51
화산서원(華山書院) 57, 66, 74, 80, 102, 214
화암서원(華巖書院) 57, 66, 74, 103, 107, 108, 110
화찰(華察) 162, 197
황각동(黃閣洞) 49
황기필(黃耆弼) 206
황도복(黃道復) 122
황명세(黃名世) 120, 121
황산(黃山) 220
황우(黃祐) 112
황응침(黃應琛) 112, 120
황익한(黃翼漢) 122
황자후(黃自厚) 121, 122, 126
황택(黃澤) 120
황후 기씨(奇氏) 39, 156
횡탄(橫灘) 48, 220
효자(孝子) 129
후조선(後朝鮮) 39, 138, 150, 204, 222
훈도(訓導) 41, 165
훈지당(壎篪堂) 56, 85
훈지당기(壎篪堂記) 210
흑석부곡(黑石部曲) 62
흑석원(黑石院) 59
흥학당(興學堂) 58

금마지 강독회 연구진

이의강(원광대학교 교수, 한문번역연구소 소장)
권익산(원광여자중학교 교사)
김두헌(군산 중앙고등학교 교사)
문이화(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연구원)
안선호(원광대학교 교수)
이재형(원광보건대학교 교수)
이택회(익산교원향토문화연구회장)
임홍락(전 익산고등학교 교장)
정덕주(서해대학교 교수)
홍승재(원광대학교 교수)

금마지

인쇄 2019년 3월 20일
발행 2019년 4월 1일
지은이 남태보
옮긴이 이의강 외
펴낸곳 익산시(www.iksan.go.kr)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32길 1
편집인쇄 흐름(www.heureum.com)

ⓒ 익산시, 2019

비매품

ISBN 979-11-966658-0-7 93910

*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익산시의 허락없이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췌하는 것을 금합니다.